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txt

제목: 차병원 일가 무허가 세포치료제 투여  
날짜: 20161229  
기자: 김유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29191243001  
ID: 01100701.20161229191243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인 차바이오텍이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만들어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과 가족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당차병원에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차바이오텍 최모(60)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차바이오텍은 차 회장과 부인, 딸로부터 혈액을 채취해 세포를 분리·배양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세포치료제(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했다. 자가살해세포란 선천적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로, 자기세포는 죽이지 않고 암 세포나 바이러스 등 비정상적인 세포를 인지해 죽이는 역할을 한다. 현행법상 세포치료제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분당차병원의 의사 이모씨는 차바이오텍으로부터 공급받은 무허가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분당차병원 내 진료실에서 차 회장과 가족에게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분당차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무허가 의약품을 투여한 의사는 의료법상 ‘비도덕적 의료행위’ 규정에 따라 1개월의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차병원그룹은 박근혜정부에서 각종 수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차 회장은 산모들이 연구목적으로 기증한 제대혈(탯줄혈액)을 미용·보양을 위해 불법 시술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김유나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txt

제목: 전북대 염증질환 조기 발견·치료 원천기술 확보  
날짜: 20161229  
기자: 김동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29132016001  
ID: 01100701.20161229132016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전북대는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통한 급성 감염과 다양한 염증질환을 조기 발견·치료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의 연구 과제를 받아 고려대 전태훈 교수(생명과학대학)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자가포식이 염증반응 완화에 어떻게 관여하는 지를 밝혀냈다. 자가포식은 세포 내 손상된 단백질이나 소기관들을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최근에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변성 질환뿐만 아니라 암, 당뇨, 심혈관계 질환, 염증반응 등 다양한 병리학적 현상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대식세포 표면에서 발현하는 Axl 수용체가 리간드(ligand)인 Gas6와의 결합을 통해 자가포식을 유발하며, 유도된 자가포식은 NLRP3 다단백 염증복합체의 활성을 저해해 전염증성 사이토카인(cytokine)인 IL-1β와 IL-18의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염증반응을 완화시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또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동물 모델을 이용해 Axl 수용체가 없을 때 더욱 심각한 급성 간 손상 증세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국제 저명 학술지인 ‘오토파지’ 12월호에 게재됐다. 이학교 단장은 “<span class='quot0'>염증반응은 특정 조직의 점진적인 손상을 유발하므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가포식과 염증반응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연구결과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급성 감염을 비롯한 다양한 염증질환 완화와 치료 연구의 원천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은 농촌진흥청의 ‘차세대바이오그린 21’에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 경제가축 유전체 해독과 경제형질육성 분석기술을 확보해 신동물생명산업 실용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txt

제목: 신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9가지 달콤한 과일  
날짜: 20161212  
기자: 박윤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12165928001  
ID: 01100701.20161212165928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신장은 우리 몸속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여과장치'다. 강낭콩 모양의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는 기능과 체내 수분량과 전해질, 산성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기능을 한다. 우리 몸에 흡수되는 독소들은 신장을 통해 걸러진다. 인체의 여과장치인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몸속에 독소와 노폐물이 그대로 쌓여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나 신장은 그 기능이 현격히 저하될 때까지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건강이 악화하기 전에 신장에 좋은 음식을 미리 챙겨 먹는 습관은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신장에 좋은 9가지 과일을 미국 온라인매체 위티피드가 소개했다. 1. 사과 사과는 섬유질이 많고 소염 성질을 갖고 있다. 주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다. 평상시 혈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암이나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사과는 그대로 깎아 먹거나 주스 형태로 갈아 마셔도 상관없다. 2. 크랜베리 아메리카대륙 원주민들의 수퍼과일로 잘 알려진 크랜베리는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가장 탁월한 과일이다. 크랜베리에 함유된 프로안토시아니딘(proanthocyanidin) 성분은 대장균과 박테리아 유착 방지 특성이 있다. 박테리아가 방광의 세포벽에 붙는 것을 방해하고 세포 바깥쪽의 섬모를 자극해 대장균이 방광 벽에 유착되지 못하게 한다. 초콜릿 대신 달콤한 크랜베리를 먹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3. 블루베리 세계 10대 수퍼푸드 중 하나인 블루베리에는 망간, 아연, 미네랄, 비타민C, E, 엽산, 섬유소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 섬유소들은 염증을 완화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강하게 만든다. 또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페놀로 가득 차 있어 몸의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블루베리는 생과로 먹으면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건조하거나 냉동 보관한 후 스무디를 만들어 먹으면 일년 내내 즐길 수 있다. 4. 라즈베리 우리나라에선 케이크나 음료수, 아이스크림이나 잼 형태로 많이 소비되는 과일이다. 라즈베리 속에는 비타민C, 비타민B, 엽산 및 망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몸에 좋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몸속 독소와 유해 세균을 배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다른 과일에 비해 심장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다. 5. 체리 체리에는 다량의 항산화 물질과 식물성 화학 물질이 들어있어 심장과 신장을 보호한다. 특히나 신장에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인 염증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과일로 꼽힌다. 체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아스피린보다 10배나 높은 소염효과가 있어 통증을 줄여주는 효능도 뛰어나다. 또 체리 속 케르세틴(Quercetin)과 안토시아닌(Anthocyanin) 성분은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6. 딸기 딸기에는 비타민C와 망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딸기의 아름다운 붉은빛은 몸속 세포를 보호하고 산화를 방지하는 안토시아닌이 다량 함유되었다는 증거다. 이 성분은 몸속 활성 산소로부터 혈관을 보호해주며 혈전 생성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계 질환이나 동맥경화에도 좋다. 7. 적포도 현대인의 질병 중 약 90%는 활성산소와 관련되어 있다. 암을 비롯해 동맥경화증,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과 간염, 아토피 등이 있는데 이런 활성산소를 물리치는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적포도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이는 한 잔의 와인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다. 플라보노이드에는 혈관의 근육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신장의 기능이 향상되도록 도와준다. 8. 수박 수박을 붉게 만드는 색소 리코펜은 체내에 쌓인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물질이다. 혈압을 낮춰주고 항암작용이 있어 암 예방에도 좋다. 수분이 풍부한 수박에는 칼륨과 구연산이 풍부해 이뇨작용을 도와 몸의 부기를 빼주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박의 효능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선 아침 식사 전 즙으로 먹으면 효과가 더 배가된다. 9. 파파야 달콤한 맛으로 일명 '천사의 과일'이라 불리는 파파야는 비타민C와 카로티노이드 등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이다. 파파야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은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막아준다. 비타민C, 비타민A가 풍부해 피부 탄력을 높이고 빈혈이나 기미, 주근깨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txt

제목: 당신이 단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6가지 신호  
날짜: 20161206  
기자: 김지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06152101001  
ID: 01100701.20161206152101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죽게 되고 이것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유효 기한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방식과 환경적 요인들은 우리를 죽음에 더 빨리 이르게 할 수는 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치트시트가 저승사자가 당신을 쫓아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 6가지를 소개했다. 1. 비만 당신이 만약 60대, 70대 또는 그 이후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진지하게 당신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 이는 BMI가 정상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만은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몸을 파괴할 수 있다. 과체중은 암, 심장병과 함께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힌다. 건강한 노후를 원한다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라. 2. 손발톱 상태 손톱은 건강상태를 온전히 보여준다. 만약 당신의 손발톱에서 반점, 이상한 선, 변색 등이 발견되고 겉보기에도 부서질 것 같은 낌새가 보인다면? 당신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 당신의 손발톱을 자세히 보고 어떤 것이든 이상한 것이 두드러져 보인다면 의사를 찾아라. 3. 후각 약화 나이를 먹을수록 후각은 약화된다. 우리는 시각과 청각에 문제가 있는 노인을 봐왔다. 이와 비슷하게 후각도 잃을 수 있다. 나쁜 소식은 후각 손실은 빠른 죽음과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냄새 맡는 능력을 잃는 것은 유전자 구성이 바뀌어 활력을 급격히 잃는 것을 의미한다. 후각이 약해졌다면, 죽음이 5년 이내로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4. 악력 저하 의아하겠지만 악력은 죽음과 관련이 있다. 악력은 심장 건강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악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우리의 몸에 피해를 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5. 교육 기간과 성과 당신이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는지도 수명과 관련이 있다. 학교를 오래 다니거나 더 높은 학위를 갖고 있으면 당신은 더 오래 살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당신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삶을 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당신이 좀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살 여유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장수와 연관이 있다. 6. 입 냄새 못생긴 손톱처럼 입 냄새도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물론 당신이 저녁 식사로 마늘, 양파 등을 먹어 냄새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가 아닌 만성적인 입 냄새는 완전히 다른 여러 가지 문제의 불씨가 된다. 입 냄새는 누군가가 죽음으로 이를 수 있는 암 또는 다른 치명적 감염병을 앓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김지연 기자 kimjiyeonc@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txt

제목: 1년간 고기를 먹지 않으면 일어나는 몸의 변화  
날짜: 20161203  
기자: 박윤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03130221002  
ID: 01100701.2016120313022100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사람들은 많은 결심을 한다. 특히 체중 감량 혹은 건강한 삶을 위해 숱한 다짐과 노력을 한다. 하지만 친구들과 술자리와 달콤한 초콜릿을 포기할 수 없어 번번이 실패한다.  하지만 고기 먹는 것만 포기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고기를 끊는 것이 건강에 어떤 이점을 주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팽팽하지만, 식단에서 고기를 제외함으로써 얻게 되는 건강상의 이점을 언급한 연구는 많다.   영국 인디펜던트가 '1년간 육류 섭취를 끊으면 나타나는 몸의 변화' 7가지를 소개했다. 1. 체중이 줄어든다 평균적으로 1년에 10파운드(약 4.53kg)의 체중을 줄일 수 있다. 조지워싱턴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연구팀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실험한 결과 고기를 끊으면 섭취 칼로리를 줄이거나 운동을 늘리지 않아도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2013년 또 다른 연구에서는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승려들의 체질량지수(BMI)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심장 질환 위험이 줄어든다 채식 위주의 식단은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춘다. 미국 약학 저널 '메디신 사이언스'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14억 명 이상이 과체중이며 당뇨병, 심장병, 관절염과 특정 암에 걸릴 위험성을 갖고 있다. 영양학자 수잔 레빈은 "과체중인 경우 체중의 5~10%만 줄여도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서 "우리가 육식을 끊거나 줄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3. 당뇨병 위험이 줄어든다 국제 학술지 (PLOS Medicine)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매주 고기를 즐기는 사람은 채식주의자보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9% 높다. 특히 소시지 등 가공육을 섭취한 사람들은 당뇨병 발병 가능성이 38%까지 높아졌다. 채식 위주의 식단을 섭취할 경우 2형 당뇨병 발병 위험률이 34% 줄어들었으며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 마그네슘 등 미량 영양소의 섭취 증가로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입증됐다. 4. 암 발병률을 줄인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소시지·햄·핫도그 등 가공된 고기를 담배나 석면처럼 발암 위험성이 큰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붉은 고기의 섭취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5. 장내 세균 증식 뉴욕 시립대학교 (City University)의 한 연구에 따르면, 채식은 건강한 장내 세균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 6. 몸의 산성화를 막는다 육류를 지나치게 즐기면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게 돼 몸이 산성화되고 알레르기 질환,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다. 또 육식으로 인한 다량의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축적돼 동맥경화, 고혈압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육류는 채소보다 세 배나 많은 시간을 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딱딱한 변이 장벽에 달라붙어 대장염이나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 7. 생활에 활력이 생긴다 미국의 채식주의자 마라토너 매트 프래지어(Matt Frazier)는 자신의 저서 ‘노 미트 애슬릿(No Meat Athlete)’에서 "채식 위주의 식단을 고집한 이후 체중이 감소하였으며 더 빨리 달리게 됐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txt

제목: 의사·변호사·회계사 … 전문 직종도 종말 온다  
날짜: 20161203  
기자: 정승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03030427001  
ID: 01100701.20161203030427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리처드 서스킨드, 대니얼 서스킨드 공저/위대선 옮김/1만8000원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직의 미래/리처드 서스킨드, 대니얼 서스킨드 공저/위대선 옮김/1만8000원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다. 캘리포니아대학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한 약국에서는 로봇 약사가 홀로 일하며 200만 건 이상의 처방전을 실수 없이 조제했다. 영국 기업의 세무신고를 처리하는 딜로이트의 세무시스템은 개인 세무 전문가보다 더 우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세무시스템은 250명이 넘는 세무 전문가의 전문성으로 정보를 정제해낸다. IBM의 인공지능 시스템인 왓슨은 전략 문서를 탐색하고, 회의에서 나눈 대화를 듣고 요약하며, 경영조언을 한다. 여러 직업 중에서도 의사,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기자, 건축가 등 전문직은 그 어느 직종보다 자신의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와 독점권을 누렸다. 그러나 이제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앞으로 전문가의 작업은 상당 부분 시스템 작업으로 대체될 것이다. 전문직 영역인 복잡 미묘한 작업들이 더 작은 부속작업들로 분해되어 시스템화되기 때문이다. 기계는 인간이 작업하거나 사고하는 방식을 모방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인간보다 높은 효율을 나타낼 것이다. 왓슨이나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간의 사고체계가 아니다. 보다 강력한 정보 처리능력을 바탕으로 한 무차별 대입법, 검색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성과를 낼 것이다. 예컨대 외료 분야에서 왓슨은 암 진단을 돕고 치료 계획을 제시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법을 고안하는 데도 쓰인다. 의사 한 명이 2014년 새로 출간된 의학서적 중 2%만 읽으려 해도 매일 21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의학 관련 논문은 평균 41초마다 하나씩 출간된다. 왓슨은 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해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한다. 진단 지연, 누락, 오진율이 10~20%에 이르는 현재의 의료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저자들은 “<span class='quot0'>따라서 기계와 인간의 경쟁은 무의미해지며, 인간은 기계와 새롭게 협업하고 업무를 분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span>”고 주장한다. 영국의 산업 컨설팅 전문가인 저자들은 10여 개 전문직종의 변화상을 분석해 전문직 혁명의 흐름과 대응책을 풀이한다. 아울러 전문직의 종말을 알리는 변화 패턴을 분석해내고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의 역량과 경쟁력을 풀어낸다. 정승욱 선임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txt

제목: 한국인 표준 게놈지도 ‘코레프’ 완성됐다  
날짜: 20161124  
기자: 이보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24235451001  
ID: 01100701.20161124235451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인이 자주 걸리는 질병의 유전적 원인에 대한 연구를 보다 정확하게 도와줄 한국인 표준 게놈(genome·유전체)지도가 나왔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게놈연구소(소장 박종화)는 한국인 표준 게놈지도 ‘코레프(KOREF: KORean REFerence)’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24일 공개했다. 코레프는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41명(남자 26명·여자 15명)의 게놈 정보를 통합·분석해 만들어졌다. 우선 연구팀은 한국인 1명의 30억개의 염기서열을 정밀하게 분석해 게놈지도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40명의 유전체 데이터에서 개인마다 차이가 나는 염기서열의 차이를 뽑아냈다. 미리 만들어둔 한 명의 정밀 게놈지도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한국인에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유전체 염기서열로 표준 게놈지도를 완성했다. 한국인이라는 생물종의 대표 유전체지도를 만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인구집단을 대표하는 게놈지도를 만든 것은 처음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코레프 제작에 활용된 한국인 41명의 지역 분포. UNIST 제공인간 게놈지도는 2003년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 완성됐다. 하지만 백인 중심의 자료여서 인종별 특징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 2009년 중국에서 중국인 1명과 흑인 1명의 게놈지도 초안을 발표했지만, 완성도와 정확도가 떨어져 활용하기 어려웠다. 백인 중심의 게놈지도와 한국인의 유전체를 비교하면 염기서열 중 유전체가 변이된 부분은 400만개가 나타난다. 하지만 코레프와 비교하면 이 차이는 300만개로 줄어든다. 100만개의 게놈은 인종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암이나 유전질환이 발생했을 때 분석해야 할 게놈의 숫자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분석속도를 단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코레프가 제작되면서 기존에 알 수 없었던 민족 간 게놈 차이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염색체 8번은 한국인 표준 게놈에선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기존 인간 표준 게놈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코레프를 통해 한국인이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 등을 가늠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게놈지도 작성을 대중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인간 표준 게놈지도는 13년간 3조원의 연구비가 투입됐지만, 이번 연구에 투입된 연구비는 약 20억원에 불과하다. 정확도 역시 뛰어나다. 코레프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참조표준센터의 표준 게놈지도로 등록됐다. 병원이나 제약사의 질병 연구나 신약 개발 등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txt

제목: 차움병원 "김기춘 지난해 3월 일본서 면역세포치료, 줄기세포치료 아냐"  
날짜: 20161118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18143056001  
ID: 01100701.20161118143056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순실씨가 이용한 차움병원에서 줄기세포치료를 받았다는 말에 대해 차움병원측은 "국내가 아닌 일본차병원(일본TCC)에서 면역세포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면역세포치료는 주로 암 치료나 면역력 증강에 쓰인다. 반면 줄기세포는 '망가진 것을 재건'하는 것이다. 18일 이동모 차움의원 원장은 "김 전 비서실장은 차움이 아닌 일본 차병원에서 면역세포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다른 차병원 관계자도 "김 전 실장이 지난해 3월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시 줄기세포치료 같은 건 받지 않았다"며 "일본에서 면역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 이물질, 바이러스 등에 대항해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NK세포(자연살해세포), T세포, 수지상세포 등이 있다. 면역세포치료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한 뒤 배양하고, 배양한 세포를 다시 암 환자 등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이다. 체내 면역체계 자체를 자극해 암 세포 등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 원장은 김 전 실장이 일본까지 건너가 면역세포치료를 받은 이유에 "국내 약사법이 시판된 면역세포치료제 외에 다른 세포 배양이나 치료는 허가하지 않고 있어 국내서 면역세포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단순히 세포를 채취하고 분리, 세척하는 건 가능하지만 배양은 불법"이라며 "약사법상 세포의 배양 후에는 그걸 약으로 제조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면역세포 배양과 치료 등을 약이 아닌 일종의 '치료행위'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txt

제목: 생체시계·질병 상관 관계 수학으로 규명  
날짜: 20161110  
기자: 임정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10214140040  
ID: 01100701.2016111021414004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뇌속 생체시계는 사람이 24시간 주기에 맞춰 살도록 행동과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세포분열부터 운동 등 다양한 생리 작용에 관여하는 이 생체시계가 교란이 생기면 당뇨나 암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br/> <br/>이에 대항해 유전자 돌연변이를 예방하고 손상을 치료하는 생체물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p53’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암 중 절반 이상은 p53의 손상과 관련됐다. <br/> <br/>이 p53이 인체 내에서 24시간 일정한 주기로 변화하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미국 버지니아공대 칼라 핀키엘스타인 교수 연구팀에 의해 밝혀졌지만 어떤 원리로 생체시계가 p53의 주기 리듬을 만들어내는지는 규명되지 못했다. p53의 조절 시스템이 매우 복잡해 실험만으로 밝혀내긴 어렵기 때문이다. <br/> <br/>카이스트(KAIST) 수리과학과 김재경(32·사진) 교수가 미분방정식으로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했다. 김 교수는 시행착오에 기반한 전통적 실험 대신 수리모델링을 이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 실험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생체시계의 핵심 역할을 하는 물질인 Period2 단백질이 p53의 생체리듬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br/> <br/>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0.txt

제목: '만능항암' 기술 구현 임상사례 연구 공개  
날짜: 20161104  
기자: 송은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04173120415  
ID: 01100701.2016110417312041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만능 항암기술을 임상적으로 구현한 사례연구 결과가 지난 3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미국암학회에서 공개됐다. <br/> <br/>싱가포르 자일로닉스사, 청심국제병원 등 4개 기관의 협력으로 진행된 이번 임상 연구에서는 특정 보조식품 유형의 아연제제를 단독으로 사용한 결과 약물내성형 말기위암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br/>그간 학계에서는 이론적으로 에너지 소진 방식을 이용한 괴사방식의 항암기술이 항내성 만능항암효과를 비롯해 면역집중 효과를 통한 면역치료효과 강화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돼 왔다. 연구진은 보조식품 등급의 아연-PGA의 단순 복합물질을 이용해 임상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고령으로 인한 당뇨, 고혈압을 수반한 내성형 3차 재발 위암 사례에서 뚜렷한 위암조직들의 괴사현상이 보고됐다고 연구진은 발표했다. 이는 CEA 수치 등의 암 수치 개선효과와 일치했다. 연구진은 또 수술 및 항암치료를 거부한 초기 위암환자에게도 위암조직의 뚜렷한 괴사현상 및 수치개선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br/> <br/>연구를 담당한 청심국제병원의 노리히사 요코 가정의학과 과장은 “<span class='quot0'>관찰된 위암조직의 괴사가 일어나는 동안 어떠한 부작용이나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고, 아연보조식품을 통해 말기암 사례에서 이러한 효과를 본 점이 놀랍다</span>”고 말했다. <br/> <br/>송은아 기자 se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1.txt

제목: 풍자·해학 담은 비판글… SNS·인터넷 호응  
날짜: 20161102  
기자: 김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02194311321  
ID: 01100701.2016110219431132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분노 표출에서 해학과 풍자로 옮아가고 있다. 확산하는 시국선언은 분야·이슈별로 체계화하며 규탄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br/> <br/>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에는 최순실 사태에 대한 ‘풍자 열풍’이 한창이었다.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현 시국을 반영한 패러디를 끼워넣고 있으며 관련 게임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 <br/> <br/>최근 고려대 대나무숲 페이스북에 올라온 ‘박공주헌정시’가 대표적이다. 해석하면 ‘가정을 사랑하고 국가를 단정히 함을 삼간다면 그 어찌 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오’ 등의 내용이지만 독음을 살펴보면 ‘근혜가결국 해내시어타 나라골이참 잘도라간다 이 정도일 준 예상모택다’라는 별도의 풍자글이 된다. 연세대 대나무숲 페이스북에 올라온 ‘박 대통령이 목사 또는 무당으로 일컬어지는 최태민씨의 육영수 여사 성대모사에 속아 최씨 일가를 의지하게 됐다’는 내용의 ‘공주전’도 큰 호응을 얻었다. <br/> <br/>안드로이드폰용 스마트폰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는 ‘순실이 닭 키우기’와 ‘순실런’, ‘순siri(시리)’ 등의 게임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게임하고 암이 나았다’, ‘우주의 기운을 모아 게임을 깔았다’며 높은 평점을 부여했다. <br/> <br/>최씨가 검찰에 출석하며 신발 한 짝이 벗겨진 것에 대해 영화를 패러디한 ‘악마는 프라다를 신는다’ 포스터가 인터넷상에서 연일 공유 물결을 탔고 각종 오락·예능 프로그램도 자막이나 짧은 화면으로 ‘오방색’, ‘승마’ 등에 대한 풍자에 합류했다. <br/> <br/>이에 대해 중앙대 이병훈 교수(사회학)는 “<span class='quot0'>젊은이들이 그들만의 신선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많은 사람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시국선언도 변화 양상이 엿보인다. 장애인·환경·역사 등 분야나 이슈별로 연대·체계화하며 목소리를 가다듬는 모습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span class='quot1'>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도 최순실이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span>”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br/> <br/>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정부가 장애인 복지재정은 삭감·동결하고 최씨에게 각종 이권을 몰아준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br/> <br/>서울대·부산대·서강대 등 17개 대학의 사회과학대 학생 100여명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사퇴’와 ‘비선실세 전횡 철저 규명’ 등의 구호를 외쳤다. <br/> <br/>경희대 김민전 교수(후마니타스 칼리지)는 “<span class='quot2'>1980년대에나 볼 수 있던 학교 간 연대 등이 다시 나타났다</span>”며 “<span class='quot2'>민주주의 질서가 무너진 것에 대한 총체적인 분노가 다양한 통로로 표출되는 것</span>”이라고 평가했다. <br/> <br/>김준영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2.txt

제목: 암세포만 골라 잡는 ‘나노로봇’ 개발  
날짜: 20161101  
기자: 정지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01215616406  
ID: 01100701.2016110121561640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환자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초음파로 원격 조종해 죽이는 ‘나노로봇’(10억분의 1m 크기의 초미세 로봇)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br/> <br/>미래창조과학부는 성균관대 박재형(사진) 교수팀이 이런 나노로봇을 제작해 생쥐 실험에서 종양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의학계에서는 차세대 비수술 암치료법으로 ‘광역동치료’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빛을 받으면 항암 기능이 생기는 화학물질을 환자 몸에 주입하고 빛을 쬐어주는 기술이다. 다만 암 퇴치의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빛이 닿을 수 있는 부위에서만 효력이 생겨, 몸속 깊숙한 곳에 있는 간·췌장·신장 등의 암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br/> <br/>박 교수팀은 초음파에 반응해 암을 치료하는 금·티타늄 재질의 나노로봇을 만들었다. 초음파는 침투력이 강해 몸속 곳곳에 닿을 수 있다. 이 나노로봇은 초음파가 닿으면 폭발적으로 ‘활성산소종’이라는 분자를 발생시켜 주변 암세포를 죽게 한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광역동치료는 암세포가 아닌 정상 세포도 해칠 위험이 있었지만, 이번 나노로봇은 정확하게 암을 선별해 공격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3.txt

제목: 청소년 첫 흡연 12.7세… 선진국보다 빠르다  
날짜: 20161030  
기자: 윤지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30212827153  
ID: 01100701.20161030212827153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흡연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은 12.7세에 처음 담배를 피우고 13.6세에는 하루 한 개비 이상 매일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흡연 진입 연령은 유럽, 캐나다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이다. <br/> <br/>30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이슈리포트’에 따르면 담배를 피운 적이 있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첫 흡연 경험 연령은 12.7세로 파악됐다. 캐나다와 호주의 첫 흡연 경험은 각각 13.6세, 15.9세다. <br/> <br/>호주는 2012년 말 세계에서 최초로 ‘담뱃갑 단순 포장 정책’을 도입했다. 담뱃갑에서 담배회사의 로고와 디자인을 없애 담뱃갑을 표준화한 뒤 큰 경고 그림을 넣은 것이다. 그 효과로 전체 흡연율이 2010년 15.1%에서 2013년 12.8%로 떨어졌고 첫 흡연 경험 연령 역시 같은 기간 15.4세에서 15.9세로 높아졌다. 단순화된 담뱃갑이 흡연욕구를 떨어뜨린다는 연구가 잇따르자 프랑스와 영국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br/> <br/>우리나라는 2005년 12.0세에서 2008년 12.7세로 첫 흡연 경험 연령이 올랐으나 그 이후로는 더 늦춰지지 않고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br/> <br/> <br/>단순 호기심을 넘어 매일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나이를 조사하는 ‘흡연 시작 연령’은 2005년 14.1세에서 점차 낮아져 지난해에는 13.6세로 나타났다. 유럽연합(17.6세), 뉴질랜드(17.7세)와 비교했을 때 훨씬 어린 나이에 담배를 습관처럼 피우게 되는 것이다. <br/> <br/>세계보건기구(WHO)도 22개국 성인(20∼34세)을 대상으로 정기 흡연 시작 연령을 조사하는데 중국(19.5세, 남성 기준), 인도(18.3세), 폴란드(17.6세), 브라질(17.1) 등 우리나라 청소년에 비하면 정기 흡연 시작 연령이 늦은 편이다. <br/> <br/>건강증진개발원은 “우리나라 첫 흡연 경험연령은 최근 4년간 정체를 보이고 있고 매일 흡연을 시작한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호기심으로 인한 흡연 진입 시기를 늦추는 것뿐 아니라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담배에 접근하도록 하는 요인과 환경이 무엇인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 <br/>청소년기는 신체·정신적으로 발달이 덜 된 시기이기 때문에 담배로 인해 성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br/> <br/>어려서 흡연을 시작하면 고도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성인이 된 후 금연 성공률도 낮아진다. <br/> <br/>미국 국립암연구소는 18세 이하가 담배를 피우면 유전 인자에 영구적인 변형이 생겨 훗날 담배를 끊더라도 암 발생 위험이 그대로 남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br/> <br/>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흡연 청소년의 우울 증상 발현율이 비흡연 청소년보다 2배 이상 높다는 보고도 있다. <br/> <br/>건강증진개발원은 “공공보건의 측면에서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른 시기에 담배를 경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흡연 시작 연령을 매우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br/> <br/>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4.txt

제목: [이태형의우주여행] 가깝고도 먼 화성 가는 길  
날짜: 20161027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27210750930  
ID: 01100701.2016102721075093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9월 말 미국 테슬러사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2024년쯤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네덜란드의 마스원은 2020년쯤 화성에 정착촌을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여기에는 20만명이 넘는 희망자가 응모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 기고문에서 “<span class='quot0'>미국의 다음 목표는 화성 유인기지 건설이고, 2030년까지 유인탐사선을 보내겠다</span>”고 밝혔다. 과연 10년, 혹은 20년 내에 인간이 화성에 갈 수 있을까. <br/> <br/>화성까지의 여행 중 우주인은 엄청난 우주 방사선에 노출된다. 지구는 자기장이 막아줘 안전하지만 우주공간은 그렇지 못하다. 우주에서 인체에 위험이 되는 방사선은 태양(태양풍)과 태양계 밖(은하우주선)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이다. 방사선 피폭량은 시버트(Sv)라는 단위로 측정하는데 오랜 기간 1시버트(1Sv=1000mSv)의 방사선에 피폭되면 암 발생률이 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미국항공우주국(NASA)은 2012년에 화성 탐사로봇 큐리오시티 로버의 항해기간 동안 방사선 피폭량을 측정했다. 결과는 하루 평균 1.84mSv 정도였다. 1년이면 약 670mSv에 해당한다. 이것은 우주선의 보호막을 뚫고 내부까지 침투한 방사선량이다. 그중 태양에서 온 건 5% 정도고, 대부분은 태양계 밖에서 온 것이다. 이 정도의 피폭량은 5~6일에 한 번씩 CT촬영을 하는 것과 같다. 태양풍에 비해 태양계 밖에서 오는 입자는 에너지가 훨씬 높기에 일반적인 우주선의 보호막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큐리오시티는 화성 표면에서의 방사선량도 측정했다. 하루 피폭량은 약 0.64mSv로 항해 때의 약 3분의 1이다. 500일 정도 화성에 머물면 0.32Sv의 양이다. 지구와 화성은 약 2년 2개월마다 가까워지는데, 이 때문에 우주인은 1년 이상을 화성에 머물러야 한다. 화성까지 6개월, 화성에서 500일, 지구 귀환에 6개월, 이 모든 기간에 약 1.0Sv의 방사선에 노출된다. NASA는 이 자료를 토대로 우주여행 중 방사선 노출 한계를 정하고, 피폭을 막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br/> <br/>문제는 화성에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이다. 화성 대기는 지구의 1%밖에 안 된다. 아폴로 우주선의 지구 귀환 때처럼 낙하산만으로는 우주선을 충분히 감속시킬 수 없다. 역추진로켓을 사용해야 하는데 걸림돌이 연료의 무게다. 2명이 탑승했던 달착륙선이 약 15톤이었는데, 그중 무려 10톤이 연료였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8%로 달보다 2배 이상 크다. 즉 달착륙선보다 강한 로켓과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 화성에서 우주선을 발사할 때도 마찬가지다. 장기간 화성 탐사에 필요한 수십 톤의 식량도 가지고 가야 한다. <br/> <br/>현재 인류는 1톤 이상의 우주선을 화성에 안전하게 착륙시킨 경험이 없다. 지난 19일에도 600kg짜리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표면과 충돌해 실패했다. 사람이 탄 수십 톤의 탐사선을 화성에 안착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NASA는 화성 궤도에 100톤 이상의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고, 여기에서 비축한 연료와 물자를 먼저 내려 보내려 하고 있다. 2028년 화성 우주정거장을 완성하고, 그 10년 후쯤 인간을 화성에 착륙시킨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br/> <br/>이태형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5.txt

제목: '불법주차=간접흡연'... '사이다' 쪽지 SNS에서 인기  
날짜: 20161027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27145848486  
ID: 01100701.20161027145848486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지난 18년 동안 담배는 손도 안댔는데, 당신 때문에 암에 걸리게 생겼다." <br/> <br/>레딧(Reddit)과 임거(Imgur) 등 소셜미디어에서 불법주차를 간접적으로 항의하는 한 장의 쪽지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가 26일(현지시간) 전했다.  <br/> <br/> <br/>‘이 차를 소유한 아무개에게’로 시작하는 이 쪽지는 거의 평생 동안 담배를 피우다 폐암으로 사망한 자신의 할아버지 사연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쪽지에서 "10살 때인가,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당신 손자 졸업하는 것을 보고 싶으면 당장 담배 끊으시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전했다. <br/> <br/>그는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그날 당장 담배를 끊으셨다"며 "하지만 할아버지는 3년 후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생전 우린 너무 가까워서 그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엄마는 내게 ‘절대 담배는 피지 마라. 제발 네 할아버지처럼 (네 행동·기호를 이유로) 네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고 했고 나도 수긍했다"고 덧붙였다. <br/> <br/>그는 "이 말만은 해야겠다. 당신의 거지 같은 주차 때문에 (어찌됐건 스트레스로) 암에 걸릴 것 같은데, 솔직히 18년을 살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게 아주 조금은 후회가 된다"며 "××, 제발 주차하는 법 좀 배워라"고 글을 끝맺었다. 이 쪽지를 담은 사진은 소셜 뉴스 웹사이트 레딧에선 댓글 1220여개가, 이미지 공유 사이트 임거에선 23만2700여명이 조회했다. <br/> <br/>네티즌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복사해놓고 써먹어야겠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문제의 차량이 어떻게 주차돼 있었는지, 또 누가 최초로 이 사진을 올렸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국내 한 유머사이트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원성을 산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채 주차한 슈퍼카’ 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나는 추정만 할 뿐이다. <br/> <br/>사진=보배드림 캡처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6.txt

제목: 초기면역 단계 질병 감염원 제거 기전 세계 첫 규명  
날짜: 20161025  
기자: 임정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25170219425  
ID: 01100701.2016102517021942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특정 효소가 몸속의 질병 감염원을 제거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규명됐다. <br/> <br/>대전대 한의예과 진미림(사진)교수 연구팀은 WRS(tryptophanyl-tRNA synthetase)라는 효소가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감염원을 제거한다는 작용기전을 최초로 규명하는데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br/> <br/>진 교수에 따르면 고령자나 암,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자가 사소한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 감염에 치명적인 패혈증을 유발하는 면역반응 기작이 알려져 있지 않아 치료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br/> <br/>현재까지 인체의 초기 면역반응은 병원체 (박테리아·바이러스 등)에 존재하는 분자를 인간 백혈구에서 인식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br/> <br/>연구팀은 이를 응용해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생쥐에 WRS를 주입한 결과 백혈구 중 하나인 중구 (Neutrophil)가 유입돼 살모넬라가 제거되고 생쥐의 생존 기간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반대로 WRS를 제거하자 생쥐의 생존 기간이 단축됐다. <br/> <br/>또 이러한 기전이 백혈구 중 하나인 단핵구 (Monocyte)가 병원체를 만나게 되면 WRS의 분비가 시작되고, 병원체를 제거하는 대식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해 대식작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케모카인이라는 백혈구 유도물질을 분비시켜 감염원을 제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br/> <br/>이어 이런 반응이 감염원 침입 후 수 분 내에 시작돼 초기 면역반응 개시 이전에 작동하는 ‘초기 방어 시스템‘ (Primary Defense System)임을 함께 규명했다. <br/> <br/>진 교수는 “<span class='quot0'>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WRS라는 효소가 병원체 감염 시 면역 시스템을 초기에 활성화하여 병원균을 제거하는 메커니즘을 밝혀낸 연구로서 세계의 면역학자들이 찾고자 하였던 인간의 내인성 면역 활성인자를 세계 최초로 밝혀 낸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WRS를 표적으로 한 패혈증 및 바이러스 등 난치성 감염질환의 진단 시장을 선점하고 치료제 개발을 선도할 기반을 마련했다</span>”고 말했다. <br/> <br/>글로벌프런티어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Nature Microbiolog) 지난 17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br/> <br/>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7.txt

제목: 실험동물 '아프리카발톱개구리' 유전체 첫 해독  
날짜: 20161020  
기자: 김용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20030652783  
ID: 01100701.2016102003065278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권태준 교수가 수조 속에 있는 아프리카발톱개구리를 보며 웃고 있다.효모나 초파리처럼 실험실에서 쉽게 다룰 수 있어 100여년간 실험 동물로 각광을 받아온 ‘아프리카발톱개구리’의 유전체(genome)가 한국 연구진이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팀에 의해 해독됐다. 이에 따라 인간 유전자의 기능을 찾아내거나 암 등의 인간 질병을 연구하는 새로운 모델로 이 개구리를 활용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br/> <br/>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소속 권태준 생명과학부 교수가 제1저자로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진이 아프리카발톱개구리의 4만여개 유전체를 염색체 수준으로 규명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는 이날(현지시간) 세계적인 전문과학지 ‘네이처’에 발표됐다. <br/> <br/>체외수정으로 한 번에 큰 알을 수백개씩 얻을 수 있는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유전자 발현 조절도 쉬워 유전자를 연구하는 발생학과 세포생물학, 생화학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실험동물이다. <br/> <br/>특히 실험에서 다루기 쉬울 뿐만 아니라 세포주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혈관 형성이나 장기의 발생과 같은 복잡한 형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실험모델로 애용돼 왔다. 권 교수는 “<span class='quot0'>그동안 식물에서만 볼 수 있었던 4배체 유전체를 동물에서 최초로 확인하고 진화적으로 유전자 변화를 살핀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pan>”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span class='quot0'>유전자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암이나 선천성 기형처럼 질병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 <br/> <br/>이번 연구는 2009년부터 7년간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7개국에서 60명이 참여해 진행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br/> <br/>김용출 기자kimgij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8.txt

제목: 수술부위 확대 영상 등… 생체정보 실시간 제공  
날짜: 20161017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17212040077  
ID: 01100701.2016101721204007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포스텍(포항공대) 연구진이 암이나 혈관의 위치 같은 생체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다. <br/> <br/>17일 포스텍에 따르면 창의IT융합공학과 김철홍(사진) 교수 연구팀이 광음향과 광간섭 영상기술을 수술용 현미경과 결합하고 증강현실을 적용해 보다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게 돕는 수술용 광음향·광간섭 영상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연구결과는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를 통해 발표했다. <br/> <br/>이 기술을 이용하면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환부의 확대영상을 보여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표면 아래에 있는 암이나 혈관의 위치, 조직 구조 같은 생체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광음향과 광간섭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현미경 렌즈에 바로 제공해, 의사가 굳이 모니터로 시선을 옮기지 않고도 두 가지 영상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앞으로 안과수술이나 미세혈관 수술과 같은 미세수술에 활용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9.txt

제목: 찔러도 피 한 방울 안나는 주삿바늘 나왔다  
날짜: 2016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06220830171  
ID: 01100701.2016100622083017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찔러도 피가 나지 않는 주삿바늘을 개발했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화학과 이해신(사진) 교수 연구팀이 바위에 달라붙는 홍합의 성질을 이용해 주삿바늘의 지혈재료를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br/> <br/>주삿바늘은 혈액 채취나 링거, 백신, 스텐트 삽입 등 대부분의 의료 처치에 사용된다. 처치 후 환부를 압박해 지혈할 때 건강한 일반인들은 3분 이내에 피가 멈추지만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혈우병 환자 등은 정상적으로 지혈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주삿바늘에 지혈재료를 코팅해 사용하는데 기존 지혈재료들은 기계적 물성이 약해 주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을 견디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br/> <br/>연구팀은 홍합 발끝의 섬유다발인 ‘족사’가 강한 파도가 치는 해안가 바위에도 단단히 붙어있는 특성을 이용했다. 족사 구조에 존재하는 카테콜아민 성분이 들어간 지혈 기능성 필름을 주삿바늘에 코팅했다. 혈액에 필름이 닿으면 필름이 순간적으로 하이드로젤 형태로 바뀌면서 상처 부위의 피를 멈추게 한다. 혈우병 환자뿐 아니라 혈전 용해제인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한 환자, 암·당뇨병 환자 등에 대한 주사치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r/> <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의료기술과 접목해 수분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우리 몸에도 홍합 족사의 접착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다양한 침습 의료기기들과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안정성평가연구소의 강선웅·김기석 박사 연구팀과 ㈜이노테라피의 공동 연구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는 재료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즈’(Nature Materials) 3일자 온라인판에 실렸다. <br/> <br/>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0.txt

제목: [연구]"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최대 평균 수명은 115세"  
날짜: 20161006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06134221324  
ID: 01100701.2016100613422132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인간의 평균 기대수명은 115세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공중보건과 영양섭취 향상으로 지난 150년 간 인간의 기대수명은 꾸준히 늘긴 했지만 몸 속 유전자(DNA)라는 생물학적 한계 때문에 먼 훗날에도 115세 생일을 맞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br/> <br/>6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AECM) 연구진은 과학저널 ‘네이처’ 최신호(5일자)에 ‘인간의 기대수명 한계에 관한 증거들’ 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인간의 한계수명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통계자료가 남아있는 18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약 150년 동안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에서 100세 이상 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br/> <br/>1860년대 이후부터 인간의 기대수명은 점차 늘고 있지만 '백세인'의 평균 수명은 1995년을 정점으로 오히려 줄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료=AECM <br/>그 결과 1860년대 101세였던 최장수 기록은 1990년대 108세, 지금은 122세까지 점점 늘었다. 기대수명도 마찬가지. 1900년대 초반 50세를 밑돌았던 기대수명도 매 10년마다 약 2.5년씩 증가해 지금은 80세에 육박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일본의 남녀 기대수명은 83.7세, 프랑스는 82.4세, 영국 81.2세, 미국 79.3세다. 참고로 같은 해 기준으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3세(남성 78.8세, 여성 85.5세)이다. <br/> <br/>연구진은 하지만 100세 이상의 센터네리언(centenarian)의 평균 수명은 1995년을 기점으로 줄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들 4개국에서 1968년과 2006년 사이 110살 이상 장수한 인구는 534명이다. 암과 심장병 같은 질병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보급, 보다 안전해진 출산, 영양섭취·공중보건 향상으로 1968∼1994년 110세 이상 인구의 평균 수명 또한 해마다 0.15년씩 늘었다. 하지만 1995년 이후엔 되레 0.28년씩 줄었다. <br/> <br/>'한계수명'을 주장하는 학파는 인간의 신체적, 유전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인류의 최대 기대수명은 115세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한다. 자료=AECM <br/>연구를 주도한 얀 페이흐 AECM 교수는 "100세 이상의 장수 인구만 놓고 보면 인간의 최대 기대수명은 지난 20년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연구진은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수명은 115세라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페이흐 교수는 "(프랑스인이자 1997년 122세를 일기로 사망한 세계 최장수 기록 보유자 장 칼망<아래사진> 할머니처럼) 사람이 125세까지 장수하는 경우는 1만명 가운데 1명 정도 겨우 찾을 수 있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br/>사진=BBC <br/>연구진은 의학기술 등이 발달하더라도 인간의 수명이 마냥 늘지 않는 이유로 자연적 한계수명을 들었다. 신체 외부의 도움을 받아 수명을 어느 선까진 연장할 순 있지만 신체의 젊음과 노화를 결정하는 유전자의 진화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에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페이흐 교수는 "기대수명을 120세, 125세, 130세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인간 종의 유전적 메이크업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수천, 수만개의 약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들 약이 개발된다하더라도 노화 과정이 워낙 복잡해 인간의 한계수명을 뛰어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하지만 과거 인구통계를 근거로 기대수명을 한정 짓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간의 수명 상한선을 지지하는 입장인 데임 패트리지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건강한노화연구센터 소장은 "흥미로운 연구이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관한 묘사가 없다"며 "비만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요즘 기대수명은 상당 수준 떨어질 것이라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게 아쉽다"고 말했다. <br/> <br/>인간은 앞으로 과학기술을 앞세워 생물학적 한계라는 '신의 영역'까지 뛰어넘을 수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br/>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의 제임스 보펠 교수는 아예 ‘인간의 기대수명 상한선’ 자체를 특정지어선 안된다는 쪽이다. 보펠 교수는 "이번 연구는 솜씨 없는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 유감스러운 대하소설은 한계수명이라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인구 통계학적 자료 대신 과장된 수사, 빈약한 방법 그리고 예쁜 그래픽을 앞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가까운 미래 인류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이냐라는 화두에 대해 어떠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보태지 못했다는 것이다. <br/>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1.txt

제목: [기고] 신약개발, 약학인재 양성이 답이다  
날짜: 20161006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06010245481  
ID: 01100701.2016100601024548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오늘날 신약개발에 거는 인류의 기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크다. 그 이유는 신약개발을 통해 극복해야 할 불치병과 난치병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약품 개발을 통해 인류의 건강과 수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연장돼 왔으며, 최근에는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의 등장으로 불치였던 다양한 암질환까지 정복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건강한 100세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br/> <br/>또한 국가 차원에서 신약개발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획기적인 신약개발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제약산업의 부가가치율과 1인당 부가가치액은 다른 일반 제조업의 1.5~2배에 달하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발생 매출의 3배에 이른다. 또 10조원의 매출 증가는 1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 세계의 의약품 시장은 2007년 이후 해마다 평균 5.3%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현재 1100조원 규모에서 2020년 2400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견된다. <br/> <br/> <br/>이승진 이화여대 약학대 학장· 물리약학지식집약적인 신약개발은 과거의 반도체산업이 그러했듯 고급인력의 양성과 공급이 성패의 관건이다. 다시 말해 연구, 개발, 생산 및 기타 신약개발 관련 영역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제약기업만이 치열한 신약개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신약개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 관련 전문가를 획기적으로 많이 양성하는 길밖에 없다. 구체적으로는 약학대학에서 신약개발 전문가로서의 약학전공자를 대량으로 양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br/> <br/>우리는 2011년 6년제 약학교육을 시행하면서 약대 신설을 통해 약대 입학생의 정원을 증원했다. 그러나 제약기업의 임상약사 및 약학전공자가 태부족인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고 조만간 크게 개선될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나친 임상약학 교육의 강화로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약과학(藥科學) 전문인력의 배출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신약개발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약학대학을 추가로 신설해서라도 임상약학자와 신약개발 전문 약과학자의 배출을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분야 전문가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br/> <br/>무엇보다 신약개발은 과거에 없던 물질을 만들어내는 창조작업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도 창조적인 인재의 기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약학교육은 융복합적인 리더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약사와 MBA라는 두 개의 전문학위를 약대교육에서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요컨대 약대교육의 연한을 4년 또는 6년으로 가변성 있게 조정하고, 그 교육과정 안에 융복합적인 리더 양성까지를 담아내는 교육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약산업과 나아가 우리의 경제재도약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br/> <br/>이승진 이화여대 약학대 학장· 물리약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2.txt

제목: 노벨상 수상 오스미 교수 "상금 젊은 연구자에 지원"  
날짜: 201610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05193717880  
ID: 01100701.20161005193717880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오스미 요시노리(大隅良典·71·사진) 일본 도쿄공업대 영예교수가 일본의 젊은 연구자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 과학의 미래를 우려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br/> <br/>보도에 따르면 오스미 교수는 전날 요코하마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span class='quot0'>박사 과정까지 밟겠다고 결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span>”이라고 열악한 연구 환경을 지적하며 “<span class='quot0'>젊은 연구자가 부족해 일본 과학계가 텅 비게 될 것</span>”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0'>과학 연구가 (실생활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인식하면 기초과학은 죽고 만다</span>”며 “<span class='quot0'>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사회 전체가 기초과학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외에는 별로 해결책이 없다</span>”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에서도 사회 전체가 대학을 지탱한다는 인식이 확산하지 않으면 과학자가 자랄 수 없다”고 덧붙였다. <br/> <br/>오스미 교수는 자신이 받게 될 노벨상 상금을 젊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노벨상 상금 800만 크로네(약 11억352만원)에 기업의 협력을 추가해 적어도 20∼30년간 젊은 학자에게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r/> <br/>그는 일본 정부에도 연구비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닛칸코교신문이 이날 전했다. 그는 “연간 100만엔(약 1084만원)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연구자가 일본에는 많이 있다”며 “작은 싹을 많이 기르지 않으면 큰 성과를 낼 수 없다. 일본의 국력이라면 충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br/>오스미 교수는 세포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재활용 현상인 ‘오토파지’(autophagy·자가포식) 연구로 올해 노벨상 수상이 결정됐다. 그는 자신의 연구가 감염증은 물론 암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암세포는 영양을 보급해 증식하므로 오토파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오토파지를 억제하면 증식을 억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br/> <br/>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3.txt

제목: "과학은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날짜: 201610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03215452183  
ID: 01100701.2016100321545218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올해 노벨생리의학상은 오스미 요시노리(大隅良典·71) 일본 도쿄공업대 명예교수에게 돌아갔다. 일본은 지난해 오무라 사토시(大村智) 기타사토대학 특별명예교수에 이어 2년 연속 같은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까지 포함하면 3년 연속이다. 오스미 교수는 25번째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다. <br/> <br/>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노벨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오토파지(autophagy·자가포식)’ 현상 연구로 유명한 오스미 교수를 2016년 노벨생리의학상 단독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br/> <br/>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도쿄공업대 명예교수가 3일 노벨상 수상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br/>요코하마=AP연합뉴스오토파지란 ‘오토(스스로)’와 ‘파지(먹다)’란 의미가 합쳐진 말로 체내 세포 속 소기관인 ‘리소좀’이 세포 내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단백질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재이용하는 현상이다.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외부에서 미생물이 침입했을 때 세포 스스로 생존을 위해 내부 단백질을 재활용하는 일종의 면역 현상이다. <br/> <br/>이 현상은 이미 1970년대에 보고됐지만 오스미 교수는 1988년 현미경 관찰을 통해 세포 내 오토파지 발생과정을 처음 관찰했다. 이어 1993년 효모균을 이용해 오토파지 현상을 제어하는 필수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이후 유사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을 잇달아 발견, 오토파지 현상을 규명하는 데 힘써 왔다. <br/> <br/>오스미 교수의 연구는 자가포식 기전에 이상이 생기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 신경난치병은 물론 암과 당뇨 등의 질병 치료에 획기적인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br/> <br/>노벨위원회는 “<span class='quot0'>오스미 교수의 발견은 세포가 어떻게 세포 내 물질을 재활용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냈다</span>”며 “<span class='quot0'>감염에 대한 반응 등 여러 생리과정에서 오토파지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길을 열었다</span>”고 밝혔다. <br/> <br/>1945년 후쿠오카에서 태어난 오스미 교수는 1967년 도쿄대 교양학부 졸업 후 일본 도쿄대 조교수와 자연과학연구기구 기초생물학연구소 교수 등을 거쳤다. 그는 이날 노벨상 수상자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span class='quot0'>젊은 사람들에게 과학은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span>”고 말했다. <br/> <br/>백찬기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오토파지 작용은 최근 암, 근육기능 이상 질환, 퇴행성 신경질환, 노화 등 다양한 질병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span>”며 “<span class='quot1'>국내에서도 자가포식 연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 항암제와 신경질환 치료제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내다봤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4.txt

제목: 암투병 여행 91세 할머니 ‘길에서 임종’  
날짜: 201610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03192708924  
ID: 01100701.20161003192708924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암에 걸린 뒤 만 91세 나이로 미국 대륙횡단 자동차여행에 나섰던 미국 노마 진 바우어슈미트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떠났다. <br/> <br/>노마 할머니의 가족은 1일 페이스북 ‘드라이빙 미스 노마’(Driving Miss Norma) 페이지에 “<span class='quot0'>인생은 붙잡고 있기와 놓아주기 사이의 균형 잡기</span>”라는 시인의 말을 인용한 뒤 “<span class='quot0'>오늘 우리는 놓아주기에 섰다</span>”며 할머니가 세상과 작별했음을 알렸다. 지난해 8월 말 할머니가 아들 내외, 애완견 링고와 레저용 차량을 타고 미시간주 북동부의 자신의 집을 떠난 뒤 13개월 만이었다. <br/> <br/>노마 할머니는 자궁암 진단을 받은 뒤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병원 입원 대신 자동차여행을 선택했다. 여행 시작과 함께 페이스북을 개설해 자신의 여정을 알렸고 내밀한 감정들을 전했다. 여행 1년 새 45만여명이 할머니 페이지를 팔로하며 할머니 도전에 박수를 보내고 또 위로를 받았다. <br/> <br/>노마 할머니는 지난 8월 말 대륙횡단 대장정 1주년을 맞아 “32개주 75개 도시를 돌며 약 2만1000㎞를 주행했다”며 “90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했으며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배웠다”고 밝혔다. 할머니는 “내 여행이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까’에 대한 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다”며 “삶이 끝날 때까지 여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br/> <br/>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5.txt

제목: 맞춤형 변형 단백질 생산… 신약 개발 전기  
날짜: 201609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30030325262  
ID: 01100701.2016093003032526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카이스트 박희성 교수가 29일 과천정부청사 미래창조과학부 기자실에서 맞춤형 변형 단백질 합성기술 개발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br/>미래부 제공국내 연구진이 암과 치매 등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변형을 구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맞춤형 단백질 변형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br/> <br/>카이스트 박희성 교수와 이희윤 교수, 양애린 박사 연구팀은 200여종의 단백질 변형을 직접 구현해 원하는 변형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br/> <br/>연구팀에 따르면 사람의 인체를 이루는 기본단위인 세포는 2만여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단백질의 변형 때문에 단백질의 종류는 100만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br/> <br/>하지만 인산화, 당화, 아세틸화, 메틸화 등 200여종의 단백질 변형의 원인은 알려져 있지만 그밖의 비정상적인 단백질 변형이 일어나면 암은 물론 퇴행성신경질환,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박 교수팀은 이처럼 비정상적인 단백질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이미 규명된 200여종의 단백질 변형으로 구현, 변형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맞춤형 변형 단백질 생산이 가능하게 돼 암과 치매 등을 위한 신약 및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br/> <br/>연구 결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사이언스’ 2016년 9월호(9월29일자)에 가장 중요한 논문 (First Release)으로 선정돼 온라인 게재됐다. <br/> <br/>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6.txt

제목: “컴퓨터로 10년 내 암치료 해결”  
날짜: 2016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21215607340  
ID: 01100701.2016092121560734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마이크로소프트가 머신러닝(기계학습) 같은 컴퓨터공학을 이용해 10년 안에 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br/> <br/>20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자들은 DNA를 이용한 분자컴퓨터(molecular computer)가 의사처럼 암세포를 발견한 뒤 제거해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생물학자와 프로그래머, 엔지니어들을 모아 컴퓨터 시스템이 버그를 찾는 방식의 암 치료 해법을 찾고 있다. <br/> <br/>연구팀의 앤드루 필립스는 “<span class='quot0'>암을 찾을 수 있는 스마트 분자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5∼10년 안에 가능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그가 이끄는 그룹은 이미 건강한 세포의 행동을 모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세포들의 행동을 비교해 문제가 생긴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 <br/> <br/>재스민 피셔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span class='quot1'>암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암은 평생 관리하면서 생활하는 만성질환이 된다</span>”며 “<span class='quot1'>아침에 일어나면 컴퓨터로 유전자 데이터와 맥박, 수면 패턴, 운동량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감기나 심한 질병에 걸릴 확률 등을 알 수 있는 날이 올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인체 안의 기본 과정을 모방하는 컴퓨터 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체를 재프로그래밍해 암세포를 발견하면 즉시 치료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궁극적인 목표다. <br/> <br/>마이크로소프트 외에 다른 정보기술(IT) 기업들도 의학 연구에 나서고 있다. IBM의 인공지능 시스템인 왓슨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하게 암 연구자들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애플은 방대한 아이폰 이용자의 의료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인 리서치킷을 지난해 내놨다. 구글의 연구실인 구글 X 역시 클라우드 컴퓨팅과 나노 기술을 이용한 의학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7.txt

제목: 병원서도 인공지능 필수…진단 사례 중 80%서 유용 정보 제공  
날짜: 20160918  
기자: 우상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18105828695  
ID: 01100701.2016091810582869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병원에서도 인공지능(AI)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br/> <br/>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도쿄대 의과학연구소가 미국 IBM의 인공지능 ‘왓슨’을 암 환자 진단 지원에 활용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80%의 사례에서 병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특히 암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변이를 10분 정도에 특정해, 적절한 항암제 처방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더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r/> <br/>왓슨은 막대한 데이터 가운데 특징을 찾아내 학습하고, 대답하는 능력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환자로부터 채취한 암조직의 암과 관계 있는 유전자 염기서열을 해석해 입력했다. 왓슨은 2000만권 이상의 의학 논문과 약의 특허정보 등을 참조해, 암 발병과 진행에 관계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 변이의 후보를 찾아내고, 근거가 되는 데이터와 항암제 후보를 함께 제시했다. <br/> <br/>이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혈액암 환자 71명의 누계 약 100개의 사례에서 유전자 정보를 입력해 진단 지원에 활용했다. 올해 3월까지 54명을 분석한 결과 30명에서 진단과 증상의 해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시했고, 다른 11명에서도 치료 방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내놓았다. 80% 정도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나머지 20%의 사례에서는 병에 관계하는 변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환자의 입력정보를 늘리면 개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br/> <br/>지난해 7월에는 패혈증 우려가 있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잇는 60대 여성 환자에 대해 원인 유전자 변이를 10분 만에 특정했다. 의사 등이 왓슨의 정보에 기초해 항암제를 변경하자 치료가 효과를 냈고, 2개월 만에 퇴원할 수 있었다. 의사라면 2주가 걸리는 변이의 특정을 10분 만에 해냈다는 게 이 연구소의 설명이다. <br/> <br/>이 연구소의 인간게놈해석센터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암의 흑막이 되는 유전자 변이를 찾아내기 위해 의사가 인해전술로 다양한 문헌과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왓슨 같은 기술의 활용이 앞으로는 없어서는 안 된다</span>”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br/> <br/>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8.txt

제목: [연구] "무심코 주머니에 넣은 휴대폰이 불임 만든다"  
날짜: 20160913  
기자: 나진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13144918957  
ID: 01100701.2016091314491895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습관적으로 바지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어 다녔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러지 않는 편이 좋겠다. 남성이 장기간 바지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다니면 성기능이 감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매체 데일리메일이 최근 전한 연구 내용이다. <br/> <br/>호주 뉴캐슬대학 연구팀은 휴대폰 전자파가 남성의 생식 기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휴대폰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된 정자들은 그 수가 감소했으며, 심지어 살아남은 정자들도 상당 부분 DNA가 파괴되었음이 관찰됐다. <br/> <br/>그동안 학계에서 휴대폰 등에서 나오는 ‘비이온화 방사선’이 암을 유발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 ‘비이온화 방사선은 에너지가 크지 않아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는 주장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팀은 휴대폰 전자기파(RF-EMR)가 우리 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점점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 <br/> <br/>연구팀이 수년간 분석한 27개의 사례 중 대부분에서 휴대폰 전자파는 정자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전자파에 노출된 정자의 8%는 운동성이, 9%는 수명이 줄어들었다. 생식세포가 노화되는 활성산소종(ROS)이 유발되었으며 정자의 DNA도 손상됐다. 정자의 집적도도 떨어졌다. <br/> <br/>연구팀은 “휴대폰을 어디에 넣고 다니는지 등과 같은 작은 습관이 성기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장래에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다면 이 같은 행동은 피하는 게 현명하다”고 경고했다. <br/> <br/>지난 2011년 WHO는 휴대폰 전자파를 2B군 발암물질로 규정한 바 있다. UC버클리공립의대의 조엘 모스코비츠 박사는 “이번 연구는 휴대폰의 위험성을 다시금 깨우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br/> <br/>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br/> <br/> <br/>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9.txt

제목: [재테크 브리핑] KDB생명, 해지환급금 없는 온라인 암보험 외  
날짜: 201609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11211655222  
ID: 01100701.20160911211655222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KDB생명, 해지환급금 없는 온라인 암보험 <br/> <br/>KDB생명은 온라인 생명보험 최초로 무해지환급형 암보험인 ‘(무)KDB다이렉트 암보험’(사진)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객이 직접 인터넷에서 가입해 저렴하다는 다이렉트보험 특유의 장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납입기간 중의 해지환급금을 없애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통해 동일한 보장에서 고객료 보험료 부담을 기존의 다이렉트 암보험보다 20%가량 추가로 더 낮췄다는 설명이다. KDB다이렉트 암보험은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1종(갱신형)과 비갱신형 암보험인 2종(순수형), 3종(무해지환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액암 진단 시 1억원, 일반암 진단 시 5000만원, 유방암·남녀생식기암 진단시 1000만원, 소액암 진단시 500만원을 보장한다. <br/> <br/>라이나생명, 온라인 간편 가입 서비스 오픈 <br/> <br/>라이나생명은 이달부터 온라인·모바일 청약 사이트를 구축하고 신규 판매채널 공략에 나섰다. 텔레마케팅 방식의 보험 판매를 주로 하던 라이나생명의 다이렉트 채널이 오픈됨에 따라 치아보험, 암보험 등 라이나생명의 대표 보장성 상품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취급 상품은 (무)라이나다이렉트치아보험(갱신형), (무)라이나다이렉트암보험(갱신형), (무)라이나다이렉트키즈보험(갱신형)의 3종류로 구성됐다. <br/> <br/>동양생명,만기 이전 매달 ‘웰빙자금’ 돌려줘 <br/> <br/>동양생명은 납입한 보험료를 매달 돌려받을 수 있는 ‘(무)수호천사돌려받는건강보험’을 출시했다. 기존 만기환급형 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 수령 가능성이 낮고 만기환급금의 현재가치가 낮다는 점에 착안해 이를 보완한 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만기 이전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즉시 또는 5년·10년·15년을 선택해 거치 후 매달 납입보험료(웰빙자금)를 돌려받을 수 있다. 만 15세부터 최대 58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질병 및 재해로 50% 이상 장해를 입거나 암 진단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2형(3대질환보장형) 가입 시 추가로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을 경우에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0.txt

제목: 암 치료에 국내 첫 AI 활용 … IBM·길병원 10월부터  
날짜: 201609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08194813051  
ID: 01100701.2016090819481305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내 최초로 암환자 치료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료가 도입된다. IBM과 가천대길병원은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IBM의 인공지능 ‘왓슨’ 도입 계약을 맺어 오는 10월부터 진료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 <br/>‘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가 정식 명칭인 이 장비는 의료진이 근거에 입각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br/> <br/>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으로,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 암환자들에게 개별화된 치료 옵션을 제공한다. <br/> <br/>IBM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 세계적으로 약 4만4000건에 달하는 암 종양학 관련 논문이 발표됐다. 로버트 메르켈(사진) IBM 왓슨 헬스종양학 및 유전학 글로벌 총괄사장은 “<span class='quot0'>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지식은 이제 인간의 능력으로 따라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span>”고 설명했다. <br/> <br/>가천대길병원은 왓슨 포 온콜로지를 유방암·폐암·대장암·직장암·위암 등 국내에서 많이 발병하는 주요 암 치료에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br/> <br/>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1.txt

제목: 2020년까지 보건산업 수출 2배로 키운다  
날짜: 201609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08190331108  
ID: 01100701.20160908190331108  
카테고리: IT\_과학>보안  
본문: 정부가 우리나라를 ‘보건산업 7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향후 5년간 보건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2020년까지 보건산업 수출액은 2배로 늘리고 일자리는 18만개 더 만든다는 목표다. <br/> <br/>정부는 8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2016∼2020)’을 확정했다. 최근 경기 둔화 속에서도 생산·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보건산업 분야를 국가 미래 선도 사업으로 삼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br/> <br/>우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분야의 혁신 제품 개발을 지원, 글로벌 선도 기업을 육성한다. 대학과 병원 등의 기초연구 성과를 제약기업이 상용화할 수 있도록 돕고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질환)에 대한 국가 신약 개발을 추진해 제약사들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br/> <br/>지난해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신약은 2개이지만 2020년에는 17개까지 늘리고 2018년까지 기업 2곳이 ‘글로벌 50대 제약기업’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목표다. <br/> <br/> <br/>또 영상 진단기기 등 국내 10대 유망기술 분야에서 우수기업을 선정, 기술개발에서 임상시험·수출까지 지원한다. <br/> <br/>최근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화장품산업은 선진국 수준으로 기술력을 높여 고급화하고 뷰티산업과 연계한다. 여행사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와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관을 연결해 한류·뷰티·의료로 이어지는 연계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10위권에 머물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2020년에는 ‘글로벌 톱 10’ 화장품 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r/> <br/>아울러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선정된 ‘정밀의료(개인 진료정보와 유전정보 등 빅데이터를 통합·분석해 맞춤형 의료를 제공)’의 기반을 마련한다. 유전체 정보 등 데이터를 구축해 연구·산업 목적으로 개방하고 3대 진행성 암(폐암·위암·대장암) 환자의 유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암 진단과 치료법 개발을 추진한다. <br/> <br/>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중증질환 치료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산업과 관광을 연계하는 등 외국인 환자에 특화된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30만명 수준이던 외국인 환자는 2020년 75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2018년까지 고려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카이스트, 경희대 등이 모인 지역에 병원·기업·연구소가 결합한 ‘홍릉 클러스터’를 조성, 이곳이 창업 선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br/> <br/>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9조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같은 기간 일자리는 76만개에서 94만개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2.txt

제목: 암치료 햇빛 부작용 없앤 온도감응 ‘광감작제’ 개발  
날짜: 201609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07210209135  
ID: 01100701.2016090721020913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미래창조과학부는 나건 가톨릭대 교수, 김동현 미국 노스웨스턴의대 교수, 이병두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 박사 등으로 이뤄진 국제 공동연구팀이 특정 온도가 돼야 활성산소를 뿜는 ‘스마트 광감작제’를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br/> <br/>화학물질 일종인 광감작제는 자궁경부암, 췌장암 등의 치료에 쓰이는데 활성산소를 뿜어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 다만 광감작제가 태양 빛에 반응해 부기와 통증 등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환자가 한 달 정도 암실에서 생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개발된 스마트 광감작제는 기존 빛 치료제에 의약품 원료인 ‘하이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를 붙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인체 체온 정도에서는 빛을 받아도 반응이 없지만 45도가 되면 활성산소를 뿜기 때문에 태양 빛을 받아도 부작용 염려가 없다. <br/> <br/>연구를 진행한 나건 교수는 “<span class='quot0'>바이오 온도 센서 기반 기술에도 이번 연구 성과를 적용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한·미 연구진 간 다학제적 공동연구 성공사례로서도 의의가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3.txt

제목: “생명과학 연구 3000억 지원… 인류 삶 향상 기대”  
날짜: 201609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01221645366  
ID: 01100701.20160901221645366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평소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기부천사’로 통하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명과학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서 회장의 과학 분야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br/> <br/>서 회장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경배과학재단 설립 발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서경배과학재단에 3000억원 규모의 개인 보유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지난 6월3일 종가기준 주식 평가액이 10조2602억원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주식 부자 2위에 오른 바 있다. <br/> <br/>‘서경배과학재단’은 서 회장이 개인 재산을 출연한 첫 공익재단으로, 생명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활동을 하는 국내 신진 과학자를 발굴해 그들의 연구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재단은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생명과학 분야 신진학자 3∼5명을 선발하고 각 과제당 5년 기준 최대 2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는 중간 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br/> <br/>과학재단 이사장을 맡은 서 회장은 “<span class='quot0'>뛰어난 역량을 가진 국내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독창적인 연구영역을 개척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기를 기대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인류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희망한다</span>”고 말했다.  <br/> <br/> <br/>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신진과학자 지원을 위해 설립한 ‘서경배과학재단’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br/>연합뉴스국내 1위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은 그동안 학술·교육·문화사업을 지원하는 ‘아모레퍼시픽재단’과 저소득층 복지활동을 주로 하는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유방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 등을 운영해 왔다. <br/> <br/>이 가운데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는 서 회장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 캠페인은 암 치료과정에서 외모변화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메이크업과 피부관리, 헤어연출법 등 노하우를 전수한다. 암 투병 과정에서 겪는 우울증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서 회장은 국내 최초로 유방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도 설립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 재단을 통해 유방건강이라는 주제로 ‘핑크 리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핑크 리본 캠페인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핑크 리본 사랑마라톤’이 있다. 이 행사에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30여만명이 참가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를 통해 총 29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한국유방건강재단에 전달했다. <br/> <br/>최근 아모레퍼시픽은 이 같은 지속가능 경영활동을 담은 지속가능성 보고서 ‘더 아리따운 세상을 위하여’를 발간했다. 서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span class='quot0'>아모레퍼시픽그룹은 기업 시민의 일원으로서 사회와의 공존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혼자 빨리’가 아닌 ‘함께 멀리’ 가는 동행의 길로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span>”고 밝혔다. <br/> <br/>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4.txt

제목: [양향자의 The 건강한 음식] 한입 두입 베어물면, 소록소록 잠이 솔솔∼  
날짜: 201609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01140502223  
ID: 01100701.20160901140502223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요즘 간식으로 많이 먹는 옥수수는 7~9월이 제철이다. 달짝지근하고 쫀득쫀득 씹히는 맛이 일품인 여름철 대표 간식이다.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옥수수는 알갱이는 물론 수염까지 차로 끓여 먹을 수 있어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쪄서 먹거나 수프, 샐러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다. <br/> <br/>옥수수는 단백질, 지질, 당질, 섬유소, 무기질, 비타민 등의 성분을 갖고 있어 피부 건조와 노화 예방, 피부 습진 등의 저항력 증진에 좋다. 옥수수의 섬유질은 장을 자극해 변비를 개선한다. 신경을 진정시키는 작용도 해 패주와 함께 조리해서 먹으면 눈의 피로를 없애고 초조함을 가라앉힐 수 있다. 비타민 B1이 많이 함유돼 여름을 타느라 나타나는 증세인 식욕부진, 나른함, 무기력에 효과적이다. <br/> <br/>특히 옥수수는 트립파톤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 성분은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위장을 편안하게 하며 잠을 편하게 자게 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저녁식사 때나 잠자리에 들기 전 옥수수 죽을 먹으면 잠을 푹 잘 수 있다. 단맛이 나는 옥수수의 일종인 스위트콘을 찌거나 삶아 먹으면 항산화 성분이 크게 증가해 심장병과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옥수수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좋다. 다만 필수아미노산인 나이아신이 부족해 옥수수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지속하면 설사를 할 수도 있다.  <br/> <br/>유유나 달걀 등의 적절한 단백질 식품을 함께 섭취해 주는 것이 좋다. 한방에서는 주로 옥수수수염을 이용한다. ‘방약합편’이라는 국내 한의서를 보면 “소변이 찔끔거리며 잘 나오지 않을 때 이뇨제로 옥수수수염이 효과적”이라고 기술돼 있을 만큼 옥수수수염은 이뇨제로서 훌륭한 역할을 한다. 옥수수수염은 지혈·이뇨작용과 더불어 열을 내려주는 성질이 있어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잘 말린 옥수수수염을 5~10g씩 달여 마시면 급성 위염, 신장염에도 효과가 있으며 임산부의 부종에도 좋다.  <br/>◆옥수수 통째로 버터구이 <br/>-재료: 옥수수 1개, 버터 <br/>-만드는 법 <br/>① 옥수수를 알맞게 삶는다. <br/>② 익은 옥수수에 버터를 골고루 바르고 호일로 감싼다. <br/>③ 오븐을 160도로 예열해 굽거나 전자렌지에 돌린다. <br/>④ 버터는 옥수수 1개에 1큰술 정도가 적당하다. <br/>신선한 옥수수는 껍질이 진하고 선명한 녹색이며 알맹이가 촘촘하고 수염이 갈색빛이 난다. 껍질을 벗겨 삶은 뒤 냉동실에 보관하면 옥수수의 알갱이가 더 차져져 맛있게 먹을 수 있다. <br/>◆옥수수 파프리카 스터프트 <br/>-재료 :파프리카 2개, 삶은 옥수수알 5큰술, 양파 1개, 토마토 반개, 파르메산 치즈가루 1큰술, 모짜렐라 치즈 1큰술, 올리브유, 다진 파슬리 적당량 <br/>-만드는 법 <br/>① 파프리카는 반 잘라 속씨를 제거하고 씻는다. <br/>② 토마토는 끓는 물에 데쳐 껍질을 벗기고 주사위 모양으로 썬다. <br/>③ ①의 파프리카에 모차렐라 치즈, 토마토, 양파, 옥수수, 파르메산 치즈가루, 모차렐라 치즈 순서로 얹는다. <br/>④ ③을 오븐에 넣고 올리브유를 듬뿍 뿌린 뒤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 15분 정도 구운 다음 다진 파슬리를 뿌린다. <br/>(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br/>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5.txt

제목: [사이언스프리즘] 줄기세포와 IT의 만남  
날짜: 20160831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31210541936  
ID: 01100701.2016083121054193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회복이 불가능한 손상이나 퇴행성 난치질환의 경우 유일한 희망은 줄기세포 치료이다. 이 때문에 줄기세포는 의생명과학에서 언제나 중요한 미래 어젠다(의제)이다. 기초연구뿐 아니라 임상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2015년까지 총 317건의 상업적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연구가 등록된 바 있다. 현재 최종 승인된 줄기세포치료제는 국내 승인 4개, 캐나다 승인 1개, 유럽승인 1개이다. 국내 승인이 많은 이유는 심사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기 때문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줄기세포치료제는 아직 없다. 2014년 일본에서는 난치성 안구질환자에게 본인의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시술이 진행돼 큰 관심을 모았으나 유도만능줄기세포에서 다수의 돌연변이가 발견돼 중단된 사례가 있다. 일본에서는 황반변성 환자에게 타인의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해 만든 망막세포를 이식하는 임상연구를 내년에 시작하겠다는 계획이 최근 발표됐다. 줄기세포는 과연 무엇이며, 임상적용이 어려운 까닭은 무엇일까. <br/> <br/>줄기세포란 지속적인 자가복제 능력과 다른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갖춘 세포를 일컫는다. 모든 생명의 시초를 관장하며 성체가 된 이후에도 조직 재생 등을 위해 일부가 남아있다. 줄기세포는 태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그리고 분화된 세포를 역분화시켜 얻을 수 있는 유도만능줄기세포로 나뉜다. 줄기세포 연구는 1981년 영국의 마틴 에번스가 쥐의 태아 줄기세포를 발견한 것을 시초로 1998년 미국의 제임스 톰슨과 존 기어하트가 각각 인간의 태아 줄기세포 추출과 배양에 성공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6년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는 분화된 일반세포에 네 가지 특정 단백질을 주입해 줄기세포로의 역분화를 유도함으로써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최초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태아로부터 얻어지는 태아줄기세포의 윤리적 문제로 인해 성체줄기세포와 유도만능줄기세포가 그 대안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성체줄기세포는 특정 조직의 세포로만 분열되기 때문에 암 유발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지만 얻을 수 있는 수가 적고 실험실 배양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반면 유도만능줄기세포는 유도과정에서 암 유발인자를 이용하는 위험성과 태아줄기세포에 비해 비교적 불안정한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핵치환 기술을 이용한 태아줄기세포 연구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근래에는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유전자를 유전자가위 등을 이용해 교정함으로써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드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br/> <br/> 조광현 KAIST 교수·바이오 및 뇌공학지금껏 줄기세포 연구의 괄목할 만한 여러 연구 성과에도 분화·역분화의 낮은 효율과 제어기술 부재, 배양의 어려움, 암 유발 가능성 등은 여전히 줄기세포 치료의 궁극적인 한계로 남아 있다. 이러한 한계의 근본적인 원인은 줄기세포의 분화와 역분화 과정을 지배하는 분자 조절 네트워크의 다이내믹스를 파악하지 못한 채 시행착오를 통한 실험적 시도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과학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기술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지금껏 축적된 줄기세포 내외 분자 조절 작용에 대한 발견과 지식을 컴퓨터모델을 통해 집대성하고 복잡계 네트워크의 다이내믹스를 분석한 뒤 제어공학 기술을 접목해 핵심 조절분자를 발굴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줄기세포 시스템생물학 연구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br/> <br/>줄기세포 내 다양한 분자들은 생화학적 상호작용을 통한 긴밀한 조절관계에 놓여 있어 모든 분자들은 서로를 구속하며 다이내믹한 변화를 거듭한다. 이러한 복잡한 연결망 속에서 특정 분자를 조절하더라도 네트워크의 보상기작 등으로 인해 결국 예상과 다른 세포 반응을 관측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축적된 방대한 실험 데이터를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집대성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숨겨진 동작원리를 밝혀냄으로써 새로운 제어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줄기세포에 담긴 생명의 비밀에 인류는 정보기술 융합을 통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이다. <br/> <br/>조광현 KAIST 교수·바이오 및 뇌공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6.txt

제목: [데스크의눈] GMO, 재앙인가 축복인가  
날짜: 201608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24224201691  
ID: 01100701.2016082422420169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환경단체와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유전자변형작물(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위적으로 특정 유전자를 조작한 작물을 장기간 섭취하면 암이나 기형아 출산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GMO 반대 측은 농업과 생태계 파괴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한다. <br/> <br/>벼, 밀과 함께 인류의 3대 주식 곡물인 옥수수의 조상 ‘테오신테’(teosinte)는 먹을 수 없는 잡초였다. 인류가 수천년 전 이 야생식물을 채집해 이용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이어 영양분이나 다수확성 등 인간에게 좋은 ‘형질’을 가질 수 있도록 육종(育種)해 오늘의 옥수수가 됐다는 것이 유력한 학설이다. 이렇게 인류는 자연계에서 우수 품종을 선발하고 교배를 거쳐 보다 나은 형질을 가진 작물을 확보한다. 전통 육종은 필요한 유전자 하나를 얻기 위해 교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유전자가 도입된다. 이런 품종에는 거부감이 없으면서 한두 개 유전자를 도입한 GMO를 혐오하는 것은 난센스다. 전통 육종이나 유전자변형기술 모두 유용한 유전 형질을 재조합해 우수한 형질의 작물을 만드는 방법이다. 전통 육종은 소요기간이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고 원하지 않는 형질이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유전자변형기술은 1∼5년으로 비교적 짧고, 다양한 유용 형질을 종의 장벽을 넘어서 이용할 수 있다. <br/> <br/>박찬준 경제부 부장GMO를 섭취해도 인간과 동물이 해를 봤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오히려 GMO 활용기술은 당뇨병 환자에게 희망이 된 ‘GMO 인슐린’처럼 의학과 식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쓰인다. 노벨상 수상자 108명은 지난 6월 GMO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그린피스’의 GMO반대운동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최근 미국과학한림원(NAS)은 1996년 GM작물이 상업화한 이래 지난 20년간 GM농산물이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1995∼2014년 생명공학작물 덕분에 수확량 22% 증가, 농약사용 37% 감소, 농가수익 68% 증가 등 혜택이 발생했다는 글로벌 메타분석도 있다. GMO의 개발·생산·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심사·평가·관리를 한다. 막연한 불안을 씻어내기 위함이다. <br/> <br/>유엔은 2050년 세계 인구가 100억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농업경작지는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으로 식량공급이 불안정하다. 고온, 저온, 홍수, 가뭄, 병해충 등의 저항성이나 다수확성을 가진 GMO 개발이 필요한 이유다. 농진청은 14개 작목 142종의 GMO를 개발 중이다. 눈에 좋은 베타카로틴을 생성하는 황금쌀, 황산화·항암·항염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을 만드는 배추, 가뭄 저항성 감자·벼 등 다양하다. <br/> <br/>세계로 눈을 돌려보자. 옥수수와 콩, 면화 등 GMO는 2014년 현재 28개국에서 1800만명의 농민에 의해 1억8100만㏊에 재배됐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18배다. 농업생명공학기술은 각국이 기술선도를 위해 경쟁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는 분야다. 중국은 최근 국영기업을 통해 세계 3위 종자기업 신젠타를 인수함으로써 GMO 개발·실용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국제적 흐름을 외면하고 농업생명공학기술 연구개발을 멈춘다면,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하게 될 게 자명하다. 우리 농업의 난제 해결과 농업의 첨단산업화에 필요한 GMO 개발에 국가적 지원과 국민의 지지가 절실하다. <br/> <br/>박찬준 경제부 부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7.txt

제목: [문승현칼럼] 인텔리전스 사회의 인공지능과 인간지성  
날짜: 2016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21222316451  
ID: 01100701.2016082122231645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얼마 전 일본에서 ‘닥터 인공지능(AI)’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도쿄대 연구진이 한 백혈병 환자에게 IBM의 AI 왓슨이 제안한 새로운 항암제를 투여했다. 차도가 없던 이 환자가 몇 개월 만에 퇴원해 통원 치료를 할 정도로 병세가 호전됐다고 한다. 왓슨은 연구진과 IBM이 입력한 암 연구 관련 논문 2000만 건을 학습했고, 연구진이 해당 환자의 암 관련 유전자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자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했다. 최종 치료 결과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의료와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AI가 지금의 전문직들을 대체하리란 전망이 먼 미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br/> <br/>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채팅봇 테이는 AI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었다. 트위터 등에서 테이 서비스가 시작되자 극우주의 성향의 이용자들이 의도적으로 편향된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 방법으로 테이를 훈련시켰다. 이를 학습한 테이는 트위터에서 유색인종과 여성을 비하하고 나치의 집단 학살을 찬동하는 등 문제가 될 발언들을 쏟아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뒤 “테이를 다시 교육시키겠다”며 사과 성명까지 발표했다. <br/> <br/>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AI의 기본 역할과 기능은 인간이 설정한 특정 목적을 위해 스스로 학습하며 맞춤형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가 빅데이터에 관심을 갖는 것도 주어진 시간에 사람의 역량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막대한 양의 정보 속에서 숨어 있는 패턴이나 유용한 지식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의사가 허탈감을 느낄 정도로 실제 효과를 발휘하는 치료법을 빠르게 제시한 것이나 극우주의자들의 의도대로 막말을 터득한 테이의 경우 모두, 인간이 원하고 욕망하는 바대로 AI가 제 역할을 다 한 결과이다. <br/> <br/>AI의 속도와 정확성, 편리함에 대비되는 인간의 오류는 갈수록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소한 불편이 쌓일수록, 인간지능을 대체할 수 있는 AI에 대한 수요는 모든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인도할 인텔리전스(intelligence) 사회가 고도(高度)화될수록 이러한 현상은 심화된다. AI가 상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간지능을 대체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이들은 합리적 근거나 논리보다 희망에 기대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3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이세돌의 우세를 예상했지만 거기에 특별한 논리는 없었다. 올림픽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듯 자연스럽게 응원하는 마음과 막연하게 ‘그래도 아직은 인간이 컴퓨터보다 우월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정확하고 논리적이며 균형 있는 판단을 가로막았다. 앞으로 AI에 의존하지 않은 인간의 문제 진단과 해법, 예측과 전망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br/> <br/>개인과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AI에게 묻고 그 답을 실행에 옮기는 사회가 다가올수록, ‘인간 지성(知性)’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일은 그래서 필요하다. 건강한 인간 지성으로 기계의 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나에게 어떤 맞춤형 지식이 필요할지만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떤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입력된 정보와 지식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관여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첨단 기술은 그것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도구이기에,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인간 지성이 빈곤해지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br/> <br/>AI가 발달할수록 문명의 주인공인 인간의 영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과학기술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류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이를 담보하는 문명의 발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AI라는 과학기술도 예외가 될 수 없다. <br/> <br/>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8.txt

제목: [재테크 단신] 고령·유병자도 간편심사로 보험 가입 외  
날짜: 2016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21214414489  
ID: 01100701.20160821214414489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고령·유병자도 간편심사로 보험 가입 <br/> <br/>NH농협생명은 고령자·유병자도 3가지 간편심사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한 ‘간편가입NH보장보험’(사진)을 22일 출시한다. 이번 신상품은 고령자는 물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간편심사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간편심사 질문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필요소견, 2년 이내 입원 및 수술, 5년 이내 암으로 진단·입원·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지에 대한 것이다. 가입 나이도 기존 유병자보험보다 확대된 40∼77세다. 주계약은 재해사망을 보장하며 1종 만기보험금형과 2종 순수보장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만기보험금형은 10년 만기 시마다 50만원(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가입 기준)을 지급한다. <br/> <br/>피보험자 암 진단시 보험료 납입 면제 <br/> <br/>삼성화재는 기존 암 보험 상품을 개정한 ‘한방에 유비무암’을 최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암 진단 이후의 생활자금 담보까지 갖춰 암 치료에 관한 걱정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방치료비와 재진단암 진단비 담보를 갖춰 암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방·자궁 등 여성 특정질환 보장을 강화했다. 또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1∼3급 장애 판정 시 10년 동안 매년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한방에 유비무암’은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고 피보험자가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이 있어 보험료 납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보험료 납입면제 이후 재가입 시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br/> <br/>하나금융 포인트로 여행자보험 결제 <br/> <br/>내달부터 하나금융지주의 통합 포인트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하나머니’로 여행자보험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하나금융 계열 KEB하나은행은 ‘하나멤버스 V2’가 다음달 새롭게 출시될 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은행 측은 이를 위해 지난 19일 하나투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나투어 고객은 은행이 제공하는 사이버 환전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념해 하나투어 고객이 하나멤버스에 신규 가입하면 선착순 11만1111명에게 하나투어 계열인 SM면세점의 온라인 적립금 1만원을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1만1111명에게는 해외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 하나머니 등을 지급하는 경품행사도 진행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9.txt

제목: 美국립보건원 '근적외선' 암 치료…동물실험 성공  
날짜: 20160819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19174348821  
ID: 01100701.20160819174348821  
카테고리: 국제  
본문: 미국 국립보건원(NIH) 연구팀이 몸 밖에서 적외선을 쏴 암세포를 파괴하는 동물실험에 성공했다고 18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br/> <br/>보도에 따르면 NIH 주임 연구원 고바야시 히사타카 박사 연구팀은 정상적인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을 파괴하는 암 치료법을 동물실험에 성공했다. <br/> <br/>연구팀은 주로 암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에 흡착하는 성질을 가진 항체에 주목.  <br/>근적외선의 특정 파장을 받으면 발열하는 화학물질이 내재된 항체를 암세포를 이식한 쥐 70마리에 주사한 결과 약 하루 만에 모든 쥐에서 암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br/> <br/>또 생체 면역 기능이 활발해지면 조직, 장기를 공격하는 등 '면역 반응'이 일어날 우려가 있지만 이번 실험을 통해 빛을 쬔 곳의 암세포만 사라지고 다른 조직이나 장기를 공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r/> <br/>고바야시 박사는 "암의 전이가 발생해도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r/>이번 연구는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에 게재됐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마이니치신문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0.txt

제목: 황달 유발물질 활용 암 치료… 카이스트 연구팀, 기술 개발  
날짜: 2016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18213556093  
ID: 01100701.2016081821355609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카이스트(KAIST) 생명과학과 전상용 교수·이용현 박사 연구팀은 황달 유발 물질인 ‘빌리루빈’을 거꾸로 활용해 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약물 전달기술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br/> <br/>주로 간에서 배설되는 빌리루빈은 적혈구와 세포 안 다양한 효소에 있는 ‘헴’의 최종 대사물질이다. 인체는 질병이나 피로로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 빌리루빈을 배설하지 못하는데, 노란색을 띠는 이 빌리루빈이 몸에 축적되면 황달을 일으킨다. 항산화 작용 특성이 강한 빌리루빈은 빛을 쏘이면 산화하면서 친수성(親水性)이 큰 ‘빌리버딘’이라는 물질로 전환되거나 작은 빌리루빈 물질로 깨진다. <br/> <br/> 전상용 교수 이용현 박사연구팀은 이 같은 빌리루빈의 특성을 암치료 물질 전달시스템에 적용했다. 나노입자로 만든 빌리루빈에 항암제인 ‘독소루비신’(Doxorubicin)을 실어 인체에 투여한 다음 암부위에 빛을 쐬면 빌리루빈이 와해되면서 선적된 항암치료 물질만 남아 정확하게 암조직을 공격하는 원리다. 연구팀은 이 시스템이 인간 폐암세포를 가진 동물 모델에서 기존 항암치료 그룹보다 우수한 효능을 보이는 것을 규명했다. <br/> <br/>이용현 박사는 “<span class='quot0'>빌리루빈을 활용한 항암치료용 다중자극감응형 약물전달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천연 물질인 빌리루빈을 사용해 독성이 없고 간단한 시스템으로 구성돼 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고 공정도 복잡한 인공소재 기반의 자극 감응성 약물전달체에 비해 상용화 가능성이 휠씬 크다</span>”고 말했다. <br/> <br/>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1.txt

제목: 고양목암지구 신안실크밸리 1,885세대 아파트 홍보관 오픈  
날짜: 20160817  
기자: 김정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17120445430  
ID: 01100701.2016081712044543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고양시 벽제동 일원에 평당 700만원대로 공급되는 고양 목암지구 신안실크밸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100%토지매입, 분담금 확정가 등을 통해 홍보관을 오픈하고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br/> <br/>고양 목암지구 신안실크밸리는 총 1,885세대 지상 8층~16층, 전용면적 64㎡(1,116세대), 66㎡(117세대), 70㎡(25세대), 75㎡(329세대), 84㎡(298세대)로 구성됐다. 예정 시공사는 건설 외길 40년의 신안건설산업이다. <br/> <br/>단지 서측으로 39번 국도, 남측으로 4차선 도로와 접하고 있고, 39번 국도와 1번 국도를 통해 삼송지구, 화정과 연계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br/> <br/>통일로IC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 의정부, 구리 접근성도 용이하고, 장흥~송추 우회도로, 관산~벽제 우회도로 신설 및 덕양~파주시계 도로건설이 예정됐다. <br/> <br/>목암초와 목암중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고양초와 고양일고도 인접하고 있다. 초등학교 1개교가 단지와 인접하여 신설될 예정이고, 단지 남부 기존 거주지에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다. <br/> <br/>단지내 휘트니스센터, 실내골프장, 게스트룸 등의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br/> <br/>개명산을 볼 수 있고, 우암산이 인근에 위치해 단지 앞 생태하천과 하천과 연결된 산책로도 조성된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포함해 녹지비율 43%에 이른다. <br/> <br/>고양 목암지구 신안실크밸리는 무료 발코니확장이 가능하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br/> <br/>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2.txt

제목: [연구] 하루 1시간반 몸 움직이면 암과 당뇨 막을 수 있다  
날짜: 20160814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14105211034  
ID: 01100701.2016081410521103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미국과 호주 과학자들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주간 평균 적정 운동량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HO는 암과 당뇨, 심장질환 등을 예방하려면 주당 최소 150분 빠르게 걷거나 75분 정도 뛰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br/> <br/>영국 매체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공동 연구진은 어느 정도의 운동량이 5대 만성질환(유방암, 대장암, 당뇨병, 협심증, 뇌경색)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지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과학저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 최신호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총 신체활동량이 각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 174편(1980∼2016년)을 분석했다. <br/> <br/>분석 결과 5대 만성질환은 일주일 총 신체활동이 600MET(대사당량·신체활동 강도를 표시하는 지수)분 이상일 때 발병할 가능성이 적어지기 시작했다. 600MET분은 WHO가 권고하는 최소 운동량이기도 하다. 하지만 신체활동이 많을수록 5대 질환 발병 확률은 더 낮아졌다. 또 운동량에 따라 발병률이 눈에 띄게 줄기도 하고 완만하게 떨어지기도 했다. <br/> <br/>연구진은 주당 신체활동이 600∼4000MET분일 때 5대 질환에 걸릴 위험은 크게 떨어졌고, 4000∼1만MET분일 때는 완만하게 발병 가능성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5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MET는 주당 3000∼4000MET였다고 강조했다. 이는 WHO의 최소 대사당량 600MET보다 5∼7배 정도 높은 것이다. <br/> <br/>연구진은 "일주일 총 신체활동이 3000∼4000MET분은 돼야 각종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WHO의 권장 운동량은 현행보다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주당 3000MET분의 신체활동은 어떻게 해야 채울 수 있을까. 연구진은 하루 10분 계단을 오르내리고, 15분 동안 청소를 하며, 20분 동안 화단을 돌보고, 20분 동안 달리기를 하며 25분 정도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3000MET분을 채울 수 있다고 귀띔했다. <br/>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3.txt

제목: 신장암 새 발병 원인 ‘특정 효소’ 발견  
날짜: 201608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10185531818  
ID: 01100701.2016081018553181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신장암을 일으키는 새로운 원인을 찾아냈다. 신장암과 다른 암과의 차이점을 규명함에 따라 조만간 신장암 특성에 맞춘 표적치료제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br/> <br/>국립암센터 기초실용화연구부 김수열 박사팀은 신장암 환자 14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특정 효소가 신장암 발병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br/> <br/>연구팀에 따르면 신장암을 비롯한 암의 발병원인 가운데 하나는 ‘p53’라는 암억제 유전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신장암 환자에서는 p53 자체의 문제가 아닌 단백질을 서로 이어주는 효소인 트랜스글루타미나제2(transglutaminase 2)가 과도하게 생겨 p53의 기능을 막는다는 점을 규명했다. 이후 신장암을 유도한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트렌스글루타미나제 2를 억제한 결과 p53이 활성화돼 암세포가 소멸한 것도 확인했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4.txt

제목: [마이머니 단신] 모바일 앱 통한 펀드계좌 개설 서비스 시작 외  
날짜: 201608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08003955532  
ID: 01100701.20160808003955532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모바일 앱 통한 펀드계좌 개설 서비스 시작  <br/> <br/>미래에셋생명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펀드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사진)를 시작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미래에셋생명 ‘모바일 사이버창구’ 앱에서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보험설계사(FC) 또는 임직원의 실명확인, 영업점 최종승인을 거쳐 계좌개설이 완료된다. 일반 펀드계좌뿐 아니라 연금저축계좌,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까지 개설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또 서비스를 출시하며 업계 최초로 FC에게 펀드계좌개설 권한을 부여했다.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복수의 실명확인 방식을 적용해 운영상의 안정성도 높였다. <br/> <br/>상해로 인한 치아 손상까지 보장 보험 출시 <br/> <br/>악사(AXA)손해보험은 기존보다 보장범위를 확대한 ‘다이렉트 NEW치아보험’(사진)을 출시했다. 질병뿐 아니라 상해로 인한 임플란트와 크라운, 신경치료 등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고, 기존 치아보험에 있었던 골절진단 특약에 더해 안면 흉터복원 등 상해로 발생하는 수술비도 추가 보장한다. 중이염, 알레르기성 비염 등 어린이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의 수술비도 보장한다. 악사손보는 월 3만~6만원으로 고가화되고 있는 다른 치아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월 2만~3만원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혜택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br/> <br/>보장은 늘리면서 보험료는 대폭 낮춰 <br/> <br/>교보생명은 보장을 늘리면서 기존상품보다 보험료를 대폭 낮춘 ‘교보프리미어 CI보험’(사진)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사망 보장은 물론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한 질병(CI)과 중증치매 등 장기간병 상태를 평생 보장하는 보험이다. 중증세균성수막염, 루게릭병, 다발경화증 등 4가지 질환을 새롭게 CI에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또 그동안 보장에서 제외됐던 갑상선암 중 예후가 좋지 않은 일부 암에 대해 중대한 갑상선암으로 분류해 보장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존 CI보험의 보장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소액보장도 확대했다. 뇌출혈, 뇌경색증처럼 CI가 발생하기 전 단계의 질환이나 CI와 연관성이 높은 중증질환 9종도 질환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5.txt

제목: 국립암센터, 세계보건기구 워크숍 개최  
날짜: 20160806  
기자: soon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06170231642  
ID: 01100701.20160806170231642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우리나라 암 관리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개발도상국 대표자들이 국립암센터에 모인다. <br/> <br/>국립암센터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개도국 대표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br/> <br/>이 워크숍에는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온 참석자들은 만성질환의 감시체계와 모니터링 관려 교육 및 토론을 통해 각국의 활동현황을 공유한다.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의 암 관리 노하우도 함께 전수받는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6.txt

제목: 국립암센터, 엄마아빠 직장체험 행사  
날짜: 20160806  
기자: soon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06170231237  
ID: 01100701.20160806170231237  
카테고리: 지역>대구  
본문: 국립암센터가 여름 방학을 맞아 오는 10일 센터 직원의 초등학생 자녀를 초대한다. <br/> <br/>국립암센터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국가암예방검진동에서 부모직원과 초등학생 자녀 및 자녀 친구 등 약 250명을 대상으로 체험 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br/> <br/>이번 행사는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 직원 자녀들을 엄마아빠의 직장으로 초대해 부모의 일터 구석구석을 탐방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또 엄마아빠와 함께 암 연구·진료·암관리사업 업무의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국립암센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진로 탐색도 돕기 위한 목적이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7.txt

제목: [연구] 뚱뚱한 사람 뇌는 마른 사람보다 10년 더 늙어 있다  
날짜: 20160805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05135713844  
ID: 01100701.2016080513571384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의 뇌는 그렇지 않은 동년배에 비해 10년쯤 더 늙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이 당뇨나 암, 심장질환 발병은 물론 뇌의 노화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심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뇌의 노화가 구체적으로 기억력과 같은 인지능력 퇴화에도 영향을 끼치는지는 규명되지 않았다. <br/> <br/> <br/>4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캠브리지대학 연구진은 20∼87세 성인 남녀 473명을 체질량지수(BMI) 25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분류한 뒤 뇌를 스캔해 같은 나이끼리 비교한 결과 과체중·비만(BMI 25 이상)인 사람의 백질(white matter) 양은 BMI 25 미만 그룹에 비해 상당히 쪼그라든 상태였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과학저널 ‘노화의 신경생물학’(Neurobiology of Aging) 최신호에 발표됐다.  <br/> <br/> <br/>뇌 백질은 우리의 생각을 담당하는 회백질(피질) 사이를 연결하는 조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뇌 크기가 줄어드는 데 백질이나 회백질 양이 줄면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사 로넌 교수는 "과체중 이상인 사람의 뇌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0년 정도 더 늙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br/> <br/>과체중인 사람의 뇌 노화는 50세 때부터 뚜렷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진은 비만이 어떤 과정으로 뇌 백질을 수축시키고, 뇌의 급속한 노화가 인지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연구진은 뇌 백질이 현저히 준 사람을 상대로 지능검사(IQ)를 진행했지만 정상적인 사람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다. <br/> <br/> <br/>또 이미 백질 양이 줄어든 상태에서 체중을 감량하면 뇌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지도 규명하지 못했다. 사다프 파루키 교수는 "이같은 변화가 뇌의 전반적인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알아내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몸무게와 음식, 운동 등이 뇌와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초석은 다진 것으로 자평한다"고 강조했다. <br/>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8.txt

제목: “암 전이여부 영상으로 조기 진단”  
날짜: 201608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01210442226  
ID: 01100701.2016080121044222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암 전이를 현재보다 훨씬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생체 영상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br/> <br/>보건복지부는 경북대병원 이재태(사진)·전용현 교수와 고려대 KU-KIST 융합대학원 임동권 교수가 ‘고(高)민감성 고(高)안정 방사선 동위원소 결합 금 코어셀 나노입자’를 이용한 조영제로 암 전이 여부를 발견하는 영상기술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나노학술지 ‘스몰’(Small) 온라인판에 지난달 21일 게재됐다. <br/> <br/>암 전이 여부는 통상 ‘감시 림프절’을 진단해 찾아낸다. 감시 림프절은 암이 림프절로 전이될 때 첫 번째로 전이되는 림프절이다. 기존에는 암 조직에 염색 색소를 주입해 감시 림프절을 찾아낸 뒤 직접 떼어 내 전이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번에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면 영상 촬영만으로 감시 림프절의 전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진은 부작용과 독성 확인만 마치면 향후 10년 이내에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9.txt

제목: 인도 빈민가 신문팔이에서 1조6600억원짜리 기업 일군 30대 CEO  
날짜: 20160801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01195613329  
ID: 01100701.20160801195613329  
카테고리: IT\_과학>모바일  
본문: 암바리시 미트라의 삶은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와 몹시 닮았다. 출처=암바리시 미트라, BBC방송 <br/>열네살 그는 학교수업을 밥 먹듯이 빼먹던 문제아였다. 1년 뒤엔 인도 뉴델리 슬럼가에서 신문과 차를 파는 가출소년이었다. 열일곱살 때 정보기술(IT) 업체를 경영한 적도 있지만 2000년대 대부분은 하는 일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여러 직업을 전전해야만 했던 반백수로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가치만 15억달러(약 1조6627억원)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최고경영자(CEO)이다. 그의 삶은 빈민가 소년이 퀴즈쇼에서 우승해 백만장자가 된다는 내용의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를 닮았다. <br/> <br/>영화같은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은 영상인식과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해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블리파(Blippar)의 설립자 암바리시 미트라(37)다. 블리파는 눈 앞에 있는 물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해당·관련 상품 정보를 제공해주는 앱이다. 노트북을 스캔하면 ‘랩탑’과 데스크톱, 태블릿PC, 터치패드, 안드로이드 OS 등의 항목이 나타나고 특정 항목을 클릭하면 위키피디아나 언론에 기술된 관련 정보를 표시해준다.  <br/> <br/> <br/>블리파는 2011년 설립 5년만에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스타트업이 됐다. 블리파를 다운받은 사람은 7월말 현재 170개국 6500만명. 말레이시아 정부(5400만달러)를 비롯해 9900만달러(약 197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코카콜라와 네슬레, 유니레버 등 세계적 제조사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CNBC와 블룸버그,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이 선정하는 ‘세계 주요 혁신기업’에서 수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br/> <br/>미트라 블리파 CEO는 1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삶을 "온갖 모험의 연속"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인도 동부 자르칸트주 탄광마을 단바드에서 자랐다. 자신은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싶은 데 아버지가 기능공이 되라고 해 자주 결석을 했다고 한다. 그는 열네살 때 가족에게 "뭄바이로 간다"는 편지를 남기고 ‘기회의 땅’ 뉴델리로 갔다. 뉴델리 서남부의 슬럼가의 화장실도 없는 좁은 방에서 6명과 함께 잠을 자며 낮엔 신문과 잡지를 팔고 밤엔 차를 팔며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생활을 했다. <br/> <br/> <br/>인도 뉴델리 슬럼가에 살던 시절의 암바리시 미트라(중앙) 소셜앱 '블리파' 공동설립자. 출처=BBC첫 번째 기회는 열여섯살 때 찾아왔다. 신문에서 우연히 읽은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중하류층 인도 여성을 위한 무료 인터넷 제공 사업’을 냈는데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어린 암바리시는 상금 1만달러(약 1100만원)로 여성 생활정보 포털사이트 ‘위민인포라인(WomenInfoline)’을 개설했다. 방문자수가 늘면 광고비가 들어올테고 이를 통해 인터넷망 개설과 또다른 수익사업을 펼친다는 구상이었다. 한때 직원을 125명까지 늘렸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별다른 수익이 없어 2000년 대표직을 사임했다. <br/> <br/> <br/>그의 생애 첫 사업아이템인 여성 전용 포털사이트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 출처=BBC방송 <br/>그는 위민인포라인을 팔고 남은 돈으로 영국으로 건너갔다. 영국 보험정보 제공 사이트 ‘스위프트커버’나 모바일 소셜네트워크 ‘스턱’ 등 여러 IT 스타트업을 시작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미트라 CEO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내가 벌인 모든 일은 재앙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로 창업 아이디어는 괜찮은 편이었지만 아이템을 수익으로 연결하진 못했다"며 "2010년 즈음엔 사업 파트너였던 한 보험사로부터 일감을 받기도 했는데 1주일 통틀어 6시간만 일했던 거의 반백수였다"고 말했다. <br/> <br/>잇단 실패에 따른 좌절과 분노를 술잔에 채워 잊어버리던 2011년 어느날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다. 런던 한 술집에서 보험사 근무 시절 친하게 지냈던 오마르 타예프와 술을 마시다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20파운드짜리 지폐에서 빠져나온다면 어떨까"라고 농담을 했는데 타예프가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왕과 미트라, 술집 다른 손님들 얼굴을 겹쳐보이게 하는 기술을 구현한 것이다. <br/> <br/> <br/>미트라 블리파 대표(왼쪽)와 함께 2011년 AR 기술을 활용한 상품 정보 제공 모바일 앱을 개발한 오마르 타예프. 출처=BBC방송 <br/>미트라는 "다음날 동 틀 즈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인식하는 앱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기로 의기투합했다"고 말했다. IT 전문가 크리스 그린은 BBC에 "블리파의 급성장 요인 중 하나는 전문가 수준의 사양이나 보조장비 없이 스마트폰만 갖고도 간단하게 특정 상품을 체험하고 빠르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앱 구현방식이 매우 친숙하고 문화장벽이 없다는 점도 블리파의 인기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br/> <br/>미트라 대표의 다음 목표 중 하나는 블리파에 오디오 기능을 추가해 사람들에게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들에게도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최근 뉴델리를 다녀왔다는 미트라 대표는 "10대 시절 뉴델리에 있을 때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무슨 일이든 닥치는대로 하겠다’는 생각 뿐이었다"며 "온갖 역경과 모험이 가득했던 그 시절 그 경험으로 지금 매우 들떠 있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에 행복하다"고 말했다.  <br/> <br/>"내 인생은 모험의 연속이었다"고 말하는 미트라 CEO(오른쪽). 출처=BBC방송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0.txt

제목: "달 다녀온 우주인들, 심혈관 질환 고통"  
날짜: 201607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29190153989  
ID: 01100701.2016072919015398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아폴로 프로그램을 통해 심우주(Deep space)를 경험한 우주인들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고통받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립대 마이클 델프 교수의 연구팀은 심혈관 질환과 심우주 방사선에 노출된 우주인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이날 과학잡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심우주란 지구 자기권을 벗어난 우주로, 연구팀은 이곳에 존재하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조사했다. <br/> <br/>연구팀에 따르면 달 표면에 발을 딛는 등 우주에 직접 나간 우주인은 그러지 않은 우주인보다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5배가량 높았다. 또 달에 다녀온 우주인은 지구에 가까운 지구 저궤도(LEO) 안에서만 활동한 우주인보다 심장병 발병 가능성이 4배 많았다. <br/> <br/>지구 자기권은 방사선을 내포한 은하 우주선(은하계를 날아다니는 고속입자)이나 태양 입자의 지구 진입을 막는 보호막 구실을 한다. 아폴로 달 계획에 참가한 우주인은 지구 자기권을 벗어나 심우주로 간 유일한 사람들이다. 1961∼1972년 나사의 아폴로 프로그램을 통해 달 표면을 밟은 우주인은 닐 암스트롱 등 12명이다. 조사에 따르면 사망한 우주인 7명 중 3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숨졌고 2명은 암, 1명은 사고로 사망했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1.txt

제목: 달 등 지구 자기장 밖 다녀온 우주인, 심혈관 질환 사망률 월등히 높아  
날짜: 20160729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29092151816  
ID: 01100701.2016072909215181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1960~70년대 인류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했던 달탐사 우주선 아폴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우주인들이 심혈관 계통 질환으로 고통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br/> <br/>이는 심우주 방사선이 우주인의 인체에 영향을 끼친 최초의 조사 자료이다. <br/> <br/>28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립대 인체 과학 학부장인 마이클 델프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심혈관 질환과 심우주 방사선에 노출된 우주인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이날 과학잡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br/> <br/>이에 따르면 달에 다녀온 우주인의 경우 우주선에 탑승하지 않은 우주인이나 우주로 나가지 않은 우주인보다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5배 가까이 높았다. <br/> <br/>또 지구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구 저궤도(LEO) 안에서만 활동한 우주인과 비교해도 달에 다녀온 우주인의 심장병 발병 우려는 4배 많았다. <br/> <br/>미국 항공우주국은 1961∼1972년 아폴로 프로그램을 운용, 1968년부터 1972년 사이 11차례 유인 우주선을 우주에 보냈다. <br/> <br/>이 중 9번은 지구궤도 바깥 심우주 탐사를 벌여 최초로 달에 내린 아폴로 11호 등 6번은 달에 도착했다. <br/> <br/>달 표면을 밟은 우주인은 닐 암스트롱, 에드윈 버즈 올드린을 포함해 12명이다. <br/> <br/>이들을 포함해 지구 자기권을 벗어나 심우주로 간 우주인은 모두 24명이다.  <br/> <br/>지구 자장이 지배하는 지구 자기권은 방사선을 내포한 은하 우주선(은하계를 날아다니는 고속입자)이나 태양 입자의 지구 진입을 막는 보호막 구실을 한다. <br/> <br/>연구팀은 심우주에 다녀온 전체 우주인 24명 중 사망한 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br/> <br/>올해 2월에 사망한 에드거 미첼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br/> <br/>그 결과 사망한 우주인 7명 중 3명(43%)이 심혈관 질환으로 숨졌다. 2명(29%)은 암, 1명은 사고(14%)로 유명을 달리했다. 나머지 1명의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br/> <br/>연구팀은 다음으로 쥐를 아폴로 우주인이 겪은 것과 비슷한 방사선 환경에 두고 인간에겐 20년과 같은 시한인 6개월 후의 상태를 봤더니 실험 쥐들이 죽상 경화성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동맥 경화 현상을 겪고 있음을 발견했다. <br/> <br/>델프 교수는 "쥐 실험 결과는 심우주 방사선이 혈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면서 "우리는 그간 심우주 방사선이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인체에 전반적으로 끼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2.txt

제목: 대표적 건강 정보 10가지 뒤에 숨겨진 오해와 진실  
날짜: 20160727  
기자: 김지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27103223784  
ID: 01100701.20160727103223784  
카테고리: IT\_과학>보안  
본문: “<span class='quot0'>하루에 물 8잔을 마셔야 한다</span>” “<span class='quot0'>분수식 식수대에는 화장실보다 더 많은 세균이 있다</span>”.  <br/>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많은 정보를 찾고 접한다. 하지만 이들 중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정보일까? <br/> <br/>미국 온라인매체 리틀띵스가 흔한 건강 정보 10가지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소개했다. <br/> <br/> <br/>1. "하루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 <br/>Tayra Lucero and Heeral Chhibber for LittleThings진실 <br/>사과는 비타민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각종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 과일과 채소가 암과 심장병의 위험을 낮춰준다는 수많은 과학적 증거가 있다. <br/> <br/> <br/>2. "<span class='quot0'>하루에 물 8잔을 마셔야 한다</span>" <br/>Tayra Lucero and Heeral Chhibber for LittleThings근거 없는 믿음 <br/>수분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몸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물의 양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음식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 인체는 탈수상태가 되기 이전에 물을 마시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섬세하게 조정되어 있다. <br/> <br/> <br/>3. "아침 식사가 하루 식사 중 가장 중요하다" <br/>Tayra Lucero and Heeral Chhibber for LittleThings근거 없는 믿음 <br/>당신이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사람이 아니어도, 걱정할 필요 없다. 본피트니스닷컴에 따르면, 최근 2가지의 연구에서 아침 식사가 체중 감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진실은, 당신이 언제 식사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br/> <br/> <br/>4. "TV를 많이 보는 것은 좋지 않다" <br/>Tayra Lucero and Heeral Chhibber for LittleThings진실 <br/>너무 놀라지 마라. 적당한 TV 시청은 괜찮다. 하지만 너무 많이 TV를 보는 습관은 당신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TV 시청에 시간을 뺏겨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이르면 중년기부터 뇌에 악영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TV를 보는 사람들은 인지력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br/> <br/> <br/>5. "닭고기 수프가 감기에 좋다" <br/>Tayra Lucero and Heeral Chhibber for LittleThings진실 <br/>뉴욕 타임스는 “<span class='quot1'>닭고기 수프가 정말 의학적 가치(약효)를 가질 수 있다</span>”라고 주장한다. 닭고기 수프는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호흡기의 회복에 도움을 줘 감기 증상을 완화해 준다. <br/> <br/> <br/>6. "매일 운동을 해야 한다" <br/>Tayra Lucero and Heeral Chhibber for LittleThings근거 없는 믿음 <br/>피트니스 전문가들은 운동 중간의 휴식시간이 당신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당신이 운동을 쉬는 날에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다. 건강 정보 사이트 쉐이프닷컴은 너무 많은 운동은 수면 장애, 탈진, 식욕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br/> <br/> <br/>7. "젖은 머리카락은 감기에 들게 한다" <br/>Tayra Lucero and Heeral Chhibber for LittleThings근거 없는 믿음 <br/>젖은 머리로 외출하면 감기에 걸릴 것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하지만 건강 정보 사이트 헬스라인닷컴에 따르면, 당신이 이미 아픈 상태이지 않은 한 샤워를 한 직후 집을 나서는 것이 당신을 감기에 들게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감기 기운이 느껴진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br/> <br/> <br/>8. "땀 억제제가 암을 유발한다" <br/>Tayra Lucero and Heeral Chhibber for LittleThings근거 없는 믿음 <br/>땀 억제제 또는 데오도란트가 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가장 논란이 되는 주장 중 하나다. 하지만 미국 의학정보사이트 웹엠디(WebMD)는 “국립 암 연구소는 두 제품과 유방암이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br/> <br/> <br/>9. "<span class='quot0'>분수식 식수대에는 화장실보다 더 많은 세균이 있다</span>" <br/>Tayra Lucero and Heeral Chhibber for LittleThings진실 <br/>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사실이다. 클린팩스닷컴은 “분수식 식수대보다 화장실과 손잡이에서 더 적은 세균이 발견됐다”며 “학교 식수대에서는 평방 인치 당 270만 마리의 세균이 발견됐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를 전했다. <br/> <br/> <br/>10. "삼킨 껌을 소화시키려면 7년이 걸린다" <br/>Tayra Lucero and Heeral Chhibber for LittleThings근거 없는 믿음 <br/>껌은 분명히 삼키도록 만들어진 음식은 아니다. 하지만 이따금 당신이 우연히 이것을 한 덩어리 삼키더라도 일반적으로 해롭지 않다. 우리 몸은 껌을 소화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껌은 당신의 위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온전한 상태로 당신의 소화기 계통을 따라 이동하고 대변으로 배출된다. <br/> <br/> <br/>김지연 기자 kimjiyeonc@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3.txt

제목: 한-일 양국 국립암센터, 암 정복 위해 손 맞잡아  
날짜: 20160726  
기자: soon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26151920467  
ID: 01100701.20160726151920467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한국과 일본의 국립암센터가 암 정복을 위해 함께 나선다. <br/> <br/>국립암센터는 26일 일본 국립암센터와 인력교류와 암 공동연구, 암 연구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br/> <br/>일본 국립암센터는 후생노동성 산하기관으로 1962년에 국가 차원의 핵심적인 암 관리를 위해 세워졌다. 한국 국립암센터는 2001년부터 일본 국립암센터와 매년 암 연구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br/> <br/>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히토시 나카가마 일본 국립암센터 원장은 ‘정밀의료와 미충족 의료수요에 초점을 맞춘 일본 국립암센터의 새로운 비전’을 주제로 강의를 하기도 했다. <br/> <br/>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은 “<span class='quot0'>양 기관은 각국을 대표하는 국가 주도 암 정복기관으로 수많은 공통된 미션과 협력 의제를 가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협약이 지난 15년 동안 쌓아온 교류협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4.txt

제목: “오메가 3 항암 효과” 대장암 환자 사망률 크게 낮춰  
날짜: 201607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20195431645  
ID: 01100701.2016072019543164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연어나 참치 등에 많이 들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대장암 환자의 사망률을 낮춰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2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의학저널 거트(GUT)는 미국인 17만명 중 대장암이 발병한 1659명을 상대로 역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메가-3 지방산 섭취와 낮은 사망률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br/> <br/>연구진은 “<span class='quot0'>매일 0.1g에 못 미치는 오메가-3 지방산을 먹었던 사람과 비교해 매일 최소 0.3g의 오메가-3 지방산을 먹은 사람은 10년 기준 사망률이 41% 더 낮았다</span>”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아울러 암에 걸린 뒤 0.15g 정도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늘린 사람의 사망률은 70% 줄었지만 생선 섭취를 줄인 사람은 사망률이 10% 증가했다고 전했다. 연어나 참치 한 마리에는 평균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1.8g 정도 들어 있다. 톰 샌더스 런던 킹스칼리지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번 연구결과는 가공육 대신 연어와 같은 기름이 많은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입증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연구진은 오메가-3 지방산이 암이 성장하는 것을 막고, 암 세포에 혈액이 공급되는 것을 막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성장과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오메가-3는 우리 체내에서 생성될 수 없는 물질이다. <br/> <br/>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5.txt

제목: 식도암 진단·치료 동시 가능한 방사성약 개발  
날짜: 201607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19204230802  
ID: 01100701.201607192042308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발병 5년 생존율이 15% 정도에 불과한 식도암의 진단은 물론 치료도 할 수 있는 컨버전스 방사성의약품이 개발됐다. <br/> <br/>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원자력의학원 이태섭(사진) 박사팀이 식도암의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컨버전스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br/> <br/>컨버전스 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해 질병의 진단·치료가 가능하도록 제조한 의약품을 뜻한다. 연구팀은 암세포 증식인자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의약품인 ‘세툭시맙’에 암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인 ‘루테튬-177’을 붙여 새 의약품을 제작했다. 이 의약품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식도암을 이식한 쥐에게 투여한 결과 기존 치료법을 썼을 때보다 종양의 크기가 61.5% 감소하는 등 의약품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연구팀을 밝혔다. 연구팀은 세툭시맙에 또 다른 방사성동위원소인 ‘구리-64’를 붙이면 식도암의 크기와 위치를 영상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것도 밝혔다. <br/> <br/>이 박사는 “<span class='quot0'>기존 항체면역치료에 비해 종양의 크기가 61.5% 감소해 종양성장이 억제되는 효과를 입증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연구 결과는 ‘핵의학회학술지(Journal of Nuclear Medicine)’ 7월호에 실렸다. <br/> <br/>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6.txt

제목: [연구] 뇌졸중을 90% 예방하는 10가지 건강 수칙  
날짜: 20160717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17172335943  
ID: 01100701.2016071717233594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뇌혈관 질환은 암, 심장질환과 함께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이다. 특히 뇌경색과 뇌출혈을 통칭하는 뇌졸중(stroke)은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당 기간 크고 작은 뇌기능 장애를 겪는 중대질환이다. <br/> <br/>캐나다·아일랜드 연구진이 세계 32개국 약 2만7000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의학전문지 랜싯(Lancet) 최신호(15일자)에 발표했다고 ‘사이언스데일리’ 등 과학 전문 매체들이 전했다. <br/> <br/>연구를 주도한 마틴 오도넬 캐나다 맥마스터대학 교수는 "다음 10가지만 유념하면 뇌졸중의 90%는 예방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뇌졸중을 일으키는 10가지 위험요소들인데,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역·남녀·연령 모두 해당됐다. <br/> <br/>1. 고혈압 48% <br/>평소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48% 높았다. 음식을 최대한 싱겁게 먹고 스트레스 등에 신경쓰라는 얘기다. <br/> <br/>2. 운동부족 36% <br/>당연한 말이지만 꾸준히 운동하지 않은 사람은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36% 높아졌다. 땀이 흐를 정도로 운동하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한다. <br/> <br/>3. 잘못된 식습관 23% <br/>햄버거와 같은 인스턴트 음식을 최대한 멀리해야 한다. 제때 적당량의 음식을 먹고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게 좋다. <br/> <br/>4. 비만 19% <br/>체지방이 체중의 25∼30% 이상일 때를 말한다. 섭취하는 음식의 열량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열량을 소비해야만 비만에서 탈출할 수 있다. <br/> <br/>5. 흡연 12% <br/>긴 말 필요 없다. 담배는 ‘백해무익’이다. 지금 당장 끊어야 한다. <br/> <br/>6. 심장질환 9% <br/> <br/>7. 당뇨 4% <br/>체내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당뇨이다. 치료법으로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효과적인데, 운동의 경우 빠르게 걷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br/> <br/>8. 음주 6% <br/>흡연과 함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다. 불가피하게 마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1,2회 정도로 원칙을 정하는 게 좋다. <br/> <br/>9. 스트레스 6% <br/>암도 그렇지만 스트레스는 뇌졸중 발병의 6% 정도를 차지한다.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즐겁게, 긍정적으로 살아야할 일이다. <br/> <br/>10. 지방질 27% <br/>연구진에 따르면 핏속의 지방(blood fat)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경우를 일컫는 지방질(lipid)은 뇌졸중을 야기하는 세 번째 위험요소다. <br/>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7.txt

제목: 인터넷 떠도는 사드 괴담 ‘요격 불가’  
날짜: 2016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15192020961  
ID: 01100701.20160715192020961  
카테고리: 국제  
본문: '‘레이더 전자파로 인근 주민은 암에 걸리고 여성은 불임이 되며 기형아가 태어날 것이다’ <br/> <br/>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이 확정된 이후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괴담이다. <br/> <br/>정부는 사드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며 유언비어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지만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데다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도 마땅치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br/> <br/>15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해 ‘사드가 배치되면 전자파 탓에 반경 5∼6㎞에 꿀벌이 사라져 참외가 열리지 않는다’, ‘제주도에서 베이징까지 사드 전자파가 도달한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br/> <br/>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에 나선 지난 2월 무렵 제기된 논란과 유언비어가 재확산하는 모양새다. <br/> <br/>‘미국 무기 사주고 중국·러시아에 뺨 맞는다’, ‘중국·러시아가 경제 보복에 나설 것이다’,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0순위로 폭격을 가할 것이다’ 등 외교·안보와 관련해 과장된 우려도 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사드 레이더 설치 지역 3.6㎞ 내 민간인 출입 금지’, ‘강력 전자파로 100 안에서는 사람이 불타 죽을 수 있다’처럼 위험성을 마구잡이로 부풀리거나, ‘경북 성주에 사는 분들은 전자레인지를 뒤집어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등 악의적으로 왜곡한 글도 잇따르고 있다. <br/> <br/>성주의 특산물인 참외와 미사일 그림을 합쳐놓는 등 사드 배치로 참외 농사를 망칠 것이라는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게시물도 적지 않다. <br/> <br/>경찰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악의적 사실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해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게시물 검색에 착수했다. <br/> <br/>그러나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나 유포자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국방부 내 특정 부서’나 특정 개인을 적시하지 않은 채 유포되고 있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하는 게 어려워졌다. <br/> <br/>최근 경찰은 사드 관련 정도가 심한 괴담 글을 골라내 법률 검토를 했지만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br/> <br/>2010년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유언비어를 단속할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br/> <br/>경찰청 사이버안전과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사실이 아닌 내용을 올린 것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괴담이 난무하면 질서 유지 차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나 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8.txt

제목: [연구] 장기간 야근 하면 뼈와 근력 약해진다  
날짜: 20160715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15154414066  
ID: 01100701.2016071515441406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6개월 이상 야간에도 계속해 빛에 노출되면 면역성은 물론 근력과 함께 뼈까지 약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야간에도 근무하는 교대조나 신생아, 장기 입원 환자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br/> <br/> <br/> <br/>14일(현지시간) 과학전문 매체 ‘뉴 사이언티스트’에 따르면 요한나 메이예르 교수가 이끄는 네덜란드 레이던대학 메디컬센터 연구진은 과학저널 ‘커런트 바이올로지’ 최신호에 이같은 내용의 동물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br/> <br/>연구진은 생쥐 134마리를 6개월 동안 계속해 빛에 노출했다. 그 결과 막대에 매달리기 등 근력·지구력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뼈는 골다공증 초기 환자처럼 강도는 3분의 1 정도 약해졌고 부피 또한 10% 얇아졌다. 장기간 빛에 노출된 생쥐는 염증에 걸릴 확률도 높았다. 스트레스와 감염 인자로부터 몸을 지키는 혈액 내 호중구(neutrophil·체내에 침입한 세균 등 이물을 소화효소로 분해하는 과립성 백혈구의 주성분)의 양도 눈에 띄게 줄었다.  <br/> <br/> <br/>이같은 증상은 수면과 의식을 총괄하는 생체시계(circadian clock) 관여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빛에 노출될 경우 생체시계 기능은 70% 가까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체시계 기능이 떨어질 경우 암 등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br/> <br/>하지만 한번 어그러진 생체리듬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쉽고 간단하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메이예르 교수는 "(빛을 차단하자) 생쥐의 생체리듬은 거의 즉각적으로 복원됐고, 근육과 뼈 또한 2주만에 원래 기능을 회복했다"며 "여객기 승객들이 눈가리개를 하는 것처럼 몇분, 몇시간 동안 자체적으로 빛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br/>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9.txt

제목: 비만 아동 암 발병률 높다  
날짜: 201607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6195910868  
ID: 01100701.20160706195910868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소아 비만을 겪고 있는 아동일수록 대장암, 심혈관질환 등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덴마크 코펜하겐 프레데릭스버그 병원의 얀센 박사의 연구 결과를 인용, 아동의 체질량지수(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높을수록 암 발병 확률이 높다고 보도했다. 아동 25만76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13세 아동 기준 체질량지수가 2~3포인트 높아질수록 대장암과 직장암의 발병률은 각각 9%, 11% 증가했다. 또 1930년부터 1987년 사이에 태어난 덴마크인 30만767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도 어린 시절 체질량지수가 2~3포인트 높은 사람이 여성은 26%, 남성은 21% 확률로 심혈관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0.txt

제목: 패혈증 새 치료법 개발  
날짜: 201607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5220643153  
ID: 01100701.2016070522064315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사람의 혈관에 미생물이나 미생물 독소가 들어가 온몸에 심한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패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새 방법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br/> <br/>미래창조과학부는 윤주헌(사진 왼쪽)·유지환(오른쪽) 연세대 교수팀이 몸속 단백질 중 하나인 ‘세스트린2’가 패혈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5일 밝혔다. <br/> <br/>연구진은 몸속에 세스트린2가 없는 돌연변이 쥐와 정상 쥐에게 패혈증을 일으키고 생체반응을 비교한 결과 세스트린2가 염증반응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br/> <br/>즉 미생물이 침입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고 면역반응이 일어나는데, 세스트린2가 바로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한다는 거다. <br/> <br/>세스트린2는 대사 질환과 퇴행성 신경 질환, 암 등 각종 질환을 억제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패혈증 같은 염증 질환에서의 역할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다. <br/> <br/>이에 따라 이번 연구는 패혈증을 비롯한 각종 염증 질환의 치료법을 찾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br/> <br/>윤 교수는 “<span class='quot0'>항생제 투여만으로 치료가 어려웠던 패혈증 치료의 새 가능성을 제시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패혈증, 나아가 노인성 질환 등의 질병 치료법을 개발하는 토대가 될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오토파지(Autophagy)’ 6월23일자에 실렸다. <br/> <br/>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1.txt

제목: 한국 전통식품, 실제로 대장암 위험 낮춰  
날짜: 20160704  
기자: soon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4100458023  
ID: 01100701.2016070410045802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채소, 생선, 장류 등이 골고루 포함된 한국 전통 밥상이 대장암 위험을 절반 이상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김정선 국립암센터 암역학예방연구부 박사팀은 총 2769명을 대상으로 평소 식습관과 대장암 위험의 상관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 전통밥상을 주로 섭취할 경우 대장암 위험이 60%까지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br/> <br/>연구팀은 참여자에게 평소 먹는 식재료 106개를 고르게 한 뒤, 이 식재료를 영양소 근원에 따라 33개 식품군으로 나눴다. 또 주성분에 따라 한국전통식, 적색육·가공육·탄수화물 등을 포함한 서구식, 과일·유제품을 포함한 건강식 등 3가지 식이유형으로 구분했다. <br/> <br/>연구팀은 이렇게 구분된 3가지 식이유형을 참여자가 얼마나 섭취했는지에 따라 대장암 발병 위험을 분석했다. <br/> <br/>그 결과 한국전통식과 건강식을 높게 섭취한 그룹은 낮게 섭취한 그룹과 비교해 대장암 위험이 60% 이상 크게 줄었지만, 서구식을 높게 섭취한 그룹에서는 낮게 섭취한 그룹에 비해 2배 이상 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 <br/> <br/>김정선 박사는 “<span class='quot0'>그동안 대장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 식품이나 영양소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여러 영양소나 식품군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대장암은 유전, 생활습관, 환경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하는데 식습관 개선도 암을 예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2.txt

제목: [마이머니 단신] IBK기업은 ‘삼성페이 계좌결제 이벤트’ 외  
날짜: 201607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3211730667  
ID: 01100701.20160703211730667  
카테고리: 경제>서비스\_쇼핑  
본문: IBK기업은 ‘삼성페이 계좌결제 이벤트’ <br/> <br/>IBK기업은행은 8월4일까지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에 기업은행 입출금 계좌를 등록한 뒤 계좌결제 3회 이상, 결제 누적금액 3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IBK 삼성 페이 계좌결제 이벤트’를 진행한다. 4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3번째, 33번째 333번째 고객에게 갤럭시S7을 주고, 추첨을 통해 3000명에게 5000원권 SPC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지난 4월 출시한 ‘IBK 삼성 페이’는 전국 BC카드 가맹점에서 계좌결제가 가능하며, ATM입출금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br/> <br/>KB생보 ‘무배당 실버든든 암보험’ 출시 <br/> <br/>KB생명보험이 실버 전용 암보험인 ‘무배당 KB국민 실버든든 암보험’을 출시했다.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5년 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보장된다. 보험 가입 후 암 진단 시 2000만원, 특정암(유방암, 남성·여성 생식기암) 진단 시 500만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진단 시 200만원을 지급한다. 가입 후 2년 이내 발병 시는 보장금액의 50%를 지급한다. 특히 이 상품은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해 고혈압과 당뇨병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납입보험료 5% 할인 혜택도 있다.  <br/> <br/>NH농협, 법인대상 ‘All My Biz 카드’ 판매 <br/> <br/>NH농협카드가 법인사업자를 위한 ‘All My Biz 카드’ 판매를 시작했다. ‘All My Biz 카드’는 NH농협카드에서 처음 선보이는 법인사업자 전용상품으로, 국내 가맹점 이용 시 최대 0.7%까지 채움 Biz 포인트 무제한 적립과 전국 모든 주유소 및 충전소 이용 시 3% 채움 Biz 포인트가 적립된다. 특히 해외 가맹점 이용 시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1.5%의 포인트가 무제한 적립된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모든 카드의 실적을 합산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3.txt

제목: 홍화씨 추출물, 항암제 부작용 감소에 특효  
날짜: 20160628  
기자: 박찬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28152221091  
ID: 01100701.2016062815222109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약용작물인 잇꽃(홍화·사진)씨 추출물이 항암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r/> <br/>농촌진흥청은 항암 치료제인 ‘시스플라틴’을 투여한 실험 쥐에 잇꽃씨 추출물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잇꽃씨가 항암 치료 중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시켰다고 28일 밝혔다. <br/> <br/>시스플라틴은 폐암과 위암, 식도암 등을 치료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항암제다. 암 환자가 한 번만 이 약물을 투여해도 신장 기능이 최대 35%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심한 경우 급성 신장 손상이 유발될 수도 있다. <br/> <br/>농진청은 시스플라틴을 투여한 실험 쥐에 잇꽃씨 추출물 200㎎을 투여한 결과, 투여하지 않은 실험군에 비해 신장 기능 평가지표인 혈중 요소질소의 농도가 39.8% 준 것으로 확인됐다. <br/> <br/>보통 사람이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에서 마지막으로 요소로 배설되는데, 신장 기능이 나빠져 요소 배설이 잘되지 않게 되면 혈액 중에 남아있는 혈중 요소질소의 농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잇꽃씨 추출물 투여 후 혈중 요소질소 농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신장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뜻이다. <br/> <br/>또 실험 결과 잇꽃씨 추출물을 투여한 쥐는 손상된 신장 혈관 조직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출원하고 잇꽃씨 추출물을 천연 항암보조제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br/> <br/>중국 한방의학서인 ‘본초강목’에도 등장하는 잇꽃씨는 뼈 건강은 물론이고 지방 분해 촉진 효과 등이 있는 약용작물로 알려져 있지만, 신장 독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입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농진청은 전했다. <br/> <br/>농진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 결과로 잇꽃씨가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급·만성신부전증 등 연관 질환의 치료용 의약품이나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4.txt

제목: 질병관리본부 "자궁경부암 백신 안전성 문제 없다"  
날짜: 201606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23190141146  
ID: 01100701.20160623190141146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부작용 논란이 불거진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해 “안전성에 문제 없다”고 밝혔다. <br/> <br/>질본은 23일 “자궁경부암 백신은 현재 전 세계 65개 국가에서 암 예방을 목적으로 2억건 이상 접종된 안전한 백신”이라며 “백신 접종으로 인한 암 예방효과가 크며,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을 잘 지켜 접종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br/> <br/>질본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백신은 예방접종 후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접종부위 통증과 빨갛게 부어오르는 증상, 면역형성 과정에서의 발열과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2~3일 이내에 치료 없이 회복된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자의 80% 이상이 접종 부위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5.txt

제목: 암 진단, 고통스런 조직검사 없이 혈액으로 확인 가능성 열려  
날짜: 20160623  
기자: soon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23125005754  
ID: 01100701.2016062312500575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 진단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조직검사 없이 혈액만으로 고통없이 암 발병을 확인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br/> <br/>손주혁 연대 의대 종양내과 교수는 23일 오전 ‘대한항암요법연구회’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pan class='quot0'>통증을 유발하는 조직생검 대신 채취한 혈액 등으로 암 진단이 가능하다</span>”며 이같이 밝혔다. <br/> <br/>현재로선 암 진단을 위해서는 암 유전자 검사 이후 항암제 투여 등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조직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긴 주사바늘이 환자의 피부 밑, 장기에 위치한 종양까지 이르러야 하고, 통증은 물론 출혈, 내부장기 천공 등 부작용이 우려돼 반복적으로 시행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또 한 번의 조직검사로 진단에 충분한 조직을 얻기 힘든 경우도 많다. <br/> <br/>손 교수는 “<span class='quot1'>조직생검은 바늘, 내시경 등을 이용해 인체에 침습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불안감과 불편함을 초래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중대한 부작용 또한 우려되는 상황</span>”이라고 지적했다. <br/> <br/>반면 액체 생검은 절개 등의 침습적 시술없이 혈액이나 복수 등 체액에 있는 암의 유전자조각을 이용해 검사가 가능하다. 주사기로 혈액을 뽑아 DNA를 체취하고, 혈액을 떠다니는 암세포 DNA를 증폭해서 유전자 내 특정 암을 일으키는 돌연변이가 존재하는 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br/> <br/>특히 표적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조직검사에서보다 다양한 생물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br/> <br/>최근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례회의에서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폐암, 유방암, 대장암 환자 1만519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직검사와 액체검사간의 유전자 변화를 비교한 결과, 386명에서 혈액과 조직 간의 유전자 변이 결과가 약 87% 일치했다. 혈액검사와 조직검사를 시행한 시간차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98%까지 일치율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br/> <br/>손 교수는 “<span class='quot1'>아직 액체생검이 조직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르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1'>환자의 혈액, 소변 등으로 진단하는 액체생검은 암 환자의 개인별 맞춤 치료를 위해 필요한 암유전자 변이정보를 보다 용이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고통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암유전자 변이 정보를 반복적으로 확인해 암의 악화를 막고, 치료에 대한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6.txt

제목: 많이 노출되면 딸 낳는다?… 전자파 오해와 진실  
날짜: 201606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22182909893  
ID: 01100701.2016062218290989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전자파에 많이 노출되면 딸을 낳는다?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린다? <br/> <br/>정답은 둘 다 ‘아니다’이다.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이용하는 빈도와 시간이 늘면서 전자파를 둘러싼 ‘괴담’도 무성하다. 국립전파연구원은 22일 전자파를 둘러싼 이 같은 ‘인터넷 풍문’에 대한 답을 내놨다. <br/> <br/>먼저 ‘전자파로 정자 수가 줄어들거나 유전자가 변형돼 딸을 낳는다’는 속설에 대해 연구원은 “국내외 연구에서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검증된 바 없다. 특히 태아 성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등의 전자파가 정자의 수나 운동성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는 있었지만, 생활습관·음식·음주 등 다른 요인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해 인정받지 못했다. <br/> <br/>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br/> <br/>전자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소문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자레인지 변압기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60Hz 전자파가 평소보다 높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자레인지 작동 중에는 30㎝ 이상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하다. 마그네트론과 변압기가 위치한 전자레인지의 오른쪽 면에서 큰 자기장이 발생하지만 30㎝만 떨어져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br/> <br/>전자파 때문에 꿀벌의 방향감각이 마비돼 멸종위기에 몰렸다는 얘기도 사실이 아니다. 2011년 스위스 연방기술연구소가 전자파가 진드기, 살충제 등과 함께 꿀벌 군집 붕괴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휴대전화를 벌집 내부에 설치해 실험한 것으로, 전자파로 인한 정확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환경조건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br/> <br/>휴대전화와 암·백혈병 발병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이고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1년 5월 “역학조사 결과 10년 동안 매일 30분씩 한쪽 귀로 휴대전화로 통화하면, 악성 뇌종양의 일종인 신경교종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휴대전화 전자파인 RF의 발암등급을 2B로 발표했다. 2B는 커피·디젤연료·김치와 같은 등급이다. <br/> <br/>이처럼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숯이나 선인장 등이 전자파 차단 용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전자파를 줄이거나 차단하는 효과가 없었다. 연구원은 “<span class='quot0'>전자파는 거리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므로, 숯이나 선인장보다는 안전거리(약 30㎝)를 준수하는 것이 전자파 차단에 가장 효과적</span>”이라고 조언했다. <br/> <br/>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7.txt

제목: 경북대 교수팀, 피한방울로 유방암 조기진단 기술 세계 최초 개발  
날짜: 20160617  
기자: 문종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17093950874  
ID: 01100701.2016061709395087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경북대 백문창 교수(의학전문대학원 분자의학교실)팀이 혈액에 존재하는 엑소좀 단백질을 이용한 유방암 조기 진단 및 예후 예측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br/> <br/>이 연구 성과는 암 연구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Clinical Cancer Research)’ 4월호 오프라인판과 ‘온코타겟(Oncotarget)’ 5월 23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으며, 국내 및 국제 특허(PCT) 출원도 마쳤다. <br/> <br/>대부분 세포에서 분비되는 100nm 크기의 나노 입자인 엑소좀은 단백질과 RNA(리보핵산)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분비한 세포의 성질 및 상태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아바타(Avatar)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아바타 역할을 하는 엑소좀으로 세포의 상태를 알 수 있어 여러 가지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br/> <br/>암은 대부분 초기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해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암의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br/> <br/> 백문창 교수.경북대 제공.백 교수팀이 개발한 기술은 암 세포와 관련된 엑소좀에 특이적으로 과발현되는 Del-1(전이촉진인자) 단백질을 혈액 한 방울보다 적은 양(약 2 마이크로리터)으로 측정해 암을 진단하는 기술이다. <br/> <br/>기존 유방암 바이오마커는 유방암 4기에만 높은 민감도를 보여 조기 암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기술은 기존 마커 방식보다 민감도가 높아 모든 유방암 진행 단계의 진단이 가능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암을 진단,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 <br/> <br/>백문창 교수는 “이번 기술은 Del-1 단백질 양성 엑소좀을 이용해 여러 종류의 암을 신속하게 진단하는 것은 물론, 기존 방식으로 측정하기 쉽지 않았던 유방암 0기 상피내암 상태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유방암은 여성에게 가장 많이 진단되는 암으로 최근 우리나라 젊은 여성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치밀 유방 조직으로 인해 기존 방식으로는 진단에 어려움이 많다. 이번에 개발된 혈중 엑소좀 Del-1 단백질을 이용하는 방법이 실용화된다면, 환자의 고통과 부작용이 따르는 조직 생검(tissue biopsy) 대신에 간단한 혈액 검사로 암을 조기 진단이 가능해 환자의 고통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br/> <br/>이번 연구는 백문창 교수가 주도로 경북대학교병원 유방외과의 박호용 교수, 혈액종양내과의 채의수 교수, 이수정 교수가 참여했다. 기술 상용화를 위해 관련 회사로 기술 이전했으며, 현재 미국인 유방암 시료 분석을 위해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리차드 샌튼 교수와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br/> <br/>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8.txt

제목: NK세포 수치 500 이하면 ‘정밀 건강검진 필요’  
날짜: 20160616  
기자: 김정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16164551880  
ID: 01100701.20160616164551880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 예방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실제 실천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소화기암학회가 일반인과 환자, 의료진 등 645명을 대상으로 ‘소화기암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span class='quot0'>암 예방을 위해 국가암검진이 중요하다</span>”고 답했다. <br/> <br/>그러나 20%만이 암 예방 권고사항을 지키고 있었으며, 암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조기암검진은 약 43%만 빠짐없이 받고 있었다. <br/> <br/>암은 감기처럼 즉각적으로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암세포가 몸속에서 자라고 있어도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암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다. 대장암의 경우 초기에 통증 등 자각증상이 거의 없고, 간암 역시 상당히 진행되지 않고는 몸에 큰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아 침묵의 장기로 불린다. <br/> <br/>하지만 암은 충분히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며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전문가들은 “위암의 경우 조기진단만 되면 90% 이상이 완치되고,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암 검진으로 전암 단계의 병변을 발견해 암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다. 유방암도 조기진단만 되면 완치할 수 있다”고 말한다. <br/> <br/>이렇듯 암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에이티젠(대표 박상우)이 NK세포의 활동성을 측정해 암 또는 중증 질병 발병 가능성을 조기에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기인 ‘NK뷰키트’를 개발해 관심을 받고 있다. <br/> <br/>선천 면역 세포인 NK(Natural Killer) 세포는 체내에 암 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비정상 세포에 대항해 싸우는 세포로, NK세포 수치가 낮으면 공격력이 떨어져 암 세포를 파괴하지 못해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br/> <br/>회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1'>NK뷰키트는 정상 세포와 암세포를 구별해 제거하는 NK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활성화돼 있는지를 수치화해 보여준다</span>”면서 “<span class='quot1'>1ml 소량의 혈액을 통해 측정이 가능하고 48시간 내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또한 그는 “<span class='quot1'>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 각종 암과 질병의 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미리 판단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질병 예방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NK세포 수치가 250 이하로 나올 경우 그만큼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밀한 건강검진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NK뷰키트는 미국소화기질환학회 등 4개의 미국 소화기 암관련 학회가 주관하는 세계적인 소화기 관련 국제학술대회인 ‘국제소화기질환학회(DDW) 2016’에서 ‘올해 주목할 6가지 의학적 발견’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실제 암 조기 진단 및 치료 후 환자 모니터링으로 사용되고 있다. <br/> <br/>에이티젠 측에 따르면 캐나다 몬트리올 HMR병원에서 실시된 762명 대상 테스트에서 대장내시경, CT 검사 등으로 이미 대장암 확진을 받은 환자의 85.7%를 NK뷰키트 검사로 발견해냈다. <br/> <br/>에이티젠 관계자는 “의학계에서는 기존 검사의 정확도가 30~40%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1ml의 혈액만으로 간단히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NK뷰키트를 활용하면 대장내시경을 받을 필요가 있는 대상자들의 수검율을 보다 높일 수 있어 대장암 조기 발견 및 치료효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r/> <br/>한편, NK뷰키트는 이미 국내의 많은 병원들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남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등의 대형 종합병원과 건강검진센터를 포함 200여 곳에서 NK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에이티젠은 올해 NK뷰키트 도입기관을 현재의 2배인 4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br/> <br/>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9.txt

제목: 암 치료에 필수 ‘자가포식 조절’ 새 신호 발견  
날짜: 2016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16020409539  
ID: 01100701.2016061602040953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 치료 등에 필수적인 오토파지(자가포식) 작용을 조절하는 새 신호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오토파지의 신호 조절을 통한 신개념 치료제의 개발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이다. <br/> <br/>미래창조과학부는 서울대 백성희(사진) 교수팀이 생존에 필수적인 오토파지 작용을 조절하는 새 신호를 발견해 오토파지의 작동 기전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오토파지는 종 간에 잘 보존된 자가포식 작용으로, 불필요한 세포 내 단백질 및 손상된 소기관을 분해하는 반면 필요한 물질은 합성해 세포의 생존과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br/> <br/>연구팀은 이를 위해 다양한 영양분 결핍 상황에서 진핵생물의 DNA에 결합하는 염기성 단백질인 히스톤 단백질의 변형을 관찰했다. 관찰 결과 수소원자를 메틸기(-CH3)로 치환하는 반응인 메틸화가 유도됨을 확인하고 메틸화를 유도하는 효소(CARM1)의 단백질 양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오토파지를 유도하는 신호에 의해 효소 단백질이 안정화하고 핵 내에서 히스톤의 메틸화를 유도, 오토파지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br/> <br/>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0.txt

제목: 커피 발암물질 누명 25년 만에 벗었다  
날짜: 201606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15231715860  
ID: 01100701.2016061523171586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커피가 25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br/> <br/>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서 25년만에 커피를 제외한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프랑스 리옹에 본부를 둔 IARC는 이날 커피와 중남미지역 전통차인 마테, ‘매우 뜨거운 음료’와 관련된 논문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br/> <br/>IARC는 23명의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커피 등의 발암성과 관련한 문헌 1000여 편을 검토한 결과 커피와 암의 상관관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근거 자료가 없다고 보고 2B군 발암물질에서 제외키로 했다. 앞서 IARC는 1991년 커피가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인체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2B군’ 물질로 분류했다. <br/> <br/>IARC는 커피가 다른 20여 종의 암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며 오히려 자궁암과 전립선암 등 일부 암에 걸릴 위험을 줄여주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br/> <br/>한편, IARC는 ‘매우 뜨거운 음료’가 식도암과 관련성이 있다는 일부 역학조사 보고에 따라 한 등급을 올려 2B군에서 2A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br/> <br/>IARC는 커피, 차 등의 종류와 상관없이 65도 이상 온도에서 제공되는 음료를 식도암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매우 뜨거운 음료’로 분류했다. <br/> <br/>이지수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1.txt

제목: [연구] 변비 방치하면 심근경색·뇌졸중 위험 2배 높아진다  
날짜: 20160613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13173616424  
ID: 01100701.2016061317361642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변비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최대 2배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br/> <br/>13일 일본 J케스트뉴스는 변비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질병이라며 토호쿠대학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br/> <br/>대학 공중위생 분야 나카모토 켄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성인남녀 4만 5112명을 대상으로 1일 1회 이상 배변한 그룹과 2~3일에 1회 배변한 그룹, 4일에 1회 이하로 배변한 그룹으로 나눠 13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br/> <br/>연구팀은 연구대상의 생활습관,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나이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 배변횟수와 사망 원인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br/> <br/>그 결과 연구기간에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 총 2018명은 배변 빈도가 매우 낮았다. <br/> <br/>비율로는 1일 1회 이상 배변한 사람과 비교해 2~3일 1회 배변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을 앓는 비율이 1.21배 높았고, 4일에 1회 이하인 사람은 1.39배 높았다. <br/> <br/>뇌졸중은 1일 1회 이상 배변한 사람과 비교해 2~3일 1회 배변한 사람들은 뇌졸중을 앓는 비율이 1.29배 높았고, 4일에 1회 이하인 사람은 1.9배 높았다. <br/> <br/>전문가들은 "심장·뇌혈관 질환과 변비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 보이지만 배변시 혈압이 오르는 것은 확실하고, 장내 세균의 변화로 고혈압,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br/> <br/>또 "변비인 사람들은 운동부족, 식이섬유부족, 수분부족, 다이어트 등 몸에 좋지 않은 습관으로 혈액순환이 나빠져 체내에 독소를 쌓게 된다"며 "이러한 독소는 혈관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br/> <br/>한편 이번 연구와 일본 국립 암연구센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변비와 대장암은 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br/>암센터가 시민 6만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3번 배변한 사람과 매일 배변한 사람과의 암 발병률은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설사 증상이 심한 사람에게서 직장암과 관련 있음이 밝혀졌다. 또 변비는 여드름 등의 피부질환, 치질의 원인으로도 알려졌다. <br/> <br/>이번 연구는 국제 의학전문지 'Atherosclerosis(동맥 경화증)' 3월호에 게재됐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2.txt

제목: B형이 위암 발생률 낮다  
날짜: 201606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12192438611  
ID: 01100701.2016061219243861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혈액형이 암 발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br/> <br/>최근 국내 연구팀이 B형 혈액형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이 다른 혈액형을 가진 사람보다 위암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br/> <br/>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센터 김나영 교수팀은 2006년 2월∼2014년 5월 이 병원 소화기센터에서 비분문부(non-cardia) 위암 진단을 받은 환자 997명과 대조군 1147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비분문부 위암은 식도와 위가 접해 있는 주머니 모양(분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발생한 암이다. <br/> <br/>연구팀은 위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비교 분석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여부, 헬리코박터 제균력, ABO 혈액형, 성별, 연력, 위암 가족력 등 14개다. 그 결과 ABO식 혈액형 중 B형 유전자가 들어있는 B형(BB,BO)환자와 AB형 환자군은 다른 혈액형을 가진 환자들보다 위암에 걸릴 확률이 낮았다. <br/> <br/>이 가운데 B형 유전자가 2개인 B형(BB)은 다른 혈액형에 비해 46%, B형 유전자가 1개인 B형(BO)형과 AB(AB)형은 27%나 위암 발생 위험이 낮았다. <br/> <br/>연구팀은 또 위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암’ 중 조직형에 따라 ‘장형 위암’과 ‘미만형 위암’ 두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암세포가 한 곳에서 뭉쳐서 덩어리로 자라는 것을 장형 암으로, 깨알같이 작은 크기로 군데군데 퍼지면서 생기는 암을 미만형 암으로 부른다. 이렇게 나눴을 때에도 B형 유전자를 2개 가진 환자군은 암세포가 작은 크기로 군데군데 퍼지면서 생기는 ‘미만형 위암’의 발생률이 다른 혈액형보다 6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위암 발생률에는 혈액형 외에도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유무 역시 영향을 미쳤다. <br/> <br/>연구팀에 따르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된 환자 중 균을 없애는 제균치료를 받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65%가량 위암 발생 확률이 낮았다. 특히 발견과 치료가 까다로운 미만형 위암 환자군에서 위암 발생률이 80%나 줄어드는 등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김나영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를 통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한 제균 치료의 효과를 확인해 직접적인 위암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위암 발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헬리코박터 제균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span>”고 설명했다. <br/> <br/>김민순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3.txt

제목: 새 ‘유전자 가위’로 생쥐 DNA 교정 성공  
날짜: 201606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06205232375  
ID: 01100701.2016060620523237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DNA 사슬을 마치 가위처럼 싹둑 자르는 인공효소인 ‘유전자 가위’ 기술로 생쥐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증명했다. <br/> <br/>한국연구재단은 이상욱(사진) 울산대 의대 교수팀이 지난해 처음 학계에 보고된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CRISPR) Cpf1’로 생쥐의 특정 유전자 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데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br/> <br/>연구팀은 크리스퍼 Cpf1 유전자 가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암을 억제한다고 알려진 유전자인 ‘Trp53’만 공격하도록 Cpf1 가위를 디자인했다. 이어 이 유전자 가위를 생쥐 수정란에 넣고 수정란을 암컷 쥐(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한 뒤 대리모가 낳은 새끼의 유전자를 분석해 Trp53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것을 확인했다. 이는 유전자가 Cpf1 유전자 가위에 잘리고 다시 복구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긴 것으로, 특정 유전자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생쥐(‘녹아웃 마우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7일자에 실렸다. <br/> <br/>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4.txt

제목: 휴대폰 전자파, 과연 암 유발하나 논란  
날짜: 20160529  
기자: 조남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29165116829  
ID: 01100701.20160529165116829  
카테고리: 사회  
본문: 세계일보 자료사진미국 정부가 10여년 동안에 걸쳐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발암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조사했으나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br/> <br/>미국의 보건복지부는 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라디오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면 뇌 등에 종양이 생기는지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전자파에 노출된 쥐가 암에 걸리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 전자파가 발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미 보건복지부가 28일(현지시간) 밝혔다. <br/> <br/>그러나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과학자와 연구원 등은 휴대전화의 전자파와 발암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1년 휴대전화의 전자파를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한 과학자의 70∼80%는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br/> <br/>미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74쪽에 달하는 이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휴대전화 전자파에 노출된 쥐의 암컷과 수컷의 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전자파에 노출된 암컷은 보통 암컷 쥐에 비해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때문에 이번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참여한 과학자는 독성학 실험에서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수가 종종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성별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고 이번 조사에 참여한 존 부처 보건복지부 부국장이 강조했다. <br/> <br/>미국의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은 많은 국제 기관 및 미국 연구 기관이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호주는 최근 휴대전화가 사용되기 시작한 지 30년가량 지나는 동안에 뇌종양 환자가 더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br/> <br/>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5.txt

제목: "휴대전화 방사선, 암 유발 가능성 높아"  
날짜: 20160528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28162849058  
ID: 01100701.2016052816284905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종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27일(현지시간) 외신들은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 독성물질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이 쥐와 생쥐에게 미치는 휴대전화 방사선의 영향을 실험한 결과, 휴대전화 방사선이 일부 쥐에서 종양을 유발했다고 보도했다. <br/> <br/>연구진은 2년간 하루 9시간 동안 실험군 쥐를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유럽이동통신규격(GSM) 및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으로 900MHz의 방사선에 노출시켰다. 10분 방사선을 쬐다 10분 휴식하는 패턴이었다. <br/> <br/>그 결과 방사선에 노출된 실험군 쥐 일부의 뇌와 심장에서 종양이 발생했다. 뇌에서는 악성 신경교종(malignant gliomas)이, 심장에서는 신경초종(schwannomas)이 각각 발견됐다. <br/> <br/>그러나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은 대조군 쥐 중에서는 종양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연구진은 휴대전화에서 방출된 방사선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br/> <br/>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연구결과로 휴대전화 방사선이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은 끝났다"는 NTP의 프로젝트 리더 출신 론 멜니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br/> <br/>하지만 앞서 호주 시드니대 연구팀은 "휴대전화의 급속한 보급에도 뇌종양 발병률에는 변동이 없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6.txt

제목: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  
날짜: 20160526  
기자: soon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26230602981  
ID: 01100701.2016052623060298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바둑기사, 소설가, 변호사…. 인공지능(AI)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순식간에 분석, 처리하며 심지어 ‘딥 러닝’ 능력까지 갖추며 무서운 속도로 인간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민다. 이제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영역까지 세를 확장하고 있다. 실제로 IBM의 인지컴퓨팅 ‘왓슨(Watson)’의 암 진단 정확도는 96% 정도로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인공지능은 가까운 미래에 인간 의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 <br/> <br/>26일 줄리 바우저(Julie F Bowser) IBM 글로벌 생명과학분야 상무는 “<span class='quot0'>왓슨은 의사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뿐, 의사를 대신할 순 없다</span>”고 고개를 저었다. 이날 오전 그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pan class='quot0'>왓슨은 의사의 능력을 증가시키고 확장하는 역할을 할 뿐</span>”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br/> <br/>왓슨은 현재 미국 MD앤더슨 암센터에서 암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r/> <br/>바우저 상무는 기존의 암 치료의 44%는 초기에 적용한 치료법이 중도에 변경되고, 이러한 임상 결정의 절반은 명확한 근거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0'>왓슨은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환자 맞춤형 암 진료를 제공한다</span>”며 “<span class='quot0'>2014년에는 미국의 암센터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MSK)’과 왓슨을 교육해 암 환자 개개인에 맞는 치료법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span>”고 말했다. 이런 환자 맞춤형 치료법은 현재 인도 마니팔병원(Manipal Hospital)과 태국 범룽랏국제병원(bumrungrad International Hospital)에서 사용되고 있다. <br/> <br/>왓슨은 암 진단, 치료뿐 아니라 임상시험 참여자를 선정하고 의료영상을 분석할 수도 있다. 또 임상시험, 논문 등 의료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의료데이터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 <br/> <br/>바우저 상무는 “<span class='quot0'>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있지만, 엑스레이에서 발견된 종양이 암일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초음파와 같은 다른 검사가 필요한지 등을 조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이어 “<span class='quot0'>인간이 창출한 데이터 가운데 의료분야는 유전학 5%, 치료·임상시험 등 의학 20%뿐이고 나머지 75%는 사람의 행동 등과 같은 비의료분야</span>”라며 “<span class='quot0'>왓슨은100%의 모든 데이터를 활용한다</span>”고 설명했다. <br/> <br/>그는 또 왓슨이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게 되는 만큼 정보 유출 가능성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럴리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바우저 상무는 “<span class='quot0'>왓슨은 분석 대상의 정보에 대해 개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화한다</span>”며 “<span class='quot0'>IBM은 안전과 보안에 관련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7.txt

제목: 삼성화재, '모두모아 건강하게' 장기보험 상품 출시  
날짜: 20160525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25114816972  
ID: 01100701.20160525114816972  
카테고리: 경제>서비스\_쇼핑  
본문:   <br/> <br/>삼성화재는 새로운 장기보험인 「모두모아 건강하게」를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br/> <br/>이 상품은 사망·장해·진단비·수술비·실손 의료비 등 건강보험 외에 손해보험 고유의 담보인 운전자 비용, 화재 위험, 배상 책임까지 하나의 상품 가입으로 모든 보장이 가능한 통합보험이다. 또한 15년마다 보장내역 재점검을 통한 고객의 상황별 유연한 재무설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br/> <br/>기본적으로 사망·장해·진단비 등은 한번 가입으로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의 집중적인 보장을 원하는 고객은 60·65세 만기 담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15년 동안 보험료 인상 없이 계약유지가 가능하다. 15년 후에는 고객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보장내역 재컨설팅을 통해 재가입하거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재무설계도 가능하다. <br/> <br/>상해 80%이상 후유장해 또는 질병고도장애(1·2급) 발생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보험기간중 최초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새로운 암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암이 전이·재발·잔존한 경우에는 재진단시마다 최대 2000만원의 진단비를 지급하는 등 암 보장을 더욱 확대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수술하는 경우 입원수술시 20만원, 통원수술시 10만원을 보상한다. <br/> <br/>정병록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 상무는 "「모두모아 건강하게」는 업계 최초로 통합보험을 출시한 삼성화재의 대표상품인 만큼 다양한 보장과 혜택을 담아서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br/> <br/>김현주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8.txt

제목: [연구] "남녀의 기대수명 차이는 Y염색체 때문"  
날짜: 20160524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24131308868  
ID: 01100701.2016052413130886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남녀의 기대수명 차이는 Y염색체 때문일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남성의 평균 수명을 낮추는 각종 암과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환이 Y염색체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혈액검사를 통해 Y염색체 소실 여부를 파악하면 예방 혹은 치료를 통해 남녀 기대수명 차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br/> <br/> <br/>스웨덴 웁살라대학 연구진은 2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 인간유전학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텔레그래프·메일 등 주요 외신이 24일 전했다. 연구진이 스웨덴 32∼96세 남성(평균 73세) 3200여명의 Y염색체 분포를 조사했더니 연령이 높아질수록 Y염색체를 보유한 비율이 현저히 줄었다. <br/> <br/>인간의 모든 세포는 23쌍의 염색체를 갖고 있다. Y염색체는 23번째 염색체 가운데 남성만 갖고 있는 염색체로 성(性)염색체라고도 불린다. Y염색체는 백혈구 등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제 기능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Y염색체 소실’(LOY)은 암세포와 아밀로이드반(알츠하이머 발병원인) 증식을 일으킨다. 의학계는 80세 이상 남성의 20%가 LOY를 겪고 있다고 본다.  <br/> <br/>웁살라대학 연구진의 분석 결과도 비슷했다. 3200여명 중 17%에게서 Y염색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혈액세포에 Y염색체가 없는 남성은 여전히 갖고 있는 남성보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경우가 3배가량 높았다. 알츠하이머까진 아니더라도 기억이 희미해지는 등 알츠하이머나 노인성치매로 발전할 수 있는 증상을 앓고 있는 경우도 7배 높았다. <br/> <br/>연구를 주도한 라르스 포르스베르크 교수는 "혈액검사를 통해 Y염색체 손실 여부나 진행 정도를 파악한다면 예방 또는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다"면서 "중장년 남성 사망률을 낮춘다면 남녀간 기대수명 차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br/> <br/>2014년 출생한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은 79세로 여성(85.5세)보다 6.5년 적다. 세계적으로도 남성의 수명이 여성보다 짧은 데, 직장에 다니거나 흡연, 음주하는 여성이 늘면서 점차 그 간격은 줄고 있다. 한국의 2010년 출생자 기대수명은 남성 77.2세, 여성 84.1세로 그 차가 6.9년이었다. <br/>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9.txt

제목: DGIST, 초정밀·초고속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설계 기술 개발  
날짜: 20160524  
기자: 문종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24093641016  
ID: 01100701.2016052409364101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DGIST(디지스트·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팀이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설계 기술을 개발해 관심을 끈다. <br/> <br/>올리고뉴클레오티드(Oligonucleotide)는 A·C·T·G 네 가지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된 단일 나선의 짧은 염기서열을 말하는 것으로 유전자 진단, 신약 개발 등에 필수적으로 쓰인다. <br/> <br/>DGIST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김민수 교수와 뇌·인지과학전공 구재형 교수 융합연구팀은 구글 검색 방식의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정밀하고 빠른 성능을 나타내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설계 기술(MRPrimerW)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br/> <br/>이 기술은 사람이나 동식물의 전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모든 후보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 맵리듀스((MapReduce)에 기반을 둔 복잡 알고리즘을 적용해 특이성을 갖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만 선별해 저장한다. <br/> <br/>맵리듀스는 대규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여러 대의 컴퓨터를 활용하는 분산 데이터 처리 기술을 말한다. <br/> <br/>1차로 선별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다시 색인 구조로 변환해 2차 결과를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사용자가 입력한 설계 조건과 목표 유전자에 부합하는 최적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정확하고 빠르게 설계할 수 있다. <br/> <br/>검색 엔진인 구글에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br/> <br/>특이성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찾는 것은 이론적으로 하나의 목표 유전자에 약 30억번,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유전자에는 약 900경(京·10의 16승)번의 비교연산이 필요할 만큼 난해한 일이다. <br/> <br/>이와 관련 연구팀은 작년에 종(種) 전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특이성을 만족하는 모든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MRPrimer'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br/> <br/>그러나 이 기술은 사용자가 설계 조건을 변경할 때마다 수십 시간이 걸리는 대규모 분산 컴퓨팅을 수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br/> <br/>이번에 개발한 'MRPrimerW' 기술은 작년에 개발한 기술 단점을 해결한 것이다. <br/> <br/>MRPrimerW 기술을 적용하면 유전자 기반의 암 진단,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탐지, 신종 바이러스 탐지 등 유전자 진단에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고 바이오 신약 개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br/> <br/>전 세계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합성 시장은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다. 2020년에는 약 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 MRPrimerW 기술은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br/> <br/>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 권위의 생물과학 학술지인 '뉴클레익 애시즈 리서치(Nucleic Acids Research)' 온라인판 5월 6일자에 실렸고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김혜린 박사과정 학생과 뇌 인지과학전공 강나나 박사가 제1공동저자로 참여했다. <br/> <br/>연구팀은 관련 기술을 웹사이트로 전 세계에 무료 공개했다. <br/> <br/>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0.txt

제목: 우주·지구 그리고 인간, 어떻게 태어났을까  
날짜: 201605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21022926975  
ID: 01100701.2016052102292697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김희준 등 지음/휴머니스트/2만2000원기원/김희준 등 지음/휴머니스트/2만2000원 <br/> <br/>우주는 138억년 전 태어났다. 아주 작았던 우주는 점점 팽창해 지금은 100억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00억년이 걸려야 횡단할 수 있는 크기가 되었다. 지구가 생긴 것은 약 45억년 전이다. 이미 5000만∼6000만년 전에 형성된 태양계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현재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암석은 40억년 전 것이고, 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지구에 처음 등장한 것은 36억년 전이었다. 인간의 역사는 ‘불과’(!) 25만년 전에 시작됐다. <br/> <br/>책이 다루는 시간은 어마어마하다. 길어야 100년을 살고, 당장 1시간 앞의 일을 두고도 안절부절 살아가야 하는 인생인지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이런 시간을 추적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어지기도 한다.  <br/> <br/>국내 각 분야의 석학들이 우주, 물질, 지구, 생명, 암, 종교와 예술 등의 기원을 설명한 강의를 모아 만든 책이다. 소재 하나하나가 인류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이고, 현재와 미래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다. 그것의 역사를 더듬는 것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기원을 탐구하는 것이다.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흥미롭게 다가갈 이유가 여기에 있다. <br/> <br/>약 45억년 전 태양계에 존재하던 지금 지구 크기의 90% 정도인 원시행성과 화성 크기의 다른 원시행성 ‘테이아’(theia·그리스 신화에서 달의 어머니를 지칭)가 충돌했다. 충돌로 생겨난 물질 중 일부가 달이 되어 지금의 지구-달이 형성됐다. 충돌 후 지구는 수백만 년 동안 용암으로 뒤덮여 있었다. 44억∼40억년 전 바다가 만들어지고 대륙은 조그만 섬처럼 존재했다. 40억∼38억년 전에는 작은 운석부터 수십㎞ 크기의 미행성이 끊임없이 지구와 충돌하는 ‘후기 대폭격기’를 거치고 지구는 안정적인 진화기를 맞는다. <br/> <br/>지구에 생명이 탄생한 것은 “확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자신과 똑같은 것을 복제하는 능력이 있는 어느 화학물질이 생명의 시작이었다. 이 물질이 “자신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진화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지구가 탄생하고 10억년이 지난 36억년 전의 일이다. 그리고 다시 20억년이 지나 최초의 세포가 등장했다. 자기 복제가 가능한 RNA 혹은 DNA가 있었고, 어쩌다 그 안에서 더욱 효과적인 복제를 할 수 있는 최초의 세포가 생겨난 뒤 그 세포들이 모이고 모여 세포들 간의 기능 분화가 이뤄지면서 결국 인류와 같은 복잡한 생명체까지 나온 것이다. <br/> <br/>이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이다. 그는 “현존하는 모든 생명체를 보면서 이것들이 결국은 그 옛날 하나로부터 왔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유추해 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생명의 기원을 설명한 이 이론을 따르면 인간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인간은 은행나무, 구더기와 같은 집안이었던 지점을 만나기 때문이다. 저자 중 한 명인 최재천 국립생태원장은 “<span class='quot0'>모든 생명은 하나로부터 왔고, 인간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설명은 다윈이 인류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일 것</span>”이라고 적었다. <br/> <br/>책을 읽다 보면 길고 긴 시간의 고리 속에 인간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138억년의 시간 중 25만년에 불과한 역사, 근원을 따져가다 보면 구더기와도 유전자를 공유한 존재라는 점 등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게 느껴진다. 그런 인간이 지구를 망쳐놓은 주범이라는 사실에 이르면 비루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동시에 인간이 짧은 시간에 저지른 온갖 오류에도 생태계의 정점에 서 있는 게 사실이고, 끊임없이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도 한다. 물론 어느 쪽인가는 독자의 몫이다. <br/> <br/>일반인을 상대로 한 강의를 모아 역은 책이기 때문에 저자들의 태도는 무척 친절하다. 시종일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는 태도를 견지한다. 김희준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는 “<span class='quot1'>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한 시간 뒤쯤에는 1955년 세상을 떠나 빅뱅우주론을 들어보지 못했던 아인슈타인보다 우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것</span>”이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다루는 주제 자체가 어렵다. 곳곳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념을 만나게 된다. 어느 정도 각오를 다진 후 도전해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br/> <br/>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1.txt

제목: ‘14-3-3 단백질’ 세포조직 성장 관여 밝혀내  
날짜: 201605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8213327425  
ID: 01100701.2016051821332742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카이스트(KAIST) 생명과학과 최광욱(사진) 교수 연구팀이 생체 내 신호전달체계에 존재하는 ‘14-3-3’ 단백질이 신체기관의 발달이나 세포조직 성장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이번 연구로 신호전달체계의 문제로 인한 암 등 종양의 원인 규명과 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 결과는 네이처 자매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6일자에 게재됐다. <br/> <br/>18일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 신체에는 토르 신호(Tor signaling)라고 불리는 신호전달체계가 존재한다. 단백질 합성을 늘려 세포 크기를 키우거나 세포 숫자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토르 신호가 너무 많으면 암을 유발하고, 너무 적으면 신체기관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br/> <br/>토르 신호를 조절하는 데에는 ‘Tctp’와 ‘Rheb’라는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Tctp와 Rheb가 어떤 방식으로 조절되는지,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지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팀은 초파리의 유전적 상호작용 분석실험을 수행한 결과 14-3-3 단백질이 Tctp와 Rheb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 두 단백질이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Tctp 또는 Rheb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손상된 상태에서 14-3-3의 결핍이 발생하면 기관 성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어 이 원리를 통해 14-3-3 단백질이 Tctp와 Rheb 단백질 사이의 결합을 직접적으로 조절해 성장에 관여한다는 사실도 규명해냈다. <br/> <br/>최 교수는 “<span class='quot0'>향후 고등동물에서도 유사한 조절 기작이 존재하는지 확인되면 질병 관련 유전자들의 생체 내 작용을 규명하고 암 조직의 조절이나 기관 발달 촉진 등의 치료법 개발이 가능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2.txt

제목: [사이언스리뷰] 맞춤의학 시대 성큼  
날짜: 201605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8213319887  
ID: 01100701.2016051821331988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고령화에 따른 인간의 숙명 가운데 하나는 암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암환자의 발생 및 사망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암치료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암치료에 있어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손상을 일으켜 환자의 삶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암세포의 특정분자만을 표적으로 하는 표적항암제가 개발돼 ‘분자표적치료’라는 새로운 개념의 항암화학요법이 등장하면서 암치료의 새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적항암제 개발연구와 그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br/> <br/>표적항암제를 이용한 분자표적치료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암환자에 따라 가장 적합한 약물을 선별해 적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별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구현하는 것을 맞춤의학이라고 한다. 즉, 기존 의학이 모든 환자를 ‘평균인간’의 개념에서 접근해온 것과 달리 맞춤의학에서는 개별 환자를 각기 서로 다른 생명체로 간주하며 ‘개별인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특히 암치료에 있어서는 동일한 암이더라도 유전자 돌연변이가 매우 상이해 약물반응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러한 맞춤의학의 적용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임상유전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임상유전체 연구란 환자의 암 부위로부터 떼어낸 일부 암 조직의 유전자 서열분석을 통해 주요 유전자 돌연변이를 찾아낸 뒤 이를 분자표적치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br/> <br/> 조광현 KAIST 교수·바이오및 뇌공학그런데 이러한 접근에는 여전히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암환자의 유전자 돌연변이는 대부분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또는 100여개에 이르므로 이 가운데 특정 돌연변이만을 타깃으로 삼는 것의 한계이다. 또한 주요 유전자 돌연변이를 찾아내더라도 이를 타깃으로 한 치료의 경우 실제 암세포 내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와 신호전달 네크워크 상의 복잡한 분자 상호작용에 의한 우회경로를 통해 보상기작이 일어나 치료가 무력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 유전자 돌연변이뿐만 아니라 이들이 세포 내 분자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로 인해 세포 내 질서가 어떻게 교란됐는지 ‘시스템’ 차원에서 분석한 뒤 보상기작을 회피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치료타깃을 선정해야만 보다 효과적인 치료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br/> <br/>생화학자인 루돌프 쇤하이머는 그의 선구적인 실험을 통해 생명이 단순한 분자기계가 아니며 구성요소의 다이내믹한 흐름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세포 내 유전자는 구성요소를 생성하기 위한 주형일 뿐 생명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현대의 생명과학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여러 구성요소를 찾아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해 분자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그러한 네트워크의 다이내믹스가 생명현상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탐구하는 시스템생물학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즉, 암환자의 조직으로부터 획득한 다수 유전자의 변이 정보를 분자네트워크에 반영해 환자별 네트워크 모델을 생성해내고 네트워크 다이내믹스의 변화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함으로써 환자별 최적의 표적치료 타깃을 찾아내 이를 맞춤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br/> <br/>유전자 서열분석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별 유전정보를 분석해 헬스케어 및 맞춤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새로운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스템생물학은 이러한 신산업의 창출에 있어서도 기존의 선형적이고 통계적인 분석의 한계를 넘어 고도의 의료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바이오메디컬 의료정보서비스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다. 정보기술(IT)과 바이오가 융합해 맞춤의학을 구현하면서 신산업을 창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br/> <br/>조광현 KAIST 교수·바이오및 뇌공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3.txt

제목: 수지상세포, 동맥경화 진행 억제 역할 밝혀내  
날짜: 2016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211602788  
ID: 01100701.2016051521160278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면역세포의 일종인 ‘수지상세포(pDC)’가 동맥경화 진행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뭇가지 모양의 수지상세포는 인체에 바이러스나 병원균이 침입하거나 종양과 같은 비정상 세포가 생겼을 때 이를 잡아먹고 분해한 뒤 임파절의 T-세포에 침입균 항원이나 암항원의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면역세포다. <br/> <br/>미래창조과학부는 정철호(사진) 캐나다 맥길대 교수팀과 이화여대, 한양대  공동연구팀이 동맥경화를 수지상세포가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동맥경화는 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벽 조직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없어지는 질환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들과 또 다른 면역세포인 수지상세포가 동맥경화 과정에 관여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br/> <br/>앞서 정철호 교수는 2011년도 노벨생리의학상수상자인 고(故)랄프스타인먼 교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세계 치초로 수지상세포를 발견하는 등 수지상세포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br/> <br/>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4.txt

제목: 악성 뇌종양 약물 내성 획득 과정 첫 규명  
날짜: 201605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1204153211  
ID: 01100701.2016051120415321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악성 뇌종양 진행과정을 몸 밖에서 실험할 수 있는 3차원 종양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뇌종양이 항암제 내성을 갖게 되는 원리를 처음으로 밝혀냈다. <br/> <br/>카이스트(KAIST) 바이오 및 뇌 공학과 김필남(사진) 교수팀은 11일 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3차원 매트릭스에 히알루론산(HA) 등 실제 뇌종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추가해 3차원 체외 뇌종양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 모델에 뇌종양 세포를 이식하고 항암제 성분을 투여하는 실험을 통해 뇌종양이 약물을 극복하고 주변 조직으로 침투, 확산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br/> <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동물실험 대신 체외 종양 모델에서 진행할 수 있어 환자 맞춤 약물 검증 등 실질적인 암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 <br/> <br/>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5.txt

제목: 유방암 발병 관여하는 주요 유전자 93개 규명  
날짜: 201605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03061108665  
ID: 01100701.2016050306110866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 연구진이 주도한 다국적 연구팀이 유방암 환자들의 유전자(DNA) 정보를 분석하는 데 성공해 유방암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보건복지부는 한양대 의대 공구(사진) 교수팀이 참여한 다국적 연구팀이 역대 최대 규모인 560명의 전장 유전체(DNA 전체 염기서열)를 분석해 과학학술지 네이처 온라인판에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암환자의 유방암 조직과 정상 조직에서 전장유전체를 해독해 어떤 유전 변이들이 암 발병에 기여하는지를 분석했다.  <br/> <br/>공 교수 연구팀과 영국 생어연구소 스트래턴 박사팀이 주도한 이번 연구는 미국, 호주, 싱가포르, 이탈리아 등 12개국 48개 연구팀이 참여했다. 공동 연구팀은 유방암과 관련한 주요 유전자 93개를 확인했고 암을 유발하는 1628개 유전적 변이를 밝혀냈다. 93개 주요 유전자 중에는 특히 10개의 유전자에 유전적 변이의 62%가량이 집중되고 있었다. 공 교수는 “<span class='quot0'>유방암 발암기전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백과사전을 준비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다양한 유방암에 대한 발암 기전과 치료 기술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돼 정밀 의료를 실현하는 데 활용 가치가 높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6.txt

제목: 탄산음료 과다 섭취 땐 비만·당뇨·심장병 발생 높아져  
날짜: 201605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02202101406  
ID: 01100701.2016050220210140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치킨에는 역시 콜라!” <br/> <br/>기름기가 많은 굽거나 튀긴 고기를 섭취할 때 탄산음료가 필수처럼 여겨진다. 탄산음료 없이 치킨이나 삼겹살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다. 순간적인 갈증 해소에도 탄산음료만한 것이 없다. 날씨가 점차 더워지면서 달고 톡 쏘는 탄산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비만과 당뇨 등은 물론 심장병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코호트연구소 유승호·장유수 교수팀은 탄산음료를 일주일에 5잔 이상 마신 사람들에게서 심장병인 조기 관상동맥질환 위험이 27% 높아진 사실을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br/> <br/>이는 암과 심장질환, 당뇨병이 없는 무증상 성인 남녀 2만2000여명(평균 40세)을 대상으로 ‘관상동맥 석회화 전산화 단층촬영(MDCT)를 통해 밝혀진 결과다. <br/> <br/>일주일에 200㎖ 탄산음료를 5잔 이상 마시는 그룹은 전혀 마시지 않은 그룹에 비해 조기 관상동맥질환 위험이 27%, 관상동맥석회 수치는 70%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br/> <br/>관상동맥질환은 혈관에 쌓인 이물질이 파열되면서 혈관을 순식간에 막아버린 상태를 말한다. 혈관에 불필요한 지방 등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기 힘들다. 이런 증상이 오래되면 협심증이 생기고, 더욱 악화하면 심근경색이 된다. <br/> <br/>연구팀은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설탕, 액상과당이 몸속에 불필요한 지방과 각종 염증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br/> <br/>유승호 교수는 “<span class='quot0'>흡연, 음주, 식습관, 운동습관, 고지혈증 등 다른 요인을 배제한 상태에서도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자체가 조기 관상동맥질환 발생을 높이는 것으로 관찰됐다</span>”며 “<span class='quot0'>탄산음료는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인 비만과 당뇨병의 발생을 높이고, 복부비만 등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span>”고 밝혔다. <br/> <br/>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심장저널(American Heart Journal)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br/> <br/>김민순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7.txt

제목: [이덕환의과학방담] ‘보이지 않는 적’ 독성물질  
날짜: 201604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28205534826  
ID: 01100701.2016042820553482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세상이 온통 유해물질로 가득 채워진 것처럼 보인다. 특히 무책임한 기업들이 눈앞의 작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유해물질이 문제라고 한다. 사태는 심각하다. 인체에 안전하다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의 말을 믿었던 순진한 소비자들은 끔찍한 피해를 입고 말았다. 건강을 위해 꼭 먹어야 한다던 소금과 설탕도 독약이라고 한다. 무엇이 정말 유해물질인지를 알 수 없는 소비자의 입장이 정말 난처하다. <br/> <br/>유해물질은 우리의 생리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황산·염산·질산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기도 하고, 일산화탄소처럼 적혈구에 달라붙어 혈액의 산소의 운반 기능을 마비시켜 버리기도 한다. 테트로도톡신(복어 독)이나 보툴리눔처럼 신경계에 작용해서 감각과 운동 기능을 망가뜨리는 유해물질도 있고, 세포에 들어 있는 유전정보를 변형·파괴시켜 암을 유발시키는 발암물질도 있다. <br/> <br/>유해물질의 종류는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다양하다. 사실 유해물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물질이라도 지나치게 많이 섭취·흡입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인체의 생리작용에 꼭 필요한 소금이나 설탕(탄수화물)이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br/> <br/>과다 노출에 의해 순간적·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급성 독성의 원인을 밝혀내는 일은 비교적 쉽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처럼 낮은 농도의 저독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나타나는 만성 독성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노출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객관적·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기도 어렵다. 만성 독성의 피해가 특정 질병으로 제한될 가능성도 낮다. 장기간에 걸친 노출에 의한 1차 질병이 다양한 2차 질병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br/> <br/>동물실험이 유해물질의 독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는 있다. 인간과 비슷한 생리구조를 가진 실험동물에서 확인된 결과가 인체 독성을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동물실험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 인간과 완전히 똑같은 생리구조를 가진 동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에 걸친 노출 상황을 고스란히 재현하는 일도 쉽지 않다. 유해물질의 독성이 모든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br/> <br/>유해물질의 인체 독성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체실험은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함부로 용납할 수 없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의약품 개발의 경우에만 철저한 제도적 감시 속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br/> <br/>결국 저독성 유해물질의 장기 노출에 의한 만성 독성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역학(疫學)조사뿐이다. 객관적으로 노출 사실이 인정된 피해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확인해서 통계적으로 상관관계를 결정한다. 물론 역학조사의 결과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 독성의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br/> <br/>이덕환 서강대 교수·과학커뮤니케이션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8.txt

제목: [사이언스리뷰] 인공지능으로 꽃피는 시스템생물학  
날짜: 201604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06224907290  
ID: 01100701.2016040622490729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알파고와 프로기사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이 몰고 온 AI 신드롬이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반신반의했던 알파고의 위력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과연 AI가 학습의 범위를 초월하는 창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가라는 명제가 큰 화두가 됐다. 이런 가운데 딥마인드의 창업자인 데미스 하사비스가 밝혔듯이 의료 분야의 응용 가능성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r/> <br/>이미 IBM의 AI 컴퓨터 왓슨은 뉴욕의 한 병원에서 암환자의 임상데이터를 학습하기 시작했으며 1년이 경과된 시점에는 90%의 정확도로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한다. 최근 다국적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생어연구소, IBM과 손잡고 대규모의 항암제 반응 세포실험데이터를 공개한 뒤 기계학습을 통해 공개하지 않은 실험데이터를 누가 더 정확히 예측해내는지 ‘드림(DREAM)챌린지’라는 국제경진대회를 개최해 전 세계 많은 과학자로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AI는 인류의 건강과 질병치료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br/> <br/>조광현 KAIST 교수·바이오및뇌공학AI의 구현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미지의 시스템을 충분히 복잡한 함수의 연결로 표현한 뒤 시스템으로부터 관측된 입출력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함수에 포함된 수많은 계수의 값을 가능한 한 최적으로 추정함으로써 구현된다. 그러므로 AI의 성능은 학습데이터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학습된 데이터는 잘 모사할 수 있더라도 학습데이터와 매우 다른 새로운 입력이 주어질 경우 실제와 동떨어진 엉뚱한 출력값이 예측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큰 한계는 입출력 데이터 사이의 내부관계를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데이터가 부족하더라도 스스로 강화학습을 통해 전략을 개선할 수 있는 게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정답이나 규칙을 미리 알 수 없는 바이오 의료 분야의 응용에서는 아직 여러 한계점이 남아 있는 것이다. 특히 생명을 다루는 경우에는 단 한번의 잘못된 예측도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그 응용의 한계는 더욱 명확하다. <br/> <br/>한편 현대의 생명과학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방대한 실험결과를 토대로 생명체의 동작원리를 거대한 분자네트워크의 다이내믹스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생물학(systems biology)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시스템생물학에서는 전통적인 생물학실험, 수학모델링, 그리고 컴퓨터시뮬레이션 분석을 융합해 접근한다. 이러한 시스템생물학은 생명체라는 시스템의 모델을 그 내부의 동작원리에 대한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조각조각의 실험적 정보를 집대성함으로써 구현하는 이른바 ‘화이트박스’ 모형을 추구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생명체가 어떤 환경에서 주어진 자극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원인을 분석하며 접근해갈 수 있지만 여전히 정확한 모델을 구축하기에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그 한계로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는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가 더욱 축적되면서 빠르게 극복될 것이다. <br/> <br/>만일 블랙박스 모델에 기반한 AI와 화이트박스 모델에 기반한 시스템생물학이 융합돼 새로운 ‘그레이(grey)박스’ 모델이 개발된다면 바이오 의료 분야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인류가 쌓아온 방대한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로부터 생명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인체질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환자맞춤형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의료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알파고의 열풍이 단지 AI 그 자체에만 쏠리기보다 과학을 바라보는 보다 큰 안목과 통찰을 통해 AI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 <br/> <br/>조광현 KAIST 교수·바이오및뇌공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9.txt

제목: 황동규 시인 등 6명 호암상 수상자 선정  
날짜: 201604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05212153488  
ID: 01100701.2016040521215348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시인 황동규(78)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6명이 올해 호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br/> <br/>호암재단은 5일 제26회 호암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과학상은 김명식(54)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교수(고등과학원 석좌교수)가 영예를 안았다. 양자역학 대가인 김 교수는 그 근본이 되는 불확정성의 원리와 양자교환법칙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을 통일하기 위한 기초 마련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br/> <br/>공학상은 오준호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에게 돌아갔다. 오 교수는 한국 최초의 이족보행 인간형 로봇인 ‘휴보’를 만들어 세계 최고의 재난대응 로봇을 뽑는 대회인 미국 국방부 주최 ‘다르파 로봇 챌린지’에서 우승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의학상은 래리 곽(57) 미국 시티 오브 호프 병원 교수가 받았다. 곽 교수는 혈액암의 일종인 여포성 림프종 표면 단백질을 이용해 환자 맞춤형 백신을 개발한 뒤 3상 임상시험을 통해 암 재발 억제효능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 <br/> <br/>한국을 대표하는 서정시인인 황 명예교수에게는 예술상이 주어졌다. 그는 1958년 등단 이래 한국 현대시의 지평을 넓혔으며, ‘즐거운 편지’와 ‘풍장’ 등으로 문단과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사회봉사상은 ‘들꽃청소년세상’ 공동대표인 김현수(61)·조순실(59) 부부가 공동 수상한다. 이 부부는 대안학교와 직업훈련장 설립, 쉼터 운영 등을 통해 22년간 가출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했다. <br/> <br/>시상식은 6월1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0.txt

제목: 암 치료세포 규명 조윤제 교수 등 ‘포스코청암상’  
날짜: 201603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30234214551  
ID: 01100701.2016033023421455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조윤제 포스텍 생명과학부 교수(과학상), 금오공업고등학교(교육상), 라파엘클리닉(봉사상)이 올해 포스코청암상을 수상했다. <br/> <br/>포스코청암재단은 30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제10회 포스코청암상 시상식을 열고 올해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 2억원을 각각 수여했다. 시상식에는 권오준 이사장을 비롯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 각계 인사 250여명이 참석했다. <br/> <br/> 30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청암상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윤제 포스텍 생명과학부 교수 내외, 이형규 금오공고 교장, 안규리 라파엘클리닉 대표, 장옥자 여사(고 박태준 명예회장 배우자), 권오준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 <br/>포스코 제공과학상을 받은 조윤제 교수는 구조생물학 분야 권위자로서 암의 생성과 억제 메커니즘 연구에서 업적을 쌓았다.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는 제미닌 단백질의 작용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밝혀내 암 치료 연구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금오공고는 1973년 설립된 이래 기계·정밀·가공 등 기초 산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인을 양성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라파엘클리닉은 1997년부터 이주노동자를 위한 무료진료소로 나눔과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포스코청암상은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업적을 기리고 포스코 창업이념인 창의·인재육성·희생·봉사 정신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자 2006년 제정됐다. <br/> <br/>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1.txt

제목: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진 수십개 유전자 동시 검출하는 기술 개발  
날짜: 20160329  
기자: 황계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9205111844  
ID: 01100701.2016032920511184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수십개를 한번에 검출해 지카 바이러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감염병은 물론이고 암 등 유전자 변이에 의한 질환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br/> <br/>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산하 뇌과학연구소 바이오마이크로시스템 연구단의 김상경(사진) 책임연구원팀이 이 같은 기술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사이언티픽 리포트의 이달 온라인판에 실렸다. <br/> <br/>그동안 질환 관련 유전자를 검출할 때는 ‘실시간 핵산증폭’이란 기술을 써 왔는데, 한번에 3∼4종의 유전자 분석에 그쳤다. 이는 한번에 넣을 수 있는 프라이머(유전자를 증폭할 수 있는 짧은 DNA 조각) 수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프라이머를 넣으면 서로 들러붙어 오류를 일으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br/> <br/>이에 연구팀은 프라이머를 아주 작은 크기의 입자 안에 넣어 붙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연구팀이 miRNA(마이크로RNA) 10종을 대상으로 입자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 10종 모두 찾아냈다. <br/> <br/>김 연구원은 “<span class='quot0'>이 기술을 적용하면 1회 분석으로도 감염균의 정확한 유전형과 약물내성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차별화된 진단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현재 시급하고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지카 바이러스와 메르스 등 신·변종 감염병 바이러스 진단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 이어 “프라이머가 들어있는 입자를 만드는 과정이 쉽다는 것도 이 기술의 장점 중 하나”라며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특허로도 출원해 등록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상용화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등을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2.txt

제목: 당신의 대변 형태로 알 수 있는 건강 정보  
날짜: 20160329  
기자: 나진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9193003162  
ID: 01100701.20160329193003162  
카테고리: IT\_과학>보안  
본문:   <br/> <br/> <br/>매일 가는 화장실. 그런데 이때마다 자신의 대변 형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자신의 대변 모양이 일반적인 형태라는 확신은 있는가? <br/> <br/>대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껄끄럽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 조사 결과 10명 중 5명만이 가족과 대변 문제에 대해 상의했다. ‘부끄럽다’는 이유로 대변이 보내는 건강 적신호가 무시되고 있는 것. 심지어 암에 대한 것들도 말이다. 해외 매체 데일리메일이 28일(현지 시간) 대변의 유형과 암의 위험성에 대해 전했다. <br/> <br/>대장항문외과 전문의 애쉬 굽타 박사가 영국 Ramsay Health Care에 제공한 이미지엔 대변의 특징과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가 실려있다. <br/> <br/> <br/>건강한 사람의 대변은 표면에 틈이 있는 소시지 모양이다. 대장 질환에 대한 위험이 없는 상태다. <br/> <br/>반면, 3주 이상 묽은 설사가 지속된다면 대장암을 의심해봐야 한다. 몇 방울의 피가 아닌 검붉은 피로 뒤덮여 있거나 전체가 어두운색일 때도 마찬가지. 항문이 아닌 장 안쪽에서 피가 난 것일 수 있다. <br/> <br/>대장암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발병하는 암이다. 지난 2012년에만 140만 명이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대장암 말기 환자 중 5년 이상 생존하는 환자는 전체의 10% 이하다. 반면, 1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은 90%까지 올라간다. 굽타 박사는 “사람들은 대변에 대해 이야기하기 부담스러워 한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선 신경 써서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며, “대장암이 조기 발견되면 매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br/> <br/>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3.txt

제목: 차바이오텍, 줄기세포 뇌졸중 치료제 임상 1,2a상 연내 완료 예정  
날짜: 20160329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9103827400  
ID: 01100701.2016032910382740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차바이오텍 최종수 대표이사 <br/> <br/>국내 최대의 줄기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차바이오텍(대표이사 최종수)은 탯줄 유래 뇌졸중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1•2a상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고 29일 밝혔다. <br/> <br/>탯줄 유래 뇌졸중 줄기세포 치료제는 발병 후 일주일 이내에 주입해야 하는 급성 질환 치료제로 추적관찰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다른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 진행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를 것이라는 것이 차바이오텍의 설명이다. <br/> <br/>뇌졸중은 암 다음으로 사망률 2위에 달하는 질환으로 국내 뇌졸중 환자 수는 50만명 이상이다. 또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가 손상되고 그에 따른 신체장애를 동반하는 질환으로, 과거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식생활의 변화와 운동부족 등으로 인해 30-40대에도 흔히 발병되고 있다. <br/> <br/>또 차바이오텍은 작년말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태반유래 알츠하이머병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승인을 득하고 곧 1•2a상 임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서서히 발병하여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의 악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질환이다.  <br/> <br/>초기에는 기억력에 문제를 보이다가 병이 진행되면서 언어기능이나 판단력 등 다른 여러 인지기능의 이상을 동반하게 되고, 결국 모든 일상생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에 걸린 국내 환자수는 약 4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br/> <br/>현재 차바이오텍의 뇌질환 관련 임상은 분당차병원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상위 임상 진입시 여러 병원과 임상 협력 연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br/> <br/>차바이오텍은 앞으로 세포활성도 등 기능성을 극대화시킨 개량된 줄기세포(Enhanced Program)를 이용하여 임상연구을 진행할 예정이며 성능개선 줄기세포주 등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4.txt

제목: 서울대암병원 5주년, 최첨단 치료와 연구로 암정복 선도  
날짜: 20160328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8170445478  
ID: 01100701.2016032817044547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서울대암병원이 개원 5주년을 맞이하고, 이를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25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br/> <br/>심포지엄은 ‘최적의 치료, 따뜻한 여정’을 주제로, 간호, 약제, 영양, 교육 등이 포함된 8개의 전문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심포지엄에는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김태유 서울대암병원장, 토마스 브라운 미국 Swedish Healthcare Institute 교수, 히로시 타나카 일본 도호쿠대 교수, 그리고 각 세션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br/>  <br/>심포지엄은 8개 전문 분야의 최신 치료 및 연구 동향을 소개했으며, 30여 명의 연자와 좌장은 각 분야의 주제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심포지엄 후에는 암병원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는 개원 5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br/> <br/>서울대암병원은 지난 2011년 3월 지상 6층, 지하 4층 연면적 2만7677㎡ 규모로 개원했다. 개원 이후 ‘암 치료의 FIRST HOSPITAL' ? ‘Your FIRST Hospital' 이라는 슬로건 아래, 검사, 치료, 재활, 예방은 물론 환자의 삶의 질까지 높이는 ‘원스톱 토털케어’를 제공, 국내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왔다. <br/> <br/>그 결과, 2011년 개원 당시 1,280명이었던 일평균외래환자는 올해 2,038명으로 59%나 증가했다. 수술도 년 간 8,066(2011년)건에서 9,235(2015년)건으로 크게 늘었다. <br/> <br/>이러한 치료 성적과 함께 최근에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맞춤의료를 위한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14년 연구중심병원 암유닛 과제를 통해 200여 개의 암 관련 유전자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으로 처리하는 패널을 개발, 암 맞춤치료 시대를 앞당겼다. <br/> <br/>서울대암병원은 올해 3월 개원 5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전문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적의 치료, 따뜻한 여정’을 슬로건으로 암진료 프로세스 개선, 연구와 임상이 융합되는 연구중심병원, 생활 속 암정복을 구현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 등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br/> <br/>김태유 암병원장은 “암의 진단, 치료, 임종에 이르는 과정을 암여정 이라고 한다. 서울대암병원은 최첨단 진료와 연구,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암여정의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다” 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5.txt

제목: 비소세포성 폐암 3기 생존율 높이는 치료 전략 나왔다  
날짜: 20160325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5114211725  
ID: 01100701.20160325114211725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폐암 수술한 환자는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방사선이나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는데, 비소세포성 폐암 3기 환자의 경우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항암화학요법을 하는 것이 생존율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아주대학교병원 폐암센터팀(이현우·노오규 교수)은 200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3년 동안 아주대병원에서 수술 후 방사선과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비소세포성 폐암 3기 환자 105명을 대상으로 치료성적과 예후인자를 분석했다. <br/> <br/>분석 결과 전체 105명 환자의 5년 생존율은 40.2%이었고, 이중 수술 후 방사선치료만 받은 62명의 5년 생존율은 29.2%, 방사선치료와 보조적 항암화학요법을 모두 받은 43명의 5년 생존율은 61.3%였다. <br/> <br/>비소세포성 폐암 3기 한자의 수술 후 보조적 치료 종류에 따른 5년 생존율 비교 <br/>비소세포성 폐암 3기는 수술 후에 항암화학요법을 먼저 시행하고 그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법이다. 그러나 아주대병원 폐암센터팀은 수술 후에도 미세하게 암이 남아 있을 확률이 높은 흉부에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고 그 후에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하는 전략을 적용해 왔다. <br/> <br/>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먼저 하고 방사선 치료를 나중에 한 다른 연구들에서 환자의 5년 생존율이 40% 내지 47% 정도로 보고되는 것과 비교할 때 아주대병원의 61.3%는 매우 우수한 성적이다. <br/> <br/>아주대병원 이현우(왼쪽), 노오규 교수. <br/>이에 대하여 아주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노오규 교수는 "이번 연구는 3기 비소세포성 폐암의 재발을 막는 보조적 치료의 순서를 정하는 데에서 방사선 치료를 먼저 했던 아주대병원 폐암센터팀의 치료 전략이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br/> <br/>이어 "연구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것은 아주대병원의 폐암치료, 즉 진단과 수술,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아우르는 다학제적 치료성적이 국제적으로도 우수하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br/> <br/>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3월 1일 미국의 권위 있는 방사선종양학회 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Radiation Oncology and Physics (IF=4.252)에 '비소세포성 폐암 3기 환자에서 수술 후 방사선치료 후 항암화학요법 투여 전략(Radiation therapy-first strategy after surgery with or without adjuvant chemotherapy in stage IIIA-N2 non-small cell lung cancer)'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br/> <br/>한편 폐암은 2013년 국내에서 2만3177명의 새로운 폐암환자가 발생하여 네번째로 흔한 암이다. 그러나 폐암으로 사망한 환자 수는 1만7440명으로 암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는 국민건강상 큰 문제가 되는 질환이다. <br/> <br/>폐암이란 폐에서 일차적으로 발생한 악성 종양으로, 현미경적으로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 등에 따라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구분한다. 폐암 중 약 85% 이상은 비소세포 폐암이고,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는 병기에 따라 주로 3기A까지는 수술적 치료, 3기A 일부와 3기B는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병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4기 혹은 재발한 경우는 대부분 항암화학요법이 기본적인 치료가 된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6.txt

제목: 로봇 의사·손해사정인 시대 온다  
날짜: 201603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4203103206  
ID: 01100701.2016032420310320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의사, 관제사도 사라질 위험이 높다.’ <br/> <br/>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 이후 미래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직군에 속하는 의사, 관제사 등도 직무 대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화가와 조각가, 사진가 등 예술 분야 관련 직업은 인공지능 발달에도 대체 가능성이 낮았다. <br/> <br/>한국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 주요 직업 406개 가운데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등으로 직무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분석해 24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미래 기술의 영향을 연구하는 칼 베네딕트 프레이와 마이클 오즈번 교수가 제안한 분석 모형을 활용했다. 직업별로 △정교한 동작이 필요한지 △비좁은 공간에서 일하는지 △창의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술과 관련된 일인지 등을 주요 변수로 삼았다. <br/> <br/>연구 결과 직무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될 위험이 높은 직업 1∼5위는 콘크리트공, 정육·도축원, 고무·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청원경찰, 조세행정사무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업은 단순 반복적이고 정교함이 떨어지는 동작을 하거나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br/> <br/>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문직이라 꼽는 손해사정인(40위), 일반의사(55위), 관제사(79위) 등도 비교적 대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반복적인 저숙련 업무뿐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지적 업무도 인공지능의 대체 가능 영역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환자 진단과 약 처방 등에서 일반의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 IBM의 인공지능 ‘왓슨’은 암 진단률 정확도가 인간 의사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밀한 수술 실력과 경험이 필요한 전문의사의 직무대체 확률은 338위로 낮았다. <br/> <br/>손해사정인은 인공지능이 수리적 계산에 뛰어나다는 점에서 직무대체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관제사 역시 비행기 이착륙 순서나 비행기간 거리 유지 등에서 인간보다 정확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br/> <br/>반대로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확률이 낮은 직업은 화가·조각가, 사진작가, 작가 및 관련 전문가, 지휘·연주자 및 작곡가, 애니메이터 및 만화가 등 감성에 기초한 예술 관련 직업들이었다. 연예인·스포츠매니저, 판검사, 변호사 등도 직무대체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고서는 또 직무대체 위협 근로자들이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생애진로 개발 전문가’ 양성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br/> <br/>박가열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올 초 다보스포럼에 나온 ‘직업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화 직무 대체는 2020년 전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 중심으로 시작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 담당하게 될 직무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7.txt

제목: [사이언스리뷰] SW R&D 성과, 시간이 필요하다  
날짜: 2016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3205959006  
ID: 01100701.2016032320595900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대국이 끝나고 후폭풍이 거세다.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지능정보 분야에 향후 5년간 1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포스트 스마트폰시대를 견인할 신동력을 찾아헤맨 지 2년여다. 이 난세에 이세돌은 1200개 중앙처리장치(CPU)로 무장한 기계와의 대결에 몸을 던지면서 대한민국 정보기술(IT) 방향을 단번에 정리했다. 바로 AI다. 쎈돌 이세돌은 IT 분야의 ‘프랑스를 구한 영웅’ 잔다르크다. 칠흑 어둠이 순식간 개명천지가 됐다. 늦었지만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결정을 환영한다. <br/> <br/>이번 우리나라를 뒤흔든 AI 기술은 세계적인 IT 기업 구글의 미래전략 중 지극히 일부분이다. 구글은 풍력·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에 이제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총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13년 12월에는 로봇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다. 등짐을 지고 산길을 오르는 나귀같이 생긴 로봇 ‘빅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업이다. 한 달 후인 2014년 1월에는 홈 오토메이션 회사 ‘네스트랩’을 3조4000억원에 인수한다. <br/> <br/>원유집 한양대 교수·컴퓨터공학그리고 같은 달 구글은 베일에 싸인 회사 하나를 인수한다. 인수 가격은 대략 6000억원이었다. 50명 규모의 회사 가격치고는 꽤 비쌌다. 창업자 단 세 명 영입을 위해 6000억원을 베팅했다는 사실은 더 놀랍다. 이 회사가 구글기업 가치를 58조원 상승시킨 알파고 개발사 ‘딥마인드’다. 구글은 수명 연장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자회사 ‘칼리코’를 통해 암과 알츠하이머와의 전쟁을 위해 1800억원 규모의 연구소 설립투자안을 발표했다. 노화방지, 청정에너지, 자율주행자동차 등 ‘보다 나은 삶’이라는 거시적인 비전하에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br/> <br/>미래창조과학부의 지능정보기술(AI 개발 SW로 대표되는 ‘지능’에 빅데이터 등 ‘정보’를 결합한 것) 1조원 투자가 발표된 이즈음 진짜 중요한 숙제가 남았다. 투자 효율의 극대화이다. 우선 선행돼야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R&D)에 적합한 제도, 프로세스 개선, 그리고 교육에의 투자다. 이제까지 SW R&D는 단기성과에 급급해 왔다. 이는 1960년대식 제조업 패러다임이다. 로드맵 설정, 중간보고, 연말보고, 예산 적정집행 확인 등 계속 확인하고, 들여다보고, 들추고, 뒤집는다. 초미세관리와 경직된 제도하에서 정부의 야심찬 지능정보분야에의 투자가 얼마나 유효할지 의문스럽다. 50년 이상의 관(官) 주도 산업화, 그 성공의 끝자락에는 불행히도 비대한 규정과 기존기업의 기득권 카르텔만 남았다. 6000억원짜리 딥마인드를 탄생시킬 수 있는 창조기업 육성 에코시스템은 어디에도 없다. <br/> <br/>초일류기업의 R&D 투자 및 인수합병(M&A) 규모는 우습게 수천억원 단위를 넘나든다. 투자규모면에서 우리네 R&D가 객관적 화력에서 크게 열세다. 다행히도 SW분야의 R&D는 투자규모의 전쟁이 아니다. 승산이 있다. SW분야는 천재 1명이 1000명을 당해낼 수 있다. ‘모나리자’도, ‘전쟁과 평화’도 모두 한 명의 작품이다. 음악·미술·문학은 창조라는 측면에서 SW와 본질적으로 특성을 같이한다. 제대로 된 SW 교육과정과 R&D 프로세스, 창업 에코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수백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투자는 그다음이다. <br/> <br/>SW교육 돌풍이 불고 있다. 초중고에서 SW가 정규교과목으로 편성되고, SW교육에 특성화된 대학 커리큘럼이 생겨나고 있다. 수년 후 SW 유전자로 프로그래밍된 특전사급 인력이 사회로 배출될 것이다. 유능한 인력을 조직의 생산성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정책입안자, 경영자, 관리자의 몫이다. 두세 번씩 확인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좌불안석 뒤집는 것은 그만하자. SW R&D 성과를 위해서라면 이제 충분히 시간을 주고, 믿고 맡기고, 기다려 보자. <br/> <br/>원유집 한양대 교수·컴퓨터공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8.txt

제목: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2016 후기입학설명회 개최  
날짜: 20160323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3102156094  
ID: 01100701.20160323102156094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총장 이강현)는 오는 26일 오후 1시 국립암센터 국가암예방검진동 10층에서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br/> <br/>이번 입학설명회에서는 2016학년도 후기 입학전형과 관련된 교육과정 및 장학제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할 예정이며 참가자에게 효율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전반적인 학교 소개뿐만 아니라, 개별면담 및 재학생과의 Q&A 세션도 진행할 예정이다. <br/> <br/>국제적 암 관리 및 연구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2014년 3월에 개교하여 지난 1월 12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한 국제암대학원대학교는 기존 대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암 중심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모든 강의는 100% 영어로 진행한다. <br/> <br/>또한 쾌적한 기숙사, 폭넓은 장학제도 등을 마련하여 면학에 열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br/> <br/>국제암대학원대학교의 2016학년도 후기 전형 모집 전공은 석사과정의 암관리정책학과와 시스템종양생물학과이다. 원서 접수는 3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며 자세한 일정 및 지원서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9.txt

제목: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 '2016년을 빛낼 도전한국인' 수상  
날짜: 20160321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1105552225  
ID: 01100701.20160321105552225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도전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2016년을 빛낼 도전한국인’에 선정된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왼쪽에서 4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br/> <br/>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이 도전한국인운동본부와 (사)도전한국인운동협회, 대한민국공헌대상재단이 주관하는 '2016년을 빛낼 도전한국인'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br/> <br/>도전한국인 운동본부는 지난 18일 국회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도전한국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br/> <br/>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은 대학병원의 성공적인 서비스 혁신 사례 창출과 해외를 방문하며 대한민국 의료기술을 세계에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2016년을 빛낼 도전한국인' 30인에 선정됐다. <br/> <br/>백남선 병원장은 “<span class='quot0'>2009년 개원 이후 여성암 병원이 국내 여성암 치료 대표 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 없는 도전과 혁신 활동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였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여성암전문병원으로 재도약 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도전한국인 운동본부는 △지방자치 △사회 △문화 △예술 △해양 △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도전을 통해 큰 기여를 한 한국인을 발굴하는 상으로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 매년 수상하고 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00.txt

제목: 암 발생에 관여 ‘쉽원 유전자’ 기능 원리 규명  
날짜: 201603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7204754216  
ID: 01100701.2016031720475421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생명체 내의 각 기관이 적절한 크기가 되도록 조절하고 돌연변이가 생기면 기관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등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다. <br/> <br/>카이스트(KAIST) 생명과학과 최광욱(사진) 교수 연구팀이 우리 몸의 각 기관이 정상적인 크기로 자라게 조절하는 히포네트워크(Hippo Network)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쉽원(Schip 1)이라는 새로운 단백질을 발견하고 기능원리를 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br/> <br/>연구팀은 히포네트워크 유전자가 처음 발견된 초파리를 이용해 쉽원 유전자가 익스팬디드와 타오원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쉽원이 타오원을 세포막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익스팬디드는 쉽원이 적절한 위치를 잡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쉽원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세포분열이 매우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기관이 비정상적으로 크는 등 암 조직에서 나타나는 여러 형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디벨롭멘탈 셀’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br/> <br/>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01.txt

제목: 차병원, 최고 명의 영입 hospital in hospital 진료 개막  
날짜: 20160317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7145438673  
ID: 01100701.2016031714543867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분당차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수곤 교수, 외과 정상설 교수 <br/>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김동익)은 최근 진료의 수준을 높이고 연구역량을 활성화 하는데 총력을 다하고자 각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스타급 의사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br/> <br/>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이자 분당차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로 영입한 이수곤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 내과장 및 내과부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면역질환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내과학회 이사장과 대한의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br/> <br/>이수곤 교수는 특히 연구에서 두각을 보이며 류마티스학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임상의학자로 평가 받고 있다. 해마다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다기관 임상시험들과 기초 연구를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류마티스학의 기초 연구와 첨단 치료법의 개발에 노력해왔다. <br/> <br/>이수곤 교수는 분당차병원에서 류마티스학에 있어 학문적인 공헌뿐 아니라 내과 분야를 강화하는 한편,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으로서 유능한 의료인을 양성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br/> <br/>한편, 분당차병원 유방/갑상선암센터에서 새롭게 진료를 시작한 정상설 교수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성모병원 수련교육부장, 외과 과장 및 주임교수 등을 거쳤으며, 한국유방암학회 초대 이사장, 대한임상종양학회 이사장,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국제의료기술평가 학술대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br/> <br/>현재까지 약2,000례 이상의 유방암 수술건수를 진행한 정상설 교수는 국내 최초로 유방암 호르몬 수용체 검사실 개설, 유방의 형태를 보존하면서 암 조직만 절제하는 유방보존술 국내 최초 도입, 유방암 조기 진단 시약 ‘브레첵(BreaCheck)’ 개발 등 풍부한 임상경험 못지 않은 다양한 연구업적으로 유방암 치료를 선도하고 외과의 지평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br/> <br/>정상설 교수는 “<span class='quot0'>앞으로의 의료 트랜드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 원인을 찾아 예방하는 의료로 변화할 것</span>” 이라며, “<span class='quot0'>분당차병원에서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맞춤치료와 바이오 정밀의학 연구에 매진할 계획</span>”이라고 전했다. <br/> <br/>김동익 분당차병원장은 “<span class='quot1'>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스타급 의사의 영입으로 각 진료과를 전문병원화하는 hospital in hospital을 실현하는 원년 삼아 향후 분당차병원을 최고의 병원으로 성장시킬 것</span>”이라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02.txt

제목: 골수성 백혈병 억제 ‘TET 단백질 유전자’ 발견  
날짜: 2016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6212351896  
ID: 01100701.2016031621235189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생명과학부 고명곤(사진) 교수 연구진이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br/> <br/>고명곤 교수가 주도한 국제 공동연구진은 ‘TET(Ten-eleven-translocation) 단백질’이 없거나 부족하면 강력한 악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TET 단백질은 DNA에 작용하는 효소로 전체적인 유전자 발현 양상을 조절한다. 연구진은 TET 단백질과 암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생쥐로 실험을 했다. 생쥐에게서 TET 단백질 두 종류를 동시에 없앴더니 1주일 이내에 암 징후가 관찰됐고, 4∼5주 안에 악성골수성 백혈병으로 폐사했다. <br/> <br/>연구진은 “<span class='quot0'>TET 단백질이 면역세포의 분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span>”라며 “<span class='quot0'>이 단백질의 발현 수준이나 활성을 유전자 단위에서 조절하는 방법으로 악성 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연구진은 TET 단백질이 다른 종류의 암에서도 암 억제 역할을 하는지 등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고명곤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번 연구는 후성유전학적 방법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03.txt

제목: ALK양성폐암 차세대 표적치료제 임상결과“효과적”  
날짜: 20160316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6192808110  
ID: 01100701.2016031619280811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김동완 교수 <br/>표적항암제 세리티닙(ceritinib)이 ALK 양성 폐암환자에서 치료효과가 오래 지속되고 뇌전이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br/> <br/>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김동완 교수가 1저자로 발표한 이 논문은 11개국 20개 병원에서 ALK 양성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ASCEND-1’ 연구의 최종분석 결과이다. <br/> <br/>이 논문은 종양학분야 주요 학술지인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 IF=24.690) 최신호(3/11, 온라인)에 게재됐다. <br/> <br/>연구진은 진행성 ALK 양성 폐암 환자 246명에게 차세대 ALK 억제제인 세리티닙 750mg 을 매일 투여해 치료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했다. <br/> <br/>그 결과 이전에 다른 ALK 억제제를 복용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72%에서 종양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다른 ALK 억제제를 복용하였던 환자에서도 56%에서 종양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종양반응의 지속기간은 이전에 다른 ALK 억제제를 복용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17.0개월, 이전에 다른 ALK 억제제를 복용했던 환자에서도 8.3개월로 치료효과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또한, 70% 내외의 환자에서 뇌전이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br/> <br/>세리티닙 치료의 흔한 부작용은 설사, 메스꺼움, 간효소수치 증가 등이 있었다. <br/> <br/>김동완 교수는 이 결과가 "전체 폐암환자의 5%를 차지하고 있는 ALK 양성 폐암환자에서 차세대 ALK 억제제 세리티닙이 기존 ALK 억제제에 내성을 보인 환자에서 효과적이며 첫 치료제로서도 우수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며 “뇌전이 환자에서의 효과를 확증하기 위한 2상 연구가 진행 중” 이라고 말했다. <br/> <br/>폐암은 2010년 국내 발생 암 환자(202,053명) 중 4위(10.3%)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인에게 흔한 암이다. 그러나 5년 생존율은 19.7%로 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나빠 많은 환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br/> <br/> ALK 양성 폐암은 ALK 유전자가 EML4 유전자와 융합되는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폐암이다. 두 유전자가 융합되면 평소 잠잠하던 ALK 유전자가 갑자기 세포의 성장속도를 급속히 높이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신호를 받은 세포는 암세포로 변한다. 세리티닙은 ALK 유전자 신호를 차단하여 암세포 사멸을 유도한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04.txt

제목: 알파고 통해 실력 과시, 미래 먹거리 선점 나서  
날짜: 2016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4184603863  
ID: 01100701.2016031418460386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을 이끌고 있는 에릭 슈미트 회장은 지난달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UC 버클리의 공연장 ‘젤러바크 홀’ 무대에 올라 이 대학 학생, 교직원과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그는 인공지능(AI)에 관한 구글의 연구 방향을 설명하면서 “‘로봇이 뭘 해 주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을 하면 가장 흔히 나오는 답이 ‘요리를 해 가져오고, 식사를 마치고 나면 설거지를 해주는 것’이라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간단한 일 같지만 (로봇에게는)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일상에서 인류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해줄 로봇이 등장하려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해 관련 난제를 해결할 AI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그의 발언 요지이다. <br/> <br/>이세돌 9단(가운데)이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 ‘알파고’를 상대로 한 세기적 대국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오른쪽),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와 손을 맞댄 채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고 있다. <br/>세계일보 자료사진구글은 AI 알파고를 앞세워 세계 정상급 바둑기사 이세돌 9단에게 승리를 거둠으로써 전 세계를 상대로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계’가 출현할 가능성을 검증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br/> <br/>구글은 2009년 자율주행차 개발에 착수하면서 AI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게 정보기술(IT) 업계의 전언이다. 구글은 이때부터 비밀 연구소인 ‘구글 X’를 통해 AI를 구성하는 인공 신경망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2012년 6월 인공 신경망으로 유튜브에서 찾은 1000만개의 이미지 중 사람의 도움 없이도 고양이를 식별해내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해 업계를 들썩이게 했다. 동시에 2012년 매사추세츠공대 컴퓨터공학과 학사 출신의 천재 발명가 레이 커즈와일에 이어 2013년 ‘머신러닝’(기계학습) 분야에서 가장 진보한 기술로 평가받는 ‘딥러닝’(심화학습) 개념을 처음 고안한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를 영입하는 등 인재 확보에도 열을 올렸다. 2014년부터는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를 비롯한 AI 기술 보유 벤처업체들을 상대로 한 인수·합병(M&A)을 연이어 성공시키면서 AI 개발에 속도를 붙였다. <br/> <br/>이제 이 9단을 상대로 범용 AI 프로그램인 알파고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이를 차량 운전은 물론이고 암 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 운영체제(OS)를 개발해 수천조원대로 성장할 AI 시장 선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br/> <br/>AI 개발은 구글만 힘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슈퍼컴퓨터 개발을 통해 기술을 쌓아온 IBM은 슈퍼컴 ‘왓슨’을 금융과 의료진단 분야에 응용하기 시작했고, 페이스북은 AI 기반으로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딥페이스’를 공개한 데 이어 문자로 사용자가 질문하면 답을 찾아주는 서비스 ‘M’을 발표했다. AI 기반 음성인식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개인비서 역할을 하는 ‘코타나’를 개발했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05.txt

제목: 대한암예방학회 2016년 암예방의날 행사 개최  
날짜: 20160311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1031938666  
ID: 01100701.20160311031938666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대한암예방학회(회장 김나영)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에서 ‘대장암 예방을 위한 일반인 강좌’를 개최한다고 11일 전했다. <br/> <br/>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3월 21일 암예방의날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번 시민 강좌는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대장암 예방을 위해 올바른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br/> <br/>이번 시민 강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공개강좌로 ▲의학적 측면에서의 대장암 예방 ▲영양학적 측면에서의 대장암 예방을 주제로 강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br/> <br/>최근 유병 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대장암은 식이습관, 비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발 인자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  <br/> <br/>때문에 이번 일반인을 위한 건강 강좌는 대장암은 물론, 암 예방과 건강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보다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방면의 전문가와 함께 영양 및 의학적 상담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br/> <br/>대한암예방학회 김나영 회장(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은 “<span class='quot0'>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 올바른 영양과 운동, 조기 검진을 통한 암 예방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행사는 암 예방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식이습관과 의학적 정보들을 쉽고 유익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06.txt

제목: [현장메모] 기후대응·암 정복… 인공지능에 거는 기대  
날짜: 2016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0185708981  
ID: 01100701.2016031018570898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세계 정상급 기사 이세돌 9단을 꺾은 일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이들이 인간 두뇌에 버금가는 수준에 다다른 AI의 발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는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전율의 서막일지 모른다. <br/> <br/>애초 알파고는 ‘난공불락’ 바둑에서 인간을 꺾기 위해 개발됐지만, 바둑에만 그 효용성이 국한되지 않는다. 구글 역시 범용성을 강조한다.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최고경영자도 “<span class='quot0'>언젠가 기후변화 분석과 복합성 질환 분석 등 오늘날 사회의 어렵고 골치 아픈 난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것</span>”이라고 기대한 바 있다. <br/> <br/> 황계식 산업부 기자알파고가 한정된 데이터로도 경우의 수가 무한대인 바둑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마스터한 만큼 이런 기대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희망을 품게 한다. 구글은 알파고에 기보 16만건(3000만수)을 익히게 했는데, 이를 토대로 알파고는 자가학습(하루 3만판의 가상대국)을 통해 상대를 꺾을 새로운 전략을 터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기계가 스스로 학습해 답을 강구하는 ‘딥러닝’(강화 또는 심층학습) 기술은 이 9단과의 대결에서 실제로 위력을 떨쳤기에 기후변화와 암 등 인류의 숙제를 풀 유력한 플랫폼으로 기대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벌써부터 AI가 스스로 병을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까지 세우는 장밋빛 미래를 설계해 볼 수도 있겠다. <br/> <br/>알파고의 선배격인 슈퍼컴퓨터 ‘왓슨’의 행보를 봤을 때도 그렇다. IBM의 왓슨 역시 2011년 제퍼디 쇼에서 인간 퀴즈왕들을 물리칠 목적으로만 고안되지 않았다. 2013년부터 암 진단과 치료에 활용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사물인터넷(IoT)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신용도를 평가해 대출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투자상품을 추천하는 등 금융권에서도 실용화가 이뤄졌다. <br/> <br/>앞으로 인류가 AI를 활용해 어떤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가 크다. 구글이 꿈꾸듯 알파고가 암을 정복하고, 기후변화의 해답을 내놨다는 역사적인 발표에 입을 다물지 못할 날이 도래할 수도 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AI 오남용이다. 이 ‘생각하는 기계’가 애초 제작 의도와 달리 우리의 삶을 옥죄는 재앙은 없어야 할 것이고, 이는 인류 모두가 짊어질 몫이라는 점을 주문하고 싶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07.txt

제목: 초기 증상 없는 대장암, 정기 검진 중요  
날짜: 20160310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0155329587  
ID: 01100701.2016031015532958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흔한 암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환자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이 채식 위주에서 육식 위주로 바뀌고, 생활양식 또한 서구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br/> <br/>이에 따라 대한암예방학회가 '대장암을 이기는 식생활 및 건강수칙' 10가지를 발표, 대장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r/> <br/>대장암은 어떤 암인지, 치료 방법과 치료 후 관리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유성선병원 암센터 대장항문외과 최병민 과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br/> <br/> <br/>◇ 초기 증상 없어 정기적인 검진 필요 <br/> <br/>대장(큰창자)은 소장(작은창자)의 끝에서 시작해 항문까지 연결된 긴 튜브 모양의 소화기관으로, 길이가 약 1.5m 정도이다. 보통 6m가 넘는 소장보다 훨씬 짧지만 폭이 넓어서 대장이라 부른다. 이 부위에서 발생하는 암이 대장암이다. <br/> <br/>대장암의 주된 증상으로는 배변 습관의 변화, 설사, 변비, 배변 후 변이 남은 듯 무지근한 느낌, 혈변 또는 끈적한 점액변, 복통, 복부 팽만, 피로감, 식욕부진, 소화불량, 그리고 복부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 등이 있다. <br/> <br/>하지만 대장암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으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이 이미 상당히 진행돼 있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만이 조기 발견의 지름길이다. 우리나라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에서는 만 50세 이상이면 1년 간격으로 분변잠혈반응검사를 하여 이상 소견이 나올 경우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받고, 별다른 증상이 없는 사람이라도 50세 이후부터는 5~10년에 한 번씩 이들 두 검사 중 하나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br/> <br/>◇ 복강경 수술, 정밀하고 회복 빨라 <br/> <br/>대장암의 치료에 있어서 수술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암의 발생 부위에 따라서 수술 방식은 각각 다르게 적용되지만 수술의 큰 원칙은 동일하다. 암으로부터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림프혈관을 결찰하고, 주변 림프절을 포함하여 광범위 절제를 하게 된다. 수술 중에는 뱃속의 다른 장기들을 관찰하여 혹시 전이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며, 소장, 난소, 요관, 신장 등의 주변장기와 붙어있는 경우에는 함께 절제를 할 수도 있다. <br/> <br/>이전에는 15cm 정도의 길이로 복부를 절개한 후 수술을 시행했으나 기술의 발달로 배꼽부위에 1cm 정도를 절개하여 복강경 카메라를 넣은 후 배 안을 모니터로 보면서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손을 사용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대신 3~4개 정도의 작은 절개창을 통해 30cm 길이의 기구를 넣어 수술을 하게 된다. 손을 사용하여 수술을 하는 것에 비해 기구의 조작이 어렵고 제한되는 것이 많지만 현재는 수술 술기의 발달과 기구의 발달로 대부분의 수술을 복강경을 통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br/> <br/>복강경 수술의 장점은 수술 상처가 작아서 미용적인 효과가 있고 통증이 적으며 환자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적은만큼 회복이 빠르다. 또 복강경을 통해 확대된 시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 <br/> <br/>그러나 △과거에 복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유착이 심하거나 △재발을 했거나 △주변장기로의 침범이 심하여 복강경 기구만으로 수술적 절제가 쉽지 않거나 △환자가 비만하거나 골반강이 좁아서 기구의 조작이 힘든 경우에는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br/> <br/>◇ 재발과 전이, 조기에 발견하려면 <br/> <br/>대장암 수술 후에는 병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재발과 전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추적과 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조기에 재발이나 전이가 발견될 경우 적절한 치료를 추가함으로써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정기적인 추적 및 관찰의 방법과 기간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재발이 수술 후 2년 이내에 발견되므로 수술 후 2년까지는 좀 더 짧은 간격으로 추적관찰을 하고, 수술 후 5년 이후에도 재발이나 전이가 발견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적관찰을 시행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 수술 후 2년까지는 3개월에 1번, 이후 수술 후 5년까지는 6개월에 1번, 그 이후는 1년 1회 정도 추적 및 관찰을 시행하고 있다. <br/> <br/>매번 외래에 방문할 때마다 간단한 진찰과 함께 기본적인 혈액검사 및 암표지자검사를 시행하고, 흉부엑스선촬영은 6개월마다 1회, 전산화단층촬영(CT)과 대장내시경 혹은 대장조영술은 1년에 1회 정도 시행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ET)을 시행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체중감소, 식욕부진, 무력감 등의 전신증상과 복통, 골반통증, 기침, 배변 습관의 변화 및 항문 출혈 등의 증상이 생기면 바로 전문의와 상의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br/> <br/>대장암이 재발되는 것을 완벽히 예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모든 암들의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재발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여 완치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08.txt

제목: 대한암예방학회, 대장암 예방 위한 일반인 강좌 개최  
날짜: 20160310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0153302831  
ID: 01100701.2016031015330283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br/> <br/> <br/>대한암예방학회(회장 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에서 '대장암 예방을 위한 일반인 강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br/> <br/>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3월 21일 암예방의날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번 시민 강좌는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대장암 예방을 위해 올바른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br/> <br/>이번 시민 강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공개강좌로 △의학적 측면에서의 대장암 예방 △영양학적 측면에서의 대장암 예방을 주제로 강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br/> <br/>최근 유병 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대장암은 식이습관, 비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발 인자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 때문에 이번 일반인을 위한 건강 강좌는 대장암은 물론, 암 예방과 건강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보다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방면의 전문가와 함께 영양 및 의학적 상담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br/> <br/>대한암예방학회 김나영 회장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 올바른 영양과 운동, 조기 검진을 통한 암 예방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는 암 예방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식이습관과 의학적 정보들을 쉽고 유익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09.txt

제목: 고대의대 이경미 교수, '항암면역세포치료제' 기술이전  
날짜: 20160309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9101711549  
ID: 01100701.2016030910171154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효명)이 의료기술산업화 선도를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br/> <br/>고려대 의료원산학협력단(단장 윤영욱)은 지난 8일 에이티젠의 자회사인 엔케이맥스(대표 박상우)에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 이하 NK세포)의 배양 및 치료의 원천 기술'을 이전하며 협약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br/> <br/>협약식에는 윤영욱 고려대 의료원산학협력단장, 이홍식 의과대학장, 이경미 의과대학 교수, 박상우 엔케이맥스 대표를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r/> <br/>이전된 원천기술은 고려대 의대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이경미 교수가 지난 10년간 연구개발한 것으로 적은양의 혈액을 이용하여 수천억개의 탁월한 항암능력을 지닌 NK세포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br/> <br/>NK세포는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 등을 추적하여 파괴하는 면역세포로, 그간 복잡한 공정과 높은 생산비로 인해 상용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경미 교수의 기술은 공정과정이 간단해 기존대비 세포치료 비용을 5~10배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br/> <br/>이경미 교수는 "기존 NK세포 제조법은 혈액암과 피부암에 국한되어 완치효과가 있었다"며 "이번 기술은 생산단가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종에 치료효과를 보여 난치성 암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자들에 적용이 가능한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br/>이번 이경미 교수의 기술협약 이전을 통해 고대의료원은 에이티젠과 NK세포 치료제의 임상시험 및 제품개발을 위한 투자와 연구를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br/> <br/>한편 고려대의료원은 KU-MAGIC프로젝트, 산하 2개 병원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 운영, 의료기술지주회사, 대형국책과제 수주 등을 통해 의료기술을 특화해 집중 육성하며 의료산업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10.txt

제목: 국립암센터 박상윤 박사, 대한복막암학회장 취임  
날짜: 20160308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8164645915  
ID: 01100701.2016030816464591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 자궁암센터 박상윤 박사가 지난 2월 20일 대한복막암학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br/> <br/>박상윤 박사는 난소암, 난관암 및 복막암의 권위자로 197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및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br/> <br/> 국립암센터 박상윤 박사 <br/>박 박사는 국립암센터 자궁암센터장 및 자궁암연구과장을 지냈고 미국부인종양학회 학술위원, 대한부인종양학회 상임이사, 대한부인종양연구회 수술 분과장, 대한산부인과학회 편집위원, 대한림프부종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국내외 학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br/> <br/>한편 대한복막암학회는 난소암, 난관암, 위점액종(가성점액종), 중피종, 대장암, 위암 등 여러 가지 암으로부터의 복막파종과 복막에 발생하는 원발성 복막암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치료의 희망을 주고 예방법을 연구·개발해 환자들을 복막암의 위협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6월 창립됐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11.txt

제목: 한미약품, 다중표적 항암신약 유방암 환자 대상 美 2상 돌입  
날짜: 20160308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8101721119  
ID: 01100701.2016030810172111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작년 미국 제약기업 스펙트럼社에 라이선싱된 한미약품의 다중표적 항암신약(Poziotinib, 이하 포지오티닙)의 임상 2상이 미국에서 시작됐다. <br/> <br/>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과 다중표적 항암신약 '포지오티닙'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미국 스펙트럼社(Spectrum Pharmaceuticals)는 최근 포지오티닙의 미국 임상 2상을 시작했다고8일 밝혔다. <br/> <br/>이번 임상은 기존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HER-2 양성 유방암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투여용량 및 주기는 한미약품이 진행한 임상 1•2상이 토대가 된다. <br/> <br/>포지오티닙은 한미약품이 보건복지부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단(단장 김인철, 주관연구기관 국립암센터)과 공동 개발 중인 표적항암제로, 비소세포폐암•유방암에 대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br/> <br/>한미약품과 스펙트럼은 작년2월 포지오티닙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스펙트럼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 <br/> <br/>한미약품 이관순 대표이사는 "한미약품의 기술이 적용된 다중표적 항암신약이 순조롭게 미국 2상을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R&D에 특화된 스펙트럼社를 통해 포지오티닙의 치료효과가 하루빨리 전세계 환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br/> <br/>스펙트럼 Rajesh C. Shrotriya 대표이사는 "포지오티닙은 베스트 인 클래스(best in class) pan-HER 저해제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며 "내성이 생긴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대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r/> <br/>한편,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스펙트럼은 혈액(Hematology) 및 항암(Oncology) 분야에서 임상시험 단계의 파이프라인을 발굴-도입해 성공적으로 개발한 성과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중심 제약회사로, 골육종치료제(Fusilev), 비호치킨림프종치료제(Zevalin) 등 5개의 항암신약을 미국 등에서 판매하거나 판권을 확보하고 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12.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김경미 교수, 15회 보령암학술상 수상  
날짜: 20160308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8095724726  
ID: 01100701.2016030809572472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보령제약(대표 최태홍)과 한국암연구재단(이사장 김병국)이 공동 제정 시행하고 있는 보령암학술상 제15회 수상자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병리과 김경미 교수가 선정됐다. <br/> <br/>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종의 하나이자, 사망률이 매우 높은 위암의 병리 진단, 맞춤치료의 타겟 발굴 및 유전체 기반 위암 개인맞춤 치료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8일 오전 서울대병원 삼성암연구동에서 진행되며, 김 교수에게 상패와 상금 3000만원이 수여된다. <br/> <br/> 삼성서울병원 병리과 김경미 교수 <br/>김 교수는 한국인 위암 유전체 분석에 참여하여 위암의 유전체 변이가 매우 이질적이고, 유전체의 발현에 따라 예후 및 재발위험도가 달라 위암 유전체 정보에 따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는 치료 방향을 제시하며 위암 치료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br/> <br/>또한 EBV(에프스타인-바바이러스/Epstein-Barr Virus) 연관 위암에서 염증세포의 종양세포 주변 침윤 정도에 따라 위암의 예후가 달라짐을 밝혀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위암 주변의 염증 반응 및 침윤하는 이뮨세포의 종류에 따라 예후가 달라 질 수도 있음을 제시하기도 했다. <br/> <br/>이와함께 위장관기질종양의 병리 진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치료 및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오마커 연구에 기여하였으며, 한국인에서 발생하는 대장의 톱니형 폴립(serrated polyp)의 유전자변화와 임상 양상을 접목하여 특정 유전자(KRAS) 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악성화의 가능성이 높음을 밝히기도 했다. <br/> <br/> 8일 서울대병원 삼성암연구동에서 진행된 제 15회 보령암학술상 시상식에서 수상자 삼성서울병원 김경미 교수(가운데)가 한국암연구재단 김병국 이사장(왼쪽), 보령제약그룹 김승호 회장(오른쪽)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br/>김 교수는 현재 쉽게 적용이 가능한 위암 예후예측마커 개발에 노력하며 위암환자의 생존 연장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br/> <br/>보령제약그룹 김승호 회장은 축사를 통해 "암정복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며,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준 김경미교수의 연구 업적에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암 정복이라는 원대한 꿈이 실현되고 건강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보령암학술상'을 통해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r/> <br/>'보령암학술상'은 2002년 국내 종양학 분야 연구에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해 온 학자들의 업적을 기리고, 국내 종양학 분야의 학술활동을 진작하기 위해 한국암연구재단과 보령제약이 공동으로 제정해 매년 1명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로 15회를 맞이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13.txt

제목: 'K 푸드' 쌀막걸리, 위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  
날짜: 201603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7192527683  
ID: 01100701.2016030719252768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쌀로 만든 막걸리가 위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종양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한국식품연구원은 7일 영양식이연구단 황진택 박사팀이 쌀을 주원료로 한 전통 방법으로 제조한 막걸리가 위암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br/> <br/>연구진이 수분과 알코올을 제거한 막걸리를 인체 유래 위암 세포에 처리했을 때 암 세포 증식이 억제되고 종양 억제 유전자(PTEN) 발현이 증가했다. 동물 실험에서도 인체 유래 위암 세포를 이식한 쥐에게 막걸리를 경구 투여한 결과 종양 성장이 억제됐다. 암 예방 효능이 있는 막걸리 주요 성분은 쌀에 많이 들어 있는 ‘베타시토스테롤’로 확인됐다. 이 물질은 전립선 건강과 콜레스테롤 개선 등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br/> <br/>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로 적당한 막걸리 섭취가 암을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체 실험 자료가 아직 없어 실제로 막걸리를 어느 정도 마셔야 암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세포와 동물 실험에서 암 예방 효과가 입증된 막걸리 양을 사람이 마시는 막걸리로 환산하면 약 한 잔 분량이다. <br/> <br/>황진택 박사는 “<span class='quot0'>선행 연구로 파네졸과 스쿠알렌 등을 함유한 막걸리의 암 예방 가능성이 예상됐고, 이번에 막걸리 자체의 암 예방 효능을 입증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막걸리로부터 새로운 암 예방 성분이 확인된 만큼 막걸리에 다양한 암 예방 성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span>”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국내 전문 학술지에 2건이 실렸으며 연구진은 특허 1건을 출원했다. <br/> <br/>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14.txt

제목: 쌀 막걸리 한잔… 위암세포 억제 효능  
날짜: 20160307  
기자: 박찬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7155731374  
ID: 01100701.2016030715573137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쌀로 만든 막걸리가 위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종양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한국식품연구원은 7일 영양식이연구단 황진택 박사팀이 쌀을 주원료로 한 전통방법으로 제조한 막걸리가 위암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br/> <br/>연구진이 수분과 알코올을 제거한 막걸리를 인체 유래 위암 세포에 처리했을 때암 세포 증식이 억제되고 종양 억제 유전자(PTEN) 발현이 증가했다. 동물 실험에서도 인체 유래 위암세포를 이식한 쥐에 막걸리를 경구 투여한 결과 종양 성장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암 예방 효능이 있는 막걸리 주요 성분은 쌀에 많이 들어 있는 ‘베타시토스테롤’로 확인됐다. 이 물질은 기존에 전립선 건강, 콜레스테롤 개선 등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br/> <br/>적당한 막걸리 섭취가 암을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 연구 결과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황진택 박사는 “<span class='quot0'>선행 연구로 파네졸과 스쿠알렌 등을 함유한 막걸리의 암 예방 가능성이 예상됐고 이번에 막걸리 자체의 암 예방 효능을 입증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막걸리로부터 새로운 암 예방 성분을 확인된 만큼 막걸리에 다양한 암 예방 성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연구 결과는 국제·국내 전문 학술지에 2건 실렸으며 연구진은 특허 1건을 출원했다. <br/> <br/>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15.txt

제목: 피폭때 혈관 손상 유발하는 단백질 인자 발견  
날짜: 201603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4212003669  
ID: 01100701.2016030421200366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방사선 피폭으로 혈관을 손상시키는 단백질 인자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견됐다. 이 단백질을 억제함으로써 방사선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등의 질병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평가다. <br/> <br/>한국원자력의학원 김광석(사진) 박사 연구팀은 방사선에 노출된 심혈관세포에서 ‘GDF 15’라는 단백질이 많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 이 단백질이 심혈관세포의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과정을 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GDF15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한 심혈관세포에는 세포 노화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 방사선에 노출되기 이전 또는 노출된 이후에 이 단백질을 조절함으로써 세포의 손상을 줄일 수 있음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정상혈관의 방사선 유무를 판별할 지표를 개발했다. 그동안 GDF15는 전립선암이나 직장암, 유방암 등에서 암을 발생시키거나 전이시키는 단백질로 알려졌지만 방사선 피폭 시 혈관 및 주변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기전임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구팀은 전했다. <br/> <br/>이 연구는 국제 암생물학 학술지인 ‘온코타깃’(Oncotarget) 2월호의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아울러 국제특허(P CT)로도 출원할 계획이다. <br/> <br/>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토대로 정상혈관 손상 마커를 이용한 진단 기술을 임상에 적용, 방사선 암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박사는 특히 “<span class='quot0'>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환자들의 GDF15 발현을 억제시켜 정상혈관을 보호하면서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16.txt

제목: "암세포마다 표식… 면역세포가 찾을 수 있어"  
날짜: 201603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4184356381  
ID: 01100701.2016030418435638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의학계가 암 정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br/> <br/>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영국 연구진들이 모든 암 세포에 면역 체계가 찾아낼 수 있는 특별한 표식(flag)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br/> <br/>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과 영국암연구소 과학자들은 암 환자 수백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암 세포에 공통적으로 항원 형태의 특정 분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br/> <br/>건강한 사람의 몸에는 이런 항원과 싸우는 면역 세포가 이미 존재한다. 다만 암 세포를 막아낼 수 있을 만큼 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였다. <br/> <br/>그동안 전 세계 연구자들은 면역세포를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양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지점에 투입해야 할지 모호해 곤란을 겪었다. 면역세포가 강화돼 종양의 한 지점을 공략하더라도 다른 세포들이 암세포로 변이돼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br/> <br/>그러나 연구진이 암 세포의 특별한 표식을 찾아냄으로써 앞으로 의사들은 종양의 유전자 감식으로 항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수십억개의 면역세포를 암세포 항원에 투입하면 종양을 한층 쉽게 제거할 수 있다. <br/> <br/>이번 연구를 이끈 세르히오 퀘사다 UCL 암연구소 박사는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을 통해 이번 발견을 경찰의 범죄추적 기술에 비유했다. <br/> <br/>그는 “다양한 종양은 각기 다른 범죄에 연루된 폭력 조직과 같다”며 “다수의 범죄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 경찰이 어려움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면역 체계는 암을 파악하기 위해 고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연구는 여러 명의 주민을 상대로 범죄를 추적하는 대신 모든 범죄의 뿌리에 있는 핵심 인물에 도달하는 정보를 경찰에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br/> <br/>논문의 공동인 UCL 찰스 스원턴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로 모든 암 세포에 존재하는 항원을 식별해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을 정복할) 아킬레스건을 발견하게 된 셈</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br/>이지수 기자 va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17.txt

제목: 발기부전치료제, 전립선암 브래키세라피 후 배뇨장애에 효과  
날짜: 20160302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2142439180  
ID: 01100701.20160302142439180  
카테고리: 사회>장애인  
본문: 분당차병원 비뇨기과 박동수 교수 <br/>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김동익)은 비뇨기과 박동수 교수팀이 전립선암의 근접방사선치료법 브래키세라피(brachytherapy) 후 저용량 발기부전치료제(실데나필)를 복용할 경우 배뇨장애 증상이 호전됨을 입증했다고 2일 밝혔다. <br/>  <br/>이번 연구결과는 저명한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인 ‘세계비뇨기과학술지’(World Journal of Urology)’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br/> <br/>배뇨의 불편함은 브래키세라피 수술 후 초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전립선에 방사성동위원소 물질을 삽입해 전립선에 방사성이 집중되어 암 조직을 직접 사멸시키기 때문에 동위원소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소변보는 것이 불편해 진다. <br/> <br/>박동수 교수는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결하였다. 지난 2008년부터 2014년 까지 전립선암으로 브래키세라피를 시행한 환자 중 8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3개월간 저용량(25mg) 실데나필의 배뇨증상에 대한 효과를 비교한 결과, 저용량 실데나필을 복용한 환자들이 배뇨증상 경감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수 교수는 “<span class='quot0'>발기부전제의 기능 중 혈관근육의 긴장도를 이완시켜주는 기능이 골반혈관과 전립선에도 작용하여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전에 도움을 주는 것</span>” 이라고 해석했다. <br/> <br/>전립선암 브래키세라피는 전립선적출수술과 함께 국제적으로는 확고히 인정된 두 가지 치료법 중에 하나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전립선적출수술과 함께 국소전립선암의 근치 목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다. 전립선적출수술과 비교할 때에는 브래키세라피는 전립선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적출수술 후 발생하는 요실금이나 발기부전과 같은 부작용이 훨씬 적지만 초기 약 1년간 배뇨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18.txt

제목: [사이언스리뷰] 바이오산업의 주역 시스템생물학  
날짜: 201603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3095304930  
ID: 01100701.2016030309530493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바이오산업이 미래성장 동력원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점차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전통적인 산업군과 달리 바이오산업은 인구고령화에 반비례해 성장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편 전 세계적으로 이미 형성돼 있는 막대한 규모의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그동안 매우 미미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측되는 기대이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된 국가 연구개발(R&D)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정부에서도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육성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이러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br/> <br/>굳이 산업이 아니어도 생명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부쩍 늘어나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생명에 대한 이러한 호기심은 우주와 더불어 인간이 태고부터 간직한 원초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생명의 본질은 무엇일까. <br/> <br/> 조광현 KAIST 교수·바이오및뇌공학현대과학을 지배하고 있는 환원(還元)주의 정신의 기원은 1600년대 데카르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아무리 복잡한 현상이라도 그 원인을 찾아 분석을 거듭하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인에 도달하게 되며 이로부터 현상을 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환원주의는 현대과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생명현상에도 그대로 적용돼 생명체를 기계적인 부품으로 분해하고 각 부품을 이해함으로써 생명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br/> <br/>그러나 1930년대 루돌프 쇤하이머는 쥐실험을 통해 동위원소로 표지된 아미노산이 먹이로 흡수된 후 동위원소가 체내 모든 조직의 분자 구성요소로 사용된 뒤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했다. 이에 생명이 단순한 분자기계가 아니며, 부품의 다이나믹한 흐름 안에 존재한다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다. 또한 1940년대 콘라드 와딩턴은 생명체의 발달과정이 개별 유전자뿐 아니라 유전자의 상호 조절작용에 의해 지배된다는 개념을 제시했다. <br/> <br/>이와 같은 새로운 가설과 개념을 토대로 1970년대 스튜어트 카우프만으로부터 2000년대 수이 후앙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학자의 연구를 통해 생명현상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의 상태공간에서 평형점과 이로 향하는 수렴공간으로 설명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각 평형점이 다양한 생명현상의 표현형질에 대응된다는 실험적 증거가 제시됐다. 생명은 무생물체와 달리 그 구성요소를 끝까지 분해하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되는 그 무엇, 즉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성질인 것이다. <br/> <br/>환원주의 접근으로 그 본질에 도달할 수 없었던 생명현상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마이크 메사로비치는 1960년대에 시스템과학(제어공학)과 생물학을 융합한 ‘시스템생물학(systems biology)’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예견했다. 그의 예견대로 21세기를 맞이한 생명과학은 시스템생물학을 통해 생명의 본질을 향한 여행을 이어가고 있다. 시스템생물학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수많은 분자들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분자조절네트워크의 다이나믹스에 의해 탄생되는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궁극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생물학실험, 수학모델링, 컴퓨터시뮬레이션을 융합해 접근하는 새로운 융합과학이다. 즉 정보기술이 기존의 생명과학과 융합해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br/> <br/>시스템생물학을 통해 정보기술(IT)이 이끌어가는 생명과학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 암과 같은 복잡한 인체질환의 원인규명, 진단, 맞춤치료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줄기세포의 분화유도, 노화제어, 심지어 각종 기능성 화장품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바이오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의 생명과학은 생명 그 자체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전통적인 생물학뿐 아니라 현대 생명과학의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과학의 시계는 언제나 산업의 시계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br/> <br/>조광현 KAIST 교수·바이오및뇌공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19.txt

제목: 포스코청암상에 조윤제 교수 등 선정  
날짜: 20160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5205633825  
ID: 01100701.2016022520563382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포스코청암재단은 25일 올해 포스코청암상 수상자로 과학상에 조윤제(사진) 포스텍 교수, 교육상에 금오공업고등학교, 봉사상에 라파엘클리닉을 선정했다. 조 교수는 종양 억제 단백질과 단백질복합체의 구조를 규명하고, 분자생물학적 실험을 통해 손상된 DNA를 인식하고 정상 유전자로 치유해 나가는 메커니즘을 밝혀내 암 치료 연구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 금오공고는 1973년 설립 이후 기능인 양성에 이바지했고 라파엘클리닉은 이주노동자를 위해 무료 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20.txt

제목: 녹차 하루 한잔만 마셔도 조기사망률 10% 감소  
날짜: 20160223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3183422085  
ID: 01100701.20160223183422085  
카테고리: 국제  
본문:   <br/> <br/>하루 한잔의 녹차를 마시면 심장질환과 조기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데일리메일 매체는 일본에서 40세부터 69세 사이의 중장년 9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녹차를 많이 마실수록 심장병, 중풍 그리고 순환기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낮아진다고 23일 전했다. <br/> <br/>전염병학회( Annals of Epidemiology)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에 한 컵의 녹차를 마시면 조기사망률이 10%, 5잔 이상을 마시면 17%로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러한 결과는 남성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암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EGCG성분을 포함한 폴리페놀인 항산화제가 몸의 혈압과 지방을 조절하는 작용 때문이다. <br/> <br/>특히 녹차에 포함된 카테친 유도체 중의 EGCG(epigallocatechin-3-gallate) 화합물은 시험관에서 실험한 결과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또한 발암물질을 동물에게 주입하여 의도적으로 생성시킨 각종 종양의 발달이 카테친 유도체에 의해서 억제되는 동물 실험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21.txt

제목: [새로 나온 책] 한류 그 이후-한류의 저력과 향후 과제 외  
날짜: 20160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0031144204  
ID: 01100701.20160220031144204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한류 그 이후-한류의 저력과 향후 과제(이상훈,박정선,김경현,안신,신혜란,장수현,유보전,김신,신광철 지음·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1만8000원)=2000년대 초 본격적으로 불거져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한류’는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 여전히 케이팝(K-Pop)을 중심으로 한류 바람은 지구촌 곳곳으로 번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위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책은 지금의 한류 현상과 한류가 품은 문제점, 그리고 한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했다. 1부와 2부에서는 K-팝, 한국영화 등 한류를 이루는 대중문화 콘텐츠의 특징을 분석·해석하고, 일본과 중국에서의 한류 현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이어 3부에서는 한류라는 문화 교류의 맥락과 구조를 인문학적으로 성찰하면서, 한류가 ‘한국’이라는 특수성을 넘어선 보편주의, 전 인류의 문화공유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br/> <br/>천재들의 생각법(테레자 보이어라인,샤이 투발리 지음·배명자 옮김·새로운현재·1만5000원)=위대한 철학자와 과학자, 사상가들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고 이론을 정립했으며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들여다본다. 두 저자는 “보통사람도 사고가 최적의 효율로 발휘될 수 있다면 모두 창의적이고 놀라운 발견을 해낼 수 있다. 천재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어서다”고 적었다. 아인슈타인의 경우 자신에게 초인적 사고력 따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아이처럼 평범한 현상에 감탄할 줄 알았기에 상대성이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상력이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했던 그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어떤 사내를 보고 상대성이론을 문득 떠올렸다. 뉴턴도 떨어진 사과에서 영감을 얻어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br/> <br/>북막일기(박래겸 지음·조남권,박동욱 옮김·글항아리·1만6000원)=조선 후기 문신 박래겸이 1827년 7월 14일 병마평사(북평사)에 제수된 후 도성을 떠나 1828년 4월 2일 다시 돌아오기까지 254일간의 기록이다. 북평사는 각 도의 육군을 지휘하는 병마절도사를 도와 도내 순행, 군사훈련, 무기 제작·정비, 군사들의 군장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다. 박래겸은 북평사로 재직하는 254일 동안 모두 6070리를 다녔는데 이 기간에 일어난 모든 일을 날짜별로 세세하게 기록했다. 따라서 책은 단순한 개인의 기록을 넘어 조선의 역사를 알려주는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조남권 한서대 부설 동양고전연구소 초대 소장과 박동욱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옮겼다. <br/> <br/>건강검진의 거짓말:당신이 몰랐던 건강검진의 불편한 진실(마쓰모토 미쓰마사 지음·서승철 옮김·에디터·1만3000원)=콜레스테롤이 조금 많은 것뿐인데 기겁을 하거나 혈압이 조금 높을 뿐인데 호들갑을 떨고 열이 조금만 나도 해열제를 찾고, 식욕이 조금 떨어질라치면 내 몸 어딘가에 암이라도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불안에 휩싸이는 사례가 빈번하다. 건강검진을 통해 흔히 발견하는 고혈압증이나 고지혈증, 골다공증 등이 저자가 지목하는 대표적인 ‘건강검진병’이다. 일본 현직 의사가 건강검진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정면 비판하면서 건강검진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받는 건강검진이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키고 이 때문에 수명까지 줄어드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고발한다. 건강검진 항목 중 꼭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해 알려준다. 아울러 건강검진 각 항목에 나타난 수치의 의미와 각종 약의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저자는 건강검진 대신 ‘긍정적인 사고’를 건강의 비결로 꼽는다. <br/> <br/>성룡: 철들기도 전에 늙었노라(성룡,주묵 지음, 허유영 옮김, 쌤앤파커스, 2만2000원)=액션영화의 살아 있는 전설 성룡(62)이 만 60세를 기념해 낸 자서전이다. 2012∼2015년 3년 동안 성룡이 직접 구술하고, 영화홍보사 여직원 주묵이 정리해 완성한 책이다. 1년 365일 세계를 돌아다니는 성룡의 살인적인 일정에도 애정과 공을 들여 완성한 흔적이 역력한 책이다. 성룡은 여덟 살 때 처음 연기를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50여년 동안 오직 영화만을 위해 인생을 바친 인물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22.txt

제목: 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 '편강율' 화장품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프로모션 진행  
날짜: 20160218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8154933236  
ID: 01100701.20160218154933236  
카테고리: 경제>서비스\_쇼핑  
본문:   <br/> <br/> <br/>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가 편강과 공동개발한 화장품 '편강율(扁康率)'출시를 기념하여 2월 15일부터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br/> <br/>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통해 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 홈페이지 가입을 하거나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저자극성 화장품 ‘편강율’의 11종 샘플 키트를 증정받을 수 있다. 11종 샘플 키트는 편강율 버터크림, 클렌져, 로션, 에센스 토너, 오일, 밸런싱 젤, 뉴트리션 크림, 미스트 토너, 모이스쳐 세럼, 모이스쳐 앰플, 모이스쳐 크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br/> <br/>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의 화장품 '편강율'은 '화장품은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으러 가는 것'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건강한 피부 온도를 조절해 피부가 건강한 상태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제품 컨셉을 잡고 있다. 편강 율의 율(率)은 '비율 율'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율을 조절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br/> <br/>편강율 스킨케어 솔루션 기본라인은 에센스 토너, 밸런싱 젤, 뉴트리션 크림, 오일, 미스트 토너, 모이스쳐 세럼, 모이스쳐 크림, 모이스쳐 앰플로 구성되어 있다. 편강율 바디&헤어 솔루션 온가족 라인은  로션과 버터크림, 클렌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제품 모두 피부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광물성 오일이나 파라벤 등 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과감히 뺐다. 피부가 원래 가지고 있는 피부 자체 힘을 길러주어 피부 보호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br/> <br/>편강한방연구소 마케팅팀 관계자는 "피부에 자극이 적은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부에 저자극적이면서도 피부 밸런스를 조절해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게 되었다." 며 "출시 기념으로 진행되는 11종 샘플 키트 증정 이벤트는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빠른 소진이 예상된다."라 전한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23.txt

제목: 삼성화재 유병자보험, 간편 가입에 100세까지 보장  
날짜: 20160217  
기자: 신유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7165110125  
ID: 01100701.20160217165110125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br/> <br/>삼성화재는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과 유병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간편하게 건강하게'가 출시 초기 기대 이상의 인기를 보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br/> <br/>50~75세의 유병자를 타깃으로 계약자의 ‘알릴 의무사항’을 간소화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10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br/> <br/>이 상품은 ‘3·2·5’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다.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 검사(재검사) 의사소견 여부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수술 여부 △'5년' 이내 암 진단·입원 및 수술 여부 등이다. 당뇨나 고혈압으로 통원 치료를 받거나 정기적으로 약을 먹더라도 따로 고지할 필요가 없다. <br/> <br/>상해·질병 사망시 최고 3000만 원, 3대 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수술비(상해, 암), 입원일당(상해, 질병, 암)도 선택 가능하다. <br/> <br/>법률비용손해 담보는 의료 사고, 교통 사고 등 개인 소송 발생시 손해를 보장하며, 최근 고령 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운전자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운전자 비용 담보도 마련했다. <br/> <br/>유병자 및 고연령 계층에 꼭 필요한 부가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전문 의료진의 전화 상담 및 3차 병원 진료 예약을 대행해 주는 건강관리서비스와 함께 본인과 배우자 사망시 장례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br/> <br/>가입 연령 폭도 확대됐다. 기존 유병자 할증제도를 통해 최대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점을 보완,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10년 만기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단, 질병사망은 80세까지다. <br/> <br/>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 정병록 상무는 “<span class='quot0'>삼성화재는 업계 최초로 유병자 할증 제도를 도입해 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span>”며 “<span class='quot0'>다양한 고객 계층별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해, 보험사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24.txt

제목: [재테크 브리핑] ‘손안에 은행’ 서비스 전면 업그레이드 외  
날짜: 2016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6200039078  
ID: 01100701.20160216200039078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손안에 은행’ 서비스 전면 업그레이드 <br/> <br/>신한은행은 스마트뱅킹 서비스인 ‘신한S뱅크’를 전면 업그레이드해 ‘신한S뱅크 UP’(사진)을 출시했다. 신한S뱅크 UP에서는 ‘신한 마이카 대출’과 주택·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용대출 상환 연기도 가능하다. 아파트 매물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마이홈앤론’ 메뉴는 행정구역별로 제공했던 매물정보에 초등학교 학군별 정보를 추가했다. 또 계좌의 월말 잔액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고, 자동이체·이자납부 등 금융 관련 주요 일정을 달력 형식으로 표시해 관리해 주는 서비스도 더해졌다.  <br/> <br/>24시간 365일 글로벌송금 서비스 <br/> <br/>우리은행은 24시간 365일 송금할 수 있는 ‘위비 퀵 글로벌송금’(사진)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비 퀵 글로벌송금은 우리은행 해외점포로 외화를 보낼 때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고 현지에 바로 전달되는 서비스다. 하루에 미화 2000달러, 연간 5만달러까지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10개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네팔은 수취인 계좌가 없어도 송금번호 등 송금정보만 확인 후 현지 제휴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무계좌 방식’이 적용된다. 우리은행의 모바일 메신저 ‘위비톡’과 연계해 송금할 경우 전신료를 50% 깎아준다 <br/> <br/>7대 질병 갱신없이 100세까지 보장 <br/> <br/>한화생명은 2016년 첫 보장성 상품으로 ‘H플러스 변액통합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인 종신보험의 기본인 사망보장은 물론 ‘플러스7대질병보장특약Ⅱ’을 통해 7가지 주요 질병에 대해서도 보험료 갱신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보장 질병은 암(소액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말기간질환, LTC(장기간병상태)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7대 성인질환이다. 이 상품의 최저가입 보험료는 월 10만원이며, 가입 연령은 만 15∼70세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25.txt

제목: 녹십자, 바이오신약 메커니즘 국제학술지에 소개  
날짜: 20160216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6133507598  
ID: 01100701.2016021613350759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기존 항암 표적치료제보다 잠재적으로 우수한 효과가 있는 차세대 바이오 신약이 국제학술지에 소개됐다. <br/> <br/>녹십자(대표 허은철)는 목암생명공학연구소(소장 최승현)와 공동으로 개발중인 바이오 신약 'GC1118'의 작용기전에 대한 논문이 미국 암연구학회(AACR)가 발간하는 '분자 암 치료(Molecular Cancer Therapeutics)' 최신호에 하이라이트 논문으로 게재됐다고 16일 밝혔다. <br/> <br/>GC1118은 암세포의 성장과 관련된 특정요인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치료제이다.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물질인 EGFR(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과 결합해 성장 명령 신호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해서 암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 동시에, 면역세포를 불러들여 세포독성으로 암세포를 공격하기도 한다. <br/> <br/>논문에 따르면 전임상 동물 실험에서 GC1118은 차별적인 결합력과 작용기전으로 기존 EGFR 표적치료제들보다 다양한 종류의 EGFR의 성장인자에 대하여 더 광범위하고 우수한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 EGFR 항체에 반응성이 없거나 저항성을 보이는 환자에게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녹십자 관계자는 "GC1118이 상용화될 경우 기존 약물 대비 더 넓은 범위의 환자에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br/> <br/>이번 논문관련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삼성서울병원 난치암연구사업단 공동)' 및 '중개협동연구'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현재 GC1118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표준치료요법에 반응하지 않은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26.txt

제목: 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 저자극성화장품 '편강 율(扁康率)'출시  
날짜: 20160215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5160131186  
ID: 01100701.20160215160131186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편강 율` 스킨케어 솔루션 기본 라인과 클렌징폼 화장품 출시 <br/>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가 편강과 공동개발한 화장품 '편강 율(扁康率)'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br/> <br/>편강 율의 율(率)은 '비율 율'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율을 조절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피부의 적정온도는 31도로, 피부 수분을 지키고 피지분비의 조절에 도움이 되어 피부 밸런스를 맞추기에 적당한 온도이다. 피부가 건강한 상태의 온도인 것이다. <br/> <br/>편강 율 스킨케어 솔루션 기본 라인과 클렌징폼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여성을 타깃으로 한 제품이며, 에센스 토너, 밸런싱 젤, 뉴트리션 크림, 오일, 미스트 토너, 모이스쳐 세럼, 모이스쳐 크림, 모이스쳐 앰플로 구성되어 있다.  <br/> <br/>편강 율 바디&헤어 솔루션 온가족 라인은 온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며 로션과 버터 크림, 클렌저로 구성되어 있다. <br/> <br/>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편강 율 스킨케어 솔루션 기본 라인과 바디&헤어 솔루션 온가족 라인은 피부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광물성 오일, 파라벤 등 암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빼고 피부에 저자극적인 최소한의 원료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피부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피부 자체의 힘을 길러주어 외부 환경으로부터 스스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br/> <br/>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 마케팅팀 관계자는 "피부에 자극이 적은 성분을 선별해 만든 화장품을 출시하게 되어 피부에 덜 자극적인 화장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br/> <br/>편강 율 바디&헤어 솔루션 온가족 라인 일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이다. 제품 구입은 대표 상담전화및 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 홈페이지(www.pyunkangyul.com)를 통해 가능하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27.txt

제목: 대장암 예방을 위한 최선은 정기적인 내시경  
날짜: 20160215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5101548575  
ID: 01100701.2016021510154857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대장용종(폴립)이란 대장 점막의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주위의 점막 표면보다 돌출하여 혹처럼 형성된 것을 말한다. 용종은 대장 외에도 다른 소화 장기 및 점막이 있는 모든 기관에서 생길 수 있다. 대장에서도 흔하게 관찰된다. 대장용종은 어느 연령에서도 발생될 수 있지만, 40세 이후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대장용종은 조직의 소견에 따라 선종, 과형성 용종, 염증성 용종 등의 종류가 있다. 이중 선종이 대장암으로 발전한다.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윤진영 교수는 “<span class='quot0'>대장용종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span>” 며 “<span class='quot0'>다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체질, 유전, 식생활 습관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용종의 발생과 성장이 촉진되어 암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pan>” 고 말했다. <br/> <br/>◆장(腸) 비우고, 아스피린 등의 항응고제 중단해야 <br/>용종 진단을 위한 가장 정확한 검사는 대장내시경이다. 용종이 발견되면 바로 조직 검사 및 제거가 가능하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을 깨끗하게 비워야 하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음식을 조절하고, 장 정결제 복용법을 잘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br/> <br/>또한 시술 전 자신이 복용중인 약제에 대해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아스피린 등의 항응고제나 항혈소판 제제 등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약을 처방해주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시술 3~5일 전에 약제를 중단해야 한다.  <br/> <br/>◆용종 크기에 따라 치료법 달라 <br/>대장용종을 제거하는 방법은 크기에 따라 다르다. 5mm 미만의 작은 용종들은 작은 기구를 통해서 뜯어내거나 전기장치를 이용해 태워서 제거할 수 있다. 5mm 이상의 용종은 대장내시경 중 올가미처럼 생긴 철사를 넣어 잘라낸다.   <br/> <br/>제거된 용종들은 조직검사를 통해 용종의 구체적인 종류를 판정하고, 대장암으로 발전 가능성 위험도 및 이후 대장내시경 검사의 기간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위험도가 낮고 용종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면 3~5년 후 검사를 권한다. <br/> <br/>다만 용종의 완전 제거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여러 개의 용종이 있었던 경우,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는 보다 짧은 기간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제거된 용종의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면 추가적인 검사나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br/> <br/>윤진영 교수는 “<span class='quot0'>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50세가 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span>” 며 “<span class='quot0'>분변잠혈검사는 1~2년 간격, 대장내시경 검사는 3~5년 간격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span>” 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28.txt

제목: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서비스 자택에서 받을 수 있어 '의사 간호사 등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  
날짜: 20160215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5061058950  
ID: 01100701.20160215061058950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서비스 자택에서 받을 수 있어 '의사 간호사 등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 <br/>사진: 방송 캡처 <br/>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서비스 자택에서 받을 수 있어 '의사 간호사 등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 <br/> <br/>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서비스가 자택에서도 받을 수 있게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r/> <br/>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3월 2일부터 17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br/> <br/>가정 호스피스 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범사업은 말기 암환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br/> <br/>말기 암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해주는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br/> <br/>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전문 간호사, 호스피스전문기관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 종사 경력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는 집에서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 등을 받게 된다. <br/> <br/>복지부는 앞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하고서 제도를 보완해 내년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br/> <br/>한편 시범사업은 말기 암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내년 8월 시행되면 본 사업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환자도 서비스를 받게 된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29.txt

제목: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내달부터 최초 시행...'가정에서 의료 서비스 받게 돼'  
날짜: 20160214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4235141293  
ID: 01100701.20160214235141293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SBS 뉴스 캡쳐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내달부터 최초 시행...이제 가정에서 서비스 받는다.   내달부터 말기 암환자가 자택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2일부터 17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내달부터 말기 암환자가 가정 호스피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말기 암환자를 위한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는 최초로 시행되며 오는 2일부터 실시한다.   3월부터는 말기 암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가 시작된다.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전문 간호사, 호스피스전문기관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 종사 경력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복지사의 경우 1급 사회복지사가 배정된다. 말기 암환자는 집에서 호스피스를 통해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 등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1년간 시범사업을 한 후 제도를 보완해 내년 사업을 분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30.txt

제목: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서비스 도입, 3월 시작…어떻게?  
날짜: 20160214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4173906978  
ID: 01100701.20160214173906978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말기 암환자가 자택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시범사업이 내달 시작된다. <br/>사진=ytn <br/>말기 암환자가 자택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시범사업이 내달 시작된다. <br/> <br/>14일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내달 2일부터 17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고 말했다.  <br/> <br/>말기 암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해주는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br/> <br/>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전문 간호사, 호스피스전문기관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 종사 경력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성이 높은 1급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서비스를 실시한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31.txt

제목: 안국약품, 선진기술 진단제품 개발 가시화  
날짜: 20160212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2094639235  
ID: 01100701.2016021209463923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안국약품(대표 어진)이 BT-IT 융합기술을 이용한 진단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br/> <br/>안국약품은 3종의 바이오마커와 질병진단결정시스템으로 구성된 난소암 진단 키트인 OvaCheck Dx를 이용하여 5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자용 임상시험을 마쳤으며, 지난해 12월 식약처 허가용 임상시험 승인 신청을 완료했다. <br/> <br/>이번 허가용 임상은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진행될 예정으로 안국약품에서 개발한 OvaCheck Dx는 조기 난소암의 진단 정확도를 20% 이상 상승시켜 난소암 환자의 5년 생존율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br/> <br/>또한 안국약품은 자회사인 안국바이오진단과 함께 개발한 철결핍 정밀진단용 다중바이오마커 측정 키트인 FerriCheck의 식약처 품목허가를 2015년 4월에 승인받은 바 있다. 이는 강원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br/> <br/>3종의 바이오마커로 구성된 FerriCheck은 국내 최초의 다중바이오마커(단백질) 허가 제품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빈혈(ACD, anemia of chronic disease)과 철 결핍 빈혈(IDA, iron deficiency anemia)을 정밀 진단하는 제품이다. 본 제품은 현재 신의료기술 평가를 진행 중이며, 암환자 빈혈 진단으로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자용 임상을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br/> <br/>안국약품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마커 조합 발굴 시스템, 다중바이오마커 측정 시스템, 질병진단지원 시스템은 암 종별 바이오마커 그룹을 발굴하여 다양한 암 진단키트 개발로 확대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자 BT-IT 융합된 차대세 바이오기술이다. 안국약품은 이 기술을 활용하여 난소암에 이어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종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br/> <br/>생명공학연구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규모는 2013년 약 50조원(427.7억 달러)에서 연평균 7.3%로 성장하여 2017년에는 약 74조원(636.3억 달러)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안국약품의 다중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질병 진단 기술은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32.txt

제목: 충전 중 폭발한 아이폰…화재로 사망한 말기암 환자  
날짜: 20160206  
기자: 이재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6112311030  
ID: 01100701.20160206112311030  
카테고리: IT\_과학>모바일  
본문: 밖으로 외출을 하지 못하고 휴대전화에만 의지해 살아가던 말기암 환자가 아이폰 과열·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br/> <br/>영국 레딩 검시관 라비 시두에 따르면, 채텀 플레이스에 거주하는 마레크 크루거(53)가 지난해 8월 9일 그의 아이폰을 침대 밑에 놓고 잠을 자다가 폰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병 때문에 오른쪽 반신을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그는 불이 나자 피하지 못했고, 연기흡입으로 인한 질식과 전신 64% 화상으로 결국 숨을 거뒀다. <br/> <br/>폴란드 출신으로 뇌종양을 앓고 있었던 크루거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때 간병인을 부르기 위해 머리맡에 폰을 놓고 있었는데 그의 가족들은 그가 아이폰을 마치 생명줄인 것처럼 여겼다고 전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베게밑에 깔려서 오랫동안 충전되는 과정에서 배터리 부분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했다. <br/> <br/>과학수사관은 “<span class='quot0'>절연장치 때문에 충전과정에서 발생한 열이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지만 기기 자체에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span>”고 말했다. <br/> <br/>검시관인 시두는 “<span class='quot1'>크루거가 운신이 불편해 화재가 발생한 뒤에도 미처 피하지 못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span>”며 “<span class='quot1'>휴대전화가 특정한 환경에서 충전되면서 과열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33.txt

제목: 키 큰 사람이 작은 사람보다 암에 잘 걸린다?  
날짜: 2016020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4165435362  
ID: 01100701.2016020416543536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장신인 사람들인 경우 심장질환과 당뇨병의 확률은 적으나 암에 걸릴 확률은 상대적으로 더 높다 <br/>사람의 키는 타고난 유전자(DNA)로 결정되는데 키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질환과 제2형 당뇨병에 걸린 확률은 낮은 반면에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것으로 밝혀졌다.  <br/> <br/>지난 3일 데일리메일 매체는 독일 인체영양학회(German Institute of Human Nutrition) 슐츠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키가 1센티 증가하면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6% 줄어드는데 비해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4% 증가한다고 전했다.  <br/>  <br/>이에 슐츠 교수 외 2명의 교수들은 신장이 증가하는데 필요한 영양공급이 성장단계에서 동물성단백질의 과다한 섭취를 유발하기 때문에 암발생으로 인해 사망률이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br/> <br/>공동연구자인 독일 튀빙겐 대학 로버트 스테판 교수는 “<span class='quot0'>키가 큰 사람일수록 인슐린에 민감하고 간에 지방성분을 덜 갖고 있기 때문에 심혈관질환과 제2형 당뇨병에 걸린 확률이 낮다</span>”고 말했다. <br/> <br/>연구결과에 따르면 키가 큰 사람의 경우 지질대사질환에 대한 상대적인 단백질을 더 갖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논문 저자인 슐츠 교수와 스테판 교수는 “<span class='quot0'>인슐린과 같은 성장인자와 하나 또는 둘 체내 신호경로의 활발한 작용이 인체세포의 성장을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자극시키기 때문에 유방과 대장내 암과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흑색종의 발병률을 증가시킨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에 상대적으로 심혈관질환과 제2형 당뇨병의 발병은 낮춰주는 순기능 효과를 일으킨다</span>” 고 언급했다.  <br/>  <br/>과학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인체 성장과 신장 인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했고, 논문 저자들은 “<span class='quot1'>특히 의사들이 환자를 진단할 때 키와 연관해 심혈관질환과 당뇨병 및 암발생을 고려해야 한다</span>”고 결론을 맺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34.txt

제목: 유방암 재발 미리 가려내는 진단지표 개발  
날짜: 2016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3210307190  
ID: 01100701.2016020321030719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유방암 환자들 가운데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해도 잘 안 듣는 환자를 미리 가려낼 방법이 개발됐다. <br/> <br/>한국원자력의학원 노우철(사진) 병원장, 김현아 과장, 김재성 박사 연구팀은 15년간 유방암 환자 1693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분자진단 지표’를 개발했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3일 밝혔다. 연구팀은 추적조사에서 유방암 표지 단백질인 ‘HER-2’가 있는 특정 유방암 환자군의 재발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암세포의 성장·증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암 표적단백질 ‘STAT-3’와 조절인자인 ‘서비빈(survivin)’이 활성화될수록 유방암 세포가 방사선치료 후에도 재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br/> <br/>연구팀은 STAT-3과 조절인자인 서비빈을 억제할 경우 방사선치료 효과를 증진할 수 있다는 것도 입증해 분자 수준에서 치료효과를 진단할 수 있는 분자진단 지표를 개발했다. 현재 유방암 수술 환자에게는 통상 방사선치료와 호르몬요법을 병행하는데, 일부는 방사선치료 후 암이 재발해 생존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암생물학 학술지 ‘온코타깃’ 1월호에 게재됐다. 아울러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토대로 지난해 국내특허 출원을 마쳤다. <br/> <br/>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35.txt

제목: [연구] 암을 자가 진단 할 수 있는 10가지 증상  
날짜: 20160202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2114804898  
ID: 01100701.20160202114804898  
카테고리: 문화  
본문: 암으로 사망하는 한국인이 점차 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전체 사망자의 28.3%(10만명 당 149명)가 암 때문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인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암에 걸릴 확률은 36.6%다. 한국인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기대수명(81.9세)까지 살면서 한 번쯤 암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br/> <br/>대부분의 암은 초기 발견시 사망률이 크게 낮아진다. 하지만 바쁜 일상과 각박한 세상살이 때문에 매년 종합검진을 받을 만한 여유가 없다.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의료진은 암 초기 단계에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 있는 암 진단법 10가지를 정리했다. <br/> <br/>1. 쉬거나 갈라지는 목소리 <br/>감기에 걸렸을 때 목소리가 쉬거나 갈라지는 것은 다반사다. 하지만 이같은 목 상태가 2∼3주 지속된다면 암을 의심해봐야 한다. 암세포가 머리와 목 등 발성기관에 퍼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암으로 진단이 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별 탈 없이 쉽게 종양을 없앨 수 있다. 심한 기침이 3주 이상 계속될 때는 폐암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X레이를 찍어보는 게 좋다. <br/> <br/>2. 밤새 심하게 땀을 흘린다 <br/>밤에 베개와 이불을 흠뻑 적실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림프종을 의심해야 한다. 영국 버멍엄 스파이어파크웨이병원의 샹카라 파니샤 박사는 “<span class='quot0'>림프종을 앓는 사람은 림프구 세포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난다</span>”고 말했다.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목 옆쪽 등에 2㎝ 이상의 멍울이 잡힐 때도 림프종을 의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br/> <br/>3. 만성적인 속쓰림 <br/>일반적인 사람도 기름지거나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난 뒤에는 속쓰림이 심해진다. 그러나 갤포스 등 위장약을 먹었는데도 속쓰림 증상이 2∼3주 넘게 지속된다면 위암이나 식도암의 신호일 수 있다. 초기 단계의 췌장암이나 난소암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br/> <br/>4. 등 윗부분서 통증이 <br/>영국인 가운데 250만명은 등에 통증을 느낀다. 약 99%는 뼈 등 골격근육계와 관련 있다. 하지만 등의 통증은 췌장암과도 어느 정도 상관이 있다. 피파 코리 캠브리지의과대학 교수는 “<span class='quot1'>췌장은 복부 뒤쪽(일반 통증 부위보다 한뼘 위)에 위치해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췌장에서 시작한 암세포가 신경세포에까지 퍼져 등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 <br/>5. 폐경인데도 혈흔이? <br/>갱년기에 접어든데도 혈흔이 묻어난다면 자궁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 <br/> <br/>6. 소변이 자주 마렵다 <br/>남성이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비대해져 자주 소변이 마렵다. 소변을 보지 않고는 3시간도 참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전립선암을 의심해봐야 한다. 병원에 가면 간단한 테스트와 조직검사를 벌이는 데 대개의 경우 일반적 용종으로 밝혀진다.  <br/> <br/>7. 음식 삼키기가 힘겹다 <br/>음식을 씹거나 삼킬 때 통증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1번 증상과 마찬가지로 후두암이나 뇌종양 등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같은 암은 폭음하거나 담배를 많이 핀 사람이 흔히 겪는 것처럼 입안 뒤쪽에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후두암, 구강암, 설암은 오럴섹스 등 인간유두종바이러스(HPV)에 의해서도 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br/> <br/>8. 대변에 피가 묻었다 <br/>대변에 묻어있는 피의 색깔과 조직, 주기, 고통 여부에 따라 원인은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2주 이상 지속될 때는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서 정밀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 장암일 수 있고 흔치는 않지만 난소암, 췌장암에 따른 것일 수 있어서다. <br/> <br/>9. 갑자기 피부발진이 <br/>갑자기 발진이나 뾰로지가 생겨 피가 나거나 가려움을 느낀다면 피부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2∼4주 동안 피부과 치료를 받는데도 가라앉지 않는다면 궤양을 의심해야 한다. 궤양에 따른 피부 트러블의 대표적 특징은 통증이 없다는 것이다.  <br/> <br/>10. 갑자기 입에 염증이 <br/>입과 혀에 궤양이 생긴 사람은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것이다. 바이러스성 궤양은 대개 며칠만에 없어진다. 하지만 구강염이 별 통증 없이 3∼4주 계속된다면 설암이나 구강암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이때 혓바닥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데 흰 부위가 유독 두껍거나 짙으면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게 좋다. <br/>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36.txt

제목: 고려대의료원 산학협력단-메디컬오, 공동연구개발 협약식  
날짜: 20160202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2113539686  
ID: 01100701.2016020211353968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고려대의료원 산학협력단(단장 윤영욱)은 최근 의과대학 본관 문숙의학관 1층 원형강의실에서 메디컬오와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비만 및 당뇨 개선용 제품 개발'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br/> <br/>협약식은 고려대학교 윤영욱 연구교학처장과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김현수 교수, 메디컬오 장동훈 대표를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r/> <br/>김현수 교수는 그동안 표적 단백질인 AMPK에 대한 세포기반 생화학적 신호전달 네트워크 분석 기전 연구를 통해 당뇨 및 암에 대한 분자적 수준의 이해의 폭을 넓혀왔다. <br/> <br/>또한 기초연구 성과에서 도출한 임상 적용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2015년에 당뇨, 비만 및 암에 대한 치료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원천 물질을 발굴하여 6건의 특허를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br/> <br/>이러한 배경으로 메디컬오에서는 자사가 발굴한 천연물질 속의 효능 성분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기전 분석을 의뢰 했으며 추후 연구실의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br/> <br/>김현수 교수는 "고려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된 수직계열화한 기전 분석 연구전략이 천연물 소재의 대사 관련 질환의 치료효과 검증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br/>메디컬오 장동훈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비만 및 당뇨질환 개선에 양 기관이 보유한 핵심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br/> <br/>한편 이번 협약을 중개한 아이피온의 김지용 변리사는 "양 기관의 협력으로 생물학적, 의학적 효능규명은 물론 공동연구 및 제품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37.txt

제목: "암에 특효, 정력에도?좋다"며?중금속?범벅?어간유?판?父子  
날짜: 20160202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2110032285  
ID: 01100701.20160202110032285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중금속이 함유된 명태기름을 암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암환자들에게 판매한 부자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br/> <br/>부산 기장경찰서는 2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76)씨와 A씨의 아들 B씨(44)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r/> <br/>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입산 명태의 간을 유압기에 넣고 기름을 짜는 방법으로 일명 ‘어간유’를 제조해 암환자 15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경찰이 시중에 유통된 어간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해보니 독성물질인 비소가 기준치(0.1㎎/㎏ 이하)보다 19배 많았고, 기름의 신선도를 판정하는 산가 기준(0.6㎎ KOH/g 이하)을 31배 초과해 식품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어간유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고 암환자 등에게 어간유 2ℓ짜리 1병당 40만∼50만원을 받는 등 총 7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이들은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어간유'를 매일 150∼200㏄ 복용하면 말기 암치료 등에 탁월하고, 얼굴이 맑아지면서 간이 좋아질 뿐 아니라 남성은 정력에 좋고 여성은 자궁에 좋다고 소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br/> <br/>이들은 과거 어간유를 먹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A씨가 최근에도 어간유를 파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38.txt

제목: '암에 특효, 정력에 그만'이라며 중금속 명태기름, 1병에 50만원씩 팔아  
날짜: 20160202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2094922627  
ID: 01100701.20160202094922627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함유된 명태기름을 "암에 특효, 정력에 그만이다"며 속여 1병당 50만원 가까이 팔아치운 부자가 붙잡혔다. <br/> <br/>2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76)씨와 A씨의 아들 B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br/> <br/>A씨부자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입산 명태의 간을 유압기에 넣고 기름을 짜는 방법으로 일명 '어간유'를 제조,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해 어간유 2ℓ 1병당 40만∼50만원을 받고 팔아 7500만원을 번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경찰이 시중에 유통된 어간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해보니 독성물질인 비소가 기준치(0.1㎎/㎏ 이하)보다 19배 많았고, 기름의 신선도를 판정하는 산가 기준(0.6㎎ KOH/g 이하)을 31배 초과해 식품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이들은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어간유'를 매일 150∼200㏄ 복용하면 말기 암치료 등에 탁월하고, 얼굴이 맑아지면서 간이 좋아질 뿐 아니라 남성은 정력에 좋고 여성은 자궁에 좋다고 소개했다. <br/> <br/>앞서 A씨는 2012년 암환자에게 특효약이라며 속이고 어간유를 판매했다가 이를 복용한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바람에 미신고 식품제조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br/> <br/>자신의 이름으로 영업하기 힘들자 이번에는 아들 B씨를 내세웠다. <br/> <br/>이들의 행위는 과거 어간유를 먹고 피해를 본 사람이 아직도 어간유를 파는 것을 확인,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39.txt

제목: 서울대병원 MGH, 서울서 뇌종양 연구 박차  
날짜: 20160201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1101026916  
ID: 01100701.2016020110102691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왼쪽부터 백선하 서울대병원 뇌종양센터장, Batchelor MGH 뇌종양센터장, 김태유 서울대암병원장 <br/>‘뇌종양 정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온 서울대병원,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MGH,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연구진이 서울에서 만났다고 2일 밝혔다. <br/> <br/>양 기관은 서울대병원에서 연구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 뇌종양 질환의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디딤돌을 마련했다. <br/> <br/>뇌종양은 두개골 내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말한다. 크게 뇌를 구성하는 세포에서 발생한 원발성 뇌종양과 신체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암이 뇌로 전이된 전이성 뇌종양으로 구분한다. <br/> <br/>두 기관은 2013년부터 매년 2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열어 뇌종양 질환의 치료 증례, 연구 결과 등을 나눠왔다. 특히 2014년 4번째 회의부터는 연구 협력을 강화했으며, 작년 공동 연구팀이 전이성뇌종양 유전자 변이의 특징을 세계 최초로 밝히는 첫 ‘성과’를 거뒀다. 양 기관은 이러한 협력의 연장선에서 26~28일 서울대병원에서 연구미팅과 특강을 가졌다. <br/> <br/>이 기간 중 MGH 뇌종양센터장인 Batchelor 교수는 서울대병원 뇌종양센터 연구진, Charles Lee 교수(잭슨랩유전체연구 소장)와 함께 신경교육종(악성뇌종양)의 유전적 변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눴다. <br/> <br/>특히 Batchelor 교수와 서울대병원 뇌종양센터 연구진은 난치성뇌종양 기초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연구 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Batchelor 교수는 연구미팅 외에도 ‘혈관 생성억제제를 이용한 악성뇌종양의 치료’와 ‘뇌종양의 표적치료’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br/> <br/>MGH는 유에스 뉴스앤드월드리포트지의 미국 병원평가(2015~2016년)에서 메이오클리닉, 존스홉킨스병원 등을 제치고 1위에 오른 병원이다. 교육이나 자문을 받으려면 시간당 몇 천 달러씩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세계 각국의 의료진이 한 번쯤은 수련 받고 싶어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br/> <br/>이런 MGH와 대등한 관계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서울대병원의 뇌종양 치료와 연구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의미한다. 백선하 서울대병원 뇌종양센터장(신경외과)은 “<span class='quot0'>이번 만남을 통해 MGH와의 연구 협력이 더욱 가속화됐다</span>” 며 “<span class='quot0'>3월 29일 7번째 화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더욱 구체화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40.txt

제목: 이화의료원, 2016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수상  
날짜: 20160129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9102117334  
ID: 01100701.20160129102117334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김승철 원장 <br/>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김승철)이 지난 1월 28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에서 개최된 ‘2016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종합병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br/> <br/>포브스코리아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16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들로부터 최고의 사랑과 가치를 인정받은 기업 브랜드를 평가해 온라인 투표와 브랜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br/> <br/>주최측에 따르면 여성암 치료 대표 병원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여성암 분야를 선도적으로 특화 육성해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되는 각종 암과 중증질환 치료에 관한 의료기관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에 그 이름을 올리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인정 받았다. <br/> <br/>실제로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2009년 이대여성암병원 개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특성화와 차별화, 중증질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 왔으며 최근 보건복지부의 유방암·대장암·위암?급성심근경색증, 폐암, 뇌졸중 등 중증 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매년 잇달아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br/> <br/>김승철 이화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수상은 소비자로부터 직접 3년 연속 믿을 수 있는 병원으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환자들로부터 신뢰받는 병원이 되기 위해 환자 안전 및 진료 서비스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41.txt

제목: 건망증 방치하면 치매 위험성 ↑, 뇌세포 활성화 돕는 ‘천연 엽산’이 해답 ?  
날짜: 20160128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8152904245  
ID: 01100701.2016012815290424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기억나질 않거나, 분명 중요한 일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릴 때 우리는 스스로 건망증을 의심한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br/> <br/>기억장애의 하나인 건망증은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리는 정도가 심한 병적인 상태를 말한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이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우 증상이 악화돼 치매에 이를 수 있다. <br/> <br/>전문가들은 건망증 증세를 완화하는데 ‘엽산’이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엽산이 부족하면 뇌 신경세포의 핵산 생성에 이상이 발생하고, 신경 세포의 작용이 쇠퇴해 건망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이처럼 엽산이 뇌세포 활성화를 도와 건망증에 탁월한 영양제임이 알려지면서 국내 업체는 물론 나우푸드, GNC, 암웨이 등 해외 유명기업의 엽산보충제를 구매하거나 아마존, 아이허브, 비타트라와 같은 해외직구사이트나 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해 구입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보건소에서도 무료로 제공하는 엽산제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br/> <br/>건강을 위해 수고와 비용을 들여 구입하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해서 제대로 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먼저 엽산보충제가 ‘천연엽산’인지 ‘합성엽산’인지를 확인하자. 합성엽산의 경우,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다. <br/> <br/>노르웨이 헤우케란(Haukeland) 대학병원 마타 에빙 박사는 연구를 통해 합성엽산 보충제 섭취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다. 연구팀은 참여자 6800여 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만 합성엽산 보충제를 복용케 한 뒤 실험 전 후를 비교했다. <br/> <br/>그 결과, 합성엽산 보충제군은 대조군보다 암 발생 가능성이 21%나 높았다. 그 중에서도 폐암 수치는 25%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br/> <br/>따라서 엽산영양제를 통해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하려면 100% 천연원료로 만들어진 천연 엽산제를 구매해야 한다. 제품 라벨의 ‘원재료명 및 함량’을 통해 천연과 합성을 구분할 수 있다. ‘락토바실러스(엽산 1%)’처럼 천연원료명과 영양성분이 함께 표기됐다면 천연, ‘엽산’처럼 영양성분만 있다면 합성엽산제다. <br/> <br/>엽산 분말을 알약 형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HPMC) 등 화학부형제 첨가 유무 역시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성분들은 구토, 흉통, 고지혈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br/> <br/>마지막으로 엽산의 형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엽산의 형태는 ‘Folate’와 'Folic acid'로 나뉘는데, 많은 사람들이 'Folate‘를 천연, ’Folic acid'를 합성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Folate'와 ‘Folic acid'의 차이점은 체내 흡수율이다. Folate는 체내 흡수율이 50% 정도이며, Folic acid는 90%에 이른다. 즉, Folate보다 Folic acid 엽산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나은 셈이다. <br/> <br/>현재 판매되고 있는 엽산 보충제 중 100% 천연원료를 사용하면서 화학부형제까지 전혀 넣지 않은 제품으로는 뉴트리코어 비타민 엽산제 등 일부 제품에 불과하다. <br/> <br/>건망증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증세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때문에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서둘러 엽산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화학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천연 원료 100%인지, 체내 흡수율이 높은 ‘Folic acid' 제품인지를 꼼꼼히 따져 엽산제를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42.txt

제목: 한국산 K-2C 소총 이라크서 암거래  
날짜: 20160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7192422636  
ID: 01100701.2016012719242263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의 한 트위터 계정 ‘그린 레몬’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K-2C 소총(사진)이 이라크 암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br/> <br/>K-2C 소총은 한국 방산업체가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 제작해 이라크에 수출한 군수품이다. 수출용으로 개발돼 일부 특수부대 외에는 아직 우리 군에 보급되지 않은 최신형 무기다. <br/> <br/>그린 레몬은 이날 “이라크 암시장에서 K-2C 소총이 거래되고 있는 증거 사진”이라며 K-2C 소총과 함께 비닐 포장을 뜯지 않은 탄창과 소총 손잡이가 상자 안에 들어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br/> <br/>이현미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43.txt

제목: 남성에 대해 알지 못했던 21가지 비밀  
날짜: 20160123  
기자: 박윤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3122018382  
ID: 01100701.20160123122018382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남성. 그 남성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21가지의 사실을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디피아와 각종 해외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br/>  <br/>1. 연구결과에 따르면 바람피우는 남자가 지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br/> <br/> 뉴시스 <br/> <br/>2. 남자가 평생동안 여자를 쳐다보는 시간을 합치면 1년이 넘습니다. <br/> <br/> factslides.com <br/> <br/>3. 살해당한 여성의 절반은 현재 또는 과거 남편이나 애인이 범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r/> <br/> pixabay <br/> <br/>4. 남자는 하루에 6번 거짓말을 합니다. 여성의 2배에 달합니다. <br/> <br/> pixabay <br/> <br/>5. 2013년 미국에서만 166만 명의 암 환자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남성의 절반은 암에 걸릴 확률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br/> pixabay <br/> <br/>6. 남자는 평생 면도에만 6개월을 씁니다. <br/> <br/> pixabay <br/> <br/>7. 삭발한 남자는 삭발하지 않은 남자에 비해 키가 약 2.5cm 커 보이며 평균 13%정도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br/> <br/> 뉴시스 <br/> <br/>8. 연구결과에 의하면 예쁜 아내와 결혼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결혼 만족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br/> <br/> pixabay <br/> <br/>9. 99세 할아버지가 96세 할머니와 77년간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이혼했습니다.  그 이유는 할머니가 70년 전인 1940년대에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br/> <br/> pixabay <br/> <br/>10. 최초로 남성간 키스하는 장면이 나온 영화는 1927년에 상영된 무성영화 ‘Wings’ 입니다. <br/> <br/>  pixabay <br/> <br/>11. 흡연은 발기부전을 유발합니다. <br/> <br/> pixabay <br/> <br/>12. 남성은 여성에 비해 평균 신장이 12~13cm정도 더 큽니다. <br/> <br/> pixabay <br/> <br/>13. 매력남으로 인정받는 이탈리아의 30~35세 사이 남성 중 35% 이상이 부모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br/> <br/> pixabay <br/> <br/>14. 2020년이 되면 중국에서 신부감을 찾지 못하는 노총각의 숫자가 3000만~4000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br/> <br/> pixabay <br/> <br/>15. 남성은 아내나 여자 친구와 걸을 때 평소보다 평균 7% 느리게 걷는다고 합니다. 반면  남성과 동행할 경우 보행속도는 빨라집니다. <br/> <br/> pixabay <br/> <br/>16. 미국에서는 매년 450명의 남성이 유방암으로 사망합니다. <br/> <br/> pixabay <br/> <br/>17.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성이 여성보다는 먼저 사랑 고백을 합니다. <br/> <br/> pixabay <br/> <br/>18. 발렌타인데이에 남편이 아내에게 쓰는 돈은 평균 136달러이지만, 남자가 여자 친구에게 쓰는 돈은 154달러입니다. <br/> <br/> pixabay <br/> <br/>19. 남성은 여성에 비해 벼락에 맞을 확률이 약 5배 더 높습니다. <br/> <br/> pixabay <br/> <br/>20. 남성이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보다 35%정도 더 높습니다. <br/> <br/>21. 남성이 흘리는 땀의 양은 여성의 2배에 달합니다.  <br/> <br/> pixabay <br/> <br/>소셜미디어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44.txt

제목: "어릴 적 올림푸스 카메라 팬… 입사로 이어져"  
날짜: 20160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1202003079  
ID: 01100701.20160121202003079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예쁘면서 고성능인 카메라로 유명한 올림푸스와 ‘암’은 언뜻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올림푸스 첫 제품이 광학현미경(1919년)이며, 위암으로 죽어가는 환자를 안타까워하는 도쿄대 의사 요청에 올림푸스가 내놓은 제품이 첫 상용 위 카메라(1950년)라는 걸 알게 되면 달라진다. 전체 매출의 80%를 의료분야에서 올리고 있고, 세계 내시경 시장의 70%가 올림푸스 제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내시경 혜택을 입었음은 두말할 필요 없다. <br/> <br/> 올림푸스한국 오카다 나오키 사장이 지난 20일 서울 삼성동 올림푸스타워 회의실에서 최신 내시경을 통한 암 진단·치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br/>이제원 기자4년간의 중국 법인 근무를 마치고 지난해 5월 올림푸스한국 대표이사로 부임한 오카다 나오키 사장이 직원 의견을 모아 만든 새 비전에서 “<span class='quot0'>올림푸스의 가장 큰 장점은 최고의 광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의료기술</span>”이란 점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0일 서울 삼성동 올림푸스 타워에서 만난 오카다 사장은 “<span class='quot1'>초기 필름 촬영형에서 실시간 모니터형으로 내시경이 진화하면서 ‘발견한 암을 떼고 싶다’는 의료진의 추가 요구로 내시경과 결합해 암 조직을 떼낼 수 있는 ‘처치구’가 개발됐다</span>”며 “<span class='quot1'>올림푸스는 광학업체이긴 하나 암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치료하는 제품을 만드는 데 기여해 왔다</span>”고 말했다. <br/> <br/>1984년 입사 때부터 줄곧 내시경을 다뤄온 오카다 사장은 “<span class='quot1'>입사 당시만 해도 내시경은 보는 기능이 전부였고 그조차 시술의사 1인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3D 입체화면을 보며 여러 의료진의 협진도 가능해졌다</span>”며 특히 고령화시대에 올림푸스와 내시경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br/> <br/>일반 내시경은 동네 의원도 구비한 실정이지만 고령층 등 노약자를 위한 보다 섬세한 진단·처치가 가능한 3D복강경 등은 더 많이 보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span class='quot1'>한국과 일본, 중국 모두 암 다발국인데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입이나 항문을 통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해야 하는 복강내시경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올림푸스는 이를 위해 현재 송도에 363억원을 들여 의료 트레이닝 센터를 건립 중이다. 복강 내시경을 다룰 의료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복강경 수술에선 의사의 기술 숙련도가 더 중요합니다. 기존 개복수술 영역이 복강경 수술로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의료진 훈련을 지원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br/> <br/>조만간 선보일 차세대 제품은 올림푸스와 소니의 합작으로 만들어지는 복강경이다. 오카다 사장은 “<span class='quot1'>내시경을 만드는 오랜 올림푸스의 경험과 화상 재생분야에서 뛰어난 소니의 장점을 결합하기 위해 2013년 ‘SOMED’를 합작 설립했는데 두 기술을 통합한 제품이 곧 나올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내시경만 편애할 듯하나 오카다 대표에게도 올림푸스 카메라는 각별하다. 그는 “<span class='quot1'>부친이 초등학교 때 사주신 올림푸스 PEN 카메라 팬이 된 것이 올림푸스 입사로 이어졌다</span>”고 말했다. 스마트폰 시대에 카메라 수요 감소는 모든 업체가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이다. 오카다 대표도 “(카메라사업부에서) 엄청 고생한다. 힘들긴 하다”고 말했다. <br/> <br/>하지만 그는 “<span class='quot1'>올림푸스는 항상 디자인이나 성능이 ‘유니크’한 제품을 만들어왔고 그런 DNA가 지금 디지털시대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카메라를 통해 쌓아온 광학 노하우는 잃을 수 없는 만큼 팬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을 계속 만들어낼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45.txt

제목: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신영복 교수가 투병한 악성 흑색종?  
날짜: 20160121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1152757162  
ID: 01100701.2016012115275716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 유명한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15일 오후 10시 타계했다. 75세. 그의 사인은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 흑색종 이었다. 열흘 전부터 병세가 악화되면서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2014년 중반 암을 발견한 고인은 그 해 가을 성공회대에서 마지막 강의를 준비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출간된 『담론』이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됐다. 생의 막판까지 ‘공부’를 놓지 않았다. <br/> <br/>피부암 중 가장 위험하다는 ‘악성 흑색종’ 환자가 지난 4년간 3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특히 피부암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악성흑색종 환자는 2009년 2819명에서 2013년 3761명으로 33.4%나 늘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3명이 악성흑색종에, 12명은 기저세포암 등 다른 피부암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br/> <br/>악성 흑색종은 피부나 점막에 있는 멜라닌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피부암 중 가장 악성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악성 흑색종의 20~50%는 검은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검은 점이 갑자기 새로 생긴다든지 검은 점의 모양이나 크기, 색깔이 변하거나 따가움, 통증이 생기면 의심해 봐야 한다. 백인에서는 드물지 않고 비교적 흔한 피부암이나 동양, 아시아인에서는 과거 매우 드문 피부암이었다. <br/> <br/>서양에는 최근 흑색종의 발생빈도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국립암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에서보다 발생률은 낮지만 점차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생빈도가 높아져서 19세 이하에서는 매우 드물지만 20대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40대 이상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br/> <br/>흑색종의 발생 원인은 유전요인과 자외선 노출과 같은 환경요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흰 피부와 푸른 눈, 금발이나 붉은 털을 가진 사람이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 특히 흑색종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외선 노출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수의 점이 있는 경우 흑색종의 빈도가 증가하고, 26%정도에서 색소성 모반에서 흑색종이 발생된다고 보고되었다. 논란이 있지만 한 연구에서 거대선천멜라닌세포모반(태어날 때부터 있는 10cm 이상의 큰 모반)의 2.3%에서 흑색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br/> <br/>강동경희대학교병원 피부과 유박린 교수는 “<span class='quot0'>흑색종은 자각 증상이 없으며 평범한 점이나 결절로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며,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검은 점이 새로 생긴다든지 이미 있던 색소 모반의 크기가 갑자기 0.6cm 이상으로 커진다거나, 모양이 불규칙하고 비대칭적으로 변하거나, 위의 임상사진처럼 색조가 균일하지 않을 때 악성화를 의심하여야 한다. <br/> <br/>피부에 처음 발생하는 흑색종을 모양, 발생양상, 분포 등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4가지 임상조직학적 아형으로 나뉜다. <br/> <br/>◆ 말단흑색점흑색종 <br/>손발, 특히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많이 발생하는 아형으로, 동양인의 흑색종 중 가장 흔한 유형이며, 비교적 고령(평균 65세)에 발생한다. <br/> <br/>◆ 결절흑색종 <br/>처음부터 결절 상태로 발견되어 급속히 성장하는 유형이다. 신체 어느 부위나 발생할 수 있으나 특히 몸통과 두경부에 잘 생기며, 다양한 모양으로 생긴다. <br/> <br/>◆ 표재확산흑색종 <br/>서양에서 가장 흔한 유형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증가하여 드물지 않게 보인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50대 초반에 호발하고, 남성에게는 등 윗부분에 잘 생기며, 여성은 정강에 잘 생긴다. <br/> <br/>◆ 악성흑색점흑색종 <br/>이미 존재하던 악성 흑색점에서 발생한 흑색종을 말하며 한국인에게는 드물다. 60-70대의 노인의 얼굴에 잘 생기고 불규칙한 경계를 보이는 갈색반으로 시작하여 수년에 걸쳐 서서히 주변으로 퍼져서 커다랗고 다양한 색조를 띠는 색소반을 이룬다. <br/> <br/>수술적으로 완전히 절제하는 것이 치료의 근본이다. 전이가 많은 암이므로 진단시에는 전신의 전이 검사를 위해 다양한 방사선학적 검사, 핵의학적 검사가 필요하다.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에도 항암화학요법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중위험도 이상 환자에게는 인터페론치료가 권장되고 있다. 의심되는 병변이 있을 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표재확산흑색종에서는 자외선 노출과 흑색종 발생의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과도하게 햇빛에 노출하는 것은 피하고, 자외선차단제를 적정용량 바르도록 한다. <br/> <br/>강동경희대학교병원 피부과 유박린 교수는 “<span class='quot0'>악성 흑색종은 대개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고, 발견되더라도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림프관이나 혈관을 따라 뼈, 폐, 간 등 어떤 기관들로도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46.txt

제목: 녹십자랩셀, NK세포치료제 임상결과 국제학술지 발표  
날짜: 20160121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1152647462  
ID: 01100701.2016012115264746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세포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녹십자랩셀은 항암 자연살해세포(NK) 치료제인 'MG4101'의 1상 임상시험 결과 논문이 미국 암연구협회(AACR)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Cancer Immunology Research'에 발표됐다고 21일 밝혔다. <br/> <br/>'MG4101'은 보건복지부 지정 '선도형세포치료연구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종양 치료를 목적으로 정상인의 말초혈액에서 자연살해세포를 분리, 증식 배양한 면역세포치료제다. 특히, 'MG4101'은 암환자 자신이나 부모, 자식 등 혈연이 있는 공여자에게서 자연살해세포를 채취해 치료제를 만드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강한 타인의 자연살해세포를 배양한 것이 특징이다. <br/> <br/>이번에 발표된 논문은 2010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김태민 교수팀이 기존의 항암제 표준치료에 실패한 악성림프종 및 고형암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MG4101'의 용량을 늘려가며 1회 또는 3회 정맥 주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임상시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br/> <br/>임상시험 결과, 환자에게 'MG4101'의 자연살해세포를 최대 18억 개까지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으며, 기존의 항암치료 대비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암작용에 유리한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어 47%의 환자에게서 질병의 진행이 지연되는 반응이 확인됐다. <br/> <br/>이번 논문 발표는 非혈연 공여자의 면역세포를 이용한 항암 자연살해세포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안전성을 증명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환자 본인의 자연살해세포보다 건강한 공여자의 자연살해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MG4101'은 더 강력한 항암면역반응을 보였으며, 투여 후 환자의 면역체계를 분석한 결과 타인의 면역세포로 인해 환자 몸 안에서 항암작용에 유리하게 면역시스템이 유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r/> <br/>황유경 녹십자랩셀 연구소장은 "MG4101은 다른 사람의 면역세포를 대량으로 증식 배양한 후 동결 보존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편의성과 경제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품질검사가 완료된 세포를 상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논문발표를 통해 건강한 다수의 공여자로부터 NK세포를 선별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항암효과가 우수한 NK세포를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투여 가능하게 된 점이 매우 의미있다"고 전했다. <br/> <br/>한편 'MG4101'은 2014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부터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2상 임상시험에 진입해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47.txt

제목: 우리 아이 키 성장엔 비타민D가 필수, ‘합성’ 아닌 ‘천연’으로 복용해야  
날짜: 20160119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0110754211  
ID: 01100701.20160120110754211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br/> <br/> <br/>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제히 방학을 맞으면서 ‘키 크기 교실’, ‘성장클리닉’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학기 중 학업에 매진하느라 여유가 없던 학생들에게 겨울방학은 키를 키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기 때문이다. <br/> <br/>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식습관과 운동, 수면 등 생활습관 개선에서부터 성장호르몬 주사, 키 크는 약까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키 크기에 매진하고 있다. <br/> <br/>여기에 최근 “비타민D가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골격형성에 필요한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 성장에 크게 도움을 준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알려지면서 비타민D 영양제를 구입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br/> <br/>이미 비타민D는 국내 업체 칼슘 제품뿐만 아니라 암웨이, GNC, 센트룸, 나우푸드, 커큘랜드(KIRKLAND) 등 해외유명업체의 추천 상품을 아이허브, 아마존, 비타트라, 몰테일 등 해외직구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br/> <br/>하지만 단순 광고 글이나 판매순위, 추천순위만으로 비타민D를 구매하기보다 그것이 합성인지 천연인지를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시중에 유통 중인 비타민D 제품의 대다수가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합성 비타민D’라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br/> <br/>합성비타민의 석유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 콜타르, 유전자 변형 GMO 옥수수, 박테리아 등을 주원료로 천연비타민과 분자구조만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비타민은 호르몬, 산소함량, 파이토케미컬, 효소 등 여러 가지 천연보조인자가 섞여 있는 천연비타민과 절대 똑같을 수 없다. <br/> <br/>독일의 저널리스트 한스 울리히 그림은 자신의 저서<비타민 쇼크>에서 “(비타민 함량이 높은 합성 비타민제를 통한) 과도한 비타민 D 섭취는 태아의 기형이나 정신지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br/> <br/>비타민D 전문가인 웨스톤프라이스 박사(Dr. Weston Price) 또한 “합성비타민D를 복용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하여 신장결석이 많이 나타났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br/> <br/>따라서 안전하게 비타민D의 효능을 누리려면 100% 천연 원료 비타민을 선택해야 한다. 합성비타민의 경우 ‘비타민D’처럼 영양성분만 단독으로 표기되지만, 천연비타민의 경우엔 ‘건조효모(비타민 D 0.02%)’처럼 천연원료명과 영양성분이 함께 표기된다. <br/> <br/>이와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화학부형제의 사용 여부다. 대표적인 화학부형제인 이산화규소(실리카),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HPMC) 등은 규폐증,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 발생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br/> <br/>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중 천연원료만을 사용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많지만, 화학부형제까지 일절 사용하지 않은 100% 천연원료 비타민D 제품은 뉴트리코어 비타민을 비롯한 일부 업체에 불과하다. <br/> <br/>성장기 아이들의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D를 올바르게 복용하기 위해서는 판매량이 높은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고르기보다 ‘無 부형제 공법’을 사용한 ‘100% 천연원료비타민’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48.txt

제목: 당신의 손이 말하는 12가지 건강 신호  
날짜: 20160119  
기자: 이재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0110737905  
ID: 01100701.2016012011073790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손 줘 볼래요? 손 봐 드릴게요”  <br/>남녀간의 만남에서 이뤄지는 이야기만은 아니다. 사실 우리의 손과 손톱은 아주 많은 건강 정보를 담고 있다. 이들의 모양과 색깔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다.   <br/> <br/> 호흡기내과 상담의사인 리차드 러셀은 “<span class='quot0'>환자를 처음 만날 때마다 꼭 악수를 하면서 환자의 손을 살핀다</span>”며 “환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의미도 있지만 환자의 손과 손톱을 보고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br/>다음은 손과 손톱으로 알아낼 수 있는 12가지 건강정보이다. <br/>  <br/>1. ‘푸른 손가락 끝’ <br/>체내 순환이 잘 되지 않거나 레이노드 증후군에 걸린 경우에 손가락 끝이 푸르게 변한다. 신체의 끝부분 속에 있는 혈관이 외부온도에 민감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손·발가락이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거나 흰색으로 변하면 무감각해지다가 통증을 유발하기 시작한다. 러셀은 “<span class='quot0'>폐질환이 발생하는 전조증상으로 손가락 끝이 푸르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span>”고 설명했다. <br/>2. ‘울퉁불퉁한 손톱’ <br/>손톱에 여러개의 줄무늬가 생기거나 울퉁불퉁해졌다면 이는 암이나 큰 질병을 최근에 앓았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몸의 건강상태가 몹시 나빠지면 손톱이 성장을 멈추기 때문에 나타난다. <br/> <br/>3. ‘하얀 손톱밑바닥’ <br/>건강한 사람은 대개 주먹을 꽉 쥐었다 펴면 손톱 밑바닥이 하얗게 변했다가 금방 붉은색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만약 손을 폈는데도 손톱 밑바닥 색깔이 붉은색으로 늦게 돌아오거나 항상 하얗다면 체내에 적혈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로 인한 증상일 수도 있다. <br/> <br/>4. ‘손떨림(수전증)’ <br/>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심하게 긴장한 경우, 천식약이나 항우울제 등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손떨림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떨림이 계속되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br/>가족 간에 유전되는 신경질환으로 알려진 ‘수전증’일 수도 있다.  손떨림은 파킨슨병이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다. <br/> <br/>5. ‘검은 얼룩’ <br/>손톱 밑바닥에 거무죽죽한 얼룩이 생겼다면 의사를 바로 찾아가야 한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치명적인 세포암인 흑생종일 가능성이 있다. <br/> <br/>6. ‘발지(撥指)’ <br/>러셀은 “손발가락끝이 곤봉 모양으로 둥글게 부풀어서 손톱이 둥그스레해 그 위에 타고 있는 느낌이 들면 이는 체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낭포성 섬유증 등 만성 폐질환의 전조증상일 수 있다“며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발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바로 의사를 만나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br/> <br/>7. ‘홍반, 얼룩덜룩한 손바닥’ <br/>손바닥이 붉은색과 하얀색으로 얼룩덜룩하면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간경병이나 비(非)알코올성 지방간이 의심되므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br/> <br/>8. ‘소시지 처럼 부은 손가락’ <br/>상대적으로 치명적이지는 않은 증상으로 식사에 염분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된 경우 손가락이 부을수 있고, 생리전 증후군이나 가벼운 탈수증상도 손가락이 붓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손가락이 붓거나 딱딱하게 굳는 증상은 류머티스 등 다른 심각한 건강문제를 나타낼 수도 있다. <br/> <br/>9. ‘다한증’ <br/>손에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은 과다하게 활성화된 갑상선때문일 수 있는데, 활성화된 갑상선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보다 많은 체열을 발생시킨다. 다한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의사를 만나 상담하는 것이 좋다. <br/> <br/>10. ‘굽은 손가락’ <br/>손바닥에서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힘줄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고 안으로 굽는 ‘듀피트렌 구축증’일 수 있다. 대개 약지와 소지가 함꼐 안으로 굽는 경우가 많은데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당뇨병, 손에 외상을 입은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곧게 펴는 수술이 필요하다. <br/> <br/>11. ‘변색손톱’ <br/>손톱이 노란색이나 녹색으로 변한 뒤 증상이 계속되면 당뇨병 초기 신호일 수 있다. 이는 당뇨병 환자는 면역 체계가 약하고, 체내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br/> <br/>12. ‘손가락 관절비만’ <br/>주먹을 쥘 때 손가락 관절이 딱딱하고 노랗게 돌출되는 현상은 ‘황색종’의 증상일 수 있는데 체내 콜레스테롤이 피부에 천착하면서 생겨는 현상이다. 황색종은 생명에 위협적인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신호일 수 있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는 선천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태어나는데 적절한 약물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린 나이에 심장질환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br/> <br/>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49.txt

제목: 알란 릭맨 사망, ‘향년 69세’ 생 마감…해리포터 제작진 “위대한 배우” 심경 전해  
날짜: 20160115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5214004284  
ID: 01100701.20160115214004284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알란 릭맨 사망, ‘향년 69세’ 생 마감…해리포터 제작진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위대한 배우</span></span></span></span>” 심경 전해 사진=해리포터 포스터알란 릭맨 사망, ‘향년 69세’ 생 마감…해리포터 제작진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위대한 배우</span></span></span></span>” 심경 전해 <br/> <br/>영화 ‘해리 포터’ 에서 스네이프 교수로 열연했던 배우 알란 릭맨이 암 투병 끝에 사망한 소식이 전해졌다. <br/> <br/>이에 영화 '해리 포터'의 제작진들이 비통한 심정과 함께 해리 포터 역인 다니엘 래드클리프는 그의 구글 플러스 페이지에 "알란 릭맨은 내가 함께 일했던 가장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위대한 배우</span></span></span></span> 중에 한 명"이라며 뜻을 전했다. <br/> <br/>또한 다니엘 래드클리프는 "사람들은 배우들이 연기했던 역할을 근거로 인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알란이 엄격하고 무뚝뚝한 사람일거라 생각하겠지만. 그는 한없이 친절하고 겸손하며. 또한 재미있는 사람이었다"고 알란 릭맨의 생전 성격에 대해 밝혔다. <br/> <br/>또한, 헤르미온느 역을 맡았던 엠마 왓슨은 트위터에 "알란 릭맨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다. 그가 정말 그리울 것이다." 라는 애도했다. <br/> <br/>한편, '해리 포터'의 원작자인 J.K. 롤링도 트위터에 추모의 글을 남겼다. J.K 롤링은 "그 어떤 말로도 충격과 절망감을 표현할 수 없다"며 "알란 릭맨은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위대한 배우</span></span></span></span>이자 훌륭한 사람이었다"며 애도를 덧붙였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50.txt

제목: [전상일의건강解] 미 캡슐커피 유해 논란 남의 일 아니다  
날짜: 20160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4195528252  
ID: 01100701.2016011419552825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미국에서 캡슐커피 논쟁이 일고 있다. 환경과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튜브 동영상 공유사이트에는 캡슐 폐기물의 환경피해를 풍자하거나 고발하는 수많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 주된 메시지는 커피캡슐이 지구를 죽이기 전에 인간이 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커피캡슐로 만들어진 괴물이 인간에게 커피캡슐을 총알처럼 쏴 대고 인간은 이에 맞아 쓰러진다. 또한 네티즌은 커피캡슐을 더 이상 쓰지 말 것을 호소하는 동영상 바이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br/> <br/>미국에는 세 집 중 하나가 캡슐커피 기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2014년 미국에서 점유율 1위 회사의 쓰고 버린 커피캡슐을 이으면 지구 10.5바퀴를 돌고도 남는다고 한다. 한 회사의 폐기물량이 이 정도이니 전 세계에서 매년 버려지는 양은 가늠하기 힘들다. 캡슐 용기의 주요 성분은 7번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은 재질에 따라 7개로 나뉘는데, 7번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더구나 커피캡슐은 플라스틱 외에 종이, 알루미늄 포일 등이 결합돼 있다. 간편해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사용 후 커피캡슐을 일일이 분해하여 재활용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br/> <br/> 전상일 한국환경건강연구소 소장·둘다북스 대표회사 측은 커피캡슐 용기에 비스페놀 A(BPA)가 들어 있지 않다고 항변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생수병을 만드는 플라스틱에 BPA 성분이 들어 있지 않지만 생수병을 햇볕에 장기간 놔두면 생수에서 BPA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 BPA 성분이 없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BPA가 용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캡슐에 담겨 있는 커피는 고온·고압의 물로 순간적으로 추출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플라스틱 성분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양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매일 여러 잔의 커피를 마시는 습관적 소비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극소량이라도 매일 노출되면 몸에 플라스틱 성분이 지속적으로 남아 다양한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 국민의 81%는 소변에서 BPA 계열의 다양한 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호르몬의 하나인 BPA는 불임, 암 발생, 당뇨병, 성조숙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이다. <br/> <br/>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캡슐커피 기계를 구입할 당시 받은 캡슐 모양의 재활용 컵에 커피 가루를 넣어 내려 마시면 재활용과 건강피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br/> <br/>논란의 정점은 커피캡슐을 만든 개발자가 자신의 업적(?)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캡슐커피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고백했다. 또한 회사를 사직하고 최근 새로운 회사를 차렸다. 태양열 패널을 만드는 회사이다. 자신의 개발품이 환경에 끼친 부담에 속죄하는 마음에서 차렸다고 한다. <br/> <br/>우리나라에서도 캡슐커피가 커다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관계당국은 캡슐커피에서 유해성분이 나오는지 조사하고 재활용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커피를 마실 때 지구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소비방식을 선택했으면 한다. 커피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 판매하지만 커피나무는 땅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br/> <br/>전상일 한국환경건강연구소 소장·둘다북스 대표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51.txt

제목: 바이오스타,'양막 상피줄기세포 분리 및 배양 기술' 유럽 특허 등록결정  
날짜: 2016011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4114315728  
ID: 01100701.2016011411431572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네이처셀과 알바이오가 공동 운영하는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은 ‘인간 양막 상피세포 유래 성체 줄기세포의 분리 및 배양 방법’(유럽 출원번호: 08704712.2)의 유럽 특허 등록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br/> <br/>이번 특허는 태반 양막에서 추출하기 어려운 상피줄기세포를 쉽게 분리?배양하는 기술로 기존 제대혈, 골수 등의 치료용 줄기세포보다 채취가 용이하고 증식률을 현격히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 됨으로써 향후 치료 적용 시 효능을 획기적으로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br/>양막 상피줄기세포는 태아를 보호하는 양막의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세포로 출산시 태반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윤리적이며 암을 유발시키지 않고, 만능줄기세포의 기능을 갖고 있어 난치병 해결에 각광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은 ‘정맥투여용 줄기세포 조성물’(국내 출원번호: 10-2013-0055158호)의 국내 특허 등록결정도 최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br/> <br/>이번 특허는 정맥 내로 투여되기 전 줄기세포가 파쇄되거나 응집되지 않고 투여에 적합하도록 10 ~20 ㎛직경의 정맥투여용 줄기세포 조성물로 개발, 줄기세포가 표적 부위에 안정적으로 도달하여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br/> <br/>이에 따라 줄기세포의 혈관 내 투여에 의한 세포치료 효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어서 파킨슨 질환과 같은 직접 투여가 어려운 부위에 정맥 투여를 함으로써 증상을 호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허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에 세계 4개국에 출원 중에 있다. <br/> <br/>줄기세포 기술연구원 원장 라정찬 박사는 “국내 특허 등록결정으로 줄기세포를 정맥 내 투여하기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양하는 기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네이처셀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생의료사업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52.txt

제목: 우유와 치즈를 끊으면 생기는 5가지 변화  
날짜: 20160113  
기자: 나진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3165624990  
ID: 01100701.2016011316562499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우유, 치즈, 버터 등의 유제품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식품이지만, 건강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다. 최근 채식에 높은 관심 속에 유제품의 역기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해외 매체 메트로 영국판은 12일(현지 시간) 유제품을 끊었을 때 생기는 5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소개했다. <br/> <br/>1. 소화가 잘된다 <br/> <br/>미국 보건부 산하 국립 의학도서관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의 65%는 우유를 잘 소화하지 못한다. 한국인도 마찬가지다.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몸에 부족해 발생하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이 많아 ‘소화가 잘되는 우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우유만 먹지 않아도 더부룩함, 트림, 설사 등의 증상을 겪지 않을 수 있다. <br/> <br/>2. 피부가 깨끗해진다 <br/> <br/>유제품은 뾰루지 등의 원인이기도 하다. 연구에 따르면, 우유는 여드름 발생을 촉진시키고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br/> <br/> <br/> <br/>3. 암 발생률을 줄인다 <br/> <br/>연구 결과 일주일에 3잔 이상의 우유를 마시면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유제품과 칼슘이 전립선암 발병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하루에 유제품에서 600mg 이상의 칼슘을 섭취하는 남성은 전립암에 걸릴 위험이 34%나 크다. <br/> <br/>4. 당뇨병 위험을 줄인다 <br/> <br/>영국 당뇨병 협회는 유제품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요거트를 많이 먹으면 제2형 당뇨가 발병할 수 있다. <br/> <br/>5. 뼈가 약해지지 않는다 <br/> <br/>우리는 그동안 ‘우유를 많이 먹어야 뼈가 튼튼해진다’는 말을 상식처럼 받아들였다. 그러나 성인이 됐을 때의 우유 섭취량과 뼈의 강도는 그다지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7만8000명의 여성을 조사해보니 충분히 칼슘 섭취를 해도 엉덩이 및 무릎뼈 골절을 막아주지는 못했다. <br/> <br/> <br/>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53.txt

제목: 녹십자랩셀 NK세포치료제, 세계최초 상용화 박차  
날짜: 20160113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3111317772  
ID: 01100701.2016011311131777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환자가 아닌 건강한 타인의 면역세포를 이용한 항암 치료법이 수년 내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될 전망이다. <br/> <br/>녹십자의 제대혈 및 세포치료제 부문 가족사인 녹십자랩셀은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항암 동종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 치료제인 'MG4101'의 임상 2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고 13일 밝혔다. <br/> <br/>비혈연 타인 유래 자연살해세포치료제가 임상 2상 단계에 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승인에 따라 녹십자랩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내 6개 기관에서 간동맥화학색전술을 받은 간세포암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br/> <br/>'MG4101'은 종양 치료를 목적으로 정상인의 말초혈액에서 자연살해세포를 분리 및 증식 배양한 세포치료제다. 기존 항암 면역 세포치료제가 면역력이 떨어진 암 환자 자신이나 부모, 자식 등 혈연 공여자의 자연살해세포로 암을 치료했던 것과는 달리, 'MG4101'은 타인의 건강한 자연살해세포를 배양한 것이 특징이다. <br/> <br/>자연살해세포는 우리 몸에서 암 세포나 비정상 세포를 파괴해 암을 막아주는 면역세포를 뜻한다. 정상인의 경우 하루 400억 개의 세포가 새로 생성된다. 이 가운데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변이세포는 약 400개. 통상 체내에 존재하는 자연살해세포가 변이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지만 이를 뛰어넘을 정도로 빠르게 변이세포가 늘어나게 되면 암이 발생하게 된다. <br/>  <br/>자연살해세포치료제가 등장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체외에서 자연살해세포를 증식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제품화를 위해서는 암세포살해능력과 세포생존율을 일정하게 관리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br/> <br/>황유경 녹십자랩셀 상무는 "MG4101은 건강한 사람의 면역세포를 사용하여 상시 공급이 가능함은 물론 면역 부작용 없이 치료효과를 높이는 신개념의 면역 세포치료제"라며 "상용화를 위해 대량 배양 및 동결기술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인 상태"라고 말했다. <br/> <br/>한편 'MG4101'은 지난 2014년 식약처로부터 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식약처 허가 심사자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협의제로부터 개발에 필요한 지원과 자문을 받았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54.txt

제목: 효모 이용해 항암제 전달 기술 개발  
날짜: 20160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2203057721  
ID: 01100701.2016011220305772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효모 유전자를 조작해 항암제가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하도록 하는 약물전달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br/> <br/>카이스트(KAIST) 생명과학과 전상용 교수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생명과학부 전영수 교수 공동연구팀은 식품 발효에 사용되는 효모를 이용한 암치료용 표적형 약물전단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br/> <br/>연구결과는 ‘미국립과학원회보(PNAS, 2015년 12월 28일)'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최근 들어 합성 나노물질을 이용한 표적항암 치료법이 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고분자나 무기나노입자를 사용, 생체적 합성이 낮고 몸속에 남아 독성을 유발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br/> <br/>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빵과 맥주 발효 등에 사용되는 효모의 유전자를 변형, 효모 안에 소포체(세포 내 물질 전달기능을 하는 기관)인 액포(아미노산 저장고이자 해독 장소)가 생성되도록 했다. 이어 액포 표면에 유방암과 결합하는 항체형 펩타이드로 된 표적 리간드(암세포 표면에 과다 발현된 특정 표식을 선택적으로 인식해 결합하는 물질)를 도입하고 액포 안에는 항암제 독소루비신(D0x)을 넣어 지름 100㎚의 암 치료용 약물전단시스템을 구축했다. <br/> <br/>이 약물전달시스템은 실제 유방암 동물실험에서 항암제를 암 조직에 전달하는 효능이 기존의 독소루비신 표준 암 치료 그룹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교수는 “<span class='quot0'>액포가 인간의 세포막 지질 성분과 비슷해 암세포와의 막 융합이 수월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항암제를 암세포 안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생체 적합성도 높아 안전한 약물전달시스템이 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55.txt

제목: 은백린 제 17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 취임식 개최  
날짜: 20160112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2160015579  
ID: 01100701.2016011216001557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제 17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 은백린 박사 취임식이 12일 오전 10시 의생명연구센터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br/> <br/>이날 취임식은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 김효명 의무부총장, 차몽기 의대교우회장, 박영선 국회의원, 이성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내외귀빈과 교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r/> <br/> 은백린 고려대 구로병원장 <br/>은백린 원장은 취임사에서 "대학병원의 사명인 최고 수준의 환자 안전과 환자 중심 진료 프로세스를 통한 진료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를 위한 인재교육과 첨단 연구에 대한 지원을 균형 있게 실천하고자 한다"며 교육, 진료,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br/> <br/>이에 은 병원장은 "후학양성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고려대학교의 개교 이념인 '교육구국'의 기치아래 학생, 전공의, 교직원 모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br/> <br/>그는 특히 "미래 의료의 핵심 키워드는 '연구'"라며 "백신, 의료기기, 암치료제, 재생의학의 4대 중점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크고 연구 역량이 뛰어난 분야를 추가 육성하기 위해 연구 인프라 조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r/> <br/>더불어 "고려대학교가 지난해 발족한 KU-MAGIC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G-Valley 컨소시엄과 같이 산학연병이 함께 뭉쳐 국가 의료산업을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r/> <br/>또한 "교직원 모두가 가족과 같이 서로를 배려하고 본인의 자리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한다면 개인이 성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연스레 구로병원 전체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이를 위해 각 진료과와 행정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효율적인 진료 환경과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r/> <br/>마지막으로 "구로병원이 박애정신으로 이 지역에 뿌리내린 만큼, 사회적 책임과 소명의식을 지켜가며 최고의 인재 양성과 교육, 최상의 진료, 세계 수준의 연구를 통해 인류의 건강을 지켜가는 '믿음 주는 환자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임기간동안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br/> <br/> <br/>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은 격려사에서 "구로병원이 이미 보유한 연구역량을 십분 발휘한다면, 지난해 고려대학교가 발족한 KU-MAGIC One 프로젝트가 KU-MAGIC Two, Three로 이어져 구로병원이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br/> <br/>김효명 의무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은백린 구로병원장은 1993년 교수로 부임한 이래 학자이자 의사로서 지금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진료와 연구부문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왔다"며 "신임 병원장님과 교직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단결하고 더욱 내실 있는 경영을 바탕으로 진료와 연구, 그리고 교육 전반에 걸쳐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도약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r/> <br/>차몽기 의대 교우회장은 "고대 구로병원은 연구 및 진료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의료원의 위상을 드높여 왔다"며 "소통과 화합의 가치관을 겸비한 은백린 병원장의 리더십이 지금과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빛을 발하여 구로병원의 밝은 미래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br/> <br/>은백린 원장은 1959년 생으로 1984년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1995년 미국 미시건대학 병원과 2009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소아병원에서 교환교수를 지냈으며, 고려대 소아과학교실 주임교수, 구로병원 연구부원장, 임상시험센터장, 임상시험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기획실장, 소아청소년과장, 병원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br/> <br/>현재 대한소아과학회 부이사장, 대한뇌전증학회 부회장, 대한소아신경학회 부회장, 질병관리본부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전문분과 위원 등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임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56.txt

제목: 데이빗 보위 사망, 이승환 SNS 글 보니... '안타까워'  
날짜: 20160112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2110701636  
ID: 01100701.20160112110701636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데이빗 보위 사망, 이승환 SNS 글 보니... '안타까워' <br/>사진: 이승환 SNS <br/>데이빗 보위 사망, 이승환 SNS 글 보니... '안타까워' <br/> <br/>데이빗 보위 사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승환의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br/> <br/>이승환은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나 앞서 가던 분이셨고 그래서 언제나 좇아가고 싶었던 분이었다"며 "모든 예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셨던 위대하신 분. '제프 벡' 형님 다음으로 제가 공연을 유치하고 싶어 했었던 분이었는데…"라고 심경을 전했다. <br/> <br/>이어 이승환은 "이제 편히 쉬십시오. 명복을 빕니다"라고 전했다. <br/> <br/>한편 데이빗 보위 측은 10일(현지시각) 공식 페이스북에 "보위는 18개월 간의 용감한 암 투병 끝에 이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숨졌다"고 밝혔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57.txt

제목: 지스트 전영수 교수팀, 효모 이용 함암제 표적 원천 기술 개발  
날짜: 20160112  
기자: 한현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2105641906  
ID: 01100701.2016011210564190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GIST(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전영수 교수와 KAIST 생명과학과 전상용 교수의 공동 연구팀이 효모 기반의 바이오 소재를 이용해 항암제를 표적 암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 <br/> <br/>12일 GIST에 따르면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12월 28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br/> <br/>이번 기술은 효모(yeast)에 존재하는 천연 소포체(vesicle)인 액포(vacuole)를 항암제를 전달하는 약물전달체로 이용했다. 동물 실험에서 높은 생체 적합성과 항암 효능을 보여 기존 치료법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약물전달시스템은 기존의 합성의약품 기반 항암 치료에 비해 독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현재 미국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전달시스템은 리포좀(liposome) 제제와 알부민 나노입자(Abraxane)가 있다. <br/> <br/>이러한 나노입자 기반 약물전달시스템은 특정 암을 표적해 치료하는 기술은 아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특정 암을 표적해 부작용을 낮추고 치료 효능은 개선시키는 표적형 약물전달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br/> <br/>그러나 대부분의 표적형 약물전달시스템은 고분자, 무기 나노입자 같은 인공소재 기반이다. 인공소재들은 생체 적합성이 낮고 몸속에 장기간 남아 잠재적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br/> <br/>연구팀은 문제 해결을 위해 빵, 맥주의 발효에 사용되는 효모를 이용했다. 효모 안의 소포체인 액포를 항암제 전달 소재로 사용했다. <br/> <br/>연구팀은 기존 효모를 유전자변형 시켰다. 유방암에 결합 가능한 표적 리간드(ligand)가 도입된 표적형 효모액포로 제조한 것이다. <br/> <br/>여기에 항암제로 사용되는 독소루비신(Doxorubicin)을 표적형 효모액포에 선적해 약 100나노미터 직경을 갖는 암 치료용 표적형 약물전달시스템을 구축했다. <br/> <br/>이 액포의 구성성분은 인간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지질 성분들과 비슷해 암 세포와의 막융합이 수월하게 이뤄진다. 따라서 항암제를 암 세포 안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생체 적합성이 높아 안전한 약물전달시스템이 될 수 있다. <br/> <br/>유방암 동물실험에서 표적형 효모액포 약물전달시스템은 기존 독소루비신 치료 그룹에 비해 약 3배 이상의 항암제를 암 조직에 전달해 우수한 치료 효능을 보였다. <br/> <br/>이 기술을 통해 다른 생물체 기반의 나노 소포체를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 개발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GIST 전영수 교수는 “<span class='quot0'>이 기술을 통해 생물체 유래 천연 나노 소포체가 약물전달시스템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전임상 연구 및 임상 적용 가능성을 평가해 궁극적인 암 치료 방안 중 하나가 되기를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이번 연구는 GIST 실버헬스바이오연구센터의 실버헬스바이오기술개발사업과 한국연구재단의 글로벌프론티어 사업인 지능형바이오시스템 및 합성연구단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br/> <br/>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58.txt

제목: 아들 던칸 존스, 데이빗 보위 애도…“한동안 오프라인” 고인 추모  
날짜: 20160111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1235509755  
ID: 01100701.20160111235509755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아들 던칸 존스, 데이빗 보위 애도…“한동안 오프라인” 고인 추모 사진=던칸존스 SNS아들 던칸 존스, 데이빗 보위 애도…“한동안 오프라인” 고인 추모 <br/> <br/>데이빗 보위의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하며 SNS에 글을 남겼다. <br/> <br/>오는 11일 데이빗 보위의 아들 영화감독 던칸 존스이 자신의 SNS에 "슬프게도 사실입니다. 전 한동안 오프라인일 것 같네요. 모두들 사랑합니다"란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br/> <br/>공개된 사진 속에는 아빠 데이빗 보위의 목마를 탄 어린시절 모습을 공개됐다. <br/> <br/>한편, 데이빗 보위 유족 측은 공식 SNS를 통해 "데이빗 보위가 지난 10일 가족들 품에서 편안히 눈을 감았다"며 고인의 사망 소식을 알렸으며 유족에 따르면 데이빗 보위는 18개월 간 암 투병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59.txt

제목: 식약처, '치료용 DNA 백신의 품질?비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 발간  
날짜: 20160111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1152853220  
ID: 01100701.2016011115285322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치료용 DNA 백신 개발 및 허가 시 필요한 자료 등을 안내하기 위해 '치료용 DNA 백신의 품질 및 비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br/> <br/>이번 가이드라인은 유전질환, 암 등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치료용 DNA 백신’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품목허가에 필요한 자료의 세부사항 등을 제공하여 제약사의 제품 개발 및 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치료용 DNA 백신'은 면역반응을 유도하거나 활성화하는 유전물질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백신이다. <br/> <br/>주요 내용은 ▲치료용 DNA 백신의 제조관리, 특성분석 및 품질관리 ▲독성 및 약리작용 등 비임상시험 시 고려사항 등이다. <br/> <br/>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치료용 DNA 백신 개발의 예측성 및 허가?심사의 투명성을 높여 제약사가 제품 허가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br/> <br/>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정보자료 → 법령자료→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60.txt

제목: 암젠 코리아,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 국내 승인  
날짜: 20160107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141923689  
ID: 01100701.20160107141923689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젠 코리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키프롤리스®(Kyprolis 성분명: 카필조밉)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으로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승인을 통해, 기존의 치료법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진행된 한국의 다발성 골수종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r/> <br/>키프롤리스는 프로테아좀 억제제로, 프로테아좀은 손상되었거나 불필요한 단백질을 분해함으로써 세포의 기능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키프롤리스는 세포 내 단백질이 과도한 축적을 유도하는 프로테아좀을 억제하며, 일부 세포, 특히 암세포에 대해 세포 사멸을 유발하는데, 이는 이들 세포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다량 함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br/> <br/>암젠 코리아 노상경 대표는 "프로테아좀 억제제인 키프롤리스의 승인을 통해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재발성 다발성 골수종 환자들이 새롭고 중요한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사용 승인으로 최적의 치료 대안을 제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암젠 코리아는 심각한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br/> <br/>다발성 골수종은 난치성 혈액암으로, 병세의 개선과 재발이 반복되는 패턴이 특징이다. 다발성 골수종은 질환의 진행이 매우 빠른 희귀질환으로 전체 암 질환 중 약 1%를 차지한다. 국내에서 매년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 받는 환자는 약 1천명, 사망하는 환자는 약 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전체 환자 수는 4천~5천명에 달한다. <br/> <br/>이번 키프롤리스 사용승인은 제 3상 임상 연구인ASPIRE(CArfilzomib, Lenalidomide, and DexamethSone versus Lenalidomide and Dexamethasone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Relapsed Multiple MyEloma)의 결과가 바탕이 되었다. 임상 결과, 키프롤리스+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병용 투여군(이하 KRd 요법)은 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병용 투여군(이하 Rd 요법) 보다 질환의 진행이나 사망의 위험을 31% 감소시켰으며, 무진행생존기간(PFS)을 8.7개월 연장시켰다(median, 26.3months vs 17.6months; HR: 0.69; 95% CI: 0.57 to 0.83; P=0.0001).  <br/> <br/>이는 현재 치료 요법 중 이식을 제외하고 가장 긴 무진행생존기간을 보여주는 요법으로 평가된다. 키프롤리스군에서 나타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폐렴(1%), 심근경색(0.8%), 상기도 감염(0.8%) 등 이었으며, 이로 인한 치료 중단율은 KRd 요법의 경우 15.3%, Rd 요법의 경우 17.7%로 각각 조사되었다. <br/> <br/>한편 키프롤리스는 미FDA로부터 지난 2012년 7월 단독요법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해 7월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제제로 적응증을 추가 승인받았다. 지난해 11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키프롤리스 시판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EU 회원국 28개국에서 통일된 라벨(unified labeling)을 통해 마케팅 활동이 가능해졌다.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은 EC에 승인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키프롤리스는 스위스,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쿠웨이트, 멕시코, 태국, 콜롬비아에서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61.txt

제목: 라이프플래닛 "온라인보험 1위 원동력은…"  
날짜: 20160104  
기자: 유은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4173919323  
ID: 01100701.20160104173919323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임성기 라이프플래닛 상품개발팀장.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가 출범하면서 온라인 보험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보험시장에 불어온 핀테크 열풍으로 온라인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br/> <br/>이런 가운데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인 라이프플래닛도 주목받고 있다. 출범 2년 만에 온라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며, 배타적사용권도 두 번이나 획득하면서 업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짧은 기간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것에 대해 라이프플래닛은 '소비자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차별화한 상품' 덕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br/> <br/>임성기 라이프플래닛 상품개발팀장에게 온라인 생명보험시장에 대해 물었다. <br/> <br/>다음은 임 팀장과의 일문일답. <br/> <br/>- 국내 최초 온라인생명보험사로 출범 후 2년 만에 온라인 생명보험 1위사로 등극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br/> <br/>▲ 출범 2년 만에 월납 초회보험료 누적 금액 기준으로 인터넷보험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2년 만에 업계 1위로 올라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은 차별화된 상품이라고 본다. 판매 중인 7개의 상품 중 '정기보험'과 '꿈꾸는e저축보험'은 당사의 고성장을 견인한 대표상품이다. 이 두 가지 보험상품은 소비자 지향형 상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비즈니스 철학과도 연결된다. <br/> <br/>이 외에 최근 보험업계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도 당사의 정기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이 모두 가격비교 순위 1위에 랭크되는 등 온라인 보험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br/> <br/>지난 한해 가장 큰 이슈였던 핀테크도 당사의 비즈니스 방향과 잘 맞물려서 더욱 주목받은 것 같다. 지난해보다 올해 크게 성장했고, 내년에도 계속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br/> <br/>- 출범 초기 '페이스메이커'로 배타적사용권을 받고 1년 후 다시 '꿈꾸는e저축보험'으로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한 번도 받기 힘든 배타적 사용권을 1년에 약 1회씩 획득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br/> <br/>▲ 라이프플래닛은 '내 가족, 내 친구 등 소중한 사람에게 꼭 권해주고 싶은 가치를 지닌 생명보험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한다.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상품'에 대한 개발 욕구가 크다. <br/> <br/>창립 이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무)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의 목표연금 페이스메이커 서비스와 '꿈꾸는e저축보험'으로 두 번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업 초기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인지도 확산이 중요한데, '꿈꾸는e저축보험'은 온라인 비즈니스 특성상 비용 효율적 측면에서 상품 자체로 광고 효과까지 감안한 전략적 상품이다. <br/> <br/>'꿈꾸는e저축보험'은 '조기에 해지하면 손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과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었다. 보험료 또는 보험가입금액에 비례해 사업비를 부과하는 기존 보험상품과는 달리 국내 최초로 사업비를 고객이 낸 보험료나 적립금에서 떼지 않고,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에서만 사업비를 공제하는 후취형 '경과이자 비례방식'을 채택해 공시이율 하락 시 보험회사의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는 소비자 지향적 콘셉트다. 조기에 해지하더라도 원금 손실이 없는 혁신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br/> <br/>상품의 독창성과 유용성 및 진보성을 인정받은 것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의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온라인보험의 차별화된 가치를 반영한 보험상품 개발을 지향할 것이다. <br/> <br/>- 꿈꾸는e저축보험은 국내 최초로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보험이다. 개발 당시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 <br/> <br/>▲ 온라인 생명보험은 설계사 등 보험상품의 중간유통과정 없이 고객과 직접 거래함으로써 절감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비즈니스모델이다. 온라인 비즈니스로 설계사 등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보험은 조기에 해지하면 손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과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은 보험상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 <br/> <br/>하지만 상품을 개발, 출시할 때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우선 '꿈꾸는e저축보험' 생명보험협회에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제출했을 때 보험전문가들조차 조기 해지해도 100% 원금이 보장되는 사업비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만큼 기존 보험상품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했기 때문이다. <br/> <br/>또 개발 당시에도 내부에서도 '과연 무조건 원금 이상을 보장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자문도 많았다. 사업비가 너무 적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오해도 많았다. <br/> <br/>개발보다 설득에 더 많은 노력을 쏟은 것 같다. 그러나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끝나자마자 대형 생명보험사인 S생명과 H생명의 온라인 생명보험에서도 카피 상품을 내놓았다. 이는 '꿈꾸는e저축보험'이 결국 보험 상품의 패러다임을 바꾼 상품이라는 점을 업계가 인정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 <br/> <br/>비슷한 상품 구조의 경쟁자가 생겼지만 원조 상품의 개발 담당으로서 뿌듯함을 느낀다. 또 '보험 조기 해지는 손해'라는 소비자의 인식을 바꿔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있다. <br/> <br/>'꿈꾸는e저축보험'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100% 원금 이상을 보장하는 사업비 부과 방식인 '경과이자 비례 방식'에 특허를 신청하라는 권유도 있었다. 그러나 보험상품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온라인 보험시장의 확대 측면에서 특허를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br/> <br/>라이프플래닛이 취하는 단기간의 신상품 개발 이익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좋은 보험상품을 발견하고 보험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게 당사의 사명이자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br/> <br/>- 온라인 생명보험 경쟁자가 대거 늘었다. 지금처럼 온라인 생명보험 시장을 주도할 전략이 있나? <br/> <br/>▲ 아직까지는 국내 보험 소비자들이 설계사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이 사실이다. '보험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소비자들이 다양한 보험상품을 직접 비교해보고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성숙해져야 한다. <br/> <br/>지난 2년간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존 인식을 깨뜨리고 설계사 중심의 보험시장에서 온라인 보험시장을 개척하는 데 힘써왔다. 출범 3년째인 올해에는 당사만의 특성을 살린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 등 상품 포트폴리오 다양화로 인터넷 생명보험시장의 파이를 더욱 키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br/> <br/>특히 지난해 말에 출시한 '암보험'과 '5대성인병보험'은 출시 직후부터 보험비교사이트인 '보험다모아' 질병보험과 암보험 비교 랭킹 1위에 올랐다. 온라인보험의 특성에 맞게 사업비 군살을 모두 뺐기 때문에 가능했다. <br/> <br/>이처럼 온라인보험은 채널만 다르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상품까지 차별화되어야 한다. 기존과 다른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의 '목표연금 페이스메이커' 서비스나 '꿈꾸는e저축보험' 같은 상품으로 인해 다른 보험사들이 인터넷보험 시장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동참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 <br/> <br/>무엇보다 고객지향적 가치를 담은 혁신적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당사의 핵심 전략이며, 이 핵심전략이 상품에 녹아들어야 국내 최초 온라인 생명보험사로써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다. <br/> <br/>- 상품개발자로서 십 수년간 다양한 보험상품을 만들어왔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상품 같은 게 있는가? <br/> <br/>▲ 가장 기억에 남는 상품은 국내 최초 인터넷 생명보험사 설립과 함께 처음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의 '목표연금 페이스메이커 서비스'와 지난해 두 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꿈꾸는e저축보험'이다. <br/> <br/>이 두 가지 상품과 서비스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인터넷 상품판매가 아니라 소중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상품으로 시스템 구축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보람되고 잊을 수 없는 상품이다. <br/> <br/>앞으로도 가장 필요한 보장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중한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는 차별화된 보험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고객가치를 1순위로 기존 채널과 다른 인터넷보험의 특성을 살려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나갈 것이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br/> <br/>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62.txt

제목: 고대 구로병원, 최첨단 로봇수술기 '다빈치 Xi' 도입  
날짜: 20160102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2232106727  
ID: 01100701.2016010223210672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고대 구로병원(원장 백세현)은 현존 최고사양의 로봇수술기 '다빈치 Xi(da Vinci Xi)'를 도입하고 지난해 12월 29일 첫 수술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br/> <br/>고대 구로병원은 암병원을 비롯한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진료과와 수술분야에 로봇수술 시스템을 적용해 최소침습 수술 범위를 확대하고 로봇수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환자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br/> <br/>이로써 고려대의료원 산하 안암, 구로, 안산병원 모두가 로봇수술기를 갖추게 되었으며, 특히 2007년 선도적으로 로봇수술기를 도입해 세계적으로 위상을 인정받고 있는 안암병원과 노하우를 공유해 3개 병원 어디에서나 국내최고 수준의 로봇술기를 펼칠 수 있게 되었다. <br/> <br/>더욱이 이번에 고대 구로병원이 도입한 '다빈치 Xi'는 현존 최고사양으로 고려대의료원의 로봇수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r/> <br/>'다빈치 Xi'는 기존기기 보다도 더 정교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편의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로봇 팔은 기존 기기에 비해 5cm 더 길어지고 6cm 가늘어졌으며, 움직일 수 있는 각도도 기존 149°에서 177°로 확대돼 로봇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도 더 넓은 부위를 수술할 수 있다. <br/> <br/>또한 로봇 팔 어디에나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어 다양한 각도에서 의료진의 시야확보가 용이해 복잡한 수술을 정교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제와 흡사한 초고화질의 3D 영상정보를 제공해 수술 부위를 더욱 선명하게 보며 수술할 수 있다. <br/> <br/>로봇수술은 사람의 손목처럼 관절이 있는 로봇 팔을 이용해 최소의 절제부위로 신체내부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3D 카메라와 소형 수술기구 등을 이용해 선명한 시각 확보와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개복수술이나 복강경수술 보다 통증, 출혈, 흉터, 감염위험 등을 감소시켜 수술 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뿐만 아니라 손 보다 정교한 로봇팔로 미세한 암 조직 제거 등이 가능해 복잡한 대형 수술에서도 성공적인 결과와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63.txt

제목: 감자 많이 먹으면 당뇨병 위험 높아, 프렌치 프라이 가장 심해  
날짜: 20160101  
기자: 박수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1135508457  
ID: 01100701.2016010113550845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감자를 많이 먹을수록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찌거나 구운 감자보다는 썰어서 기름에 튀긴 ‘프렌치 프라이’의 위험도가 더 높다고 의학 전문 사이트 메드스케이프 등이 1일 보도했다. <br/> <br/>일본 오사카 암 및 심혈관질환 예방센터의 무라키 이사오 박사 팀은 미국의 간호사나 의사 등 보건 관련 직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방대한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는 내용의 논문을 미국당뇨학회 ‘당뇨관리’ 최신호에 게재했다. <br/> <br/>이 논문에 따르면, 1주일에 2~4회 감자를 먹은 사람들은 1회 이하 먹은 사람들에 비해 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평균 7%, 1주 7회 이상 먹은 사람들은 33%나 높아졌다. <br/> <br/>특히 감자를 잘게 썬 뒤 기름에 튀긴 프렌치 프라이가 가장 건강에 좋지 않았다. <br/> <br/>1주 3회 감자를 먹은 사람 중에서 굽거나 찌거나 으깬 감자를 먹은 사람이 당뇨 걸릴 위험은 1회 이하 섭취자에 비해 4% 높아진 반면 프렌치 프라이로 먹은 사람의 경우 19% 높았다. <br/> <br/>이사오 박사는 “<span class='quot0'>미국 정부의 건강식 지침엔 감자가 채소로 분류돼 있으나 감자는 곡식처럼 탄수화물 공급원의 하나이며, 채소라기보다는 흰쌀처럼 정제한 곡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이번 연구가 시사한다</span>”고 지적했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0'>감자에는 전분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폴리페놀 등은 적다</span>”며 “<span class='quot0'>질 낮고 양이 많은 탄수화물(당질)은 2형 당뇨와 관계있으며, 게다가 뜨거운 전분은 소화가 빨리돼 혈액 속 포도당 수준을 급격히 올라가게 한다</span>”고 밝혔다. <br/> <br/>당뇨에 걸리지 않으려면 탄수화물(당질) 섭취원으로 가공하지 않은 통곡식, 견과류, 과일, 채소 등을 많이 먹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br/> <br/>미 농무부의 ‘식생활지침’(MyPlate)이나 ‘여성과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 리뷰’ 등은 감자를 채소' 분류하는 반면 영국 국가보건의료기구인 국민건강보험(NHS)의 ‘식생활지침’(Eatwell plate)은 설명자료에서 감자를 ‘곡물’로 분류한다. <br/> <br/>이번 연구에서 감자 총섭취량에 감자칩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데이터들에 사용된 설문이 감자칩과 옥수수칩(콘칩) 섭취를 한데 묶어서 물었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br/> <br/>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64.txt

제목: 하는 일은 ‘비정규직 노동자’… 법적 보호는 먼 길  
날짜: 201512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31203133086  
ID: 01100701.20151231203133086  
카테고리: 사회>노동\_복지  
본문: 공유경제에도 명과 암이 병존한다. ‘우버 드라이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 노동자들의 지위와 노동의 질 문제다. 일종의 ‘차량 공유’인 우버 운전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일하는 방식은 택시회사 노동자와 비슷하지만, 플랫폼 회사에서 수수료 등 정책을 바꿀 경우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는 지적이다. <br/> <br/>뉴욕타임스는 최근 우버, 사이드카 등 이른바 공유경제 시스템에 속한 노동자들의 삶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1인 사업가’라기보다 ‘작은 노동자’로 불려야 한다. 이들은 노동의 유연성을 얻는 대신 수입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뜻이다. <br/> <br/>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은 얼마 전 미국 도시 중 처음으로 우버 운전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애틀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택시업체들과 비슷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은 운전사들 가운데 과반이 원할 경우 시가 인정하는 비영리 조직의 대표권을 인정하고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 협상을 해야 한다. <br/> <br/>하지만 우버 측은 자사 시스템을 통해 일하는 기사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우버 기사들 중 일부도 ‘피고용인’ 지위를 인정해 연료비나 자동차 수리비 등을 보조해 달라며 집단 소송을 낸 상태다. <br/> <br/>우리나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버 택시의 불법성 여부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운전자의 권리 등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br/> <br/>공유경제 기업이 성장하면서 노동기준, 근로자 차별 금지법, 소비자 보호와 같은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에 플랫폼 사업자의 평가지표 때문에 고객들에게 ‘과한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감정노동까지 강요받고 있다. <br/> <br/>공유경제가 새로운 개념인 만큼 이에 맞는 새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유경제 시스템에 속한 대부분이 플랫폼 사업자에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는 비정규직 형태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br/> <br/>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공유경제 관련 국제포럼에서 데이비드 기어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는 “온라인 플랫폼 확산은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한다”며 “기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법들이 공유경제의 P2P(개인 대 개인) 계약관계에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br/> <br/>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공유경제 공급자가 스스로 거래 규모를 선택하도록 한 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상시적 사업자’로, 일정 규모 이하면 ‘일시적 사업자’로 분류해 일시적 사업자에겐 경감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세종=안용성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65.txt

제목: [연구] 간접흡연 반려동물 암 발생 높여  
날짜: 20151230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30162503920  
ID: 01100701.2015123016250392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사진= 한국건강관리협회 캡처간접흡연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의 암 발생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br/> <br/>2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담배 연기에 노출된 반려동물은 체중이 증가하고 체세포가 파괴되며 각종 암을 앓을 수 있다고 글래스고 대학의 연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br/> <br/>대학 연구진은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집에 사는 개와 고양이의 건강상태를 비교 분석했다. <br/> <br/>그 결과 간접흡연은 동물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먼저 흡연자와 함께 사는 개의 경우 비흡연자 가정보다 체중이 더 높았으며 특히 고양이가 더 큰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고양이가 간접흡연에 더 취약한 원인은 ‘그루밍(고양이 등 동물이 본능에 따라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혀로 몸을 핥는 것을 뜻함)’을 반복해 니코틴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br/> <br/>또 연구팀은 수컷 개의 유전자 검사 결과 흡연자 가정에 사는 개의 세포파괴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했고 일부 유전자는 암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br/> 클레어 교수는 "흡연자들은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반려동물에게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나 동물이나 간접흡연은 모두 유해하다"고 말했다.연구를 지휘한 클레어 노튼벨트 교수는 "흡연자들은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반려동물에게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나 동물이나 간접흡연은 모두 유해하다“며 ”반려동물은 하루 종일 집에 머물기 때문에 더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br/> <br/>이어 "주인이 하루 10개비 이하로 담배를 피우면 반려동물의 니코틴 수치가 확연히 떨어졌지만 비흡연자 집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고 덧붙였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데일리메일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66.txt

제목: 한국유방암학회-대한의학유전학회 업무 협약 체결  
날짜: 20151229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9135721683  
ID: 01100701.2015122913572168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유방암학회(회장 정성후)가 대한의학유전학회(회장 이진성)와 암 분야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br/> <br/>이번 협약으로 한국유방암학회에서 ‘유전성 유방암 유전상담사’ 자격인증을 얻은 사람은 대한의학유전학회 ‘유전상담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유방암을 비롯한 포괄적인 암 분야의 유전상담사를 양성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br/> <br/>대한의학유전학회 ‘유전상담사’는 2014년 첫 도입된 자격인증제도로 소아, 산전, 암, 성인 분야의 유전적 질병에 대한 전문 유전상담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유전성 유방암 유전상담사’는 한국유방암학회가 유전성 유방암 고위험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제공을 위해 2011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인증제도이다. <br/> <br/>이번 협약으로 2015년까지 ‘유전성 유방암 유전상담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격증 소지자가 대한의학유전학회 ‘유전상담사’ 연수교육 수료와 인증시험 통과 후 유전상담 로그북을 제출하면 암 분야에 국한한 ‘유전상담사’ 자격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본 자격인증에 대한 지원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br/> <br/>대한의학유전학회 이진성 회장은 “<span class='quot0'>유방암 극복에 앞장서는 한국유방암학회와 상호 협약을 맺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두 학회의 협력으로 암과 관련된 유전적 원인을 걱정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 <br/> <br/>한국유방암학회 한세환 이사장 또한 “<span class='quot1'>유전성 유방암 유전상담사의 활동을 보다 포괄적인 암 분야로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밝히며, 제휴 협약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br/> <br/>한편, 한국유방암학회는 유방암 극복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국내외 유방암 현황을 집대성한 유방암백서를 매년 발행하고 있으며, 유방암 예방과 올바른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병원에서 건강 강좌를 진행한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67.txt

제목: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D, 보충하기 위해서는?  
날짜: 20151224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4115000422  
ID: 01100701.2015122411500042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모든 생명의 근원은 태양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태양이 주는 에너지를 자신에게 맞게 받아들여 살아간다.  <br/> <br/>식물은 엽록소로 태양에너지를 잡아서 이를 탄수화물의 형태로 바꾸어 보관하여 몸의 대사를 활성화하고 성장시키는 반면, 동물은 태양 에너지를 감각기관 중 특히 눈을 통해 중추 신경에 전달하여 식물이 열매나 곡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탄수화물을 찾아내어 생명을 유지해 왔다.  <br/> <br/>인간 역시 식물처럼 직접 태양에너지를 받아들여 신진 대사를 활성화하고 몸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비타민 D이다. <br/> <br/>◆ 태양을 보지 못하고 자란 노틀담의 곱추 ‘콰지모토’이야기 <br/> <br/>비타민 D가 처음 알려진 것은 흔히 ‘곱추병’이라고 부르는 ‘구루병’ 때문이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를 성장시키고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주 어려서부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잘 자라지 않고 자라도 충분히 딱딱해지지 않기 때문에 휘게 된다. <br/> <br/>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 ‘파리의 노틀담’의 주인공 곱추 콰지모토의 비극은 아기 때 부 <br/>모로부터 버림받고 성당의 뒷방에서 태양을 보지 못하고 자란 것에서 시작된다.  <br/> <br/>태어날 때 너무나 흉측하게 생긴 외모를 가졌던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밖에서 뛰어 놀지 못했고, 충분히 태양을 볼 수 없었다.  <br/> <br/>빅토르 위고는 콰지모토를 키가 작고 등뼈가 활처럼 휘었으며 가슴뼈가 앞으로 툭 불거지고 두 다리는 제멋대로 뒤틀렸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비타민 D부족으로 인한 구루병의 증상이다. 심지어 콰지모토는 애꾸눈에 귀도 멀었는데, 이 역시 비타민 D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아마 빅토르 위고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br/> <br/>◆ ‘비타민 D’ 왜 중요한가 <br/> <br/>현대에는 영양이 좋아지면서 구루병은 사라졌다. 그러나 비타민 D의 부족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국민 건강영양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 인구의 72%가 비타민 D 농도가 20ng/ml도 안 되는 비타민 D 부족에 해당된다(참고로 외국의 경우는 평균 30ng/ml 정도다). <br/> <br/>한국건강관리협회 구진남 과장은 “<span class='quot0'>비타민 D는 단순히 뼈의 대사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나 귀와 같은 감각기관, 피부, 근육의 건강을 유지해주고, 혈당과 혈압을 낮추어 혈관을 튼튼하게 하며, 면역력을 높여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같은 질환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며, 염증을 줄여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암을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태양을 피하지 말자 <br/> <br/>가수 ‘비’가 노래한 대로 ‘태양을 피하면’ 우리 몸은 정말 큰일이 난다. 비타민 D는 전체 필요양의 95% 이상을 피부에서 햇빛을 받아 합성한다. 따라서 햇볕을 쬐고 야외활동을 하는 것이 비타민 D 형성에 중요하다. 우리나라 사람의 비타민 D 부족증은 외국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사람에게 비타민 D 부족이 더 많다는 것이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br/> <br/>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입시에 사로잡힌 교육과 외모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사회 풍조 때문에 외국과는 정반대로 젊은 연령층에서 비타민 D 부족이 많다. 이는 필연적으로 당뇨병, 심장 질환, 암, 자가면역질환, 골다공증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br/> <br/>피부 차단제는 매우 효과적으로 비타민 D 합성을 감소시킨다. 자외선 차단지수 SPF 15만 되어도 피부에서는 비타민 D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야외활동을 할 때는 얼굴은 화장을 하고 모자로 자외선을 차단하더라도 팔 다리는 자외선에 노출시키도록 한다. <br/> <br/>◆ 겨울철 ‘비타민 D’ 충전법 <br/> <br/>문제는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다. 겨울에는 야외활동도 하기 어렵고 한다고 하더라도 피부를 노출시킬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겨울에는 자외선 양이 부족해져서 햇볕을 쬐어도 피부는 전혀 비타민 D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br/> <br/>따라서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인 치즈, 우유, 마가린, 버터, 연어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특히 비타민 D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골다공증 환자는 따로 비타민 D를 경구로 섭취하거나 3개월에 1회 정도 비타민 D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병원에 가서 비타민 D의 농도를 재보고 그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68.txt

제목: [사이언스리뷰] 과학은 우리의 미래이다  
날짜: 20151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3201417488  
ID: 01100701.20151223201417488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는 동화에서는 ‘열려라 참깨’ 하면 바위 문이 열린다. 요즘에는 음성인식 기술이 개발돼 현실감 있는 소재가 됐지만 예전에는 현실감이 없어도 동화이니까 하면서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난다. 동화 속 이야기 중에는 비현실적인 것이 얼마나 있을까. 앞으로 현실이 될 수 있는 소재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동화 속 이야기를 현대 사회에 맞게 각색할 수 있는지 질문하면서 아이들의 관심을 과학으로 이끌어 낸다. 과학이 무엇이길래 어린아이들의 동화 속 상상세계와도 연계시키려고 할까. <br/> <br/>최근 무인자동차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수동 자동차가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자동차를 탈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자율적으로 운행되는 자동차가 실용화되면 거동이 불편하고 운전이 어려운 이들이 혜택을 본다. 또 이동하는 시간을 보다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학은 우리가 고마워해야 하는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과학은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의 생활이다. 또 과학은 테러집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국가 안보를 담보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꿈이고 미래이다. 앞으로는 치매를 어떻게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 지구온난화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가난한 이들에게 어떻게 물·에너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 등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에 대해 과학이 답을 줄 것이다. 우리는 과학이 주는 혜택을 받는다.  <br/> <br/> 유영제 서울대 교수·화학생물공학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주목나무는 어떻게 세균과 벌레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주목은 특정 대사산물을 합성해 자기를 방어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한 결과로부터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항암제가 개발됐다. 그것은 새로운 산업이 됐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고 우리에게 일자리로 다가온다.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개발이 그러한 예이다. 앞으로는 로봇기술, 3D프린터 등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br/> <br/>로봇에 대해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로봇은 계속적으로 활용이 증가될 것인데, 여기에 인공지능이 더해지면 그 역할이 크게 변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 로봇이 감성까지 가지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는 사회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와 도전으로 다가온다. 과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미래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것은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려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다. 과학적 지식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과학기술이 주는 메시지를 경청해야 한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 융복합 시대에는 과학이 우리의 미래이다. <br/> <br/>과학은 딱딱하고 어렵게만 여겨질 수 있는 이론과 실험이 전부가 아니다. 과학은 자연과 일상생활의 문제를 다룬다. 과학을 순수과학만이 아닌 기술, 공학, 예술, 수학과 연계시키는 스팀(STEAM)이라는 새로운 교육 방식은 과학이란 우리의 생활이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이고, 쓸모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다보면 과학은 제3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과학은 호기심 많은 과학자의 전유물도 아니고, 기업의 경쟁력만을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과학(Science for All Americans)’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과학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다. 우리도 과학이 고마워해야 하는 대상이 되고 과학에 관심을 갖는 학생과 국민이 많아질 때,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즐길 때 우리의 과학은 발전하는 것이고 국가 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다. <br/> <br/>유영제 서울대 교수·화학생물공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69.txt

제목: 칠곡경북대학교병원-코아스템, 공동연구개발 업무 협약서 체결  
날짜: 20151222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2151446352  
ID: 01100701.2015122215144635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코아스템은 암 및 노인성질환을 위한 전문의료센터로 특성화된 칠곡경북대학교병원과 지난 21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세포치료제 공동연구 및 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br/> <br/>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신약 개발에 기초연구 및 임상, 상업화 연구 참여 △연구자 상호교류 및 학술정보 공유 △난치성 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상호 교류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코아스템와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앞으로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파트너로서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난치성 질환 치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br/> <br/>김경숙 대표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칠곡경북대병원의 훌륭한 연구진 및 임상 역량과 코아스템의 기술 경쟁력이 결합해 새로운 신약개발 및 난치성 질환 환자 치료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70.txt

제목: "전립선암 유전자 변이의 시작 밝혀졌다"  
날짜: 20151222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2145311458  
ID: 01100701.2015122214531145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전립선암으로 진행되는 전립선 상피내종양의 유전자 변이과정이 최초로 밝혀졌다. <br/> <br/>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연준, 이석형 교수팀(공동 제1저자: 가톨릭대학교 암진화연구센터 정승현 박사, 신선)은 전립선암과 전립선 상피내종양을 가진 환자의 종양 게놈을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을 통해 전립선암의 시작과 발생의 유전적 진화과정 전체를 규명했다. <br/> <br/>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연준 교수(왼쪽), 이석형 교수. <br/>그 결과 대부분의 전립선암은 유전적인 측면에서 전립선 상피내 종양에서 발전된 것을 확인했다. 정상 전립선 세포는 전립선 상피내종양으로 발전하고 추가 변화에 의해 전립선암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br/> <br/>하지만 암으로 진행되면서 여러 변이가 축적되어 나타나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규명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암으로 분류되지 않는 전립선 상피내종양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br/> <br/>연구팀은 전립선암과 전립선 상피내종양을 동시에 가진 가족력이 없는 6명의 환자(남자, 평균나이 66.5세)의 전립선 종양조직을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반의 전장 엑솜 염기서열 해독법(Whole exome sequencing)을 이용해 분석했다. <br/> <br/>특히 더욱 정밀한 추적을 위해 전립선암과 전립선 상피내종양의 다양한 위치별로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립선암과 연관된 8가지의 유전자(FOXA1, SPOP, KDM6A, KMT2D, APC, HRAS, CYLD, MLLT4) 발견했다. <br/> <br/>전립선 상피내종양의 돌연변이 수는 전립선암보다 현저히 적었지만, 전립선 상피내종양과 전립선암 모두에서 'FOXA1'가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되며 전립선암으로 진행을 견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r/> <br/>또한 1번, 8번 염색체의 증폭이 조기에 전립선 상피내종양 발생을 견인하는 인자임을 확인했으며, 'SPOP, KDM6A, KMT2D' 유전자 돌연변이가 전립선 상피내종양에서 전립선암 진행에 특이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즉 전립선 상피내종양과 전립선암의 게놈 분석 결과 대부분의 전립선암은 유전적인 측면에서 전립선 상피내 종양에서 발전된 것을 확인한 것이다. <br/> <br/>정연준 교수는 "그동안 전립선암이 전립선 상피내종양에서 발전된 것이라는 정황은 있었지만 어떤 유전자변이가 전립선암으로의 발전을 견인하는지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이번 연구로 전립선 상피내종양은 전립선암의 유전적으로 직계후손(Direct descendants)이라는 점과 FOXA1등 전립선암으로 발전을 견인하는 유전자변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br/> <br/>또한 정 교수는 "최근 전립선암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원인과 함께 발병기전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연구를 더 검증하고 생물학적 기능을 연구하면 조기전립선암 진단법 및 새로운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br/> <br/>전립선암은 남성의 생식기관인 전립선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국내 남성 10대 암 중 5위로, 전체 남성 암 발생의 8.2%를 차지한다. 서양에서는 남성암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으며, 한국인의 서구화된 식습관 변화,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 전립선암 가장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br/> <br/>이번 연구 결과는 비뇨기과학 분야의 최고 학술지인 'European Urology'(Impact factor : 13.938) 12월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br/> <br/>한편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선도연구지원센터인 가톨릭의대 암진화연구센터의 지원 하에 나온 연구 성과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71.txt

제목: 휴온스, 유전자 비만치료제 혁신신약개발 나서  
날짜: 20151221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1170644304  
ID: 01100701.2015122117064430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국내 비만약 시장의 강자 휴온스가 약 5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비만약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유전자 치료제 혁신신약개발에 나선다. <br/> <br/>휴온스는 지난 7일 한양대학교 공과대학과 '유전자 비만 치료제 특허 전용실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8일 체결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특허의 기술은 지난 10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을 수상한 한양대공대 화공생명공학부 김용희 교수의 기술로 많은 업체가 관심을 보였던 기술이다. <br/> <br/>김 교수의 기술은 지방세포를 타깃으로 하는 지방제거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비만을 치료하는 비바이러스성 유전자 전달기술이다. 본 체료제는 지방을 제거하는 유전자치료제와, 지방세포에 이 치료제를 운반하는 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만동물모델에서 투여 7주 후 몸무게를 25%까지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낸 바 있다.. <br/> <br/>휴온스는 본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확보함으로써, 비만치료용 유전자 치료제의 상업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본 특허에 관한 연구성과는 지난해 12월에 국제적으로 소재분야에 최고 권위지인 네이처 머티리얼(Nature Materials)게재되었으며, 이에 대한 국내 특허도 2014년에 등록됐다. <br/> <br/>엄기안 휴온스 중앙연구소장은 "한양대 김용희 교수의 선행연구 결과는 기존 제품들은 주로 중추신경계 식욕억제제 위주로 되어 있으나, 본 유전자치료제는 지방 자체를 제거하는 기술이 특징"이라며 "동물모델에서 우수한 치료 효능이 입증됐기 때문에, 휴온스의 약효검증 및 제품 개발 능력을 더해 하루 빨리 치료제를 상업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r/>  <br/>현재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성장률 17.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약5조원(51억달러)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비만 인구는 약 5억명이며, 과체중은 14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당뇨환자의 44%,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의 23%, 여러 암의 경우 7~41%가 비만에 기인하는 것이 보고한 바 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72.txt

제목: 동화약품-아주대의료원,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 협약 체결  
날짜: 20151218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8104116591  
ID: 01100701.2015121810411659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동화약품은 아주대학교 의료원과 지난 17일 아주대학교 의료원 국제회의실에서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내용은 RIP3 바이오마커 이용 항암제 개발 기술 이전 및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것이다. <br/> <br/>최근 글로벌데이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유방암 환자의 80~90%는 항암화학요법 실시, 그러나 항암화학요법이 환자의 5년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은 5% 내외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항암화학요법제의 치료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br/> <br/>암환자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의 치료 효율이 낮은 이유는 암환자의 세포사멸 핵심 유전자인 RIP3 단백질의 발현이 매우 저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한 기술은 RIP3 단백질의 발현이 저하된 암환자를 대상으로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회복 시킴으로써 항암제의 치료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br/> <br/>따라서 이러한 개인 맞춤형 의학 기술이 실제 치료에 적용되면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 감소, 치료 효율 증대로 인한 치료비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유방암 환자들에 대한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활용될 것이다. 현재 개발 중인 유방암뿐 아니라 폐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종으로 개발을 확장할 계획이다. <br/> <br/>이 기술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김유선 교수가 연구한 성과로, 동화약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전담하는 바이오의료기기산업 핵심사업(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향후 3년동안 약30억 규모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br/> <br/>한편 이 기술은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R&D 우수기술 선정 및 연구성과사업화 지원사업에서 사업화 유망기술로 선정되어 기술마케팅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지정한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가 운영중인 산학협력 중개센터가 기술이전 협상 과정을 지원했다. <br/> <br/>동화약품은 지난 4월 아주대학교 의료원과 공동연구 및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 간 학술교류와 공동연구 등 협력증진, 사업화 분야 전반과 산학연협력의 동반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br/> <br/>현재 동화약품은 동국대학교(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기술 이전 및 산학협력), 경희대학교(천연복합추출물의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기술 이전과 산학협력)를 비롯하여 국립수목원(국가생물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 다양한 기관과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73.txt

제목: 암이 운에 좌우?…"열에 아홉은 흡연 등 외부요인 때문"  
날짜: 20151217  
기자: 유태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7171359483  
ID: 01100701.2015121717135948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의 열 중 아홉 정도는 흡연, 음주, 자외선 노출, 공기오염 등 외부 요인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상당수 암이 ‘불운’ 때문에 생긴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뒤집는 내용이어서 암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br/> <br/>미국 스토니브룩 대학 암센터 연구진은 흔히 걸리는 암의 70∼90%가 개인의 생활습관 등 외부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고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들이 전했다. <br/> <br/>연구진은 컴퓨터 모델링, 인구 데이터, 유전학적 접근법 등을 통해 진행한 이번 연구를 통해 직장암의 75%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발생하며, 피부암의 86%는 자외선 노출 때문에, 두경부암의 75%는 흡연과 음주 때문에 일어난다고 결론지었다. <br/> <br/>케빈 맥컨웨이 영국 개방대학 교수(응용통계학)는 “<span class='quot0'>만약에 우리가 위험한 외부 요인을 마술처럼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암의 70∼90% 정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번 연구결과가 보여준다</span>”고 말했다. 물론 몇몇 암은 유전적 돌연변이가 일으키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예방 가능하다는 뜻이다. <br/> <br/>유수프 해넌 스토니브룩대 교수는 이를 ‘러시안 룰렛’ 게임에 비유해 설명했다. 그는 “<span class='quot0'>6개의 약실 중에 ‘돌연변이의 불운’이라는 탄환이 기본적으로 한 발 장전돼 있다면, 흡연자들은 거기에 두세 발을 더 채운 뒤 방아쇠를 당기는 셈</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모든 흡연자가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높이는 것만은 분명하다</span>”고 BBC방송에 말했다. <br/> <br/>이는 올해 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두 연구자가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한 ‘불운 가설’과 상반된 내용이다. 존스홉킨스 연구진은 암 위험의 3분의 2가량이 줄기세포가 분화할 때 무작위로 생기는 DNA 복제 오류, 즉 돌연변이에 따라 암이 생긴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br/> <br/>그러나 아직 암을 유발하는 외부 위험요인이 전부 밝혀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모든 암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영국 암연구센터의 엠마 스미스는 “<span class='quot1'>금연, 금주, 적정 체중 유지, 건강한 식단 등의 습관은 우리가 만들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런다고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확률은 극적으로 낮출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74.txt

제목: 을지대병원 박진성 교수, 방광암 관여 단백질 메카니즘 규명  
날짜: 20151217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7130158430  
ID: 01100701.20151217130158430  
카테고리: 사회  
본문: 을지대학교병원 비뇨기과 박진성 교수. <br/>사람의 내장기관을 구성하는 특정 단백질이 방광암에서 발현되고 이 단백질이 방광암의 진행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 밝혀졌다. <br/> <br/>을지대학교병원 비뇨기과 박진성 교수팀은 방광암 조직과 정상 방광 조직을 대상으로 600여개 이상의 단백질 발현을 조사한 결과, '칼데스몬 (Caldesmon)' 발현이 정상조직보다 방광암 조직, 특히 근육층까지 암세포가 침범하는 침윤성 방광암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br/> <br/>연구팀은 또 132명의 일차성 표재성 방광암환자를 대상으로 칼데스몬 발현과 환자 예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칼데스몬이 발현되는 환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암의 재발이 3.5배, 암의 진행은 5.3배나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br/> <br/>연구팀은 특히 이 단백질 유전자를 조절함으로써 암 세포의 이동성이나 침윤성 정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밝혀내 방광암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r/> <br/>사람의 내장기관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세포의 미세섬유 조절이나 세포기능을 조절하는 '칼데스몬'과 방광암과의 상관관계는 그동안 알려진 게 없었다. <br/> <br/>박 교수는 "방광암이 침윤성으로 진행될 경우 재발률이나 사망률이 높아 그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종양표지자를 확인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결과는 칼데스몬을 통해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광암 치료의 새로운 표적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br/> <br/>이 연구결과는 '일차성 비근침윤성 방광암 환자에서 종양 진행 예측인자로서 Caldesmon 발현의 예후적 의미 (Overexpression of caldesmon is associated with tumor progression in patients with primary non-muscle-invasive bladder cancer)'라는 제목으로 종양학 분야의 국제 저명학술지인 종양표적(Oncotarget) 최근호에 실렸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75.txt

제목: '로봇,소리' 이하늬,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채식주의자 된 사연 밝혀  
날짜: 2015121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50223539  
ID: 01100701.20160108050223539  
카테고리: 문화  
본문: '로봇,소리' 이하늬,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채식주의자 된 사연 밝혀'로봇,소리' 이하늬,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채식주의자 된 사연 밝혀<br/> <br/>영화 '로봇, 소리'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이하늬가 '냉장고를 부탁해'를 통해 채식주의자가 된 사연을 공개했다. <br/> <br/>이하늬는 14일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냉장고를 공개했다. <br/> <br/>이하늬는 "어머니가 5년 전 암 때문에 수술을 받았다. 그래서 가족 모두 채식을 하겠다"고 말한 뒤, <br/>이하늬는 이어 "스무 살때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동생이 채식주의자로 살 수 밖에 없는, 선천적으로 단백질을 제거해서 먹어야 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채식주의자가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br/> <br/>이어 이하늬는 "원래 고기를 엄청 좋아했다. 출산 또는 건강을 위해 포기 할 수도 있다"고 말해 채식을 포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br/> <br/>이하늬는 앞서 페스코 베지테리안(어류와 동물의 알, 유제품 등은 섭취 가능한 채식주의자)임을 밝힌 바 있다. <br/> <br/>한편 이하늬는 영화 '로봇, 소리'에서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소속 박사 강지연 역을 맡았다. 영화 '로봇, 소리'는 10년 전 실종된 딸을 찾아 헤매던 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기억하는 로봇을 만나 딸의 흔적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감동 휴먼 로봇 영화로, 2016년 1월 개봉 예정이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76.txt

제목: '로봇,소리' 이하늬,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채식주의자 된 사연 밝혀  
날짜: 2015121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5062856688  
ID: 01100701.20151215062856688  
카테고리: 문화  
본문: '로봇,소리' 이하늬,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채식주의자 된 사연 밝혀'로봇,소리' 이하늬,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채식주의자 된 사연 밝혀 <br/> <br/>영화 '로봇, 소리'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이하늬가 '냉장고를 부탁해'를 통해 채식주의자가 된 사연을 공개했다. <br/> <br/>이하늬는 14일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냉장고를 공개했다. <br/> <br/>이하늬는 "어머니가 5년 전 암 때문에 수술을 받았다. 그래서 가족 모두 채식을 하겠다"고 말한 뒤, <br/>이하늬는 이어 "스무 살때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동생이 채식주의자로 살 수 밖에 없는, 선천적으로 단백질을 제거해서 먹어야 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채식주의자가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br/> <br/>이어 이하늬는 "원래 고기를 엄청 좋아했다. 출산 또는 건강을 위해 포기 할 수도 있다"고 말해 채식을 포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br/> <br/>이하늬는 앞서 페스코 베지테리안(어류와 동물의 알, 유제품 등은 섭취 가능한 채식주의자)임을 밝힌 바 있다. <br/> <br/>한편 이하늬는 영화 '로봇, 소리'에서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소속 박사 강지연 역을 맡았다. 영화 '로봇, 소리'는 10년 전 실종된 딸을 찾아 헤매던 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기억하는 로봇을 만나 딸의 흔적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감동 휴먼 로봇 영화로, 2016년 1월 개봉 예정이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77.txt

제목: [세계식문화 연구가 양향자의 간편 레시피] 남녀노소 좋아하는 '닭 강정'  
날짜: 20151214  
기자: 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50200904  
ID: 01100701.20160108050200904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닭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두뇌활동을 촉진하며 우리 몸의 간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닭고기 속의 섬유질은 가늘고 연해 지방이 근육섬유에 속하지 않아 소화흡수가 잘된다. 특히 닭고기는 질 좋은 지방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임산부들에게 좋은 식품이다. 또한 닭고기에는 불포화지방산과 리놀레산이 함유돼 있어 암 발생을 억제하고 동맥경화,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br/> 사진=세계음식문화연구원 제공 <br/>재료 ▲닭 300g ▲청고추 1개 ▲홍고추 1개 ▲마늘 2개 ▲전분 200g ▲소금 ▲후추 ▲생강즙 1작은술 ▲청주 1큰술 ▲계란 1개 <br/> <br/>만드는 법 <br/> <br/>1. 닭은 토막을 낸 다음 소금, 후추, 생강즙, 청주를 넣어 밑간을 한다. <br/>2. 1에 전분을 무친다. <br/>3. 전분에 계란을 넣고 물을 부어서 반죽을 걸죽하게 한다. <br/>4. 170도 식용유에 2번 튀긴다. <br/>5. 마늘을 편으로 썬다. <br/>6. 청고추, 홍고추는 반 갈라 씨를 털어낸 다음 잘게 다진다. <br/>7.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넣고 볶다가 홍고추, 청고추를 넣고 볶는다. 그 다음 간장 3큰술, 설탕 3큰술, 청주 3큰술을 넣고 볶다가 튀겨놓은 닭을 넣어 볶는다. <br/> <br/>< (사) 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78.txt

제목: [세계식문화 연구가 양향자의 간편 레시피] 남녀노소 좋아하는 '닭 강정'  
날짜: 20151214  
기자: 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5112509852  
ID: 01100701.2015121511250985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닭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두뇌활동을 촉진하며 우리 몸의 간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닭고기 속의 섬유질은 가늘고 연해 지방이 근육섬유에 속하지 않아 소화흡수가 잘된다. 특히 닭고기는 질 좋은 지방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임산부들에게 좋은 식품이다. 또한 닭고기에는 불포화지방산과 리놀레산이 함유돼 있어 암 발생을 억제하고 동맥경화,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br/> 사진=세계음식문화연구원 제공 <br/>재료 ▲닭 300g ▲청고추 1개 ▲홍고추 1개 ▲마늘 2개 ▲전분 200g ▲소금 ▲후추 ▲생강즙 1작은술 ▲청주 1큰술 ▲계란 1개 <br/> <br/>만드는 법 <br/> <br/>1. 닭은 토막을 낸 다음 소금, 후추, 생강즙, 청주를 넣어 밑간을 한다. <br/>2. 1에 전분을 무친다. <br/>3. 전분에 계란을 넣고 물을 부어서 반죽을 걸죽하게 한다. <br/>4. 170도 식용유에 2번 튀긴다. <br/>5. 마늘을 편으로 썬다. <br/>6. 청고추, 홍고추는 반 갈라 씨를 털어낸 다음 잘게 다진다. <br/>7.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넣고 볶다가 홍고추, 청고추를 넣고 볶는다. 그 다음 간장 3큰술, 설탕 3큰술, 청주 3큰술을 넣고 볶다가 튀겨놓은 닭을 넣어 볶는다. <br/> <br/>< (사) 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79.txt

제목: 서울대병원 강형진 교수, 제 10회 김진복 암연구상 수상  
날짜: 2015121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50005563  
ID: 01100701.20160108050005563  
카테고리: 사회  
본문: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현진 교수><br/>강형진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12월 12일(토) 대한암연구재단에서 주최하는 서울국제암심포지엄에서 ‘제 10회 김진복 암연구상’을 수상했다. <br/> <br/>강 교수는 올해 4월 세계적인 암 전문 학술지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지에 게재된 ‘소아암환자에서 항구토제 에멘드 다국가 3상 임상시험 논문’을 통해 소아암환자에서도 효과적으로 구역 구토를 억제할 수 있게 된 공로를 인정받았다. <br/> <br/>본 연구는 소아 임상시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결과이며 한국이 주도한 소아 대상 연구로는 처음으로 영향력 지수가 높은 국제 학술지에 게재 됐다. <br/> <br/>김진복 암연구상은 위암 수술의 세계적 권위자인 고(故) 김진복 서울의대 명예교수의 뜻을 받들어 매년 암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80.txt

제목: 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2015년 연말워크숍 성료  
날짜: 2015121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5940083  
ID: 01100701.20160108045940083  
카테고리: 사회  
본문: <2015년 암정보교육센터?연말워크숍 단체사진>서울대학교병원 암정보교육센터는 12월 10일 (목) 오후 4시 30분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2015년 연말워크숍을 열어 한해 사업 내용을 보고하고 센터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br/> <br/>암정보교육센터는 2011년 개소 이후 암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 상담, 심리 정서적 지지 등 암 치료 결과 향상 및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포괄적 지원 서비스의 확립과 체계화를 마쳤다. 올해는 업무 표준화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에 주력함으로써 질적 성장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br/> <br/>올해 암정보교육센터의 일 평균 이용자는 80명, 상담/안내 건수는 27건이었으며, 23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약 4600 명이 참여했다. 암 정보 관리의 경우, 3종의 리플렛을 추가 개발하고 12종을 업데이트했으며 증가하는 외국인 환자를 위해 26종의 영문 동영상을 개발했다. 이 외에도 병원 음악회, 걷기대회 등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문화행사 역시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br/> <br/>강사, 암환우, 연주자, 대학생 등 월 평균 약 45명의 자원봉사자가 센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센터 운영을 도왔으며, 그 중 암 경험자인 환우자원봉사자가 17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암정보교육센터는 상담 및 정보 제공, 교육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발휘를 돕는 동시에 전문성과 특성을 갖춘 사람들이 보다 쉽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br/> <br/>서울대학교암병원(암병원장 김태유)은 이 날 12명의 강사 및 환우자원봉사자에게 감사패를, 26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br/> <br/>정현훈 암정보교육센터장은 “암 정보와 교육의 바른 기준을 마련하고 암 치료 여정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도와주신 자원봉사자, 교직원에게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많은 암환자들이 암정보교육센터에서 암 치료에 필요한 정보, 지원, 그리고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81.txt

제목: '레몬차’을 챙겨 마시면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나?  
날짜: 2015121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5910218  
ID: 01100701.2016010804591021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레몬차에 들어 있는 비타민C 성분이 콜라겐 재생을 강화해 혈색을 젊게 해주고 신진대사율을 강화시켜 혈액과 간장의 콜리스테롤 성분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밝혀졌다.<br/> <br/>12일 영국 데일리메일 매체는 헬스사이트 (DYLN)의 인포그래픽을 인용해 레몬차가 신체를 질병에 강한 알칼리성 변하게 해주고 에너지 및 재생 강화 효과가 탁월해 질병에 대한 면역성을 키워주고 노화 방지 및 체중 감량을 돕는다고 전했다. <br/> <br/>헬스사이트에 발표한 ‘아침에 일어나 레몬차를 마시면 인체 건강에 좋은 10가지 효과’는 다음과 같다. <br/> <br/>1.면역시스템을 완벽하게 충전시켜 강하게 해준다. 인체 내로 독감 또는 감기를 일으키는 세균이? 침투했을 때 레몬차의 비타민 C 성분이 발병을 억제해준다? <br/> <br/>2.동안 피부를 유지하게 해준다. 레몬차에는 비타민 C등 산화방지제 성분이 풍부해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억제해주고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br/> <br/>3.체중감소를 돕는다. 레몬차는 신체의 지방합성을 억제해 혈액과 간장의 콜리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br/> <br/>4.레몬차를 상시 복용하여 질병에 강한 알칼리 성으로 인체가 변화한다. 신장은 혈액의 pH농도가 7.4 수치 정도를 항시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레몬차에 이러한 효과가 있어 우리 몸을 약한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돕는다. <br/> <br/>5,레몬차는 슈퍼 소화제 역할을 하는데 대장과 소장 및 소화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고 몸 안에 남아 있는 독소의 배출을 돕는다. <br/> <br/>6.간장과 신장의 독소를 해독시켜 깨끗하게 해주는데 간장의 효소가 너무 묽어 졌을 때 혈액으로부터 독소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br/> <br/>7.에너지 활성제의 역할을 하는데 숙면을 취해도 평소보다 피곤함을 느낀다면 비타민 C가 풍부한 레몬차를 마시며 철분의 흡수를 도와 빈혈을 방지할 수 있다. <br/> <br/>8.레몬은 생체 내에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산소 라디칼 성분을 제거를 도와 암으로 발전되는 위험을 낮추는 항암 예방효과의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C의 형태로 암을 퇴치하는 항산화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br/> <br/>9. 레몬차에는 또한 두뇌와 신경세포의 정상적 기능을 도와주고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미네랄의 일종인 칼륨이풍부하다. <br/> <br/>10. 레몬차에는 항균물질의 특성이 적당하게 포함되어 있어 입 냄새를 제거해 상쾌함을 유지함과 동시에 잇몸 질환 억제해준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82.txt

제목: 서울대병원 강형진 교수, 제 10회 김진복 암연구상 수상  
날짜: 2015121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4144131566  
ID: 01100701.20151214144131566  
카테고리: 사회  
본문: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현진 교수> <br/>강형진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12월 12일(토) 대한암연구재단에서 주최하는 서울국제암심포지엄에서 ‘제 10회 김진복 암연구상’을 수상했다. <br/> <br/>강 교수는 올해 4월 세계적인 암 전문 학술지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지에 게재된 ‘소아암환자에서 항구토제 에멘드 다국가 3상 임상시험 논문’을 통해 소아암환자에서도 효과적으로 구역 구토를 억제할 수 있게 된 공로를 인정받았다. <br/> <br/>본 연구는 소아 임상시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결과이며 한국이 주도한 소아 대상 연구로는 처음으로 영향력 지수가 높은 국제 학술지에 게재 됐다. <br/> <br/>김진복 암연구상은 위암 수술의 세계적 권위자인 고(故) 김진복 서울의대 명예교수의 뜻을 받들어 매년 암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83.txt

제목: 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2015년 연말워크숍 성료  
날짜: 2015121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4120703576  
ID: 01100701.20151214120703576  
카테고리: 사회  
본문: <2015년 암정보교육센터 연말워크숍 단체사진>서울대학교병원 암정보교육센터는 12월 10일 (목) 오후 4시 30분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2015년 연말워크숍을 열어 한해 사업 내용을 보고하고 센터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br/> <br/>암정보교육센터는 2011년 개소 이후 암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 상담, 심리 정서적 지지 등 암 치료 결과 향상 및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포괄적 지원 서비스의 확립과 체계화를 마쳤다. 올해는 업무 표준화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에 주력함으로써 질적 성장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br/> <br/>올해 암정보교육센터의 일 평균 이용자는 80명, 상담/안내 건수는 27건이었으며, 23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약 4600 명이 참여했다. 암 정보 관리의 경우, 3종의 리플렛을 추가 개발하고 12종을 업데이트했으며 증가하는 외국인 환자를 위해 26종의 영문 동영상을 개발했다. 이 외에도 병원 음악회, 걷기대회 등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문화행사 역시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br/> <br/>강사, 암환우, 연주자, 대학생 등 월 평균 약 45명의 자원봉사자가 센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센터 운영을 도왔으며, 그 중 암 경험자인 환우자원봉사자가 17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암정보교육센터는 상담 및 정보 제공, 교육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발휘를 돕는 동시에 전문성과 특성을 갖춘 사람들이 보다 쉽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br/> <br/>서울대학교암병원(암병원장 김태유)은 이 날 12명의 강사 및 환우자원봉사자에게 감사패를, 26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br/> <br/>정현훈 암정보교육센터장은 “암 정보와 교육의 바른 기준을 마련하고 암 치료 여정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도와주신 자원봉사자, 교직원에게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많은 암환자들이 암정보교육센터에서 암 치료에 필요한 정보, 지원, 그리고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84.txt

제목: '레몬차’을 챙겨 마시면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나?  
날짜: 2015121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4085756861  
ID: 01100701.2015121408575686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레몬차에 들어 있는 비타민C 성분이 콜라겐 재생을 강화해 혈색을 젊게 해주고 신진대사율을 강화시켜 혈액과 간장의 콜리스테롤 성분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12일 영국 데일리메일 매체는 헬스사이트 (DYLN)의 인포그래픽을 인용해 레몬차가 신체를 질병에 강한 알칼리성 변하게 해주고 에너지 및 재생 강화 효과가 탁월해 질병에 대한 면역성을 키워주고 노화 방지 및 체중 감량을 돕는다고 전했다. <br/> <br/>헬스사이트에 발표한 ‘아침에 일어나 레몬차를 마시면 인체 건강에 좋은 10가지 효과’는 다음과 같다. <br/> <br/>1.면역시스템을 완벽하게 충전시켜 강하게 해준다. 인체 내로 독감 또는 감기를 일으키는 세균이  침투했을 때 레몬차의 비타민 C 성분이 발병을 억제해준다  <br/> <br/>2.동안 피부를 유지하게 해준다. 레몬차에는 비타민 C등 산화방지제 성분이 풍부해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억제해주고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br/> <br/>3.체중감소를 돕는다. 레몬차는 신체의 지방합성을 억제해 혈액과 간장의 콜리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br/> <br/>4.레몬차를 상시 복용하여 질병에 강한 알칼리 성으로 인체가 변화한다. 신장은 혈액의 pH농도가 7.4 수치 정도를 항시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레몬차에 이러한 효과가 있어 우리 몸을 약한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돕는다. <br/> <br/>5,레몬차는 슈퍼 소화제 역할을 하는데 대장과 소장 및 소화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고 몸 안에 남아 있는 독소의 배출을 돕는다. <br/> <br/>6.간장과 신장의 독소를 해독시켜 깨끗하게 해주는데 간장의 효소가 너무 묽어 졌을 때 혈액으로부터 독소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br/> <br/>7.에너지 활성제의 역할을 하는데 숙면을 취해도 평소보다 피곤함을 느낀다면 비타민 C가 풍부한 레몬차를 마시며 철분의 흡수를 도와 빈혈을 방지할 수 있다. <br/> <br/>8.레몬은 생체 내에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산소 라디칼 성분을 제거를 도와 암으로 발전되는 위험을 낮추는 항암 예방효과의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C의 형태로 암을 퇴치하는 항산화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br/> <br/>9. 레몬차에는 또한 두뇌와 신경세포의 정상적 기능을 도와주고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미네랄의 일종인 칼륨이풍부하다. <br/> <br/>10. 레몬차에는 항균물질의 특성이 적당하게 포함되어 있어 입 냄새를 제거해 상쾌함을 유지함과 동시에 잇몸 질환 억제해준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85.txt

제목: "커피향으로 암세포 제거한다고 전해라"  
날짜: 20151212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5628870  
ID: 01100701.2016010804562887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은은한 커피 향 성분으로 암세포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br/> <br/>지난 8일 포항공대 신소재 공학과 한세광 교수팀은 "커피 향을 내는 성분인 멜라노이딘에 빛을 쏘면 열이 발생하고 동시에 음파가 생성되는 특성이 있음을 처음 발견하고 이를 이용한 치료기법도 개발했다"고 밝혔다. <br/> <br/>멜라노이딘은 된장이나 간장을 발효 숙성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물질로 커피에서도 만들어져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br/> <br/>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멜라노이딘에 빛을 쏘이면 음파가 생성되는 특성을 발견했고 이를 의료영상에 적용해 멜라노이딘이 흡수되는 통로를 따라 내장기관의 의료영상을 촬영하는데 성공했다. <br/> <br/>또 다른 실험에서는 멜라노이딘이 빛을 받으면 열이 발생하는 특성을 활용해 빛을 가해 암세포가 파괴되는 온도인 43도 정도로만 열을 올려 주변 조직에 손상 없이 암조직만 파괴할 수 있었다. <br/> <br/>이 연구에 따르면 멜라노이딘은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X선·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료영상 촬영의 부작용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r/> <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화학회(ACS)가 발행하는 나노 분야 전문지 'ACS Nano' 최신호에 실렸다. <br/> <br/>김현주 기자<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86.txt

제목: "커피향으로 암세포 제거한다고 전해라"  
날짜: 20151212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2191240759  
ID: 01100701.2015121219124075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은은한 커피 향 성분으로 암세포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br/> <br/>지난 8일 포항공대 신소재 공학과 한세광 교수팀은 "커피 향을 내는 성분인 멜라노이딘에 빛을 쏘면 열이 발생하고 동시에 음파가 생성되는 특성이 있음을 처음 발견하고 이를 이용한 치료기법도 개발했다"고 밝혔다. <br/> <br/>멜라노이딘은 된장이나 간장을 발효 숙성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물질로 커피에서도 만들어져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br/> <br/>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멜라노이딘에 빛을 쏘이면 음파가 생성되는 특성을 발견했고 이를 의료영상에 적용해 멜라노이딘이 흡수되는 통로를 따라 내장기관의 의료영상을 촬영하는데 성공했다. <br/> <br/>또 다른 실험에서는 멜라노이딘이 빛을 받으면 열이 발생하는 특성을 활용해 빛을 가해 암세포가 파괴되는 온도인 43도 정도로만 열을 올려 주변 조직에 손상 없이 암조직만 파괴할 수 있었다. <br/> <br/>이 연구에 따르면 멜라노이딘은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X선·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료영상 촬영의 부작용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r/> <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화학회(ACS)가 발행하는 나노 분야 전문지 'ACS Nano' 최신호에 실렸다. <br/> <br/>김현주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87.txt

제목: [보험다모아 졸속 논란②] 비교기준 없어 혼란 가중  
날짜: 20151210  
기자: 김승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5011203  
ID: 01100701.20160108045011203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지난 11월 30일 오픈한 보험비교사이트 ‘보험다모아’의 인기가 급랭하는 모습이다. 오픈 첫날 6만여 명이 방문했지만 최근 방문자는 1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br/> <br/>보험다모아 인기 급랭 이유는 허술한 비교 기능 때문이다. 비대면채널 위주로 보험상품이 등재돼?있어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br/> <br/>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다모아는 단독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등 6개 카테고리의 보험상품을 몇 번의 클릭으로 실시간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다모아의 핵심인 비교 기능이 너무나 허술해 실제 소비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br/> <br/>한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맨 처음 보험다모아를 준비할 때는 모든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대면채널 상품의 복잡성으로 결국 비대면채널 상품만 비교하는 사이트가 되었다</span>”고 일갈했다. 이어 “비대면상품도 비교 기능이 너무 허술해 같은 카테고리의 상품을 그냥 다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br/> <br/>금융당국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보험비교사이트이지만 보험 상품을 제대로 비교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보험 상품 구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보험다모아에서 검색, 보험료 낮은 순위 상위에 나온 상품을 가입하다면 실제 좋은 상품이 아닐 수 있다. 소비자는 가장 보험료가 낮은 상품을 가장 좋은 상품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이다. <br/> <br/>전문가들은 인보험 상품을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성별 및 보험나이 △보장기간 △납입기간 △보장담보의 종류 및 범위 △보장자산 규모 등의 요건이 동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중에서 보장담보의 종류 및 범위와 보장자산 규모가 보험사마다 각기 상이해 가장 맞추기 힘든 부분이지만 최대한 비슷한 설정을 해야 비교할 수 있다. <br/> <br/>보험다모아에서 보험나이는 40세 남성 한가지뿐이다. 연령이나 성별도 변경, 선택할 수 없다. <br/> <br/>보험상품 중 주계약 규모가 크면서 구조가 단순한 상품이 바로 정기보험이다. 정기보험은 대부분의 생명보험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다모아에 등재되어 있는 정기보험은 대부분 CM상품이다. <br/> <br/>보험다모아에서 정기보험을 보험료 낮은 순으로 검색(남자 40세, 가입금액 1억, 10년만기(전기납), 월납, 최초계약기준)하면 KDB생명, 라이프플래닛, 삼성생명, 신한생명, 하나생명이 모두 보험료가 동일한 1만6000원으로 검색되며 미래에셋생명이 1만6300원이다. <br/> <br/>그러나 조건을 조금 변경해 남자 30세로 보험료를 산출하면 순위가 바뀐다. 신한생명 7000원으로 가장 저렴하며 그 뒤를 이어 하나생명과 KDB생명(8000원), 미래에셋생명(8100원), 라이프플래닛(8800원), 삼성생명(9000원) 순이다. <br/> <br/>보험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보험다모아에서 40세의 사망위험률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40세에만 보험료를 같게 만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각사가 책정하는 사망위험요율이 달라 나이가 달라지면 보험료도 달라진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는 각사의 위험률과 사업비 등을 고려해 책정해야 하지만 보험다모아에서는 보여주기 식으로 나열되어 세부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꼼수가 있을 수 있다”며 “보험다모아의 비교 기준만 보고 보험상품의 가성비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br/> <br/>이런 오류는 정기보험 이외의 상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br/> <br/>어린이보험 중 가장 저렴한 상품으로 검색되는 것은 KB생명으로 보험료는 2700원이다. 반면 가장 비싼 상품은 현대라이프로 6만6200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그러나 현대라이프는 5년 동안 보장받기 위해 단 1회만 납입하면 되는 조건이다. 만약 현대라이프 상품을 월납으로 납입한다면 매월 1100원 정도면 가능하다. <br/> <br/>그러나 이렇게 보험료만 비교하는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된다. KB생명 어린이보험의 보장은 암진단금 2500만원(고액암 5000만원, 소액암 150만원), 교통재해장해시 최대 500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입원비, 수술치료비 등이다. 그러나 현대라이프는 암진담금 2000만원(고액암 보장 없음, 소액암 200만원)과 수술치료비 등이다. 요컨대 현대라이프가 전체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보장 범위도 좁고 보장금액도 낮다. <br/> <br/>보험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현재 보험다모아에서 검색되는 모든 보험상품의 비교 기준이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향후 세부 항목을 선택해 비교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겠지만 현재는 금융당국이 단순한 비교를 위한 기준점이라도 지정해줘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지금의 모습으로 보험다모아가 유지된다면 소비자들의 혼란과 함께 민원도 대거 발생할 수 있다</span>”고 우려했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88.txt

제목: [보험다모아 졸속 논란②] 비교기준 없어 혼란 가중  
날짜: 20151210  
기자: 김승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0164328434  
ID: 01100701.20151210164328434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지난 11월 30일 오픈한 보험비교사이트 ‘보험다모아’의 인기가 급랭하는 모습이다. 오픈 첫날 6만여 명이 방문했지만 최근 방문자는 1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보험다모아 인기 급랭 이유는 허술한 비교 기능 때문이다. 비대면채널 위주로 보험상품이 등재돼 있어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br/> <br/>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다모아는 단독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등 6개 카테고리의 보험상품을 몇 번의 클릭으로 실시간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다모아의 핵심인 비교 기능이 너무나 허술해 실제 소비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br/> <br/>한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맨 처음 보험다모아를 준비할 때는 모든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대면채널 상품의 복잡성으로 결국 비대면채널 상품만 비교하는 사이트가 되었다</span>”고 일갈했다. 이어 “비대면상품도 비교 기능이 너무 허술해 같은 카테고리의 상품을 그냥 다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br/> <br/>금융당국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보험비교사이트이지만 보험 상품을 제대로 비교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보험 상품 구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보험다모아에서 검색, 보험료 낮은 순위 상위에 나온 상품을 가입하다면 실제 좋은 상품이 아닐 수 있다. 소비자는 가장 보험료가 낮은 상품을 가장 좋은 상품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이다. <br/> <br/>전문가들은 인보험 상품을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성별 및 보험나이 △보장기간 △납입기간 △보장담보의 종류 및 범위 △보장자산 규모 등의 요건이 동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중에서 보장담보의 종류 및 범위와 보장자산 규모가 보험사마다 각기 상이해 가장 맞추기 힘든 부분이지만 최대한 비슷한 설정을 해야 비교할 수 있다. <br/> <br/>보험다모아에서 보험나이는 40세 남성 한가지뿐이다. 연령이나 성별도 변경, 선택할 수 없다. <br/> <br/>보험상품 중 주계약 규모가 크면서 구조가 단순한 상품이 바로 정기보험이다. 정기보험은 대부분의 생명보험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다모아에 등재되어 있는 정기보험은 대부분 CM상품이다. <br/> <br/>보험다모아에서 정기보험을 보험료 낮은 순으로 검색(남자 40세, 가입금액 1억, 10년만기(전기납), 월납, 최초계약기준)하면 KDB생명, 라이프플래닛, 삼성생명, 신한생명, 하나생명이 모두 보험료가 동일한 1만6000원으로 검색되며 미래에셋생명이 1만6300원이다. <br/> <br/>그러나 조건을 조금 변경해 남자 30세로 보험료를 산출하면 순위가 바뀐다. 신한생명 7000원으로 가장 저렴하며 그 뒤를 이어 하나생명과 KDB생명(8000원), 미래에셋생명(8100원), 라이프플래닛(8800원), 삼성생명(9000원) 순이다. <br/> <br/>보험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보험다모아에서 40세의 사망위험률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40세에만 보험료를 같게 만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각사가 책정하는 사망위험요율이 달라 나이가 달라지면 보험료도 달라진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는 각사의 위험률과 사업비 등을 고려해 책정해야 하지만 보험다모아에서는 보여주기 식으로 나열되어 세부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꼼수가 있을 수 있다”며 “보험다모아의 비교 기준만 보고 보험상품의 가성비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br/> <br/>이런 오류는 정기보험 이외의 상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br/> <br/>어린이보험 중 가장 저렴한 상품으로 검색되는 것은 KB생명으로 보험료는 2700원이다. 반면 가장 비싼 상품은 현대라이프로 6만6200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그러나 현대라이프는 5년 동안 보장받기 위해 단 1회만 납입하면 되는 조건이다. 만약 현대라이프 상품을 월납으로 납입한다면 매월 1100원 정도면 가능하다. <br/> <br/>그러나 이렇게 보험료만 비교하는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된다. KB생명 어린이보험의 보장은 암진단금 2500만원(고액암 5000만원, 소액암 150만원), 교통재해장해시 최대 500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입원비, 수술치료비 등이다. 그러나 현대라이프는 암진담금 2000만원(고액암 보장 없음, 소액암 200만원)과 수술치료비 등이다. 요컨대 현대라이프가 전체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보장 범위도 좁고 보장금액도 낮다. <br/> <br/>보험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현재 보험다모아에서 검색되는 모든 보험상품의 비교 기준이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향후 세부 항목을 선택해 비교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겠지만 현재는 금융당국이 단순한 비교를 위한 기준점이라도 지정해줘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지금의 모습으로 보험다모아가 유지된다면 소비자들의 혼란과 함께 민원도 대거 발생할 수 있다</span>”고 우려했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89.txt

제목: 한전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최첨단 자동화시스템 도입  
날짜: 20151210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4822403  
ID: 01100701.201601080448224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br/> <br/> <br/>한전병원은 최근 진단검사의학과에 첨단 검사실 자동화시스템(TLA, Total Laboratory Automation System)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br/> <br/>검사실 자동화시스템이란, 환자에게서 채취한 혈액의 운반에서부터 분석·결과산출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검사시간을 최소화하고 정보전달의 신속화를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br/> <br/>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검사 속도가 빨라 결과를 얻는 시간을 기존의 1/3∼1/4 수준으로 대폭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작업으로 채취된 혈액(검체)을 처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오류를 없애 빠르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다. <br/> <br/>이번 검사실 자동화시스템은 벡크만쿨터(Beckman Coulter)사의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Power Processor'를 도입함으로서 자동생화학분석기 2대와 자동면역 분석기 3대가 연결되어 생화학, 진단면역등 주요 진단 분야를 하나의 트랙(Track)으로 연결하여 검사 전 발생 가능한 오류 방지와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으며,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지질검사, 심장기능검사, 종양표지자 (암관련)검사 등을 비롯하여 향후에 도입될 모든 검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br/> <br/>또한 채취된 환자 검체를 운반 후 자동혈청 분리, 검사 처방별 검체 분주, 각 각의 장비로 자동 운반되어 로딩과 동시에 전산접수 기능을 수행하여 바코드 에러, LIS에 의한 검사항목 정보 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체 자동분리시스템 및 검체 캡(CAP)의 자동 제거를 통해 결과 검증, 결과 전송, 검체 회수가 가능한 생화학/면역학 검사 검체 구분 없이 모듈에 장착 가능한 시스템이다. <br/> <br/>진단검사의학과 전경소 주임과장은 "검사실 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검사실 내의 검사 업무를 자동화하여 검사 보고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입원환자의 재원일수 및 외래환자의 검사대기 시간을 단축하여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검사량이 증가해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병원 경쟁력을 고취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선진화된 검사실 환경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r/> <br/>한편 한전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국내외 검사실 인증 심사에 참여하여 검사실 운영, 진단혈액검사, 임상화학검사, 임상미생물검사, 수혈의학, 진단면역검사, 조직적합성 검사, 분자진단검사, 종합검증, 현장검사에서 우수 검사실로 인증을 받는 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90.txt

제목: 국립암센터, 2년 연속 '최우수 공공보건의료기관' 선정  
날짜: 20151208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194517067  
ID: 01100701.20160107194517067  
카테고리: 사회  
본문:   <br/> <br/> <br/>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176개소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br/> <br/>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분야는 △공공성 강화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안전망 기능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총 4개 영역이다. <br/> <br/>국립암센터는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특히 재가암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저소득 성인 암환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한국형 완화의료모델 확립을 위한 사업준비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br/> <br/>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은 "공공의료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차별화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br/> <br/>한편 국립암센터 사회사업실 박아경 의료사회복지사가 저소득 계층의 암환자를 위한 사회경제적 지원 및 의료취약계층 후원 체계 강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91.txt

제목: 포스텍 임현석 교수팀, 암 세포 '킬러' 약물 개발  
날짜: 20151208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194445869  
ID: 01100701.2016010719444586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포스텍(포항공대) 임현석 교수팀이 비정상적인 단백질 상호작용을 직접 조절해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킬러’ 약물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br/> <br/>8일 포스텍에 따르면 임 교수팀은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암 유발단백질인 Skp2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방해해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사멸시키는 표적 항암제 후보물질을 개발했다. 이 연구결과는 화학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안게반테 케미를 통해 발표됐다. <br/> <br/>Skp2 단백질은 암세포에서 과다하게 나타나며, 비정상적인 단백질 상호작용을 통해 암세포가 몸속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암유발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런 Skp2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단백질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물질은 효과적인 항암제가 될 수 있지만,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물질을 발굴하는 일은 큰 난제로 여겨지고 있다. <br/> <br/>연구팀은 우선 단백질 상호작용에 효과적인 거대고리(12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진 원형 구조)형 골격을 갖는 물질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16만개에 이르는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들 화합물들을 대상으로 초고속 검색을 진행해 암을 유발하는 Skp2와 p300 단백질 간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물질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br/> <br/>실험결과, 이 물질은 암세포의 성장은 효과적으로 억제하지만 정상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임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표적 항암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 <br/> <br/>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92.txt

제목: 포스텍 연구팀, 광음향영상 및 광열치료용 광음향소재 멜라노이딘 개발  
날짜: 20151208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194531204  
ID: 01100701.2016010719453120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커피를 로스팅할 때 나는 향의 원인이 되는 화합물 ‘멜라노이딘’을 광음향을 이용한 의료 영상 촬영, 항암치료, 지방흡입과 같은 성형수술에 활용하는 기술이 포스텍(포항공대)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 <br/> <br/>8일 포스텍에 따르면 이 대학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 연구팀은 창의IT융합공학과 김철홍 교수, 삼성종합기술원 이민영 박사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생분해성 광음향 소재 멜라노이딘을 합성, 광음향영상과 광열치료 기술을 개발했다. 이 연구결과는 나노 분야 세계적 권위지 ‘ACS Nano’지 온라인판을 통해 발표됐다. <br/> <br/>아미노산과 당의 메일라드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멜라노이딘은 흔히 식품 가공이나 저장과정에서 생겨나는 물질로 항산화작용이나 암 예방 물질로도 잘 알려져 있다. <br/> <br/>연구팀은 이 물질에 빛을 쐬면 음파가 생성되는 광음향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최초로 발견했으며, 이 물질을 이용해 암전이와 관계된 림프절과 내장기관의 의료영상을 촬영했다. <br/> <br/>이와 함께 멜라노이딘이 빛을 받으면 열을 내는 광열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응용, 동물실험을 통해 상대적으로 열에 약한 항암조직을 괴사시키고, 빛으로 지방조직만을 녹여내는 데에도 성공했다. 인체에 무해한 생체고분자인 멜라노이딘을 이용해 광음향 영상을 촬영할 경우, 멜라노이딘 자체가 생분해되어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X선 영상촬영이나 MRI와 같이 조영제를 이용하는 의료영상촬영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학계는 기대하고 있다. <br/> <br/>또, 이 기술은 항암 광열 치료뿐 아니라 지방조직을 절개 없이 제거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줄일 수 있어 최근 활발하게 시술되는 지방흡입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br/>한세광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멜라노이딘을 투여 후 빛을 이용해 의료영상 촬영이나 광열치료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첫 사례로 앞으로 새로운 포토메디슨 기술의 상용화에 적극 나설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br/> <br/>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93.txt

제목: 대한민국의 의료 기술로 세계를 교육한다  
날짜: 20151208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194428333  
ID: 01100701.2016010719442833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분당서울대학교병원(www.snubh.org, 원장 이철희)은 TEIN협력센터(www.tein.asia, 사무국장 김병규)와 함께 12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아시아 10개국 의료진 및 네트워크 전문가를 본원으로 초청해 “<span class='quot0'>유라시아 초고속정보통신망(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이하‘TEIN’)</span>”을 활용하는 MTC(Medical Tele Collaboration) & Master Leaders Class (이하‘워크숍’)를 개최했다. <br/> <br/> TEIN협력센터는 ASEM(Asia-Europe Meeting) 산하기구로 2012년 서울에 설립되어, 아시아 20개국과 유럽 34개국을 연결하는 TEIN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 및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기술을 접목한 의료, 물리, 기상, 문화 등 다양한 융합분야의 활동을 촉진하는 전문 기관이다. <br/> <br/>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TEIN을 활용해 인도, 베트남, 네팔, 파키스탄 등 해외 10개 국가 의료진에게 매 주 1회 온라인(Online)으로 라이브서저리(Live Surgery) 및 최소침습수술 등 의료교육을 시행했으며 또한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해 왔다. <br/> <br/> 이번 워크숍은 그간 온라인으로 교육한 복강경 수술기법 등 다양한 의료기술을 포함하여 원격의료에 필요한 네트워크 기술을 분당서울대병원과 오송애니멀 실험센터에서 동물(돼지)을 대상으로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 들을 통해 그간 분당서울대병원이 TEIN협력센터와 함께 수행해온 글로벌 의료교육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다양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br/> <br/> 이번 워크숍의 연구책임교수를 맡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암센터 한호성 교수(암·뇌신경진료부원장)는 “기존에 국내 의료진이 현지에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의료기술 전수에는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컸다. 앞으로는 원격교육 및 필요에 따라 초청교육을 통해 해외 각국의 의료수준을 향상시켜 국위선양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94.txt

제목: 대한민국의 의료 기술로 세계를 교육한다  
날짜: 20151208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08154852408  
ID: 01100701.2015120815485240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분당서울대학교병원(www.snubh.org, 원장 이철희)은 TEIN협력센터(www.tein.asia, 사무국장 김병규)와 함께 12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아시아 10개국 의료진 및 네트워크 전문가를 본원으로 초청해 “<span class='quot0'>유라시아 초고속정보통신망(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이하‘TEIN’)</span>”을 활용하는 MTC(Medical Tele Collaboration) & Master Leaders Class (이하‘워크숍’)를 개최했다. <br/> <br/>TEIN협력센터는 ASEM(Asia-Europe Meeting) 산하기구로 2012년 서울에 설립되어, 아시아 20개국과 유럽 34개국을 연결하는 TEIN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 및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기술을 접목한 의료, 물리, 기상, 문화 등 다양한 융합분야의 활동을 촉진하는 전문 기관이다. <br/> <br/>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TEIN을 활용해 인도, 베트남, 네팔, 파키스탄 등 해외 10개 국가 의료진에게 매 주 1회 온라인(Online)으로 라이브서저리(Live Surgery) 및 최소침습수술 등 의료교육을 시행했으며 또한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해 왔다. <br/> <br/>이번 워크숍은 그간 온라인으로 교육한 복강경 수술기법 등 다양한 의료기술을 포함하여 원격의료에 필요한 네트워크 기술을 분당서울대병원과 오송애니멀 실험센터에서 동물(돼지)을 대상으로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 들을 통해 그간 분당서울대병원이 TEIN협력센터와 함께 수행해온 글로벌 의료교육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다양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br/> <br/>이번 워크숍의 연구책임교수를 맡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암센터 한호성 교수(암·뇌신경진료부원장)는 “기존에 국내 의료진이 현지에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의료기술 전수에는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컸다. 앞으로는 원격교육 및 필요에 따라 초청교육을 통해 해외 각국의 의료수준을 향상시켜 국위선양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95.txt

제목: 이대목동병원, 온열암 치료 국제 학술대회 성료  
날짜: 20151207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3852038  
ID: 01100701.2016010804385203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지난 5일 'Oncothermia Treatment from Bench to Clinic'를 주제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제6회 대한온열암치료 학술대회'가 국내외 온열암 치료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마쳤다. <br/> <br/>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가 주최하고 이대목동병원이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50여 명의 의사 및 의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열암 치료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발표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br/> <br/>송창원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교수는 '온열암 치료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암조직은 정상조직에 비해 혈관이 덜 발달되어 있지만 국소 온열치료는 종양조직 내의 산소 분압을 상승 시키거나 항암제의 분포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암 줄기세포를 줄여주고 대식세포의 식세포 활동을 활발하게 하거나 세포독성 T cell의 작용을 활성화하는 등 암 면역 반응을 증진시켜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치료와 병용할 경우 암 치료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br/> <br/>또한 이윤한 연세대 교수는 국제열치료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Hyperthermia)에 게재된 자신의 논문을 인용해 "온열암 치료가 암세포의 세포자살(Apoptosis)을 유도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과 암 줄기세포를 줄여 주고 줄기세포 강도를 약화시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암 치료에 있어서 온열암 치료가 암 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br/> <br/>아울러 대만온열암치료연구회 회장이기도 한 치관화(Kwan-Hwa Chi) 대만 양밍국립대학 교수는 "온열암 치료, 특히 온코서미아(Oncothermia, 온열치료장비)는 암세포들의 세포간 교신 능력을 회복시키거나 열단백질의 발현, 세포자살사(Apoptosis)의 증가나 세포독성 항원특이성 T-세포의 증가 등 암 면역 반응과 관련된 여러 지표를 상승시켰다"며 "아울러 전 임상 시험에서 수지상세포요법의 암 치료 효과를 상승시켰다"고 발표했다. <br/> <br/>한편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김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은 "현재 국내에서 온열암과 관련한 전임상/임상 시험이 20개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임상시험들이 종료되는 2017년 또는 2018년에는 한국의 여러 연구들과 해외 연구들을 공유하는 국제학술대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96.txt

제목: 암 검진도 스마트하게, 암 발생 전에 싹을 찾는다  
날짜: 20151204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3141238  
ID: 01100701.2016010804314123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회장 동석호/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오는 5일 경희대학교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서울대 암연구소 김철우 교수는 '스마트 암검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br/> <br/>지금까지의 암연구는 암세포에 집중해왔다. 일반적으로 암세포는 특정 장기에 착상이 된 다음 1~2cm미만의 1기암으로 자라는데 7~10년이 소요되고 수많은 신체 혈액상의 변화를 야기한다. 또한, 암의 성장과 전이는 암세포 뿐만아니라 주변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관계에는 유전자, 단백, microRNA등 암세포를 성장시키고 주변에 적응시키는 많은 물질이 포함된다. 따라서 암환자의 혈액에는 암세포가 만드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주변세포들과의 관계에서 분비되는 물질 또한 중요한 표지자가 될 수 있고 스마트 암검사는 이런 요인을 고려해 개발됐다. <br/> <br/>김 교수팀이 개발한 '스마트 암검사'는 암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해 암이 있거나 암이 진행되기 전의 위험도 측정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암은 발병 후에 확인 가능한데 스마트 암 검진은 발병 전에 확인 할 수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6종류의 암(폐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며, 피검사자 건강에 따라 어떤 암에 취약한지,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다. <br/> <br/>또한 스마트 암검사의 기술을 활용해 만성생활습관질환에 대한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암 종합혈액검사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했다. 스마트 암 종합혈액검사는 심혈관기능, 면역기능, 당뇨성향, 대사증후군, 갑상선기능, 간기능, 신장기능, 혈액이상 등 8대 질환에 대한 위험도를 입체적인 결과로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지, 생활습관관리가 필요한지, 혹 치료 중인 환자는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합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br/> <br/>한편 스마트 암검사(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삼성암연구소 MRC, 바이오인프라 공동개발)는 2011년, 2015년에 보건복지부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97.txt

제목: 암 검진도 스마트하게, 암 발생 전에 싹을 찾는다  
날짜: 20151204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04102045430  
ID: 01100701.2015120410204543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회장 동석호/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오는 5일 경희대학교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서울대 암연구소 김철우 교수는 '스마트 암검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br/> <br/>지금까지의 암연구는 암세포에 집중해왔다. 일반적으로 암세포는 특정 장기에 착상이 된 다음 1~2cm미만의 1기암으로 자라는데 7~10년이 소요되고 수많은 신체 혈액상의 변화를 야기한다. 또한, 암의 성장과 전이는 암세포 뿐만아니라 주변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관계에는 유전자, 단백, microRNA등 암세포를 성장시키고 주변에 적응시키는 많은 물질이 포함된다. 따라서 암환자의 혈액에는 암세포가 만드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주변세포들과의 관계에서 분비되는 물질 또한 중요한 표지자가 될 수 있고 스마트 암검사는 이런 요인을 고려해 개발됐다. <br/> <br/>김 교수팀이 개발한 '스마트 암검사'는 암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해 암이 있거나 암이 진행되기 전의 위험도 측정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암은 발병 후에 확인 가능한데 스마트 암 검진은 발병 전에 확인 할 수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6종류의 암(폐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며, 피검사자 건강에 따라 어떤 암에 취약한지,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다. <br/> <br/>또한 스마트 암검사의 기술을 활용해 만성생활습관질환에 대한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암 종합혈액검사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했다. 스마트 암 종합혈액검사는 심혈관기능, 면역기능, 당뇨성향, 대사증후군, 갑상선기능, 간기능, 신장기능, 혈액이상 등 8대 질환에 대한 위험도를 입체적인 결과로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지, 생활습관관리가 필요한지, 혹 치료 중인 환자는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합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br/> <br/>한편 스마트 암검사(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삼성암연구소 MRC, 바이오인프라 공동개발)는 2011년, 2015년에 보건복지부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98.txt

제목: 서울시동부병원, 여성암환자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날짜: 20151203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2731260  
ID: 01100701.20160108042731260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br/> <br/> <br/>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은 올 한해 심리 및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여성암환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br/> <br/>일반적으로 암진단을 받게 되면 환자들은 질병에 대한 심리적 불안 및 진료비용과 같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혼란을 겪게 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 시기에 자칫 제대로 된 내적 지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동반되어 투병의지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br/> <br/>이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하 동부병원)은 한국인삼공사 정관장의 후원으로 암 완치자(멘토)와 암 투병 중인 환자(멘티)의 만남을 통해 서로 간의 공감대 형성 및 심리 및 정서적 독려를 이끌어내 암환자의 투병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다. <br/> <br/>이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와 멘티는 미술?음악?원예 요법 등의 다양한 과정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 최근에는 부산으로 멘토 ? 멘티, 동부병원 사회복지사가 함께 스트레스 극복 여행인 '힐링캠프'를 다녀오기도 했다. <br/> <br/>동부병원 '멘토링 프로그램' 담당 사회복지사는 "이 프로그램은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함께' 질병을 극복해나간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며 "멘토는 암치료에 대한 선경험을 바탕으로 힘겹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멘티에게 심리?정서적 지지와 확인된 정보를 제공해 질병 극복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br/> <br/>더불어 "앞으로도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많은 암투병 환자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99.txt

제목: 서울시동부병원, 여성암환자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날짜: 20151203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03105222014  
ID: 01100701.20151203105222014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br/> <br/> <br/>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은 올 한해 심리 및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여성암환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br/> <br/>일반적으로 암진단을 받게 되면 환자들은 질병에 대한 심리적 불안 및 진료비용과 같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혼란을 겪게 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 시기에 자칫 제대로 된 내적 지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동반되어 투병의지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br/> <br/>이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하 동부병원)은 한국인삼공사 정관장의 후원으로 암 완치자(멘토)와 암 투병 중인 환자(멘티)의 만남을 통해 서로 간의 공감대 형성 및 심리 및 정서적 독려를 이끌어내 암환자의 투병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다. <br/> <br/>이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와 멘티는 미술?음악?원예 요법 등의 다양한 과정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 최근에는 부산으로 멘토 ? 멘티, 동부병원 사회복지사가 함께 스트레스 극복 여행인 '힐링캠프'를 다녀오기도 했다. <br/> <br/>동부병원 '멘토링 프로그램' 담당 사회복지사는 "이 프로그램은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함께' 질병을 극복해나간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며 "멘토는 암치료에 대한 선경험을 바탕으로 힘겹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멘티에게 심리?정서적 지지와 확인된 정보를 제공해 질병 극복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br/> <br/>더불어 "앞으로도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많은 암투병 환자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